

주님의교회 25년사

글쓴이 최영재

최영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과정(Th. M.)에서 한국의 장로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16세기 청교도 계약사상에 대해 공부하고, 독일로 유학하여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과 성경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지복에 대한 숙고. 파라첼수스의 시편주석(Die Reflexion der Seligkeit. Der Psalmenkommentar Paracelsus)>라는 논문으로 독일 보쿰(Bochum)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논문을 쓰는 가운데 종종 한국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와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특히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는 명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교회 25년사》는,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1990년대 한국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동체 내에서 구현하려고 했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주님의교회 25년사

글쓴이 | 최영재

역은이 | 주님의교회 25년사 편찬위원회

펴낸이 | 박원호

펴낸곳 | 주님의교회 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전화 02-416-5181

홈페이지 www.pcltv.org

출판사 신고번호 | 25100-2011-000013

2014년 4월 20일 제1판 제1쇄 펴냄

디자인 (주)그래어소시에이츠

© 최영재, 주님의교회, 2014

비매품

주님의교회 25년사

최영재 씀

일러두기

1. <주님의교회 25년사>는 창립 25주년이 되는 2013년 6월까지의 사실을 바탕으로 씌어졌습니다. 다만, 6장에 수록된 '25년사 편찬' 내용에서는 이 책의 편찬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2014년 2월까지의 사실을 넣었습니다.
2. 이 책을 위해 당회록과 같은 공식 기록, 주보·〈함즐함울〉 등의 정기간행물, 교육자료, 일지, 편람, 오람, 미간행 역사 자료 등의 기록 자료를 1차 자료로 참고했고, 기록이 서로 다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보충했습니다. 본문과 부록으로 나누어, 내용에 따라 전체 교인 또는 관련 교인의 열람을 통해 사실의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 성경 혹은 관련된 인명과 지명을 인용할 때에는 특별 언급이 없는 경우 개역개정 성경(1998)에 따랐습니다.
4. 책 전체에 걸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5. 본문에서 필요한 경우, 근거를 밝히기 위해 각주를 달았습니다. 각주는 펼친 면 단위로 번호를 주어 구분했습니다.
6. 사진마다 관련된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붙여, 그 사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편찬 방침에 따라, 특정한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는 사진은 되도록 신지 않았습니다.
7. 부록과 연혁을 책 뒤에 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록의 차례는 부록 속표지에 넣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발간사

부르심에 응답한 25년!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부르심에,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개혁함의 소망으로,
그리고 거룩한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응답했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갈 바를 정하고 부르셔도 어려웠을 텐데,
갈 바를 몰랐기에 힘들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들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능력 ...
우리는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의교회!

비난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냐?”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가질 자신이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만은 확신했기에,

매달렸습니다.

가진 터전을 떠났는데,

다시 터전을 포기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삭을 버리듯이,

우리 자신도 버렸습니다.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그곳이 영원한 곳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축복이란 것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축복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교회”

하나님 은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신뢰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사명의 이름입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이 제단을 위해 기도하신 성도들의 헌신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을 향하신 주님의 소망을 기억합니다.

아멘!

담임목사 박원호

역사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기억

주님의교회는 이 나라에 올림픽의 열기가 가득했던 1988년 6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창립예배를 드리기 이틀 전인 24일에 모인 교회창립준비기도회에서 '주님의교회'라는 이름과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창립정신을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 이 창립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를 만들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무기명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학원의 대강당을 건축, 헌납한 후 다시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교회를 나타내는 특징이 되었고, 지금도 이 창립정신과 제도들은 교회 내에서 온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시간은 25년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짧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이 시간을 역사의 형태로 기록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50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의 역사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기억의 정리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립 당시 청년이었던 이들이 지금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도 있고, 창립과 교회 초기에 대한 증언을 듣는 중에 서로 기억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초기의 발자

취를 기록으로 만드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까닭입니다. 문서의 경우도 같습니다. 교회의 자료 보관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찾아 주님의교회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배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교회가 지나온 길을 정리하고 자료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자료 정리 이상의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과 사건의 나열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 역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파악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이 25년사를 통하여 동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역사하심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배움과 깨달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이어집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들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교회 25년사'는 궁극적으로 이를 위한 사역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교회 25년사'를 정리하는 서술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먼저 주님의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제도들이 대부분 창립정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창립정신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고, 25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서술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내적 발전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여섯 시대

로 나누었습니다. 인물 중심, 또는 주제별 등의 시대 구분도 가능하겠으나, 주님의교회의 경우, 인물보다는 창립정신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기억이라는 관점을 중시하여 서술했습니다. 목회자나 몇몇 인물 위주로 정리하지 않고, 각 시대별로 교회의 기본 요소인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를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감당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했습니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실증적 근거에 입각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 상충되거나 이견이 있는 기억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주님의교회'의 신앙고백을 받아들여, 있는 일을 감추거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일을 피하려 했습니다. 공과와 허실을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특정한 인물이나 견해에 대한 편견이 없이 서술되었음을 밝힙니다.

'주님의교회 25년사'는 '완결된 교회의 역사'도, '완전한 교회의 역사'도 아닙니다. 단지 지나온 25년을 되돌아보며 교회 공동체가 성찰의 기회로 삼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서술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필방향과 준비과정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임희국 교수님, 초기 역사에 대해 증언을 해주신 이재철 목사님과 김도묵, 홍근용, 양동훈, 황기언, 김경신, 이지화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은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미발간 '주님의교회 15년사'를 집필하시고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강치원 목사님, 정연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거나 증언해주신 여러 교역자와

장로님과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필을 제안하시고 후원해주신 박원호 목사님과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25년사 편찬위원과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대길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3:12)

2014년 2월 최영재

차례

발간사 | 부르심에 응답한 25년!

글쓴이의 말 | 역사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기억

1988

1 주님의교회 첫 걸음을 내딛다 19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모이게 하시다 20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다 23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 28

교회의 체계를 갖추고 예비하신 장소로 옮기게 하시다 32

1989~1994

2 뜻하신 틀을 갖추게 하시다 35

교회의 틀을 갖추게 하시다 36

교회의 기관 구성과 조직교회로 발전 | 교역자와 향존직 임기제 | 무기명 헌금 | 예배당 무소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 51

주일예배 | 저녁 찬양예배 | 수요예배 | 절기와 창립예배 | 가정예배 | 기도회 | 40일 특별새벽기도회와 릴레이 기도회 | 성찬식 | 세례식

말씀을 배우게 하시다 60

교회학교 시작 | 전교인 수련회 | 구역성경공부 | 성경읽기 대행진 | 장년교육 | 신앙사경회와 신앙대강좌

서로 돌아보게 하시다 70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71

해외선교 | 해외선교 후원 | 국내 농어촌 교회, 선교회 시설 지원 | 지역전도 | 개인 구제사업
| '사랑의 빵'과 '사랑의 밥그릇' | 호스피스 사역 | 전화상담, 무료 법률상담

1995~1998

3 정신학원으로 인도하시다 81

정신학원을 만나게 하시다 82

선교현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 발생 | 정신학원과 만남 | 정신학원 대강당 건축

이재철 목사 임기 마치고, 임영수 목사 취임하다 92

이재철 목사 이임 | 임영수 목사 취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다 97

주일예배 기도 인도 | 주일 낮예배 장소 이동 | 주일 저녁 찬양예배 | 절기예배와 예배문화

말씀을 폭넓게 배우게 하시다 103

성장하는 교회학교 | 청년예배 신설 | 교사양성대학 | 교사-학부모 기도회 | 장년 신앙교육 | 수련회 | 부흥사경회와 신앙대강좌 | 황성 수련원 개원

서로 교제하게 하시다 115

다양한 색채의 연주와 공연 행사 | 함즐함울 | 남포교회와 교류 | 정신학원과 관계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다 120

교회 안에서 | 교회 밖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다 123

사랑하는 남편 초청의 밤 | 방송과 인터넷선교 | 해외 형제자매 교회 | 환태평양 선교대회 | 선교사 파송 | 단기선교

1999~2002

4 내적 성장에 힘쓰며 섬기게 하시다 131

내적 성장에 힘쓰며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다 132

주님의교회가 나아갈 방향 재설정 | 경건훈련과 내적 성장 | 성경읽기와 묵상 | 특별 기도회
| 교역자 임기제 재논의와 안수집사·권사 임기제 폐지 | 행정장정 제정 | 정신여중고 대강당
현당예배와 증축 | 임영수 목사 위임과 사임 | 문동학 목사 청빙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 150

예배 형식의 변화 | 청년 찬양예배 | 수요성서강해, 수요성서학당과 수요예배 | 절기예배와 예
배 문화

배우며 섬기게 하시다 155

교회학교 | 교사양성대학 | 장년 신앙교육 | 여름수련회

서로 화목하게 하시다 162

구역 모임 | 드라마팀 | 국수 유포화 | 좋은 신앙서적 읽기 모임 | 교구의 날

교회를 섬기며 이웃과 북한동포를 돌보게 하시다 165

교회 안에서 | 교회 밖으로

아시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다 168

해외선교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 | 베트남 선교 세미나 | 태국 단독 선교
사 파송 | 단기선교 | 비전 캠프 | 러시아 선교 현장 방문

2003~2006

5 이웃과 함께하며 청소년 양육에 힘쓰게 하시다 175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하시다 176

새로운 비전 제시 | 교회의 영문 이름과 인터넷 홈페이지 | 15주년사 편찬위원회 | 교회 행정
과 재정의 투명화 | 담임목사 임기제 찬반 투표와 장로 10년 임기제 | 청소년 사역 비전팀과
후속 조치들 | 공휴사역위원회와 전도예배 '오늘' | 번식 교회 | 문동학 목사 사임과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시다 192

모든 교인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 경건 훈련 | 30Cup 찬양예배와 소그룹 모임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시다 198

아동부 | 어와나클럽 | 중고등부 | 청년부 | 교사 교육과 학부모-교사 기도회 | 장년 신앙교육
| 가정 사역팀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하시다 211

무지개 축제 | 교구 수련회 | 도서실 | '실만한 물가'와 '푸른초장' | 교회 내 친교 모임들 | 문화 공연들 | 함즐함울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다 218

하프타임 사역 | 전교인 무료 건강검진과 의무실 개설 | 북한동포를 향하여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 | 교통당하는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 자원봉사 사역 박람회 |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위탁 경영

복음을 전하며 번식하게 하시다 226

전도집회 | 학원선교—기도어머니와 사랑어머니 | 군선교 | 해외선교

2007~2013

6 하나님 나라 위한 알곡 공동체 되게 하시다 237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가 되게 하시다 238

제4대 담임 박원호 목사 부임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 | 12단계 성경공부 | 청소년 사역원과 국제교육선교센터 | 목적이 이끄는 40일과 겨자씨 모임 | 예수친구사역 |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 번식 교회 'J주님의 교회' 창립 | 창립 23주년 기념 설문조사 | 주님의교회 정관 제정 | 25년사 편찬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며 경건훈련을 하게 하시다 257

예배와 성례식에서의 변화들 | 다양한 형식의 예배 | 사경회와 기도회 | 사랑나무와 에바다 예배

신앙교육에 힘쓰게 하시다 262

아동부 | 어와나클럽 | 반가운학교 | 어린이 영어캠프와 수요 어린이 영어예배 | 예수님의 모
닝콜 | 청년부 | 창조질서 보존 운동-환경 강좌와 환경주일 캠페인 | 전교인 수련회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다 270

미술인선교회, 사진동우회 | 무지개축제 | 다양한 축하 음악회 | 연극 공연 | 인터넷 개편과
스마트폰 서비스 | 다채로운 행사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다 277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 | 탈북동포, 북한동포 돕기 바자회 | 재난을 당한 이웃을 위해 | 어
려운 이웃을 위해 | 늘푸른대학 | 어린이집 위탁운영

온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284

VIP 초청 주일과 새생명 축제 | CBS 방송설교 | 해외선교정책의 변화 | 해외 목회자 초청 선
교포럼 | 선교를 위한 교육

7 지난 25년을 돌아보며 비전을 품게 하시다 295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 진정한 '주님의교회' 됨을 위하여 |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의 주인

책 뒤에 부쳐 | 주님의교회 25년사를 펴낸 뜻 301

부록 305

연혁 449

1

주님의교회 첫 걸음을 내딛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모이게 하시다

1987년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당시 대형 교회 중 하나였던 사교회를 떠났다. 사교회는 당시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인에 맞추어 5년 전 건축한 예배당을 새로 증축하면서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선교와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물질적 성장 위주의 목회로 치달아가는 것에 점차 회의를 느끼던 참에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당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의 길로 들어서던 시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군사정권의 억압적 통치 체제가 민주화의 열기에 따라 막을 내리면서 모처럼 본격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희망을 기대하던 때였다. 1970년대의 산업화와 강남 개발 등의 여파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등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기독교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대형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던 때이기도 했다.

이 무렵, 1870년대 말부터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는 불과 100여 년 만에 전 국민의 15.9%(1985년 기준)가 믿는 주도적 종교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는 그보다 훨씬 오랜 전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볼 때,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

었다. 가장 큰 이유는, 개화 계몽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의식을 교육하는 일에 기독교가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서양 여러 나라에서 직접, 혹은 중국을 거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근대 교육 기관을 만들거나 근대 문물을 전달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근대적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에도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독교가 식민주의와 함께 유입된 당시의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에게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교세가 크지는 않았던 기독교 교회가 산업화 과정 이후 급속하게 자본주의화 되어가던 시대와 맞물리면서 목회의 양상에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에는 6·25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전통 윤리관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그 빈 공간을 물질주의와 세속적 출세의 가치관이 채우게 된 세태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들의 이런 세속적 욕망의 증가에 따라, 교회에서도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축복 중심의 전도와 목회가 나타났고, 덩달아 한국 교회도 외형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형 교회들의 등장은 교회의 본질이 마치 교회 건물에 있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거대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는 조류가 풍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조류에 실망하여 사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러나 참된 예배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고 있었다. 떠난 시기는 서로 달랐지만, 이들 중 몇 명이 서로 연락하면서 함께 주일마다 다른 교회를 찾아다녔다. 7쌍의 부부를 포함하여 모두 15명이었다. 김도목·강정혜, 홍근용·이영자, 양동훈·남현숙, 황기인·박두리, 이승배·고경숙, 조성복·우금희, 이용복·이성우, 이상경.

그들은 이렇게 6~8개월간 ‘예배 순례’를 한 뒤에 두 가지 교회 형태를

발견했다. 첫째는 개신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인 교인들의 ‘우리끼리의 교회’ 형태, 둘째는 목회자들의 ‘나 중심의 교회’였다. 이러한 교회 순례 경험들은 훗날 그들이 ‘주님의교회’의 원형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회 순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고 계속하기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안정되지 않았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문제가 생겼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일부에서는 교회 설립을 염두에 두면서 개인적으로 목회자를 수소문해보기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좀더 신중한 계획과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다. 한편 다른 일부에서 교회설립보다는 한결 간단한 성경공부를 규칙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성경공부 인도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교회를 섬기다가 떠나온 소설가 정연희 집사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을 소개했다. 여성 문인들의 성경공부 모임이었다. 정 집사가 소개한 성경공부 인도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강정혜·이영자 집사가 성경공부에 참석했다. 당시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이는 영락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담당하던 이재철 전도사였다. 모임에 참석하고 난 두 사람은 남자들에게도 한번 참석해보라고 권유해, 김도묵 집사도 이재철 전도사가 인도하는 벽산그룹 직장예배에 참여했다. 좋은 인상을 받은 그는 이재철 전도사에게 성경공부를 인도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87년 9월 22일부터 이재철 전도사가 인도하는 성경공부가 합정동에 있는 홍성사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홍성사는 이재철 전도사가 운영하던 출판사였다.

그 즈음, 같은 교회를 나온 이재원 장로와 김영숙 권사 가정에서 성경공부 모임에 합류했다. 장소가 비좁아 여성 문인들은 낮에, 사교회를 떠나온 일행은 밤에 모였다. 영락교회 교육부 전도사 사역 외에, 위 두 그룹과 콤 선교회의 성경공부까지 모두 세 그룹을 별도로 인도하는 것이 벅찼던 이재철 전도사는 사교회 출신 그룹들과 콤 선교회가 함께 공부할

것을 제안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고, 흥성사 공간은 비좁아졌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있는데 성경공부를 위해 합정동까지 가는 것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곧 장소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교회 출신 그룹과 콤 선교회는 1988년 3월 9일부터 거주지에서 가까운 강남 논현동 YMCA 4층에 있는 방을 빌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다

이미 합정동 흥성사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중에 이들은 교회창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몇 사람은 이미 교회 순례를 하던 시기에 개인적으로 교회창립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했고, 함께할 목회자를 만나 보기도 했다. 성경공부가 계속될수록 이재철 전도사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가 점점 커졌고, 그와 함께 교회를 창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교회창립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교회 출신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같은 구역원이거나 찬양대원이었다. 구역원들은 대체로 교회창립을 찬성하는 편이었지만, 후자는 이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반대했다. 어떤 이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이후 성경공부를 YMCA로 옮기고 나서 인원이 더 늘어나자 교회를 세우자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졌다. 결국 교회창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모임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교회창립을 원하는 이들에 게도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들과 뜻을 같이할 만한 목회자가 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이재철 전도사야말로 적임자로 보였다. 1988년 4월 중

순, 이들은 이재철 전도사에게 정식으로 교회창립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재철 전도사는 자신은 개척목회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며 문서선교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거절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두 달이 넘도록 설득과 거절이 계속되었다. 이들은 이재철 전도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교회창립과 관련해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좋으니 주일예배만 인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결국 이 전도사는 예배 장소가 구해지는 대로 주일예배를 인도해주시기로 동의했다.

예배 장소를 구하는 일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당시 성경공부를 하고 있던 YMCA 안에는 이미 새길교회가 있었고, 이들의 주 거주지인 개나리 아파트 주변의 어느 상가도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청년여성교육원 평생회원이었던 이영자 집사가 한 남동에 있는 청년여성교육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영자 집사와 함께 교육원을 돌아본 김도묵 집사는 그곳 지하 세미나실을 예배 장소로 결정했다.

이렇게 어렵사리 예배 장소가 마련되었고, 6월 19일 창립예배를 드리기로 정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재철 전도사는 전임목회에 대해 가족회의를 했고, 그 결과 목회를 거절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예배 장소와 일시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이재철 전도사가 거절하자 창립을 준비해왔던 이들은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는



주님의교회 초기 터전이었던 강남 YMCA 건물. 창립 전 초기 교인들은 흥성사를 거쳐 YMCA 건물에서 성경공부를 계속했다. 1988년 6월 26일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 건물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주님의교회는, 교인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YMCA 건물에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11월 1일부터 옮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재철 전도사를 다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이재철 전도사를 찾아가서 설득을 시도했다. 설득과 거절이 몇 번 반복되다가 결국 이재철 전도사가 교회창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예정일인 6월 19일에서 일주일 늦은 26일에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¹

교회창립 이틀 전인 6월 24일에 교회창립준비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는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졌으며, 강정혜, 김정신, 김도목, 김영숙, 김영희, 남현숙, 박두리, 이상경, 이성우, 이영자, 이용복, 이재원, 이재철, 정애주, 황기언, 홍근용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의 기본 사항들은 이때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금 사용

- ① 주일헌금(십일조, 감사주일) 중 50%는 대외적인 선교와 구제에 각각 50%씩 사용한다. 단, 특별헌금은 그 목적에 100%를 사용한다.

교회 운영

- ① 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정하다.

이재철, 이재원, 김도목, 황기언, 양동훈, 이용복, 이승우, 홍근용

- ② 임시 서기 : 강정혜로 정하다

1 교회창립과 관련한 이재철 현 백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의 기억은 약간 다르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성경공부보다 교회 개척의 제안이 먼저 있었는데, 이를 거절하자 두 번째 안으로 성경공부의 제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성경공부 제안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까 찾다니는 것도 힘들고, 주일마다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고통스럽다. 주일 한번이라도 일정하게 성경공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워하더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사교회에 다니는 자신의 친척들에게서, 교회가 싫어서 나간 그들과 함께 성경공부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충고를 받았다. 이에, 오히려 신학생 시절 스스로 목사 될 자격은 없으나 아무도 보살피지 않고 돌보지 않는 목회지를 맡기신다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이 떠올라 사교회 출신들에게 아직도 교회창립을 원한다면 수락하겠다고 연락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③ 교회 명칭을 ‘주님의교회’로 정하다.

④ 예배 시간 : 주일 낮예배 15:00 | 주일 찬양예배 17:00

수요 기도회 20:30

바로 여기에, 앞으로 창립하게 될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결정이 나온다. 당시 기도회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일헌금 중 50%를 대외선교와 구제에 사용하자는 안은 7 집사가 서원기도 형식으로 제안했고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 정신에서 출발한 이 내용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의 봉헌의 본질적 의미에 비추어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초기 종교개혁자 중의 하나이며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도 교회 수입의 절반은 빈민과 자선사업에 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 그럼에도 이 제도가 새삼스럽게 필요했다는 것은, 당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당시 대형 교회들이 거대한 교회 건물 건축에 몰두하는 것에 낙심한 사람들로, 바람직한 교회란 자신의 몸을 불리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 창립준비기도회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초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확고하게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헌금에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할 50%를 먼저 떼어두었다. 이 견해에는 첫 교역자였던 이재철 전도사도 적극 공감했는데, 이는 그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라는 관점과도 맞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1 “16. 교회 수입의 분배: 고대 교회 수입의 절반이 빈민에게 가던 것이 지금은 한푼도 가지 않게 만들었다. 교회법은 명백하게 사분지 일을 빈민들에게 배당하고 또 사분지 일을 감독에게 배당해서 손님 대접과 기타 자선사업에 쓰게 했다. (중략) 교회와 건물, 기타에 배당된 나머지도 필요한 때에는 빈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존 칼빈, 김종흡 외 역, 《기독교강요》 하, 생명의말씀사, 1986, 114쪽.

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천 방법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원칙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실천되었던 반면,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은 1989년 9월 평양노회에 가입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정식 교회 이름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교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정신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더욱 오랜 시간 갈등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교회의 기둥이 되는 두 가지 핵심 정신, 즉 평신도 측에서 제시한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교역자가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창립준비기도회 때부터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주일 낮예배 시간을 오후로 정한 것은 이재철 전도사가 1988년 12월 까지 영락교회 전도사로 사역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

주님의교회는 1988년 6월 26일 오후 3시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 지하 세미나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사교회 출신 일곱 부부 외에 쿰 선교회원들도 참여했으며, 아이들을 포함하여 53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창립예배 참석자 명단이다.

강정혜, 곽성기, 김경신, 김도목, 김미자, 김성민, 김순자, 김승미, 김애심, 김영숙, 김영희, 김용일, 김용상, 김의수, 김익수, 김종길, 김청자, 김현덕, 김혜진, 남홍렬, 남옥연, 남현숙, 노봉옥, 박두리, 박종서, 백성호, 안영희, 양동훈, 엄영희, 엄일용, 윤영신, 윤영익, 이동규, 이상경, 이승은, 이성우, 이영신, 이영심, 이영자, 이용복, 이재원, 이재철, 이지화, 정선인, 정애주, 정연희, 조형기, 조영

따라,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우선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금 전액을 첫 번째 구제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달 정도 물색한 결과, 창립예배 현금 전액 430만 원을 전라남도 여주시 묘도에 있는 운동네교회에 건축현금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8월 10일 삼일기도회 시간에 이 건축현금을 운동네교회 교역자에게 전달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해 추수감사주일 현금 전액도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결의한, “현금의 50%를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원칙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첫 번째 문제는, 현금의 나머지 50%만으로 교역자와 지회자, 반주자의 사례비와 최소한의 교회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교인 수가 늘기 전까지 적어도 창립 후 2~3년간은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서장을 맡은 이들이 자기 부서에 필요한 경비를 자신이 부담하거나 교회 비품을 자비로 구입하여 오는 경우가 많았다.



1988년 6월 26일 청년여성교육원 지하 세미나실 창립 예배 중 봉헌기도. 창립준비 기도회 때 특별현금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창립예배 현금 전액은 첫 번째 구제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금은 모두 430만원이었다.



주님의교회 첫 봉헌 전액을 헌금한 전남 모도 온동네교회. 창립하던 해 8월 10일 삼일기도회 시간에 이 헌금을 온동네교회 교역자에게 전달했다. 그해 추수감사주일 헌금 전액도 선교와 구제로 사용했다.

특히 창립을 주도했던 몇몇 집사들 중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이들은 시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교회를 섬기며 도왔다. 그들은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셨다는 기쁨에 겨워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스스로 구입하여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 놓았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헌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섬김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동참했다.

두 번째 문제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50%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였다. 우선 어떤 교회는 도와주고, 어떤 교회는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교회와 단체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의한 구제금 지급 항목들은 초기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회의 체계를 갖추고 예비하신 장소로 옮기게 하시다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6월 29일에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이재철 전도사와 이재원 위원은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효율적인 교회 운영을 위하여 세부 조직을 구성했다. 이 운영위원회는 1989년 1월 제직회가 구성되어 제직회 부서장이 업무를 넘겨받기까지 교회 일을 처리했다. 제일 먼저 조직된 기관은 청년회였다. 7월 17일에 20~30대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회를 조직했고, 8월 21일에는 이미 예배에 봉사하던 찬양대 임원들을 결정했다. 9월 11일 주일에 배 후에 30세 이상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여전도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임원들을 선출했다. 일주일 뒤인 18일에는 40세 이상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남선교회를 창립했다. 9월 11일부터 고명수 전도사가 사무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관들과 일꾼이 세워져 그들이 교회의 첫 일꾼으로 헌신했다.

창립예배를 드린 지 한 달 뒤인 7월 29일부터 월례기도회를 시작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9~12시까지였는데, 주로 외부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종종 목회자의 설교 대신 평신도 간증이 있었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기도회를 가졌다.

한남동 청년여성교육원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처음에 청년여성교육원과는 주일예배만 드리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수요일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고명수 전도사가 교회 사무장으로 일하게 되자, 사무를 볼 책상과 교회 비품을 보관할 캐비닛을 놓아둘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청년여성교육원측과 갈등을 불러왔다. 더욱이 이재철 전도사가 새벽기도회도 열기를 간절히 원한데다, 창립예배 때 50여 명이었던 교인 수는 3개월이 지나자

주일 낮예배 기준으로 7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예배 장소인 청년여성교육원 세미나실은 60여 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크기였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논현동 YMCA에 있던 새길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이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 1988년 11월 1일 월요일부터 YMCA 2층 예식장인 소망실에서 오전 6시에 새벽기도회를 드림으로써 바야흐로 논현동 시대가 열렸다. 11월 6일 주일부터 예배 시간을 조정하여 주일 낮예배는 오후 4시에, 찬양예배는 오후 6시에, 수요일예배는 오후 8시에 드리게 되었다. 매일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님의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다.

2

뜻 하 신 틀 을 갖 추 게 하 시 다

교회의 틀을 갖추게 하시다

교회의 기관 구성과 조직교회로 발전

1988년 창립 후 반년 동안 교회의 중요한 일정과 행사를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임시운영위원회였다. 1988년 말에는 제직회가 구성되었고, 1989년 1월부터 제직회 부서장 회의에서 대내외 중요 업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제직회 구성과 함께 제직들의 훈련을 위해 1월 28일에 박중순 목사를 강사로 초청, 제1회 제직수련회를 열었다. 교인 수가 꾸준히 증가해 1989년 8월 20일에 제2남선교회를, 27일에는 제2여선교회를 설립했다.

주님의교회는 1989년 9월에 열린 제74회 평양노회에서 노회에 가입했다. 증가된 교인 수에 합당하게 4명의 장로피택 허락도 받았다. 10월 11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이재원, 김도묵, 홍근용을 교회의 첫 장로로 선출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정규창, 황기언, 정재경, 양동훈을 안수집사로, 김영숙, 전선옥을 권사로 피택했다.

1989년 초부터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전도에 나섰고, 또 창립정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교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결국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YMCA 2층 소망실마저 예배 공간으로 비좁아졌다. 더 넓은 예배 장소를 찾던 중 같은 건물 4층의 대강당을 임대받아, 1990년

4월 1일부터는 대강당에서 주일 낮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찬양예배와 수요일예배 때는 계속 2층 예식장을 사용했다. 장년 교인의 증가는 자연히 교회학교의 성장을 가져왔고, 기존의 10평 크기의 교육관으로는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YMCA 연수실을 교회학교의 예배와 활동 장소로 사용하기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YMCA 회관 안에서 교회가 사용하는 공간들이 늘어나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초교과 단체인 YMCA 안에 특정 교회가 독점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결국 1989년 7월경, YMCA는 주일 낮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활동을 YMCA 밖에서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한편, 주일 찬양예배와 수요일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교인 수도 때때로 2층 소망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예배 장소로 YMCA 후문 맞은편에 있는 대봉빌딩 지하 110평을 임대했다. 20평은 교회 사무실로, 70평은 교육관으로, 나머지 20평을 식당 및 유아 예배실로 사용했다. 9월 2일에 교육관 입당예배를 드림으로써 대봉빌딩 교육관 시대가 시작되었다.

1990년 10월 14일 주일 2부 예배 때 장로 취임 및 장립과 집사 안수 및 권사 취임식이 있었다. 임시 부서장 회의의 결의에 따라 임직식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선물은 일절 주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일예배 때 임직식을 했다. 장로로 피택된 세 사람 중 이재원 장로는 이전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했기에 취임을 했고, 김도묵, 홍근용 집사는 장로 장립을 했다. 이 임직식에서 정규창, 황기언, 정재경, 양동훈은 집사 안수를 받았으며 김영숙, 전선옥은 권사로 취임을 했다. 이로써 주님의교회는 당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직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0년 5월부터 교회 행정 조직에 변화가 일어난다. 5월 6일부터 장로-안수집사 피택자 정기 모임이 매달 열렸다. 전년도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장로와 안수집사 피택자들로 이루어진 이 모임은 1996년 1월까지



1990년 10월 14일에 있었던 임직예배. 주님의교회에서는 임직을 맡는 것은 더 낮은 자세의 헌신을 서원하는 것이라고 보아, '축하한다'는 말보다 '수고하시겠다'고 인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이 해부터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선물을 일절 주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일예배 때 임직식을 하게 되었다.

계속되었다. 그동안 교회의 중요한 의사는 제직회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해왔지만, 5월 6일을 기점으로 장로-안수집사 피택자 정기 모임이 점차 그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정규창 집사를 제외하면, 제직회 부서장 회의와 장로-안수집사 피택자 연석회의의 구성원이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모임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 연석회의는 당회가 엄연히 구성된 1990년 10월 14일 이후에도 계속 존립했는데, 그 결과 당회와 제직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을 낳았다. 예컨대, 1991년 2~10월의 당회기록은 찾기 어렵다. 같은 시기의 주보에는 당회 및 안수집사 연석회의에 대해 공지되었지만, 당회록에는 이 기간의 기록이 전혀 없어 당회가 열렸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1992년 4월 5일부터는 연석회의 내용이 당회록에 실리기 시작했다. 결국 1996년 1월에 제직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 연석회의는 폐지되었다.¹

1 당회록 1996. 1. 7.

1990년 3월 21일에 이재철 전도사는 평양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다음해인 1991년 1월 30일에 이재철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임시 당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이재철 목사는 위임목사직을 겸손하게 사양했지만, 장로들은 이재철 목사에게 행정적인 업무 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담임목사보다는 위임목사로서 교회 사역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² 교인들은 이미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재철 목사가 위임을 받지 않아 미조직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재철 목사는 10년 임기제를 선언한 마당에 굳이 정년까지 목회자리가 보장되는 위임목사가 되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이재철 목사는 제안을 수락했고, 교회 공동체는 2월 10일 공동의회를 거쳐 이재철 목사를 위임목사로 맞기로 결정했다. 그해 6월 23일 창립 3주년 기념 주일에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창립 3년 만에 위임목사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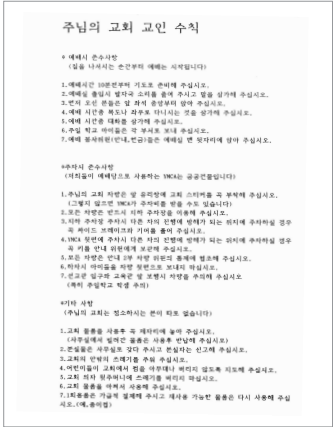
1989~1994년까지 주일 낮예배 평균 출석 교인은 매년 150명씩 증가했다.³ 이러한 추세는 자연히 예배 공간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대봉빌딩 지하를 교육관으로 임대했지만, 예배 공간이 부족해 1991년 3월 31일부터 소년부와 중등부가 YMCA의 603호와 602호를 예배실로 사용했다. 그런 가운데 1991년 말 YMCA가 회관의 1, 2층을 임대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주님의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2층의 100평은 수요 예배와 주일 찬양예배와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교육관으로 사용했고, 1층의 150평은 사무실과 2개의 세미나실 그리고 주방과 친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다. 교회학교는 대봉빌딩의 지하 공간을 계속 사용했다.

2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7조에 의하면 목사는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로 나누어졌다. 위임목사는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와 장로가 있어야만 당회를 구성할 수 있고, 조직교회가 될 수 있다. 당시 임시목사는 매년 노회에 시무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시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교회에 위임목사가 시무하느냐 임시목사가 시무하느냐에 따라 행정상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3 함즐함울 13호(1998. 7), 6쪽.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된 YMCA 공간을 ‘교육관’으로, 이미 사용하던 대봉빌딩 지하 공간을 ‘선교관’으로 불렀다. 한편 YMCA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자체 예배당을 가지지 않고 다른 기관의 건물을 임대해 예배실로 사용하므로, 교회 안팎에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배려하고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야 했으며, 또한 계속 증가하는 새 성도들에게도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주님의교회 교인수칙’이었다. 1993년 1월 17일부터 나누어준 교인 수칙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예배드러온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실 출입할 때와 예배 중 지켜야 할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YMCA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예배실의 관리와 교회 비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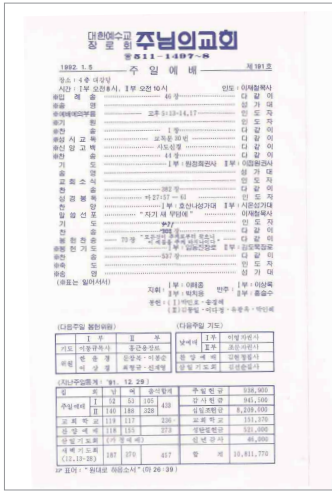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교인 수칙. 교인 수가 늘어나고 사용 공간이 더 필요해지면서 YMCA외에 대봉빌딩까지 임대 사용하게 되었다. 교회 안팎에서 교회 공동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질서와 규칙에 대한 존중이 요청되었으며, 또한 계속 증가하는 새 성도들에게도 이를 전달할 필요에 따라 교인 수칙이 만들어졌고, 1993년 1월 17일부터 배포되었다.

교역자와 향촌직 임기제

‘주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창립정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제도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하나는 1992년부터 후보에서 교역자와 시무장로의 이름을 삭제한 것이었다. 교회가 창립된 이래, 장로가 없어 당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미조 직교회 상태일 때는 후보에 교역자의 이름을 신지 않았다. 그러다 1990년 10월 14일 장로 임직식을 한 바로 다음 주일부터는 후보에 부교역자와 시무장로의 이름을 신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목사의 이름은 표기하면서도 담임목사의 이름은 여전히 수록하지 않았다. 1991년 말 당회에



‘주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창립정신에 충실하게 바뀐 1992년의 주보.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창립정신은 주보에서 교역자와 시무장로의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착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임기제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서는 다음해부터 주보에 장로와 부목사의 이름도 신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 결정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부각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피하고,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후 주보에는 예배 봉사자들의 이름만 실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교역자와 중직자의 임기제였다. 당회원의 임기제는 현재 주님의교회의 창립정신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으로 정관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임기제가 창립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임기제의 대상이나 방법도 시행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한 것은, 임기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논의되고 결의되었는지에 대한 관계자들의 기억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 교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교회창립에 참여한 초기 교인들은 임기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교회가 창립된 1988년에는 교인 수가 적어서 종종 주일 저녁에 공동 식사를 했다. 그해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인 12월 25일 저녁 찬양예배 후에 김도복 집사 자택에서 전 교인을 위한 만찬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이재철 전도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 같은 분들인데, 한 교회를 섬기시다 하늘나라 가실 때 장례예배를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재철 전도사가 계속해서 주님의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가운데는 ‘당신이 그런 마음이라면 나도 당신과 평생 함께 가겠다’고

결심한 이도 있었다.¹

이 인터뷰에 의하면, 초기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1988년 말까지만 해도, 임기제라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임기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된 것은 창립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당시 이재철 전도사가 설교 중에 자신은 앞으로 10년 동안만 주님의교회를 섬기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로도 그는 설교 시간과 성경공부 시간에 10년 임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아마도 초기에는 이것이 임기제가 아니라 이재철 전도사 자신의 장래 계획으로 교인들에게 해석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재철 목사에 의하면, 그는 처음부터 당회원과 항존직의 임기제를 하나의 제도로 고안했음을 밝히고 있다.² 이렇게 이해의 깊이와 관점이 서로 다른 가운데 거론되기 시작한 임기제가 당회나 제직회에서 결의되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기억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³

지금 남아 있는 당회록과 여러 기록물을 근거로 임기제 결정 과정을

1 초기 교인 인터뷰 녹취록, 2012. 11. 25.

2 이재철 목사는 자신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해서 교인들에게 발표한 것은 1988년 말 혹은 1989년 초였으며, 설교시간과 당회와 제직회에서 이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0년 9월 초에 피택장로들과 교역자로 구성된 예비 당회를 열어, 자신이 담임 목회자의 임기 10년을 주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장로도 임기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여, 그 예비당회에서 목사는 10년, 장로는 안식년 1년을 포함해 13년의 임기를 두기로 정했다고술했다. 이재철 목사 인터뷰 녹취록, 2012. 12. 12.

3 이재철 목사는 1991년 8월 제직회에서 임기제에 대해 논의하여, 담임목사는 안식년 포함 10년, 부목사는 안식년 포함 7년, 장로는 안식년 포함 13년을 임기로 하고, 장로의 경우 임기를 마친 후에는 백의종군하기로 결의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초기에 임직한 김도목, 홍근용 장로 외에 몇몇 장로들은 임기제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시기를 좀더 후대로 잡는다. 이들은 이재철 목사가 임기제를 결의했다고 말하는 제직회와 예비당회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고, 이재철 목사가 일찍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임기에 대해 선언하긴 했지만, 교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결의하여 시행된 임기제는 2대 장로 임직식 때 임직하는 장로들이 임기제 서약을 한 경우였다고 밝혔다. 이때, 2기 장로들이 1기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임기제를 서약하지 않았으니 정년까지 장로직을 감당해도 된다”라는 농담도 있었다고술했다. 위 초기 교인 인터뷰와 이재철 목사 인터뷰 녹취록.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볼 수 있다.⁴

처음, 이재철 목사가 1989년부터 설교와 성경공부 시간에 10년 임기제를 선언했다. 1990년 9월 초 예비 당회에서 장로임기제를 제안했을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결정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제2기 장로 피택 방법 논의 과정에서 장로의 임기제가 수용되었다. 그해 집사 안수를 받고 봉사하는 이들을 장로 피택 후보자로 세우는 결정에 따라 정규창, 황기언, 정재경, 양동훈 집사가 피택 후보자가 되었다. 황기언 집사가 피택 후보를 극구 사양하자, 선거관리 위원들은 사퇴를 받지 말고 선거를 하자고 제안했다. 황기언 집사는 1기 장로들과 함께 주님의교회를 창립한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여러모로 활발히 봉사하고 있던 이였지만, 교회 내의 중요한 직분에 피택 될 때 자주 사퇴를 하곤 했다. 이에 1기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이 그의 사퇴를 받아들이지 말고 선거를 통해서 피택된 만큼 장로로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하자고 나선 것이었다. 이재철 목사는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1기 장로들에게 장로임기제를 제시했다. 자칫 교회 내에 특정한 인물들이 장로와 같은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면,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며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염려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재철 목사는 6년 봉사하고 1년 안식 후 다시 6년 봉사하는 장로 임기제를 제시했다. 그러자 장로들은 담임목사가 자신의 임기를 10년으로 선언한 마당에 자신들의 임기를 12년 이상 하겠다고 할 수 없어 이 목사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찬성했고, 이로써 장로 임기제가 시작되었다.

4 임기제의 결의와 시행 과정에 대한 공동체 내의 기억과 자료의 차이와 혼란에 따라, 이 글에서 임기제에 관한 내용은 확보가 가능했던 당회록 등의 문서 자료와, 의견이 일치하는 관계자의 녹취록 내용에 기반했음을 밝힌다.

1992년 6월 21일 주일에 창립 4주년을 맞아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이 때 장로로 장립된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집사는 일반적인 장로장립 서약 외에 6년 봉사한 뒤 1년을 안식하고 다시 6년 봉사한 뒤 은퇴한다는 서약을 했다. 장로의 임기에 대하여는 이미 결의했지만 임직식에서 서약을 받음으로써 장로 임기제를 확고히 정착시키려는 이재철 목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장로 임기제가 결정된 다음해인 1993년 1월 12일에 열린 당회에서 부교역자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시무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당회에서 논하기로 결의했다.¹ 하지만 2월 14일에 열린 당회에서는 부교역자에 대한 임기만을 결정하고 안수집사와 권사에 대한 임기는 결정하지 않았다.

아래는 2월 14일에 열린 당회 기록이다.

3. 전임 부교역자(부목사, 전임전도사)의 임기를 7년으로 하기로 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갖기로 하다. 안식년 기간 중 신수비는 지급하기로 하고 선교사나 개척교회를 원할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하다.
4. 교육전도사의 임기는 안식년 없는 6년으로 하기로 하고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이 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6년을 적용하기로 하다.²

이날 결의되지 않았던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기제는 1995년 9월 임직자 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으로써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95년 9월 24일에 장로 5인, 안수집사 10인과 권사 10인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다. 1차 투표에서는 피택자가 나오지 않았다. 2주 뒤에 실시한 10월 8일의 2차 투표에서 장로에는 황기언 집사가, 안수집사에는 김현덕이, 권사에는 김화진이 피택되었다. 10월 15일에 실시된 3차 투표

1 당회록 1993. 1. 12.

2 당회록 1993. 2. 14.

에서 이지화와 김재현이 안수집사로, 송경녀, 이동순, 임선자가 권사로 피택되었다. 예년의 선거와는 달리 1995년의 2차 투표는 2주 뒤에 치러졌는데, 이는 선거 기간 중 있었던 사전 선거운동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기존 교회에서 낙심한 이들이 소문을 듣고 주님의교회를 찾아오는 일이 잦았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오기도 했지만, 소그룹이 옮겨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그룹들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게 되면서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은 1995년 장로 선거에서 불거졌다. 특정인을 둘러싸고 당선시키려는 측과 낙선시키려는 측 사이에 사전 선거운동이 나타났으며, 양쪽에게서 전화를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교회에도 여타 교회처럼 좋지 않은 행태가 있음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분위기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재철 목사는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기제 시행을 적극 추진했고, 결국 1995년 11월 5일 장로와 안수집사가 함께 모인 연석회의에서 안수집사와 권사직에도 임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권사는 항존직이며 엄연한 봉사직인데 임기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임기제는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위협성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이재철 목사의 주장은 연석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건이 연석회의에서 부결되자 이재철 목사는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의 회장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었고, 그 결과 임기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중도적인 입장에 있던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임기제에 대해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임기제를 수용하는 인원이 3분의 2이상 모이자, 권사회와 안수집사회의 공식 입장은 임기제 찬성으로 정해졌다. 거의 6개월 동안 임기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던 후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는 최종 결정을 당회가 하도록 위임했다.

1996년 3월 6일의 당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기제 도입이 다시

거론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결정은 내리지 못한 채 좀더 숙고한 뒤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루었다. 한 달 뒤에 모인 당회에서도 이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당회에서 찬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결국 5월 9일 당회에 이르러서 임기제 시행이 결정되었다.

11. 안수집사, 권사도 목사, 장로와 같이 임기제를 하기로 하고,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기는 안식년 유무와 상관없이 각각 10년, 12년으로 하다.¹

사실 담임목사의 임기에 대해서도, 공식 기록에 의하면, 이재철 목사가 스스로 10년 임기를 선언한 것 외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된 적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날의 당회에서는, 이러한 저간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인 듯, 담임목사의 임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정해 기록으로 남겼다.²

14. 담임목사 퇴임 시기를 98년 6월로 할 것인지, 혹은 12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기로 하고, 담임목사 임기는 10년으로 하기로 하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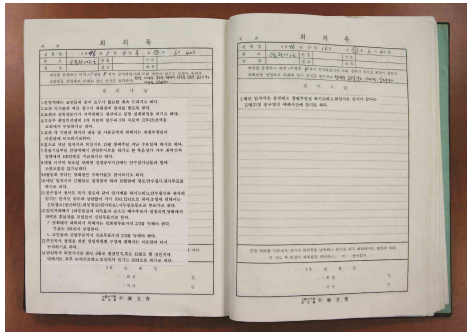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린 당회에서 “이재철 목사는 만 10년 되는 1998년 6월 말 퇴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그 몇 달 전인 1996년 3월 6일 당회에서 이재철 목사는 앞에서 언급한 안수집사·권사 임기제 도입 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1 당회록 1996. 5. 9

2 이재철 목사는 제직회가 상위의 의결기관이므로 당회에서는 결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1996년 5월 9일의 당회의 내용은 이미 결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술회했다. 안타깝게도 제직회록(1989. 1~1997. 2)이 분실되어 이 주장을 확인할 길이 없고, 1990년 9월 초의 예비 당회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주보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장로-안수집사 피택자 모임이 1990년 5월 6, 13, 27일, 6월 24일, 7월 22일, 9월 2, 16일, 10월 7일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그중 회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6월 24일 회의와 10월 7일 회의이나, 그 기록에는 임기제에 관한 언급은 없다. — 이재철 목사 인터뷰 녹취록.

3 당회록 1996. 5. 9



안수집사와 권사에게까지 임기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1996년 5월의 당회록.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교회의 운영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교역자와 장로 등 당회원뿐 아니라 안수집사와 권사도 임기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공식 기록이다. 안수집사와 권사에 대한 임기제는 2000년 7월 8일 철회되었다.

당회원들이 정말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들의 1기 임기가 끝난 뒤 교인들의 신임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장로들만 신임투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남은 임기에 대해 신임투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4월 당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한 달 동안 각자 기도하며 생각해본 뒤 다음 당회에서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임투표 규정의 첫 번째 대상자인 김도묵 장로

가 “첫 번 6년도 소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무슨 염치로 6년을 더하겠다고 신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나는 6년으로 족하다”고 견해 표명을 하자, 당회원 신임투표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유례가 드문 제도였던 당회원과 향존직의 임기제는 이처럼 오랜 시간 숙고와 우여곡절 끝에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이러한 시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임기제는 이재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주님의교회’의 창립정신에 근거해 제안한 제도적 실천방안이었는데,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임기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재철 목사의 의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임기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제가 추진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이 남았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데다 논의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던 탓에, 1996년 당회에서 당회원과 향존직의 임기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임기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급기야 2000년 7월 8일에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기제

가 철회되었고, 2011년 12월 7일 정관이 제정되어 명문화 될 때까지 임기제 자체에 대한 여러 관점의 논란이 간헐적으로 제기되곤 했다.¹

무기명 헌금

창립정신에 따라 헌금의 50%를 대외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실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초창기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봉헌에 대한 견해는 여느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부터 헌금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 1992년 5월 17일에 주님의 교회의 큰 특징 중 하나인 무기명 헌금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초창기에는 헌금의 50%를 대외선교와 구제비에 사용하느라 교회 내 재정이 부족해지자, 여느 교회처럼 1989년 7월에는 전도사의 사택과 여름수련회 경비를 위해, 1991년 1월에는 교육관 입주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표액을 정하고 특별헌금을 하기도 했다. 1989년 특별헌금을 할 때 누군가 봉헌봉투에 '사택용'이라고만 쓰고 봉헌했다. 이것이 무기명 헌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² 당시 이재철 전도사는 1989년 10월 8일~12월 2일까지 새벽기도회에서 <역대기>를 강해하면서, 무기명 헌금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발견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 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은

1 임기제에 대한 논란의 근거 중 자주 논의되는 것은 주님의교회가 속한 교단인 총회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 조문에 대한 독자적 적용이 아니라, 제정 취지에 대한 해석 차원의 문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여러 교회에서 임기제를 실천하고 있는 현상은, 교회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소유가 되는 것에 대한 반성이 교계에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함즐함울 88호(2004. 6. 27).

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역대상 29: 12~14)



주님의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헌 봉투.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한 가지 색깔로, 한 봉투로 여러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디자인 되어 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한 무기명 헌금 제도는 1992년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무기명으로 할 경우 헌금이 줄어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후에 헌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 말씀을 통하여 봉헌할 때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므로, 봉헌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무기명 헌금 제도는 바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1990년 11월 25일에 열린 당회에서 이재철 목사는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 설치하고 들어가면서 봉헌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

견은 당회의 동의를 거쳐 12월 한 달 동안 광고를 한 뒤에 1991년 1월부터 실시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월 첫째 주부터는 후보에 헌금자 명단을 신지 않기 시작했다. 이듬해 5월까지 후보에 헌금자 명단이 실리지 않았지만, 봉헌봉투에는 여전히 드린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썼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정한 의미의 무기명 헌금이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어 2년 뒤인 1992년 5월 3일 열린 당회에서, 이재철 목사가 봉헌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고 드리는 무기명 헌금을 제안했다. 무명으로 헌금을 하면 헌금이 줄어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회는 5월 17일 주일부터는 모든 봉헌봉투에서 이름 난을 삭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하여 5월 17일 주일부터 전교인이 무기명으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헌금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증가했다.

무기명 헌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자세이다. 이는 창립 초기부터 교회

에 필요한 비품을 자비로 구입해 아무도 모르게 갖다놓았던 교인들의 신앙 태도에서 비롯했을 거라고 여겨진다.

무기명 헌금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신이 드린 헌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12월 12일의 당회에서는 세법 적용에 필요한 기부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봉헌 봉투에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를 쓰도록 결정했다. 무기명 헌금의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도, 현실적인 필요성은 충족시키는 방안이었다.

예배당 무소유

1990년 이재철 목사는 설교 시간에 ‘예배당 무소유’에 대해 언급했다.¹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에서 임기를 마치고 저술한 ‘회복의 목회’에서 예배당 무소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본질을 건물로 오인해 교회 건축에 몰두하게 될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된다. 주님을 중심에 모신 공동체가 바로 참된 의미에서 교회이다. 따라서 교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의 최대 목적이 되어버리면, 참된 교회로서 교인들의 회복이 도외시되기 쉽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²

하지만 여러 기록과 자료에 따르면, 예배당 무소유에 대한 초기 교인들의 생각은 이와 차이가 있다. 그들은 재정의 50%를 구제와 봉사에 사용하자는 원칙인 ‘50대 50’을 실천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고 술회했다.³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론에 근거해 처음부

1 미발행 15주년사, 27쪽.

2 이재철, 《회복의 목회》, 18~21쪽.

3 함즐함울, 267호(2010. 6. 27), 5쪽.

터 예배당 무소유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초기의 재정 상태에서 예배당 소유는 언감생심이었다. 더욱이 예배당 소유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예배당을 기증한다면 기꺼이 받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이도 있었으며, 당시의 재정 상황에서는 예배당 건축이 힘들지만, 당대에 조금씩 준비해 교회 건축을 위한 터를 마련하고, 다음 세대가 그 위에 건축을 하는 장기적 계획을 구상한 이도 있었다.

이렇게 공동체 내부에는 예배당 무소유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었다. 성서적 교회론에 근거해 예배당 무소유를 추구하게 된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50대 50' 원칙의 결과에 의한 재정적 곤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진실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 견해가 공동체 내에 공존했으며, 이 두 주장을 칼로 자르듯이 선명하게 분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1995년에 정신여중고 대강당 건축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 주장이 서로 결합되어 건축을 반대하는 근거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

주일에배

1989년부터 예배와 교회 절기와 기도회가 틀을 갖쭈기 시작했다. 창립주일인 1988년 6월 26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주일 낮예배와 저녁 찬양예배를 모두 오후에 드렸다. 교회가 창립될 당시 이재철 전도사가 영락교회에서 교육부를 섬기고 있어서, 오전에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한 후에 오후에 주님의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1988년 10월 말까지는 오후 3시에 주일 낮예배를, 오후 5시에 저녁 찬양예배를 드렸

고, 1988년 12월 25일까지는 오후 4시와 6시에 드렸다.

이후 1989년 1월부터는 이제철 전도사가 전임 사역자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던 YMCA의 공간이 원래 예식장이었으므로 주일 낮예배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오후 4시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일 오후에 예배를 연속해 두 번 드리게 된 것은 주일에 예배는 반드시 두 번 드려야 한다는 당시 교회들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1989년 4월 26일 임시 부서장 회의에서 교회학교 교사와 다가올 휴가철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예배 시간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오후 4시에 드리던 예배를 2부로 하고, 오전 7시에 1부 예배를 드리자는 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부서장 회의에서 거부되고, 오전 9시에 주일 낮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5월 첫째 주일인 7일부터 주일 낮예배와 교회학교 예배는 오전 9시에, 저녁 찬양예배는 7시 30분에 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 시간을 변경하려던 이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 같은 시간에 교회학교에 봉사하는 교사들이 장년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낮에 일을 보아야 할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 시간이 불편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결국 예배 시간을 변경하려던 근거를 재수용해 5월 21일부터 주일 낮예배를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로 나누어 드리게 되었다.

2부 예배를 신설하게 된 것이 교회학교 교사와 휴가철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다면, 3부 예배는 늘어나는 교인 수 때문에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93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예배 참석자는 YMCA 4층 대강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를 넘어서게 되었다. 결국 YMCA에 협조를 구해 1994년 2월 6일부터 7시 30분에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 30분에 3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주일 낮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강해설교로 이루어졌다. 1989년

6월 26일 저녁 찬양예배에서 시작된 <마태복음> 강해설교는 다음 주인 7월 3일부터 주일 낮예배로 계속 이어져 1992년 4월 19일에 끝났다. 4월 23일부터는 <요한복음> 강해설교가 이어져 이재철 목사가 주님의교회를 떠나는 주일인 1998년 6월 21일에 끝이 났다.

저녁 찬양예배

오후에 연속 두 번 예배를 드리자 저녁 찬양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제 찬양예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때마침 1989년 7월 27~29일에 있었던 제1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 신앙 각성이 일어났다. 교회는 이것을 원동력 삼아 찬양예배 활성화를 위해 8월 첫째 주인 6일부터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말 그대로 전가족 '찬양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찬양에 재능이 있는 사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녁예배를 활성화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리하여 한 달 뒤인 9월 3일에 열린 부서장 회의에서는 이 찬양예배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수요예배

주님의교회 수요예배는 어느 교회와 다른 면이 있었다. 제직회 부서장 회의에서는 그동안 주일 저녁 찬양예배 때 드리던 각 부서의 헌신예배를 매월 두 번째 주일이 지난 수요예배 때 드리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주님의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헌신예배는 수요예배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모이는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님의교회는 이후 헌신예배뿐 아니라, 공동의회도 종종 수요예배 후에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수요예배 시간에 월례기도회와 헌신예배를 집중해 드리다가, 1992년 12월 3일부터 월례기도회가 목요일로 변경됨으로써 월례기도회와 수요예배가 분리되었다.

절기와 창립예배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창립된 이래로 성금요일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1996년 성금요일이 휴일이라 가정예배로 대체한 것을 제외한다면, 1998년까지 성금요일 기념예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에 맞추어 오전 10시 또는 11시경에 드렸다. 그러다 이 시간대에는 많은 성도가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오후 8시경에 성찬식과 함께 드렸다.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는 매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그린 성극을 공연했다. 1992년 텔런트 임동진 집사가 등록한 이후 고난주간 성극 공연은 한층 발전하여 참여한 많은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초기 부활절 예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공동체가 처음으로 드린 1989년 3월 26일 부활절 예배 시간에 전교인이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합창한 것이다. 이것은 이후 1998년 부활절까지 매해 부활절 예배 순서로 지켜졌다.



1989년 YMCA 시절 조출했던 성탄절 행사. 1992년부터는 절기예배 때마다 특별 순서를 진행하는 부서를 정했다. 부활절에는 찬양대가, 어린이 주일에는 교회학교가, 추수감사절에는 각 구역이, 성탄주일에는 교회학교가, 성탄절 당일에는 찬양대가 주관했다.

부활절 기념 축하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1989~1991년까지는 교회학교가 주관했다. 1992년부터는 절기예배 때마다 특별 순서를 진행하는 부서를 정하여, 부활절에는 찬양대가, 어린이 주일에는 교회학교가, 추수감사절에는 각 구역이, 성탄주일에는 교회학교가, 성탄절 당일에는 찬양대가 주관했다. 1992년에는 연합찬양대가 '부활절 축하 찬양'을 했고, 1993~1998년까지는 매년 각 찬양대가 돌아가며 맡았다. 이러한 원칙은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지켜지고 있다.

1992년 이전까지는 추수감사절에 교회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992년부터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구역별 복음성가 경연 대회를 열었다.

주님의교회 창립 1, 2주년 기념 주일에는 전교인 기념촬영을 했다. 이 기념사진에는 대형 교회로 발전하기 이전의 가족 같은 분위기의 초창기 모습이 나타난다. 교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91년부터 매년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게 되었고, 매년 창립기념주일에 임직식이 거행



1989년 6월 25일, 주님의교회창립1주년 기념 전교인 사진. 창립 1, 2주년 기념 주일에는 전교인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 기념사진에는 대형 교회로 발전하기 이전 가족 같은 분위기의 초창기 모습이 잘 나타난다.

되었다.

가정예배

1990년부터 성탄절 전야를 가족과 함께 드리도록 가정예배 순서지와 설교문을 준비해 배부했다. 1994년부터는 신년연휴 기간과 설날연휴 기간에도 마련했고, 1995년 11월 26일부터는 주일 저녁에 집에서 가족과 예배드리기 원하는 교인들을 위해 주일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의 특정 절기와 휴일이 겹치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 대신에 교인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나누어주었다

1997년과 1998년에는 가정예배 순서지가 더욱 폭넓게 활용되었다. 1997년에는 여름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는 가정을 위해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으며, 이듬해에는 설과 추석뿐 아니라 한식과 어버이날에도 가족끼리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기도회

주님의교회는 기도회 힘쓰는 교회로, 창립 다음달인 1988년 7월 29일 월례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드렸다가 1988년 11월 30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바뀌었다. 1992년 12월 3일부터는 다시 매월 첫째 주 목요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90년 9월 7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이인호 전도사의 인도로 목요기도회를 열었다. 이 목요기도회는 1995년 1월 5일부터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한 번 드리는 월례기도회로 통합되었다.

새벽기도회는 장소가 마련된 1988년 11월 1일부터 시작했다. 통상 6시에 시작했던 새벽기도회를 1994년 6월 14일~9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5시 30분으로 옮겼는데, 의외로 교인들이 그다지 불편해 하지 않아 이후부터 같은 시간을 유지했다.

교인들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데 느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1993년 4월 4일부터는 새벽기도회 시간에 부모를 따라 교회에 오는 어린이를 위해 비디오실을 열어, 거기서 어린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와 릴레이 기도회

1989년 6월 17일~7월 26일까지 처음으로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제1회 전교인 수련회 준비를 위해 열린 이 기도회는 단순한 새벽기도회가 아니었다. 새벽기도회와 병행해 금식기도를 함께 하며, 매 시간마다 기도 담당자를 신청 받아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했다. 40일간 기도로 철저히 준비한 덕에 제1회 전교인 수련회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 깊은 의미와 영향을 끼친 행사가 되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해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이렇게 하여 매해 수련회 준비 기도회와 새해 맞이 기도회는 초창기 중요한 연중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고, 1997년까지 계속되었다. 1997년까지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목적은 교회력과 큰 관계없이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수련회 준비와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데 있었다. 1999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과 10월에 각각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 기간도 이전에는 40일이었지만, 이후 2주로 줄었다. 1998년까지는 신청자를 받아 24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를 병행해 진행했지만, 1999년부터는 새벽기도회만 가졌다.

성찬식

1989년 3월 25일 부활절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한 후 1992년까지 매년 전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가졌다. 1991년 11월 10일 성찬식부터는 떡과 잔을 받자마자 개별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집례자



1989년 첫 부활절의 성찬식. 첫 세례식도 있었던 이 해의 부활절 성찬식은 이재철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기에 임영수 목사가 집례했다. 초기 주님의교회 부활절 예배에서는 전 교인이 헨델의 〈할렐루야〉를 합창하는 전통이 있었다. 1989년 처음 맞은 부활절에 처음 시작한 이 합창 순서는 1998년까지 매년 부활절 예배 순서에 포함되었다.

가 기도를 한 뒤 함께 나누며, 잔은 예배를 마치고 거두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3년 9월 23일부터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떡과 잔을 받고 앉아 집례자의 기도 후에 함께 나누었다.

1993년 2월부터는 성찬식을 매월 마지막 주일에 거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님의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일반적인 장로교회에서 1년에 보통 4번 정도 하는 것과 비교된다. 2002년부터는 정기적으로는 홀수 달 마지막 주일에, 비정기적으로는 주요 절기에 가짐으로써 횟수가 줄어들었다. 2004년 1월부터는 홀수 달 첫째 주일로 변경되었다. 홀수 달에 거행되는 성찬식이 교회의 절기나 기념주일과 자주 겹치자, 2006년 2월부터는 짝수 달 첫째 주일로 바꾸었다. 이후 2012년 1월부터는 다시 매달 첫째 주일에 거행하고 있다.

세례식

이재철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1990년에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뒤, 1991년부터 세례식이 매년 전반기(고난주간)와 하반기(9~11월 사이)로 나누어 두 차례 시행되었으며, 유아세례는 1990년부터 어린이 주일과 성탄절에 시행되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세례교육은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같은 기간 안에서도 세례 대상과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이재철 목사가 집례하기 시작한 1990년 4월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새신자반을 수료하고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어야 했다. 이는 세례를 받으려는 교인들에게 굉장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새신자반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매주 성경공부에 참석하여 10과에 걸쳐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충분히 숙지해야 했다. 세례자는 이 새신자반 교육 과정에 더하여 성경을 한 번 통독해야만 했다.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매일 4장씩 읽는다 하더라도 거의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세례자들이 처음으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낯선 문장들이 가득한 성경을 한 번 통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일반적인 장로교회에서 세례자 교육을 4주에 걸쳐 4시간 정도로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당시 주님의교회의 세례자 교육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철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세례자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 8월 5일에 있었던 부서장 회의에서 이재철 목사는 그동안의 엄격한 세례자 교육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즉 “세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본인이 원하면 거저 주고, 집사 임명할 때는 성경을 완독한 분에 한해 주기로”¹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은 몇몇 부서장들이 반대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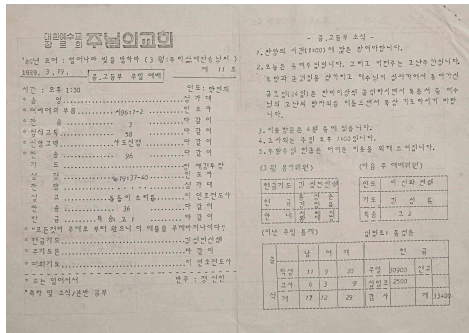
1 임시운영위원회록, 1990, 8, 5.

한 세례자 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드러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공동체 내부에서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11월부터는 세례자 교육을 완화해 4주 과정으로 했다. 1997년 10월의 하반기 세례자 교육은 2주로 줄어들었다. 1999년 유아세례 교육은 1주 교육으로 마치기도 했다. 2000년부터 세례자 교육은 다시 4주로 늘어났다. 이후 장년세례 교육이 간혹 5주로 늘기도 하고 학생세례 교육이 3주로 줄기도 했지만, 4주 세례자 교육을 기본적인 틀로 채택했다.

말씀을 배우게 하시다

교회학교 시작

주님의교회가 창립된 해에는 교회학교가 없었다. 장년 중심의 예배가 겨우 가능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예배 장소를 바꿔야 할 정도로 장년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함께 오는 자녀들의 수도 역시 증가했다. 이들을 돌볼 공간과 인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1989년 1월 1일부터 교육과 심방을 담당하기 위해 이인호 전도사가 전임 사역자로 부임했다. 이와 함께 YMCA로부터 건물 2층에 20평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교회는 이 공간을 둘로 나누어 교회학교와 교회 사무실로 사용했다. 교역자와 공간이 마련되어 1월 8일부터 중고등부, 아동부, 영아부 세 부서로 편성된 교회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학교에 나



1989년의 중고등부 예배 주보. YMCA 건물 2층에 20평의 공간을 마련한 이 해에 비로소 중고등부, 아동부, 영아부로 나뉜 교회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종려주일을 앞두고, "오락과 군것질을 삼가"라는 소식난이 이채롭다.

오는 어린이와 학생이 증가하자, 이듬해인 1990년 4월 1일에 영아부는 영아부와 유치부로, 아동부는 유년부와 소년부로 분리되었다. 예배 장소가 마련된 1991년 1월 27일에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서로 분리되어 각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전교인 수련회

초기 주님의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가 1989년 여름에 있었다. 그해 7월 27~29일에 제1회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대전 중앙교회 기도원에서 열렸다. 이 수련회를 위해 전 교인이 6월 17일~7월 26일까지 40일간 새벽기도와 릴레이 금식기도를 했고, 수련회 전날인 7월 26일 수요예배 시간에는 김현덕, 양동훈, 황기연, 홍근용, 김미자 집사의 간증집회가 있었다.

‘바로 일어서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한 인원은 영아를 포함해 총 183명이었다. 이 수는 유아를 포함해 주일예배에 참



참립 이듬해인 1989년 7월 대전 중앙교회 기도원에서 열렸던 제1회 전교인 수련회. ‘바로 일어서라’는 주제로 183명이 참석한 이 수련회를 통해 찬양예배와 성경읽기가 활성화되면서, 이후 매년 전교인 수련회를 갖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1991년 7월의 제3회 전교인 여름수련회. 일산 YMCA 수련장에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석하는 전교인 수와 비슷했다. 수련회 기간 중 비가 간간히 오긴 했지만 전체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련회를 계기로 교회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수련회를 마친 직후인 7월 30일 주일 저녁 부서장 회의에서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전교인 저녁 찬양예배와 성경읽기 대행진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침체되었던 구역성경공부와 화요성경공부가 활성화되었다.

제1회 전교인 수련회의 경험은 이후 매년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 8월 2~4일에 지난해와 같은 장소에서 제2회 전교인 수련회를, 1991년 7월 28~31일에 일산 YMCA 수련장에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제3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1992년 8월 4일 제4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교회학교 소년부에 소속된 정민홍 군이 스크린 롤에 말려 들어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한 것이다.

그날 밤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수련회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가 사회에 알려지면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인맥을 동원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자는 의견도 있었고, 한 생명을 잃은 것을 진지하게 참회하지 않고 교회가 피해를 모면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면서 예정된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하고 교회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논의 끝에 수련회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정민홍 군의 죽음에 대처하는 자세 때문에 교회 내에는 참여한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해소한 이는 다름 아닌 정민홍 군의 부모였다.

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정민홍 군의 장례예배에서 아버지인 정성기 서리집사는 성도들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첫 번째 감사는 아들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유아세례를 받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 두 번째는 아들이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간 것에 대한 감사였다. 세 번째로, 교통사고나 세상의 곳은 일로 죽지 않고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불러주셨음을 감사했다. 네 번째로, 아들이 떠난 빈자리로 인해 당장은 공허하겠지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채우실 것에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사고 이후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했다. 다음 주일에 정 집사 내외는 그들의 감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했다. 강단에 꽃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고, 전 교우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해 나눔으로써 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드러냈다. 이들 내외의 이러한 헌신 덕분에 공동체 내의 표면적인 갈등은 원만하게 해소되었다.

하지만 교회 행사에서 어린 생명을 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공식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었다. 특히 교육부장인 황기연 집사는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마땅한 응분의 징계를 스스로 내려야 한다. 본인은 우선 교육부장직을 사임함은 물론이고 어떤 징계도 받겠다”고 당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당회는 이 문제를 숙고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 정민홍 군 사건에 대해 담임목사인 이재철 목사는 8월 3째 주~11월 3째

주까지 3개월 동안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예배와 금요일 구역장 성경공부 시간만 인도하고 집에서 근신하기로 하다.

2. 이재원, 김도복, 홍근용 세 선임장로도 8월 3째 주~11월 3째 주까지 3개월간 근신하기로 하고 당회원의 직무를 3개월간 정지해 모든 예배에서 기도하지 않기로 하다.

3. 8월 3째 주~11월 3째 주까지 임시당회장은 정재경 장로가 맡기로 하고 당회 구성은 양동훈 장로, 정규창 장로, 이동규 목사로 하기로 하다.

4. 황기언 교육부장과 이성우 소년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1달간(8월 4째 주~9월 3째 주까지) 교육부장직과 소년부장직을 정지하고, 교육부 차장과 소년부 부감이 그 직을 대신하기로 하다. 소년부 전도사인 이진호 전도사에 대해서는 8월 4째 주부터 1달 간 설교를 정지하고 이인호 목사가 대신하기로 하다.¹

그해 말, 여름 수련회 안전사고 가능성과 늘어나는 교인 수로 인해 전 교인이 함께 수련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교인 증가로 인해 전교인 수련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전교인 수련회는 계속하기로” 결의했다.²

1993년에는 장래에 가나안농군학교 같은 수련원을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던 중, 교회 공동체원들이 이런 수련원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해 여름 제5회 전교인 수련회를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개최했다. 수련회의 강사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범일 교장과 립영철 1교장이었다. 이어 제6회 전교인 수련회는 ‘신구약에 나타난 이적사건’이라는 주제로 1994년 7월 25~27일에 포천 산정호수 은곡캠핑에서 열렸다.

1 당회록 1992. 8. 9.

2 당회록 1992. 12. 7.

구역성경공부

1989년 3월 8일부터 구역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이것은 남자를 구역장으로 여자를 권찰로 임명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성경공부 모임으로, 이재철 목사가 교재를 직접 만들고 매주 수요일예배 후에 구역장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체계는 처음부터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못했다. 교회에서 구역장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보다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자가 많고, 직장일로 바쁜 남자들이 구역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주님의교회는 남자를 구역장으로 임명하여 부부 중심의 성경공부를 시도했다. 하지만 구역장을 맡은 남자들은 직장일로 바빠서 시간을 내기도 힘들었고, 구역모임은 여자들 중심의 모임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한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4월 30일 토요일부터 성경공부를 하려는 모든 구역원을 예배당에 모아서 이재철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임시방편으로 1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수정했다.

1989년 7월 27~29일에 열린 제1회 전교인 수련회를 계기로 구역성경공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수련회에서 각 구역장이 조장을 맡아 성경공부를 준비하고 인도했다. 이를 계기로 구역장들이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 8월 13일과 20일에 개최된 구역 활성화를 위한 회의에서 구역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구역 모임 시간은 구역별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 9월 첫 주부터 구역성경공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열리는 구역장 성경공부에 구역장들이 참석하기 어려워지자 9월 셋째 주부터는 목요일 새벽예배를 마치고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남자 구역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자 구역성경공부가 여자들만의 모임이라는 선입견이 깨어지고 본래 의도대로 부부동반 성경공부 모임이 되었으며,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경읽기 대행진

제1회 전교인 수련회가 낳은 또 하나의 결실은 성경읽기 운동이다.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주인 8월 6일부터 '성경읽기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안에 두 명이 성경을 완독했다. 성경을 완독한 이에게는 교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었고, 명단을 주보에 공개했다. 이 운동이 계속되면서 1995년 5월부터는 성경을 필사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주보에 명단이 수록된 1999년 1월 3일까지 교회 공동체는 성경을 총 1,287회 완독하고, 32회 필사했다.

'성경읽기 대행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처음으로 완독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교회의 초기 역사와 신앙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운동이 짧은 기간 진행되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1999년 1월 17일부터는 완독자와 필사자 명단을 더 이상 주보에 공개하지 않고 매월 말에 교회 게시판에 알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읽기 대행진'은 최소한 9년 이상 진행되었다. 이후 성경읽기는 교인들 개인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다. 2011년에 교회 차원에서 성경 통독자와 필사자들에 대한 시상을 다시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대 변화에 맞춰 성경 통독과 필사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타자도 시작했다.

장년교육

1989년 3월 7일부터는 장년들도 화요성경공부를 시작했다. 내용은 <창세기> 강해였는데, 이미 1988년 7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요일에 때 진행해오고 있었다. 화요성경공부는 이를 이어서 36장부터 시작했지만, 교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2주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이렇게 중단되었

던 화요성경공부는 9월 5일 제1회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온 뒤에 다시 시작되었다. 수련회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며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성경공부를 갈망했기 때문이다.

한편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한 성경공부 과정인 새신자반이 1989년 9월 11일에 개설되었다. 교재는 이재철 전도사가 직접 작성했고, 1기에 37명이 수료한 이후 매 학기에 계속 열렸다. 1990년 4월 5일에 시작한 금요성경공부는 그해에만 개설되고 다음해부터는 주부찬양 학교로 대체되었다. 1991년 3월 7일에 개설된 주부찬양 학교는 1996년 전반기까지 매학기 찬양 배우기를 원하는 교인들을 위해 열렸다. 장년교육을 위해 개설된 강의 수는 초기에는 학기에 3~4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성경강해 형식의 성경공부들이었으나, 1993년부터는 외부에서 체계적으로 만든 교재를 사용하는 벨엘성서반도 개설되었다.

기독교 기본교리를 다루었던 새신자반을 수료한 이들과 좀더 높은 수



제1기 새신자반 수료식. 새신자반은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신자를 위한 성경공부 과정이었다. 1989년 9월 11일 처음 개설된 이래,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초신자들에게 교육했다. 1993년에는 새신자반을 수료한 이들과 일반 성도들을 위한 좀더 높은 수준의 성숙자반이 개설되었다.

준의 성경공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성숙자반이 199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 그 외에 강의 내용도 다양해져 영어성경공부반, 일어성경공부반 등이 개설되었다. 성경공부반 외에 교인들의 신앙훈련을 위하여 1992년부터 전반기에는 전도훈련반, 하반기에는 기도학교와 제자화 훈련 과정이 개설되었다.

신앙사경회와 신앙대강좌

1990년 10월 21~23일에 영락교회의 임영수 목사를 초청, YMCA 대강당에서 부흥사경회가 처음 열렸다. 이듬해 4월 1~3일에는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의 설교로 부활절 특별 신앙집회가 열렸다.¹ 이 두 번의 부흥사경회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전통적인 부흥사경회가 주님의 교회 교인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참여 인원도 많지 않았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 성향이 반영된 결과였다. 유사한 사례로 초창기 새벽기도회를 들 수 있다. 공식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개별 기도를 하는 시간에 목회자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교인들에게도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독려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조용히 묵상기도를 했다. 결국 목회자도 교인들이 묵상기도를 선호하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묵상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교회는 구성원의 지적 수준과 신앙 형태를 고려해 신앙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강좌 형식의 행사를 기획했다. 그리하여 제1회 신앙대강좌가 1992년 4월 20~23일에 개최되었다. 강사로는 장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명용 교수, 예술원 회원이며 시인인 구상 선생, 가정선교교육원을 맡고 있는 양은순 선생, 서울대의 손봉호 교수를 초빙했다. 김명용 교수는 그리스도인과 교

1 1990년 10월의 부흥사경회가 주님의교회 최초의 부흥사경회인데도 1991년 4월의 부흥사경회를 제1회 부흥사경회로 광고하는 착오가 있었다.



1994년 부흥사경회에서 설교하는 김장환 목사. 주님의교회는 1990년부터 부흥사경회를 열기 시작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특성과 신앙 형태에 따라 1992년부터 교회 밖의 여러 인사를 초청, 다양한 시각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신앙대강좌를 부흥사경회와 엮갈려 개최했다.

회에 대해, 구상 선생은 그리스도인과 경건에 대해, 양은순 선생은 그리스도인과 가정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그리스도인과 사회에 대해 강연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신앙대강좌에 참여했다. 이러한 사실에 고무되어 이듬해 1993년 4월에도 제2회 신앙대강좌를 개최했다. 참여한 강사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첫째 날 이어령 교수는 ‘교회 밖에서 본 교회’에 대해, 둘째 날 오경환 신부는 ‘가톨릭에서 본 교회’에 대해, 마지막 날 정진홍 교수는 ‘교회 안에서 본 교회’에 대해 강의했다. 신앙대강좌가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교인들의 영성적인 측면의 성장을 위해 1994년 4월에 다시 부흥사경회를 개최했다. 이때는 아세아방송 사장이며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던 김장환 목사가 사람과 생명과 신앙에 대해 설교했다.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을 위해 신앙대강좌와 부흥사경회가 해마다 교대로 개최되었고, 이 방식은 1998년까지 이어졌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다

창립 초부터 주님의교회는 적은 인원으로 가족공동체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졌다. 인원이 적었기에 전체 교인을 식사에 초대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 시기에는 굳이 교제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주일 낮예배를 마치면 준비된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교제했다.

1989년 12월 24일 성탄절부터 독특한 교제 문화가 시작되었다. 특별한 절기가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각자 1,000원 내외의 다과를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예배를 마친 뒤에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부족한 교회재정 상황 아래에 성도의 교제를 실현하는 하나의 지혜이기도 한 동시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교제의 모습을 본받은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교제 방식은 1992년 말까지 성탄절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계속되었다.

한편 초기 주님의교회는 창립기념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성도의 교제를 돕는 행사를 마련했다. 창립 1주년 기념 주일인 1989년 6월 25일에는 주일 저녁에 성경암송대회를 열었지만, 2주년에는 전교인 기념촬영을 했다. 1992년~1994년까지 매년 창립주일 저녁마다 전교인이 기념영화를 교회에서 관람하며 교제했다.

1990년과 1991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교회학교의 축하 발표회를 가지며 교제를 나누었다. 1992년 초 당회의 결정에 따라 1992년 추수감사주일부터는 구역별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각 구역들이 서로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연대회를 통하여 서로가 가진 재능을 확인하면서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96년부터는 경연을 넘어 감추어진 다양한 재능을 자랑하게 되는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시기의 주님의교회는 화려하고 큰 행사보다는 교회의 규모에 알맞은 소박한 행사들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50%의 재정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창립정신의 실천 의지, 그리고 성경읽기와 성경공부 같은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교회상의 실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해외선교

처음부터 주님의교회는 헌금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기로 한 창립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로 인해 초기 3년 동안 교회 재정은 적자였지만, 교회는 이 정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 재정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초기에는 요청이 들어오는 선교지와 여러 단체나 교회들에 필요한 만큼 선교비와 구제비를 보내주었다. 지원을 요청하는 곳 모두를 돕기 위해서는 한 곳에 보내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요청하는 지원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전액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매달 일정액을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더욱이 초기의 교회 공동체에 아직 체계적인 선교 비전이나 구제사역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식견이 마련되지 않았기도 했고, 교회 자체도 초기 개척 단계여서 체계적인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자 교회 내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1989년 1월 15일 부서장 회의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구제비와 선교비를 사용하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이 아니어서 다음에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결정 사항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후 9월 초에 부서장 회의를 거쳐 교회가 교인들에게 제시한 안은 단독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해외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이었다.¹ 그리고 몇 주 뒤에 열린 임시 부서장 회의에서 이인호 전도사를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이 결정되었다.² 이를 위해 이인호 전도사는 1990년, 1991년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1991년 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인호 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자 교회는 파송 작업에 착수했지만, 다른 직업이 없이 선교사 신분으로 중국 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서 1992년부터 몇 주간 단기 선교밖에 할 수 없었다. 이인호 목사는 주로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길림성을 중심으로 동북 삼성을 다니면서 가정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선교여행을 했다. 네 번에 걸친 선교여행 후 이인호 목사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어려움을 깨닫고, 싱가포르에 머무르면서 중국에 있는 가정 교회를 지원하는 간접 선교로 방향을 바꾸고자 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중국에 체류하면서 직접 선교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중국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다시 결의했다.³

그러나 교회는 그해 10월 3일에 열린 당회에서 이인호 목사의 중국 선교여행을 중단시키고 교회 부목사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신 당시 사업차 중국에 머무르고 있던 홍근용 장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국 선교를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⁴ 그 결과, 이듬해 1994년 5월 말에 홍근용 장로의 공장에서 이재철 목사의 인도 아래 천진한인교회가 창립되었다. 하지만, 주님의교회의 지교회가 아닌 독립적인 교회였다.

1 부서장 회의 1989. 9. 3.

2 임시 부서장 회의 1989. 9. 25.

3 당회록, 1993. 5. 2.

4 당회록 1993. 7. 4.

해외선교 후원

이렇게 해외에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외에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선교후원도 계속되었다. 주님의교회는 초기부터 수요예배와 월례기도회에서 자주 선교사를 초청해서 간증과 설교를 들었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는 주님의교회 강단에 서도록 초청했다. 이렇게 하여 성도들에게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후원자가 되어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1990년도에 방글라데시의 박수일·모야 목사, 인도네시아의 이장호 선교사, 일본의 조남수 선교사, 대만선교회 등이었던 해외선교 후원자가 꾸준히 늘어,

1989년의 방글라데시 선교 현장. 주님의교회는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한 창립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창립 이듬해에는 해외선교에도 관심을 돌려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1994년도에는 15개국 24곳에 이르렀다.¹

국내 농어촌 교회, 선교회, 시설 지원

창립예배 헌금을 모두 묘도 운동네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 지원한 이래, 주님의교회는 창립정신에 따라 여러 교회를 재정적으로 계속 후원했다. 상주 영락교회, 청량리 다일교회, 봉화 두문교회, 군포 초대교회 등 국내 여러 도시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비롯 '이삭의 집', '사계절', '평화의 집'과 '난지도 소년원' 등의 시설과 '갈릴리 의료선교회', '십대들의 쪽지' 같은 선교회들이었다.² 1994년에는 각 구역별로 자매교회와 기관을 맺고 후원했는데, 60개 구역이 96개의 교회 또는 기관을 후원했다.

〈선교회보〉는 이렇게 많은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구제와 선교 상황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초기부터 발간된 회지였다. 1989년 6월 29일에 제1회 〈선교회보〉가 창간되었고, 그 후 〈나눔의 소식〉을 발간했다. 이 소식지에는 도움 받은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받은 감사 편지, 그곳의 소식과 선교비 집행 내용 등을 실어 전교인이 볼 수 있게 했다.



1989년 6월 29일 발간된 선교회보 창간호. 주님의교회는 구제와 선교 상황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부터 회지를 발간했다. 선교회보는 뒤에 〈나눔의 소식〉으로 이어졌다.

지역전도

창립 이듬해부터 교회 공동체는 해외선교뿐 아니라 지역전도에도 집중

1 나눔의 소식, 1990. 11. 8.
2 나눔의 소식, 1990. 11. 8.

오직 예수

예수 소망 • 예수 구원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밖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는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그는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주님의 교회”는
당신을 위하여 항상 열려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교회
대표회장 박종우
총회장 김성환
사무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삼성동) 12층 1202호
Tel. 511-1497/8

1989년의 노방전도용 전도지. 창립 이듬해부터 교회 공동체는 해외선교뿐 아니라 지역전도에도 집중했다. 1989년 1월 말에는 교인들에게 전도카드를 나눠주어 전도 대상자를 기입하게 하고, 그를 위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도 했다.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것과 무기명으로 헌금한다는 것이 전도에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했다. 1989년 1월 말에 교인들에게 전도카드를 나눠주어 전도 대상자를 기입하게 하고, 그를 위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하도록 했다. 그리고 연말에 그 결과를 파악해 많이 전도한 이에게 시상했다. 2월부터는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첫째 주일에는 남선교회가, 둘째 주일에는 여선교회가, 셋째 주일에는 청년회가, 넷째 주일은 교회학교가, 다섯째 주일은 전교인이 노방전도를 나갔다.

이런 전도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8년까지 매해 10명 이상 전도한 부부에게는 연말에 시상했다. 때로는 한 해 동안 46명이나 전도한 부부도 있었다.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것과 무기명으로 헌금한다는 것이 전도에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개인 구제사역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팎의 개인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비조차 없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학생들, 파산하여 오갈 데 없어진 여러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섰다.

아래 <나눔의 소식>에 실린 두 어린이의 감사 편지 전문을 게재한다.³

3 나눔의 소식 13호 1994. 3. 11.

어느 자매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이라고 해요. 현재 수서국민학교에 다니고 있고 5학년이에요. 저의 가정에는 엄마, 아빠, 나 동생이 있어요. 엄마는 말을 잘 못하시고 몸이 성치 않으세요. 아빠는 몸이 약하셔서 일을 하시면 돈도 조금이에요. 관리비로 거의 나가요. 그런 저희 가정에 저와 동생에게 영어교실과 속셈교실에 다닐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저는 장래희망이 확실치는 않지만 선생님이 되려 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분이 제게 희망을 주세요. 엄마는 몸이 성치 않고 아빠는 약하시지만 저에게는 좋은 부모님이예요. 제가 더욱 열심히 공부해 보답을 하겠어요.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겠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건강하세요. 저도 커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1993년 11월 12일

강○○ 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강○○라고 해요. 지금은 수서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식구는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저예요. 엄마께서는 몸이 아프세요. 그래서 걸음도 잘 못 걸으세요. 아빠는 다리에 못이 박히셔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실 때 쥐가 나세요. 그리고 아빠는 매일 술만 드세요. 그래서 가끔 엄마가 우리 방에서 같이 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속셈학원과 영어교실을 다닐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와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장래희망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엄마께서는 다리가 아프신데도 교회에 다니세요. 아빠는 술 때문에 안 다니시고, 언

니와 나는 요절 암송,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에 살았던 곳에서는 봉일교회라는 곳을 다녔어요. 그곳에는 성가대가 있어서 저도 성가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는 성가대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저는 학교에서는 안 하던 발표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구요?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힘이 솟아나와요.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도 교회에 다니신대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예요. 저번에 소풍비도 선생님이 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저는 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할머니 댁에 있으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 집에 오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몰래 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부모님이 없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고달픈까 하고 생각해본 적도 많아요.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일게요. 성함은 모르겠지만 몸 건강하고 잘 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93년 11월 13일

강○○ 올림

‘사랑의 빵’과 ‘사랑의 밥그릇’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교회가 자체 재정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 외에도 교인들은 이웃을 돕는 운동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예로 ‘사랑의 빵’과 ‘사랑의 밥그릇’ 운동이 있다. ‘사랑의 빵’은 1993년 1월 24일부터 주님의교회 구제장학부가 동참하기 시작한 모금운동으로, 국제 NGO 단체인 ‘월드비전’이 굶주리는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약 1년 6개월간 적극 참여했다. 그러다가 1994년 10월 30일부터는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주관하는 ‘사랑의 밥그릇’으로 전환하여 1995년까지 계속했다.

호스피스 사역

1993년 10월에 호스피스부가 정식으로 제직회의 한 부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사실상의 호스피스 활동은 1990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 해 몇몇 교인들이 교회 내에 찬양팀을 구성해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수요일마다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직접 병실을 방문해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다. 오랫동안 누워 있는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마사지나 목욕을 시켜주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기도 했다. 1991년에는 정립회관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93년에 이런 봉사가 호스피스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제직부서로 호스피스부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정식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1994년에 당시 김양자 집사를 중심으로 최초 10명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매년 30~40여 명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병원과 가정과 시설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호스피스 사역은 점차 성장해, 1997년 9월 23일에는 그동안 정동제 일교회에 위탁해 받아오던 호스피스 교육을 교회 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교회가 외부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호스피스 교육이 목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교역자들과 사모들이 대거 참석했다. 외부 교인들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이 제1기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교육에 참석했다. 하지만 재정적인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제기되어 다시 외부 위탁 교육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호스피스 교육은 지금도



주님의교회의 호스피스 사역. 1990년부터 몇몇 교인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시작한 호스피스 사역은 1993년 10월 정식 제직 부서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사역자들이 정식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친 이들이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지만, 아직도 50여 명이 호스피스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비록 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호스피스 활동비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까닭에 이들은 거의 자비로 봉사하고 있다.

전화상담, 무료 법률상담

한편, 교회 내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환난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상담전화가 1993년 2월에 개설되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12시와 오후 1~5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직접 상담실로 찾아올 수도 있었다.

1994년 3월부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 이 상담은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목양실에서 실시하다가 1998년 11월부터 정신여고 김마리아 회관 제1집회실에서 법률, 세무, 회계, 진학상담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8년 6월부터는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 정착기관인 하나원과 하남 외국인비전센터와 광장동 외국인센터에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지금까지도 매달 법률상담팀과 이미용팀과 의료팀이 연합해 이들을 찾아가 상담하고 진료하고 있다.

3

정신학원으로 인도하시다

정신학원을 만나게 하시다

선교현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 발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교회는 창립기도회에서 결의한,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계속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동안 교회는 특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다 1995년 5월에 구제와 선교의 재정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농촌선교 부장직을 맡고 있던 박○○ 안수집사가 자신과 알고 지내던, 농촌선교와는 무관한 목사에게 선교비 명목으로 교회 재정을 지출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당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면서 진상은 규명하되 은혜롭게 마무리짓기로 잠정 결의했다. 하지만 박 집사 부부는 당회 출석을 거부한 채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거나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당회는 21일에 열린 임시 당회에서 박 집사의 안수집사직과 농촌선교 부장직을 권고 사직시키고, 통장에 남아 있는 주님의교회 현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사건에 연루된 교회의 이○○ 목사에게는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9월에 박 집사 부

부는 교회를 떠났다. 비록 횡령한 선교비가 환수되지는 않았지만, 진상은 규명하되 은혜롭게 마무리짓는다는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회는 박 집사와 이 목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 교회는 진행 중이던 선교 구제비를 1995년 12월 31일부로 모두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선교비 지원 대상이 합당한가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선교비 지출 원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다. 1988년 6월 29일 열렸던 첫 운영위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와 단체는 차별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한 이후, 그간 필요성만 느껴왔던 체계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1995년 중반에 대두된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 건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학원선교 차원의 정신여중고 대강당 건축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더욱이 이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 다른 곳에 새롭게 지원하는 것도 당분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학원과 만남

정신여중고와 주님의교회의 관계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5월 정신여중고의 이용욱 목사가 재미교포 여고생 초청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님의교회에 재정 후원을 요청해왔다. 교회는 6월에 당회를 열어 지원을 결정했고, 이용욱 목사는 감사 인사와 함께 초청된 1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7월 23일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하며, 이용욱 목사에게 ‘학원선교’에 대해 설교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렇게 하여 1995년 7월 23일, 정신여중고에서 초청한 미국 교포 여학생 10명이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를 드리기 전, 재미교포 학생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교

회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용욱 목사는 정신여중고 전교생이 다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당 건축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부지는 준비되어 있지만 재정이 마련되지 못해 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분당으로 이전한 한 교회가 그곳까지 오기 힘든 교우들을 위해 강당을 지어주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왔지만, 교단이 다르고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 함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과는 직접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신여중고의 사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

그런데 당시 김도묵 장로는 생각이 달랐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 헌금의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의한 마당에 정신학원의 대강당 건립에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그는 주님의교회야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평일에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기보다는 학교와 교회가 조화롭게 함께 쓰면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보았다. 김도묵 장로는 교회 재정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수에 밝은 한 교인과 함께 건축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다.¹

그리하여 이재철 목사, 정신여고 출신인 정애주 사모와 김도묵 장로가 7월 31일에 정신여고 지동소 교장과 송창규 교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가 정신여중고 강당을 건축하고 싶다고 제안했다.² 그동안 강당 건축을 위해 노력해왔던 지동소 교장은 이 제안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정신여고 지동소 교장과 주님의교회 이재철 목사 사이에 강당 건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남은 건 각 기관의 공식 승인이었다. 이 사업에 대해 주님의교회는 당회의 승인

1 미발행 15주년사, 26쪽.

2 지동소, 다목적건물 착공 감사예배-격려사, 2013. 3. 18

을, 정신여중고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신학원 대강당 건축

1995년 8월 6일에 개최된 정기당회에서는 마지막 안건으로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을 다루었다. 먼저 이재철 목사가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함께 강당 건축에 대한 안건을 냈다. 이어 김도묵 장로가 50억 원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주님의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임을 설명했다. 이날 당회는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 안을 상정하여 이것이 교회의 재정 사정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아무런 결정 없이 마쳤다. 당회원들은 1주일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숙고한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주일 뒤인 8월 13일의 당회에서는 당회원들이 건축사업에 대한 각자 의견을 밝혔다. 대부분의 당회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한 사람



1996년 3월 주일 낮예배 장소로 옮긴 정신학원 소강당. 1995년 9월에 정신여중고의 강당 건축이 결정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자, 주님의교회는 이듬해 3월 3일부터 주일 낮예배를 정신여중고 소강당에서 드리기 시작했다.

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미래의 교인 증가와 현금 증가를 예측하여 건축비 지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둘째, 재정의 50%를 학원선교라는 이름으로 쓰지만, 결국은 예배당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닌가였다. 이에 대해 당회는 교회가 강당을 지어주더라도 소유주는 정신여중고이며 교회는 강당 건물을 다시 임대해 사용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결정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이와 같이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에 주님의교회가 적극 참여하게 된 데 의명분은 효율적인 학원선교를 돕기 위함이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 학생들이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생활관과 전교생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있다면 학원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는 주님의교회가 외부에서 요청이 오는 대로 체계 없이 지원하던 그간의 선교 구제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이유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교인이 빠르게 증가하여 YMCA 4층 대강당이 비좁아진데다 주말이면 2층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혼잡이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주차전쟁도 심각했다. 그런 점에서 정신여중고에 강당을 건축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8월 20일에 다시 열린 당회에서는 정신여중고 강당 건립을 “선교 구제의 새로운 차원의 일환으로 보고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교회에서 건축을 맡기로”¹한다고 결정했다. 반대했던 장로도 이 일을 선교와 구제 차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당건축비 산정이 미래의 현금 증가를 반영한 부당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기에 건축에 반대한다는 또 하나의 반대 이유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1 당회록 1995. 8. 20.

은혜로 하면 다 된다'는 설명으로 설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진행하게 된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 사업은 그동안 이재철 목사가 제시했던 예배당 무소유 정신과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창립정신이 결합하여 구체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신은 이 사업을 통해 교회 교인들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후대의 많은 교인들조차 예배당 무소유를 창립정신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김도목 장로가 재정부의 협력을 받아 교회의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검토한 결과, 주님의교회가 맡은 50억 원의 공사비를 3년에 걸쳐 지불한다면 32억 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래서 당회는 모자라는 18억 원의 경비를 전세 보증금조로 특별헌금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건축 준비에 들어갔다.² 그리고 건축위원으로 김도목, 정재경, 양동훈, 김소일 장로를 선임했으며, 위원회 명칭은 가칭 '정신여고 강당 건축위원회'로 했다. 좀더 세부적인 건축 조직 기구표는 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든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을 교회가 맡아 진행한다는 당회의 결의를 교인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인 중 일부가 반대의사를 보였다. 대부분 강당 건축의 의도와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였다. 대외로 50%를 지출한다는 빌미로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내 사업 의도와 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동참했다.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이 하나님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주님의교회가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이재철 목사는 주일헌금 외에 다른 특별헌금을 하지 않겠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³ 그래서 이

2 당회록 1995. 8. 20.

3 녹취록 4번.

재철 목사는 건축현금을 하지 않고 강당을 건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교회 형편에 맞게 몇 년에 걸쳐 지불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건축비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사돈이자 벽산그룹 명예회장이었던 김인득 장로에게 제안했다.¹ 그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에, 정신여고의 지동소 교장이 정신여중고 이사회가 강당 건축을 승인했음을 알려왔다. 이에 당회는 9월 17일 주일에 전 교인에게 교회가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을 하기로 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10월 26일의 당회에서는 실질적인 강당 건축을 위한 첫 단계로 주님의교회 교인이면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이귀영 집사에게 설계 작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듬해 1월 7일에 있었던 당회에서는 강당이 완공될 때까지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을 위한 현금 적립을 선교구제의 최우선 사업으로 삼기로 했다. 1996년의 경우 현금액을 16억 원으로 예상하여 그중 최소한 8억 원을 적립하기로 하고 이후에도 이 비율에 준하여 적립하기로 결정했다.² 자연히 대외 선교구제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회는 강당 건축이 우선이므로 건축이 끝날 때까지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총회 후원금과 노회 후원금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1996년 1월 23일, 벽산그룹의 김희근 사장으로부터 공사 기간을 2년으로 잡고 완공 후 4년까지 공사비를 완불하되, 완공 후에는 잔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교회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강당 건축을 맡아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에 당회는 2월 7일에 이재철 목사와 김희근 사장의 합의에 기초하여 공사 기간 중 지불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 완료 후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3~4년 내에 분할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1 이재철 목사는 이곳의 직장예배에서 몇 년간 설교를 맡기도 했었다.

2 당회록 1996. 1. 7.

시공사와의 실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님의 교회와 정신여중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잠실벌에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하나 세우기를 원했던 주님의교회는 예배와 공연을 하기에 적절한 부채꼴 모양의 원형극장 같은 형태로 기본 설계를 했다. 정신여중고를 대표하는 지동소 교장과 주님의교회를 대표하는 정재경 장로가 기본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긴 했으나, 원형극장 같은 강당 설계도가 학교 복도에 게시되자, 정신여중고의 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설계도에 따라 건축되면, 무대가 좁아서 합창, 무용 같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학교 강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의 비판이 너무 강해, 지동소 교장은 주님의교회에 해당 설계도대로라면 강당 건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하고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동소 교장은 1993년 프랑스 교육기관을 참관할 때 보았던 학교 건물 형태에 착안해서 학교 강당과 수련관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이 대안은 정사각형을 2개로 붙여 하나는 강당으로 하나는 수련관으로 구분했으며, 수련관은 프랑스 학교 건물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운데에 중정을 두고 건물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다.³

이 제안을 받은 주님의교회는 설계 주체를 정신여고로 변경하고, 설계자는 계속 이귀영 집사로 하며, 교회가 책정한 공사비 60억 원 내에서 설계 변경을 하고, 시공은 교회가 맡는 것으로 결의했다.⁴ 이 결의를 바탕으로 주님의교회와 정신여중고가 다시 최종 합의를 했다. 그리하여 9월부터 이귀영 집사가 다시 설계를 시작했다.

이러한 진통을 겪은 주님의교회와 정신여중고 이사회는 장차 있을지도 모를 오해와 분란을 피하기 위하여 ‘정신여중고 강당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1997년 3월 3일에 만나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대강당

3 지동소, 다목적건물 착공 감사예배-격려사, 2013. 3. 18.

4 당회록 1996.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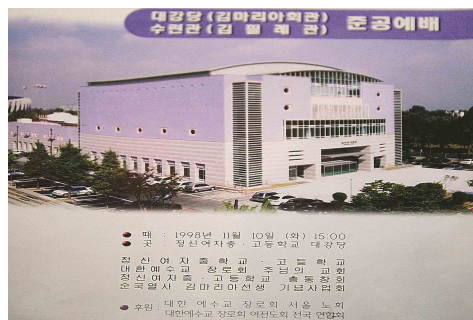
의 소유주는 정신여중고이며, 주님의교회는 향후 50년 동안 대강당을 빌려 사용하되 50년이 지나 서로 이의가 없으면 계약 기간은 다시 50년 연장될 수 있다. 이 합의서에는 대강당을 학교와 교회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가지 구역으로 구분했다: 1) 공동 사용 구역, 2) 학교 우선 사용 구역, 3) 교회 우선 사용 구역, 4) 학교 전용 사용 구역, 5) 교회 전용 사용 구역.

이렇게 하여 4월에 재설계가 끝나고 5월 6일에 공사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 조건은 선 공사 후 공사비 분할 지급이었다. 그 결과, 현대건설보다 약 20% 그리고 벽산건설보다 약 10% 낮은 금액을 제시한 강산건설이 공사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건축 진행 과정을 좀더 실질적으로 논의하며 진행하기 위해 건축위원장으로 정재경 장로, 건축과 토목 분야 담당에 양동훈 장로와 공중서, 김형일, 최형규, 한득현 집사, 전기와 설비 담당으로 김소일 장로와 박인호 집사를 임명했다.

1997년 8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신여중고 강당이 들어설 테니스장에서 기공예배를 드림으로써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강당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교회는 건축비 충당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다. 10월 30일 당회에서는 먼저 건축 재정 상태를 지켜본 후 형편에 따라 전교인 건축헌금을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적인 건축헌금은 하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건축헌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했다. 권사회와 주방부에서는 '정신여고 강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직접 만든 김장김치를 판매하여 7,859,850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또한 주방부에서는



정신학원 대강당(김마리아회관)과 수련원(김필레관) 준공예배 순서지. 주님의교회는 이날 기증서와 감사패를 정신학원에 증정함으로써 이날부터 대강당과 수련원은 공식적으로 정신학원의 소유가 되었다. 대강당의 디자인은 노아의 방주를 원형으로 삼았다.

강당 건축이 끝날 때까지 건축 재정에 보태기 위해, 점심식사로 나오는 국수에 김치 반찬 대신 단무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구역별로 실시한 ‘구역별 청지기 훈련’ 수익금 3,494만 2,000원도 강당 건축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교인들의 관심 속에 강당 건축은 시작되었다.

1998년 6월 말 이재철 목사가 퇴임하고 임영수 목사가 설교목사로 오는 와중에도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은 차질 없이 계속되었다.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건축비를 7억 원이나 추가 지불해야 했지만, 정재경 장로에 이어 건축위원장을 맡은 양동훈 장로와 현장감독을 한 성백술 장로를 비롯 모든 교우의 기도에 힘입어 건축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1998년 10월 2일 대강당 준공 허가가 나왔다. 11월 첫째 주에 있을 첫 예배를 위해 10월 29~31일까지 사흘 동안 완공된 대강당을 청소하고, 예배에 필요한 집기와 장비들을 대강당으로 옮겼다. 강당의 이름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와 여성 지도자로 활동한 정신학원 졸업생 김마리아를 기려 김마리아회관이라고 지었다.



1998년 11월 10일 정신여중고 대강당 김마리아회관 준공기념비 제막식. 대강당 입당예배는 강당 건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원래 11월 셋째 주에 드리던 추수감사절을 앞당겨 함께 드렸다.

1998년 11월 10일 정신여중고 대강당 김마리아회관의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강당 건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였으므로 원래 11월 셋째 주에 드리던 추수감사절을 앞당겨 함께 드렸다. 그리고 기증서와 감사패를 정신학원에 증정함으로써 이날부터 대강당은 공식적으로 정신학원의 소유가 되었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에는 감사 대축제가 열렸다.

12월 12일 건축위원회가 해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대강당 건축에 관한 일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건축비 상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대강당이 완공된 시점에 전체 공사비의 24% 정도만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나머지 76%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재철 목사 임기 마치고, 임영수 목사 취임하다

이재철 목사 이임

주님의교회창립에 참여하여 지난 10년 동안 목회를 해온 이재철 목사의 퇴임예배는 따로 없었다.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인 6월 21일의 예배는 여느 주일의 예배와 똑같았다. 이날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이었다. 1992년 4월 넷째 주일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설교가 비로소 이날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었다. 그리고 매년 창립기념주일에 행하는 임직식도 여



1998년 6월 21일, 스스로 정한 임기 10년 약속에 따라 교회 문을 나서는 이재철 목사. 퇴임예배 없이 매년 창립기념 주일마다 하던 대로 1부와 2부 주일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시간에 임직식을 집례한 후, 가족과 함께 모든 성도가 연도에 서서 배웅하는 가운데 교회의 문을 나섰다. 이로써 주님의교회에서 처음으로 임기제가 실현되었다.

느 때와 마찬가지로 3부 예배 시간에 이재철 목사의 집례 아래 치렀다. 예배 후 이재철 목사 가족은 교인들이 교문까지 늘어선 행렬 가운데를 지나서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재철 목사와 가족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다음의 글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철 목사님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이재철 목사님!

목사님께서서는 1988년 6월 26일 주님의교회를 창립하시어 만 10년 동안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 참된 목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참된 교회의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님의교회와 목사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것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주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인간다운 기도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다운 기도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저희들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늘의 헤어짐을 어렵게 수용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부디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인류를 위하여 일하기로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당신이 그리울 때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묵상기도를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1998. 6. 2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교인 일동

교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 글은 원래 기념패를 만들어 이재철 목사에게 증정하려 했으나 본인이 사양하여 1998년 7월에 발간된 <함줄함울>에 게재되었다.¹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게 하기 위해 이재철 목사와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마련한 임기제가 실현되기 시작했다.

이재철 목사는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 퇴임 후 유학을 가기로 했고, 제반 유학경비는 교회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IMF 사태가 닥치자 이재철 목사는 유학 포기를 결정하고, 자신을 향한 당회원들의 마음만 감사하게 받고 유학경비 지원은 사양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²

대신 이재철 목사는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 교역자로 가게 되었다. 주님의교회에서 1년간 시무하기로 약속한 임영수 목사와 스위스 베른 한인교회 김도현 선교사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회는 퇴임 목사에 대한 예우와 제네바 한인교회 지원 차원에서 매달 200만 원씩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재철 목사가 이를 정중히 사양한데다, 본인이 평소 지향해왔던 목회소신과 뜻을 받아들여 당회는 사례비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³

임영수 목사 취임

1996년 2월 7일, 이재철 목사는 자신의 후임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당회에 제출했다. 이는 그가 1989년 이후 종종 자신의 목회 임기 10년을 선언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단계를 밟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당회원들은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10년 만기가 되는 1998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적잖이 당황했다. 이재철 목

1 함줄함울, 13호 7면, 1998. 7.

2 당회록 1998. 1. 6.

3 당회록 1998. 7. 7.

사가 이런 안건을 상정하자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밟았고 “담임목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기로 하다”⁴라고 결의한 바 있었다. 이것은 이재철 목사의 개인적인 선언을 계기로 당회가 담임목사의 임기를 공식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이재철 목사의 퇴임을 만 10년이 되는 1998년 6월 말로 정했다.⁵ 그리고 나자 이재철 목사의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재철 목사가 먼저 당회에 후임 목회자 후보를 여러 명 제시했다. 당회는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 몽골까지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후임목회자 후보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던 가운데 임영수 목사가 영락교회를 사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이재철 목사가 임영수 목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이에 당회는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임영수 목사를 후임목사로 모시기로 결의하고 그와 접촉했다. 그러나 본인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히자, 1998년 6월 말부터 후임 목회자를 청빙할 동안만 설교목사로 사역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임영수 목사는 부탁을 받아들여 1998년 6월 28일부터 설교목사로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의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다. 임영수 목사가 주님의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는 소식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 전해지자, 이전부터 임 목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교회 예배에 찾아왔다. 이로 인하여 설교를 시작한 그 주부터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증가하여 예배 공간과 주차 문제가 제기되자, 정신여중고와 협의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강당뿐만 아니라, 교실도 몇 개 더 빌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마침내 정신여중고의 대강당이 완공되어 넓은 예배 공간이 확보되자, 11월 1일부터 그동안 3부로 나누어 드리던 주일예배를 2부로 줄였다.

4 당회록 1996. 5. 9.

5 당회록 1996. 6. 13.



1998년 12월 6일 임영수 목사 취임 예배. 이재철 목사의 후임 선정은 쉽지 않았다. 이재철 목사와 교회의 요청에 따라 1998년 6월 28일부터 설교목사로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의 설교를 맡았던 임영수 목사가 오랜 고사 끝에 결국 2대 목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교인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다음해인 1999년 4월 둘째 주일부터 다시 3부 예배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다.

1998년 6월 21일자로 이재철 목사가 주님의교회를 사임하자, 후임 목회자 청빙위원회는 6월 28일 이후 임영수 목사를 계속 설득했다. 이에 대강당 건축을 마무리 짓고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영수 목사가 12월 1일부터 담임목사로 일하겠다고 응답했다. 임영수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락에 대해 당회는 10월 22일 모임에서 1996년 5월 9일에 담임목사의 임기를 10년으로 한다는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만 70세인 정년 임기까지 위임목사로 시무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12월 6일 임영수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다

주일예배 기도 인도

주님의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남자 서리집사는 주일예배 시간에, 여자 서리집사는 주일 저녁 찬양예배와 수요일예배 시간에 등록 순서대로 기도를 했다. 어느 교회들에서는 안수 받은 장로가 주일예배 기도를 인도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특별한 전통이었다. 1995년 7월에 접어들어 여자 서리집사도 주일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하게 하자는 안건이 당회에 상정되었다. 이러한 안건의 배경에는 주님의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와 장로 안수가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이 설교하고 축도할 수 있는 시대에 남자 서리집사가 하는 주일예배 기도를 여자 서리집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못하고, 4개월의 논의를 거친 끝에 여자 서리집사도 주일예배 기도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¹ 그리고 1996년 1월 1일부터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 순에 따라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기도를 하되 그 순서는 교회 등록 순이며, 서리집사의 경우에는 30세 이상의 서리집사만 대표기도를 맡기로 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확정했다.²

이에 비하여 봉헌기도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1990년 11월 당회에서 안수집사 피택자도 봉헌기도를 할 수 있게 했다.³ 1992년부터는 부목사도 봉헌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⁴ 1996년 1월부터 새롭게 신설된 청년부 예배 때에는 기도 인도를 청년이 하고 봉헌기도는 부목사들

1 당회록 1995. 11. 28.

2 당회록 1995. 12. 3.

3 당회록 1990. 11. 25.

4 당회록 1991. 12. 25.

이 하도록 했다.¹ 그해 7월 당회에서는 교회에 출석한 지 만 1년이 지난 협동장로도 봉헌기도를 할 수 있게 했다.² 이듬해 10월 당회에서는 봉헌기도를 시무장로, 교역자, 협동장로 순으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결정했다.³ 그러므로 봉헌기도는 안수 받은 중직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일 낮예배 장소 이동

1995년 9월에 정신여중고의 강당 건축이 결정되고 진행되자, 이듬해 3월 3일부터 주일예배를 정신여중고 소강당에서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장소를 정신여중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교인들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정신여중고의 소강당은 두 개의 교실 사이에 있는 벽을 터서 만든 것이었기에 방송시설과 에어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예배드리고 있는 YMCA 대강당보다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은 YMCA의 공간이 예배 인원을 수용하기 좁고, 특히 결혼식이 많은 봄 가을에는 더 심각해지는 주차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후일 강당이 완공되면 교회를 이전하여 교인들이 정신학원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신여중고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활하는 학교였기에 교인들이 이들과 불편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터였다. 이런 상황을 미리 서서히 익혀나갈 필요도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교인들의 점심을 준비할 식당을 수리하고, 장애인 교우를 위해 강당 계단 난간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1 당회록 1996. 4. 25.

2 당회록 1996. 7. 11.

3 당회록 1997. 10. 30.

그러나 평일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모든 예배를 소강당에서 드릴 수 없으므로, 수업이 없는 주일 낮예배만 옮기고 그 외의 예배는 계속 YMCA 교육관에서 드렸다. 그러다 학교측의 배려로 1997년 6월부터는 수요일예배도 소강당에서 드리기 시작했다.

주일 저녁 찬양예배

1989년부터 계속 시도되던 찬양예배 활성화의 일환으로 1995년 8월 6일부터 매월 첫째 주일에 '가족찬양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가족찬양예배'는 최창섭·최승철 집사가 설교 없이 찬양 중심으로 인도했다. 이것은 콘서트 형식으로 온가족이 함께 찬양하고자 마련된 것이었지만 말씀 예배의 중심으로 보는 장로교회에서 설교가 없는 찬양 콘서트 집회를 찬양예배라고 이름붙인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었다. 결국 이 '가족찬양예배'는 1997년 2월 2일부터 각 부서가 주관하는 설교가 있는 찬양예배로 바뀌었다.

주님의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 곳에서 오는 교인이 늘면서, 찬양예배의 활성화와는 상반되는 의미에서 주일 저녁 찬양예배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교회 공간과 거리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거주하던 교인들에게는 주일 낮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다가 저녁예배를 위해 다시 교회로 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당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여러 교회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심식사 두 세 시간 후에 찬양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1995년 11월 5일에 열린 당회에서는 기존 방식의 찬양예배는 일단 계속 드리고, 가족들과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교인들을 위해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하여 나누어주고 그 결과를 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매 주일 '가정예배 순서지'를 안내석에 비치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96년 3월 첫 주부터는 주일 낮예배를 정신여고 소강당에

서, 찬양예배를 YMCA에서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4부 청년예배를 마치고 정신여고 소강당을 서둘러 정리하고 논현동에 있는 YMCA로 달려와야 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결국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찬양예배의 존폐 문제를 6월 정기 제직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¹ 그러나 다음 달 초에는 교인들이 찬양예배를 그만 드리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한 계속 드리는 것으로 수정했다.²

주일 찬양예배에 대한 이런 논의는 2001년에 이르러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001년 한 해 동안 주일 저녁 찬양예배와 청년예배를 통합하여 오후 1시 30분에 드리는 것으로 결의했다.³ 사실상 한시적으로 저녁 찬양예배의 폐지를 시행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도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쓴다고 결정했다.⁴ 이렇게 하여 주일 저녁에 드리는 찬양예배가 없어지게 되었다.

절기예배와 예배문화

주님의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음악회가 시도되었다. 국악 찬양예배도 그중 하나였다. 1989년 3월 12일에 국악선교원 주관으로 국악 찬양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 그 후 1996년 12월 17일 국악부가 제직회 내의 부서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 6월, 8월, 9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국악 찬양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1998년에는 세 차례로 줄었고, 1999년에는 여름에 두 차례 국악 찬양예배를 드린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드리지 않았다.

이전의 창립기념주일에는 연합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하거나 영화를

1 당회록, 1996. 4. 4.

2 당회록, 1996. 5. 9.

3 당회록, 2000. 12. 9.

4 당회록, 2001. 12. 8.



1995년 11월의 국악 찬양예배. 1989년 3월 12일에 국악선교원 주관으로 국악 찬양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 1996년 12월 17일 국악부가 제직회 내의 부서로 신설되었고, 이듬해 6월, 8월, 9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국악 찬양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1998년에는 세 차례로 줄었고, 1999년 여름에 두 차례 국악 찬양예배를 드린 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상영한 것과는 달리, 1995~1998년까지 창립기념주일 저녁에는 찬양 콘서트와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창립 7주년 기념주일인 1995년 6월 25일에는 박종호의 찬양 콘서트가 있었고, 창립 8주년에는 최덕신의 찬양 콘서트, 창립 9주년에는 윤학원 장로가 지휘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연주회, 창립 10주년에는 최창섭 집사가 인도한 '주님의교회 창립 10주년 축하의 밤'으로 찬양예배를 드렸다.

1992년 초 당회가 추수감사주일에는 구역별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후 1992~1995년까지 추수감사주일에는 2부 행사로 구역별 복음사가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가 발전하여 1996년 11월 17일에는 YMCA 대강당에서 찬양뿐 아니라 각 구역마다 찬양, 무용, 연극, 춤, 노래, 연주 등 구역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행사로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이 펼쳐졌다. 구역별로 몇 주간에 걸쳐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 준비 기간에 구역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

다. 이날 1위를 한 구역은 정립전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과 이곳에 정기적으로 봉사하러 가는 교우들로 구성된 정립구역이었다. 정립구역의 찬양은 모든 성도의 심금을 울렸을 뿐 아니라, 교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감동을 주었다.



1996년 11월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에서 1위를 한 정립구역. 각 구역마다 찬양, 무용, 연극, 춤, 노래, 연주 등 구역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자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행사로 기획되어, 몇 주 동안 준비하는 동안 구역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다. 정립 구역은 정립전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과 이곳에 정기적으로 봉사하러 가는 교우들로 구성된 구역이었다.

이듬해 1997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예년보다는 이른 9월 7일에 드렸다. 1997년부터 추석 명절에 맞춰

전교인이 함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¹ 이날 전교인이 참석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역도경기장)에서 드리고, 2부 순서로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을 진행했다. 성경 내용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등 구역별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구역별 축제와 교제의 장이 펼쳐졌다. 함께 나누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그동안 3부로 나뉘 주일예배를 드리느라 부족했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1998년에는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을 열지 않고, 대강당 입당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와 축제를 추수감사주일과 겸해 11월 1일에 열었다. ‘감사대축제’에는 오케스트라와 주일학교 찬양, 교역자 남성중창, 지저스 찬양대 등 주님의교회 교인들과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이 참여했다. 2부 순서로 <마우스 헌트>라는 가족영화를 함께 보았다.

1 당회록 1997. 4. 10. 원래 추석 명절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1997년 9월 21일이 적합하지만, 전교인이 참석할 수 있는 예배 공간으로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을 예약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9월 7일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정했다.

말씀을 폭넓게 배우게 하시다

성장하는 교회학교

창립 이후 주님의교회 교인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교회학교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교회학교가 시작된 1989년에 장년부 출석 교인이 평균 150명이던 것이 1998년에는 평균 1,955명이 출석하여 약 13배가 증가했으며, 교회학교도 1989년에 평균 출석 인원이 70여 명이던 것이 1998년에는 평균 527명에 이르러 약 7.5배가 증가했다. 특징이 있다면, 교회학교 아동 수가 절대수치는 늘고 있지만, 장년 인원을 대비해 볼 때, 초기 약 50% 정도에서 1996년부터는 3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님의교회도 다른 대형 교회처럼 교회가 장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고, 신앙을 후세에 물려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1997년 고등부 헌신예배 모습. 창립 이후 주님의교회 교인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교회학교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매년 증가하는 학생 수에 맞추어 1995년부터는 기존 유치부 외에 탁아부와 초등부가 신설되기도 했다.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자 1995년 1월부터 2세 미만의 유아들을 위한 탁아부와 초등학교 3~4학년으로 구성된 초등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해 5월 11일부터는 부모님들과 함께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 유치부 예배를 장년예배에 맞춰 9시 30분과 11시 30분으로 나눠서 드렸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 예배

시간은 장년 예배 시간에 맞춰 편성되었으며,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 부서를 편성하여 예배와 성경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일 오전의 예배 외에도 절기와 계절에 따라 특별 교육 행사가 있었다. 겨울과 여

름의 방학 기간에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으며,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성도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특별 행사로 ‘청소년 집회’가 1995년 11월 13~15일까지 교회에서 열렸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이 집회는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이명박 당시 국회의원과 정구영 서울여대 총장과 차범근 전 현대축구단 감독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또한 교회는 1996년 2월부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의교회 정신을 익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학교 헌금 중 이웃사랑 계정에 해당되는 50%를 교회학교가 직접 그 목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했다.¹

청년에배 신설

그동안 다소 연약했던 청년부는 1995년에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뜨겁게 철야기도까지 하면서 청년부 부흥을 위한 몸부림을 보이자, 교회 차원에서 청년부 활성화와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1996년부터 청년을 위한 4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예배를 위해 지저스 찬양대와 찬양단 ‘새벽이슬’이 생겨났다. 청년부 활성화에 장년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1996년 4~12월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님의교회 장년 교인들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직접 나서서 신앙고백을 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인 권오승 집사의 신앙고백을 시작으로, 정연희 권사의 ‘소설가의 신앙고백’, 김희철 장로의 ‘기업가의 신앙고백’, 손천숙 집사의 ‘교사의 신앙고백’, 김완중 집사의 ‘변호사의 신앙고백’, 지유철 집사의 ‘직장인의 신앙고백’, 장윤식 집사의 ‘병원장의 신앙고백’, 이지연 집사의 ‘주부의 신앙고백’, 신은희 집사의 ‘중환자의 신앙고백’이 진행되었다.

1 당회록 1996. 2. 7.

시간이 지나가면서 청년부 예배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그동안 청년 예배를 돕기 위해 참석했던 장년들이 빠져도 2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청년들을 위한 예배가 되었다. 청년부 예배와 더불어 청년들의 구체적 신앙 성장을 위하여 청년1부는 주일 오전 11시30분에, 청년2부는 오전11시에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다.

주님의교회가 예배 장소를 옮긴 정신여고 근처에는 장로교 합동 소속인 남포교회가 있었다. 주님의교회는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를 구역장권찰 헌신예배의 설교자로 초청하거나, 양 교회의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등 남포교회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실의 하나로 6월에 주님의교회와 남포교회 청년들의 연합 신앙대강좌가 개최되었다. 두 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재철 목사와 박영선 목사가 강사가 되었다. 돌이켜보자면 1968년에 분열된 장로교 '통합'과 '합동'의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만나 교제하는 귀한 행사였다. 9월에는 남포교회와 주님의교회의 젊은이들의 친교를 위한 '청년 연합체육대회'가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열렸다. 1997년 9월에는 양쪽 교회의 청년부 연합 프로그램으로 '제2기 결혼예비교실'이 4주간 열렸다.

교사양성대학

교회학교가 성장함에 따라 학생들을 돌볼 교사가 더욱 많이 필요했다. 그동안 교사 교육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회학교가 시작된 해인 1989년 8월에 제1기 교사대학이 있었다. 이후 거의 매년 '교사대학' 또는 '교사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1995년까지 교사 교육은 주로 2~3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996년부터는 체계적인 교사 교육을 위해 '교사양성대학'을 3월 19일부터 10주간 매주 화요일에 실시했다. 그리고 모든 교사가 3년 이내에 10주 동안의 교육을 받도록 요구했다. 1997년부터는 교사양성대학이 8주로 줄어들었지만 계속 개설되었으며, 3년 안에 '교사양성대학'을 수료

하지 못한 교사들을 위해 1998년 9월에 ‘교사양성대학통신과정’을 개설했다.

‘교사양성대학’과 병행하여 1998년 1월부터는 새롭게 교사를 맡게 된 이들을 위해 ‘신임교사교육’이 개설되었다. 기존 교사들의 꾸준한 교육을 위해 1997년에는 ‘교사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1998년부터는 ‘교사계속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의가 개설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 교회는 늘어나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칠 교사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교사-학부모 기도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교회학교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회학교 교사-학부모 기도회’가 1997년 5월 15일부터 매월 둘째 주일 후 목요일에 YMCA 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도회는 이듬해 정신학원 대강당이 준공된 뒤에는 그곳으로 옮겨서 계속되었고, 11월에는 수험생을 위한 교사-학부모 기도회로 개최되었다. 이 기도회는 1999년 12월까지 계속되다가 잠깐 중단되었고, 2005년 3월에 학부모-교사 기도회(PTP)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장년 신앙교육

이 시기에는 장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이전 시기보다 더욱 다양한 강의들이 신설되거나 기존의 강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시도를 했다.

1989년 9월에 시작된 새신자반 성경공부는 1995년 전반기에 11기 새신자반을 마치고, 후반기부터는 새신자반 성경공부 교재를 개선하여 구역성경공부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1997년 전반기에는 각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새신자반’의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교회에서도 ‘새신자반’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새신



제1기 성숙자반 수료식. 새신자반을 수료한 많은 이들이 다음 단계의 성경공부를 원했기 때문에, 1995년 3월부터 교회는 10주 과정의 '제1기 성숙자반'을 개설했다. 1기 성숙자반에는 다른 교회 성도 6명을 포함하여 총 50명이 참가했다.

자반' 성경공부는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성경공부 과정에서 없어졌다.

그동안 새신자반 성경공부는 주님의교회에 온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훈련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새신자반을 수료한 많은 이들이 다음 단계의 성경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1995년 3월부터 교회는 10주 과정의 '제1기 성숙자반'을 개설하게 되었다. 1기 성숙자반은 다른 교회 성도 6명을 포함하여 총 50명이 참가했다. 그해 후반기에 시작된 2기 성숙자반도 56명이 수료했다. 1996년에 3기를 지나 이듬해인 4기에는 77명이 수료했다. 성경공부에 대한 교인들의 열의와 관심이 점점 커져갔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일어와 영어와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반,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반을 비롯하여 성경읽기 및 연구반(4복음서), 책별 성경공부, 사도행전 연구, 바울 서신반, 인물별 성경공부, 테마별 성

경공부, 뜻으로 보는 성경 연구, 101가지 성경공부, 예수님의 생애, 성서 지리반, 이스라엘 역사, 성경 속의 여인들 등의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었다. 이런 강좌들은 주기적으로 반복 개설되기도 했다.

수련회

창립 이듬해부터 매년 개최되어 성도들의 신앙 훈련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교인 수련회를 1995년에는 개최하지 않았다. 2월 당회에서 교회학교와 분리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자는 안과 장년 수련회를 하지 않고 가족별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지만, 최종 결정은 2월 제직회에서 하기로 했다. 12월에 열린 제직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당회는 1995년은 수련회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해이며, 1995년 표어가 '자유를 공포하라'이기에 그 정신과 의미를 반영하여 전교인 수련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회학교 수련회는 열었다. 1996년에 다시 개최된 수련회는 매년



1998년의 교구별 수련회. 늘어난 교인 수 때문에 더 이상 한 장소에서 전교인이 함께 수련회를 하기 어려워져서 1997년부터는 장년 중심으로 편성된 교구별 수련회로 진행했다. 1998년에는 설교목사로 사역하던 임영수 목사와 나눈 자유토론이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온 전교인 수련회가 아니라,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족수련회였다. 그해 개원한 강원도 횡성수련원에서 “기억하라(전12:1)”는 주제로 개최했다.

늘어난 교인 수 때문에 더 이상 한 장소에서 전교인이 함께 수련회를 하기 어려워져서 1997년부터는 장년 중심으로 편성된 교구별 수련회로 진행했다. 1~3교구는 7월 28~30일에, 4~6교구까지는 7월 30일~8월 1일에 횡성수련원에서 가졌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날짜를 달리하여 같은 장소인 횡성수련원에서 자체 여름 수련회를 열었다. 1998년도 교구별 수련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월 3~5일까지 1차가, 8월 5~7일까지 2차가 진행되었다. IMF의 영향으로 참석 한 성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공동체 훈련’, ‘별이 빛나는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재철 목사 사임 이후 설교목사로 수고 중이었던 임영수 목사와 나눈 자유토론이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이 시기 교회 수련회는 늘어난 교인 수 때문에 전교인 수련회에서 교구 수련회로 바뀌었고,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진행되었다. 이 즈음 또 하나의 특별한 수련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한국 교회 안에 성경통독 운동이 일어났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 외에 함께 모여 성경을 통독하는 수련회도 겨울과 여름에 정기적으로 열리곤 했다. 주님의교회 역시 1989년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계기로 교회 내에서 성경읽기 운동이 일어난 바 있었다. 매주 주보에 성경을 통독한 이들의 명단이 실렸다. 1996년에 성경통독 수련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1997년 1월 13~17일에 제1회 성경통독 수련회를 횡성수련원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이 성경통독 수련회에는 주님의교회 성도뿐 아니라, 이웃 남포교회 성도들도 참여했다. 모두 50명이 성경통독을 하여 성경통독패를 주었다. 제2회 성경통독 수련회는 그해 11월 3~7일에 개최되었다. 이때는 남포교회 성도 9명을 포함해 25명이 참석했다. 1998년 1월 12~16일에 열린 제3회 성경통독 수련회에는 남포



1997년 1월 횡성수련원에서 열린 제1회 성경통독수련회. 함께 모여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통독수련회는 1999년 제4회까지 네 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웃 남포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여 교회 연합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교회 성도 10명을 포함해 53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성경통독 수련회는 1999년 1월 11~15일에 정신여고 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를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부흥사경회와 신앙대강좌

1990년대 초기에는 성도들의 신앙 성향을 고려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을 위하여 신앙사경회와 신앙대강좌를 번갈아가며 개최했다. 이러한 흐름은 90년대 후반부에도 계속 이어졌다. 1995년 4월 24~27일에 제4회 부흥사경회가 YMCA 대강당에서 열렸다.¹ 정영환 목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1996년 4월 8~10일 저녁 8시에는 YMCA 대강당에서 제3회 신앙대강좌가 열렸다. 예년에 비해 이

1 교회 주보와 안내 서류에는 제3회 신앙사경회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주님의교회에서 개최된 사경회 회수를 헤아리면 제4회가 맞다.

해의 강사 선정은 특별했다. 첫째 날에는 하버드 대학 종교학 박사이자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적을 두고 있는 김승혜 수녀가 '수녀가 본 영성의 세계'에 대해 강의했다. 둘째 날에는 역시 하버드 대학 종교학 박사이자 서강대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길희성 교수가 강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에게 '비교 종교학자가 본 기독교'에 대해 강의했다. 셋째 날에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 종교학 박사학위로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가르치던 윤호진 승려가 '스님이 본 예수'라는 주제로 말했다. 그는 프랑스 유학 당시 수년 동안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가까이서 기독교를 접했고, 성경도 수차례 읽었다.

그런데 이전에 진행했던 신앙대강좌에서도 비그리스도인이 강의한 적은 있지만, 그 강사는 기독교 신앙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호진 승려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깊이가 있다는 식으로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을 강사로 초청한 것은 주님의교회 내에서도 의외의 일이었다. 그의 강의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중직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혹시 교인들이 현혹되지는 않을까 우려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불교가 종교로서 더 우월하다는 식의 주장을 용인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듬해인 1997년 3월 31일~4월 2일에 제5회 신앙사경회가 개최되었다. 이 사경회는 남포교회와 협력 차원에서 계획되었으므로 주님의교회와 남포교회 교인들이 함께 사경회에 참여했다. 강사로는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가 섰다. 그는 첫째 날에는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 둘째 날에는 '실천하는 믿음', 셋째 날에는 '같이 가는 믿음'에 대해 설교했다.

1998년에는 또다시 신앙대강좌가 열렸다. 때마침 교회창립 10주년을 맞아 현재의 신앙을 살펴보려는 의미에서 '진단'이라는 주제로 4월 13~15일에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자기진단'이라는 주제로 영신고등학교 교장인 신재을 성도가 '노년기에서의 자기진단'에 대해, 주부인 조정원 집사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진단'에 대해, 회사원 이호윤 집사가 '실직, 부도 가운데서 자기진단'에 대해, 흥막암 투병 중인 김영순 집사가 '불치병 중에서의 자기진단'에 대해, 청아치과 원장인 김찬숙 집사가 '일상사 가운데서의 자기진단'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권세훈 형제가 '청년의 자기진단'에 대해, 서울대 공대 교수인 강신후 장로가 '일터에서의 자기진단'에 대해 강의를 했다.

둘째 날에는 '사회진단'이라는 주제 아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인 김철중 집사가 '경제적 진단과 대안'에 대해,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인 김영작성도가 '정치적 진단과 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인 김영수 집사가 '사회적 진단과 대안'에 대해 강의했다.

셋째 날에는 '교회 진단'이라는 주제 아래, 변호사이자 <법률신문> 사장인 이진우 장로가 '한국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신행통상 대표인 김도목 장로가 '평신도가 바라는 교회의 미래상'에 대해, 그리고 이재철 목사가 '주님의교회 10년 결산'에 대해 강의했다. 제4회 신앙대강좌를 끝으로 더 이상 신앙대강좌가 열리지 않고 신앙사경회만 종종 열렸다.

횡성수련원 개원

당회는 1993년 8월에 2000년을 향한 장기 계획으로 가나안농군학교와 같은 훈련 센터를 건립할 생각을 갖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알아보기로 결의했다.¹ 이 계획의 일환으로 1994년 5월 8일 주일에 원주 제2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며 농어촌 발전위원회 회장인 김범일 장로를 설교자로 초대했고, 그해 7월에 있었던 여름수련회를 원주 가나안 농군학

1 당회록 1993. 8. 1.



1996년 개원한 강원도의 황성수련원. 폐교를 임대해 만든 2,700평 규모의 황성수련원에서는 전교인 수련회 뿐 아니라, 교회학교와 교구별 수련회가 시기별로 진행되었다. 이는 황성 지역 사회와 교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1998년 말 비용 절감 차원에서 폐원했다.

교에서 개최했다. 이런 계획에 근거하여 강원도 황성군 공근면 어둔리에 있는 폐교 예정인 분교를 임대하기로 결의하고,² 교실 3동, 교사 사옥 1동, 관리인 사옥 1동과 운동장 포함 총 2,700평의 규모의 신흥분교를 임대받았다. 임대받은 신흥분교를 보수한 뒤 업무용·하행진 전도사 부부를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7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수련원 개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여 황성수련원이 문을 열었다.

교회가 황성에 수련원을 운영하게 되자 교회의 대부분의 수련회는 이곳에서 열렸다. 1996년 7월 28~30일까지 황성수련원에서 ‘기억하라’(전 12:1)는 주제 아래 가족수련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주님의교회 교인들도 형제 교회로서 참석했다. 1996년 가족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교인들이 수련원이 있는 마을의 신선한 농산물을 사왔다. 신선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직접 사고 팔 수 있어서 소비자인 교인

2 당회록 1995. 3. 5.

들과 생산자인 수련원 주변 농부들에게 서로 유익했다. 이에 주님의교회는 수련원이 있는 황성 어둔리에 농산물 담당 부서를 만들고 권사회 회장을 부장으로 하여 권사회가 남녀 선교회와 협의하여 주관하도록 했다.¹ 교회가 수련원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 지역사회에 선교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1996년 연말이 되면서 황성수련원의 활용 계획이 변경되었다. 초기에는 가나안농군학교 같은 훈련센터를 건립하려는 취지에서 수련원을 임대했지만, 약 1년 6개월간 사용하면서 그런 훈련센터보다는 예수원 같은 경건 훈련을 위한 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그에 따라 황성수련원을 계속 임대할 수 있는지 알아본 뒤, 예수원과 같은 훈련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교역자를 청빙하자고 결정했다.²

다행히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서 황성수련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해 열린 당회에서는 이 사역을 담당할 교역자 찾는 일을 이재철 목사에게 일임했다.³ 그런데 이재철 목사가 당회에 추천한 목사가 다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 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이재철 목사를 통해 계속 목회자를 물색했지만 적합한 이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3개월 뒤 황성수련원에 대한 또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⁴ 이번에는 예수원 같은 공동체 훈련장이 아니라 대안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 달 뒤에도 이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토론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었다. 이후 1998년 10월까지도 황성수련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월 당회에서는 주로 수련회만 개최하던 황성수련원을 관리하고 유

1 당회록 1996. 9. 5.

2 당회록 1996. 12. 6.

3 당회록 1997. 1. 9.

4 당회록 1997. 5. 8.

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보고되었다.⁵ 정신여중고의 대강당 건축이 완료되어 건축비 상황에 재정이 빠듯한 교회가 용도에 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수련원을 계속 임대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었다. 결국 그해 말 횡성수련원의 임대를 포기하고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⁶ 횡성수련원 시대는 끝이 났다. 비록 당시 여건 때문에 횡성수련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수련원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2000년대를 향한 주님의교회의 장기적 발전 계획'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2005년의 '주님의 동산' 계획으로 이어졌다.

서로 교제하게 하시다

다양한 색채의 연주와 공연 행사

1995년부터는 그전과 달리 외부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연주회를 열었다. 1995년 6월 25일 창립 7주년 기념주일에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의 찬양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음해 창립 8주년 기념 행사에는 YMCA 대강당에서 찬양 사역자 최덕신의 찬양 콘서트가 열렸다.

1995년에는 형제자매 관계를 맺은 미국 남가주 주님의교회 어린이 찬양팀 '하나님의 형상(God's Image)'이 여름방학을 맞아 주님의교회에서 공연했다. 그리고 2007년과 2009년에 교회창립주일 기념 공연을 펼쳤다.

1996년 12월 1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남녀 연합선교회 초청으로 일본 동경 다마 지역에 사는 주부로 구성된 다마 만들어진 합주단이

5 당회록 1998. 10. 22

6 당회록 1998. 12. 12.

방문해 연주했다. 이 연주단은 재일교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한일교류 차원에서 주님의교회에 와서 공연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특이하게도 대부분 비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합주단은 이후에도 3차례 방문하여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1998년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가수 조하문 집사의 찬양 콘서트도 열렸다.

주님의교회가 주일 찬양예배를 위해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 것은 1993년 8월부터였다.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여 이듬해 12월 18일에 '성탄축하 및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연합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 1998년 12월 26일에 이르러서야, 새롭게 완공한 중강당에서 제1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교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여러 부문에서 안정을 찾게 되자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좀더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종종 찬양 콘서트 같은 형태의 시간을 갖고,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하거나 외부 찬양팀을 초청하여 교인들의 교제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한국 교회 내에서 기독교 찬양팀이 활성화되던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함글함울

창립 후 꾸준히 증가한 교인 수는 1996년에 이르자 1,5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한편으로 교인 간에 서로 얼굴을 모르거나 친밀도가 약해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8월에 남녀 연합선교회가 발행하는 격월 교회 소식지 <함·줄·함·울>을 창간했다. '함글함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줄여 만든 이름이다.

물론 <함글함울> 이전에도 소식지가 있었다. 1989년 6월 29일에 <선



〈함글함글〉창간호, 1996년 8월. 〈선교회보〉와 〈나눔의 소식〉에 이은 교회 공동체 내의 소통의 통로로 창간되었다. 초기에는 남녀연합선교회에서 격월간으로 간행했으나, 1997년부터 출판부에서 발행했고, 2003년부터는 주간으로 바뀌었으며, 2007년부터는 2~3주 간격으로 발행되었다.

교회보)가 창간되었으며, 이후 〈나눔의 소식〉이 발행되었다. 〈선교회보〉는 창간호만 남아 있고, 〈나눔의 소식〉은 매년 3, 4호 정도로 부정기 발행되었다. 이 두 소식지는 선교 현황과 선교지에서 온 편지 등 주로 선교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고, 교회 내부 교인들의 소식은 전혀 실지 않았다.

〈함글함글〉에서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 내의 소식과 개인의 신앙간증과 수필 등이 실리기 시작했다. 초기 〈함글함글〉은 교회 내 소식지와 문예지 성격을 겸했다.

이렇게 시작한 〈함글함글〉은 1996년 11월 제1회 내에 출판부를 새롭게 조직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1997년 1월호(제4호)부터는 남녀 연합선교회에서 발행하지 않고 출판부에서 발행했다. 또한 발행 면수도 8면으로 늘렸고, 이후 내

용에 따라 12면까지 늘기도 했다.

41호(2003. 4. 20)부터는 격월에서 주간으로 바뀌었고, 재창간을 표방하여 통권 1호라고 부르기도 했다. 소식지를 격월로 발간해서는 행사 후 기나 문예지 역할밖에 할 수 없었기에, 〈함글함글〉이 교회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교회 내 의사 소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간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155호(2006. 1. 22)부터는 PDF 파일로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171호(2006. 4. 30)부터는 흑백과 컬러 인쇄를 병행하다가 193호(2006. 11. 19)부터 전면 컬러로 인쇄했다. 199호(2007. 1. 7)부터는 격주로 발행했다.

2011년 8월 1일에는 그간의 여러 편집 원칙과 기준들을 수렴, 새롭게 〈함글함글〉 발간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함글함글〉에 수록되는

내용은 성도들이 알고자 하는 것,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것,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 구성된다. 제출된 원고는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했는지,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특정한 개인이 강조되거나 중심이 되는 글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기사는 교회에 나오지 6개월 정도 된 신앙을 가진 18세 이상의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충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편집되고 있는 <함즐함울>은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인 2013년 6월 23일에 320호가 발행되었다.



<함즐함울>창립 25주년 기념호, 2013년 6월 23일. 주님의교회가 이룬 모든 것이 주인이신 주님이 뜻하고, 인도하며, 행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

남포교회와 교류

주님의교회는 1996년 3월부터 정신여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즈음 정신여고 근처에 있는 남포교회와 당회원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했다. 서로 식사초대를 하는 등 교분을 나누면서 점차 실질적인 교회 연합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비록 교단은 달랐지만 두 교회는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노력했다.

그해 6월 11일, 두 교회의 더 밀접한 교류를 위한 '연합 신앙 대강좌'가 남포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 두 교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신앙 강좌의 강사로 두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 나섰다. 이러한 교류는 9월에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열린 '청년 연합 체육대회'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두 교회 청년부가 함께 진행한 연합 프로그램으로 1997년 9

월 23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된 ‘제2기 결혼예비교실’을 꼽을 수 있다.

1997년 1월 13~17일에 황성수련원에서 열린 ‘제1회 성경통독 수련회’에도 남포교회 교인들이 참여했다. 주님의교회 36명과 남포교회 14명이 함께 숙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로도 ‘성경통독 수련회’가 개최될 때마다 남포교회 교인들이 꾸준히 참여하여 양 교회의 교류를 이어갔다.

또한 1997년 3월 31일~4월 2일에 주님의교회에서 열린 ‘제4회 신앙사경회’에는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가 강사로 초빙되었다. 이 사경회를 통해, 서로 다른 교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류는 1998년부터는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다. 2004년에 두 차례 당회원 간의 식탁 교제가 있었지만, 이후 교류 차원에서 진행된 공식 행사나 사업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정신학원과 관계

대강당 건축으로 정신학원과 관계를 맺게 된 이후 정신여중고의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주님의교회에 출석했다. 이들은 주님의교회 교인들과 정신여중고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는데, 예컨대 ‘정신 노래선교단’ 연주회 소식 등을 〈함글함울〉을 통해 알려 모든 교인이 정신여중고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도록 했다.

때로는 주님의교회가 정신학원과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했다. 1998년 12월 17일에는 정신여고와 주님의교회가 함께하는 성탄예배에서 임영수 목사가 〈히브리서〉 3장 12~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자’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 후에는 교인들과 교사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다

교회 안에서

교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회 안에도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 1995년에 이르러서는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라도 전에 비해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양한 장소에서 교인과 이웃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교회 내 모든 일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YMCA 시절부터 차량 주차는 항상 중요한 문제였다. 교인들이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오는데다 YMCA 예식장 하객들의 차량까지 겹쳐 교통난이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인들의 주차를 안내하는 이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997



주님의교회의 명물 국수. 주일예배를 마친 교인들에게 제공하는 국수는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멸치, 다시마, 무, 황태머리, 양파 등 다양한 재료를 푹 우려낸 국물에 면을 담고, 국물을 낸 다시마와 무를 곱명으로 얹어 낸다.

년까지는 차량 관리 및 주차는 안내 2부에서 담당했다가 1998년부터 차량부가 제직회 부서로 새로 조직되면서 주차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주일예배를 마친 교인들에게 국수를 제공했다. 식재료값은 교회예산에서 지원하고,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어왔다. 토요일에 재료 준비를 하면, 새벽팀이 주일 새벽 5시에 국수 국물을 만들었다. 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 시간대별로 교인들에게 국수를 배식하고 뒷정리를 했지만, 제때에 많은 분량의 국수를 삶아서 배식해야 하기에 식당일은 고된 노동이었다. 식당 봉사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교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에 묵묵히 일했다.

1991년부터 제직회 부서로 조직된 경조부는 교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례에 필요한 과정을 돕는다. 경조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귀한 사역으로 핵가족시대에 상을 당한 교인들에게 귀한 위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의교회가 주관하지 않을 때에는 위로예배만 드리고 돌아오지만, 주님의교회에서 주관할 때에는 입관예배, 발인예배, 화장예배, 안



경조부의 주관으로 드리는 위로예배. 1991년부터 제직회 부서로 조직된 경조부는 교인들과 그 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함께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을 맡아왔다.

치예배를 드린다. 이 경조부는 1995년 경조 1부와 2부로 나뉘었다가 다시 경조부로 통합하여 운영했다. 이후 교인 수가 많아져 2002년부터 다시 경조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주님의교회는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예배실을 청소했다. 교역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먼저 솔선수범했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사부와 미화

부가 합동으로 예배실을 청소했다. 이러한 전통은 1998년 11월 1일 정신여중고 대강당으로 예배 장소를 옮긴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대강당도 매주 토요일 오후에 구역별로 번갈아가면서 청소하기로 했다.

교회 밖으로

창립기도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 재정의 50%를 대외 구제와 선교비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하지만 1995년 전반기에 농어촌선교비가 농어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해진 ‘농어촌선교비 오용’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당회는 대외로 지출되고 있는 선교와 구제비를 1995년 12월 31일부로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전면 재검토한 뒤에

다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¹ 이 와중에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정신여중교 대강당 건축 안건이 교인들의 동의를 얻었고, 1997년 8월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건축이 본격 진행되었다. 이에 교회는 교회 재정을 강당 건축에 집중하고 새로운 후원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기에 눈에 띄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996년 여름에 북한에 큰 수해가 발생하자, 서울 YMCA가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을 벌였다. 주님의교회도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에 참여하여 1,000구좌 쌀 20가마를 YMCA에 제공했다. 이후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장로교 교단에서도 총회 차원에서 '북한동포를 위한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이에 교회는 쌀 100가마니 분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북한동포를 위한 선교헌금 봉투를 비치하여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학교도 '교회학교 돌림잔치'를 개최하여 수입금 전액을 북한 돕기 성금으로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형제 교회인 오클랜드 주님의교회에서 뉴질랜드 달러 15,000불(한화 9,115,750원)을, 그리고 코스타리카 시온한인교회에서 1,286,529원을 송금해 동참했다.

1997년 4월 1일에는 정신질환자 갱생을 위한 '포도원 선교부'가 발족되었다. '포도원'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 공동체로 1987년 7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1996년 8월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1993년 10월~1996년 2월에 연대의대 이만홍 교수팀이 주님의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 열린 1997년 2월의 당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기금 5,000만 원으로, 이만홍 교수팀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주님의교회가 직접 주관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4월 1일 특수선교위원회 관할 아래 포도원 선교부가

1 당회록 1995. 6. 18.

정식 발족했지만 활동은 순조롭지 못했다. 1998년 1월, 포도원 선교부가 자립하지 못할 경우 2월 말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교회가 정신여중고 대강당 건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던 때여서 더 이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 부서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다

사랑하는 남편 초청의 밤

1994년 6월 13일에 전도부와 문화부가 제1회 '사랑하는 남편 초청의 밤'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믿지 않는 남편을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의 교회가 아니라 편안한 장소로 초청하여 부인이 진정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주님의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서울 모테트 4중창단이 나와서 찬양을 한 뒤에, 당시 과학기술처 장관 정근모 박사가 '집사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이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 이듬해부터 1997년까지 매년 6월



1994년 6월 13일에 열린 제1회 사랑하는 남편 초청의 밤. 이 행사는 믿지 않는 남편을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의 교회가 아니라 편안한 장소로 초청하여 부인이 진정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1997년까지 계속되었다.

에 계속 개최되었다.

이 '사랑하는 남편 초청의 밤'은 매년 2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6월경에 개최하는 전도부의 연중행사 중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으며,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는 이도 있었

다. 특히 1회 행사를 통하여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원철 씨가 다음해 행사에서 신앙간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이 행사는 열리지 않다가 2002년 3월 23일에 '남편 초청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전과는 달리 교구별 행사의 일환으로 충성 교구가 주관하여 교회 지하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이 행사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방송과 인터넷 선교

1995년 남가주 주님의교회가 미주 복음방송을 통해 서울 주님의교회 예배 실황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주님의교회는 국내에서도 방송선교를 추진하기로 했고, 1년 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극동방송(1188KH)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1996년 10월 13일 주일예배 설교분부터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 방송선교는 2003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같은 날 방송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님의교회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http://soback.kornet.nm.kr/~rcklim'에 주일예배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 소개, 예배 시간 안내 및 약도, 구역 성경공부 자료, 새신자반 성경공부 자료와 선교회 소식(함글함울) 등을 제공했다. 다음해인 1997년 7월 13일부터는 'http://www.lord-church.or.kr'을 주소로 하는 교회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했다. 1998년에는 제직회에 인터넷부를 구성하여 홈페이지를 꾸미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 홈페이지는 2003년 7월 15일까지 사용했으며, 같은해 6월 29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www.pcltv.org)를 만들고 내용을 개편했다. 인터넷을 통해 교인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으며, 다른 교회의 교인들도 주님의교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다.

해외 형제자매 교회

단독 선교사로 파송한 이인호 목사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자 주님의교회는 1993년 10월 3일부로 이인호 목사에 의한 중국 선교를 중단하고, 1994년 사업차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홍근용 장로를 통한 간접 선교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렇게 주님의교회 첫 해외선교가 방향 전환을 하는 가운데, 1995년에 해외선교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1995년 5월에 코스타리카 시온한인교회에서 주님의교회로 교역자를 파송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이재철 목사가 코스타리카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열린 6월 18일 당회에서 주님의교회 부교역자 중 한 사람을 목회자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금상호 목사가 자원하여 8월 3일 코스타리카로 떠나게 되었다. 시온한인교회로 부임하는 금상호 목사를 위하여 교회가 항공료와 이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1996년 말까지 사례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시온한인교회는 주님의교회의 형제 교회가 되었다.

같은 해 5월에 ‘남가주 주님의교회’가 창립되어 주님의교회와 형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남가주 주님의교회’는 주님의교회 예배를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 방송하는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교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¹ 동시에 국내방송 선교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

10월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한중배 장로가 목회자를 파송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목회자 파송을 요청한 오클랜드의 교인들은 목회자가 부임하기도 전에 교회 이름을 ‘오클랜드 주님의교회’로 정했다. 현지를 방문하여 교회 상황을 파악한 뒤 이동규 목사가 목회자로 가는 것을 승인하고 교역자 사례비의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2

1 당회록, 1995. 6. 18.

월 20일 파송예배 다음날 이동규 목사는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리하여 '오클랜드 주님의교회'가 형제 교회가 되었다.

형제 교회는 더욱 확대되어 1996년 1월 19일에 창립된 러시아의 '블라가웨신스크 주님의교회'가, 1997년 11월 23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한인교회가,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호주 체스우드 한인연합교회가 주님의교회의 형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 하겠다던 초기 계획은 점차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교회들과 형제 교회를 맺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주님의교회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를 파송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형제 교회가 있음으로써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해외여행시 주일예배를 드리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익했다.

환태평양 선교대회

이렇게 맺어진 형제 교회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 '환태평양 선교대회'가 1996년 10월 7~9일에 YMCA 교육관 2층에서 열렸다. 이 행사를 '환태평양 선교대회'라 이름 붙인 이유는 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들과 파송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장소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교회는 이것을 환태평양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엮으신 '선교의 띠'라고 믿었다.

당회는 형제 교회의 장로 및 담임교역자를 초청하여 사흘간 '선교대회'를 열기로 했다. 초청 대상은 코스타리카 시온한인교회,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교회, 미국 남가주 주님의교회, 중국 천진 한인교회 교역자 외에 러시아 블라가웨신스크 주님의교회 김만조 선교사와 캄보디아 기아대책본부 이성민 선교사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선교대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10월 7~9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형제 교회의 교역자와 선교

사들이 현지 사회와 교회의 현황과 현지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과 선교 계획과 비전에 대해 성도들에게 강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8일 오후 2~6시에 해외 형제자매 교회의 목회자와 선교사 6명 그리고 주님의교회 교역자들이 모여 '환태평양 선교를 위한 목회 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먼저 월 1회 팩스를 이용해 교회사역 현황을 서울 주님의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환태평양 선교대회 기념 사업으로 캄보디아 기아대책기구가 운영할 교육관을 임대하는 것에 각 교회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오uckland 주님의교회와 코스타리카 시온한인교회와 남가주 주님의교회와 서울 주님의교회가 연합하여 매월 1,5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월요일에는 천진한인교회, 화요일에는 블라가웨신스크 주님의교회, 수요일에는 남가주 주님의교회, 목요일에는 코스타리카 시온한인교회, 금요일에는 오uckland 주님의교회, 토요일에는 캄보디아 기아대책기구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요일마다 해당되는 교회는 서울 주님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 환태평양 선교대회는 형제 교회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11월에는 주님의교회 전임 교역자를 매년 상하반기에 한 명씩 형제 교회에 파송하여 선교훈련을 받게 하자고 결의했다. 이 결의의 첫 열매로 1997년 1월 27일~2월 6일에 김화수 목사가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1998년 하반기부터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8년 11월 5일부터 그동안 새벽기도회 시간에 형제 교회를 위해 기도해오던 것을 해외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로 바꾼 것에서 감지된다. 그동안 교회 내부에서 교포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형제 교회를 진정한 의미에서 해외선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곤 했다. 형제 교회의 담임목회자와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이재철 목사가 전반기에 임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남으로 교회 내에 해외선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또한 비록 주님의교회가 단독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을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리하여 교회의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이 형제 교회에서 해외선교사 쪽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그리고 1998년 10월 정신여고 대강당을 완공하고 1999년과 2000년에 건축비 상환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2000년부터 해외선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동남아시아 선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선교사 파송

주님의교회를 섬기던 이성민, 김창숙 집사 부부가 1995년 10월에 기아대책기구의 일원으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다. 이에 교회는 10월 29일 저녁예배 시간에 ‘기아대책기구 이성민, 김창숙 집사 캄보디아 파송예배’를 드리고, 매달 선교비의 일부를 후원했다. 하지만 이 파송은 1989년 교회가 결의했던 선교사 단독 파송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교회와 관계를 맺게 된 캄보디아는 이후 교회의 해외선교 지역 가운데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듬해인 1996년 1월 21일 저녁에는 ‘이낭우 선교사 인도네시아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낭우 선교사는 주님의교회 유치부에서 교육전도사로 6년 동안 시무하고 1995년 말에 임기 만료로 사임 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간 것이었다. 이 역시 주님의교회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아니다. 비록 교회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훈련 받은 이들이 해외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는 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단기선교

1994년부터는 해외 단기선교가 시작되었다. 초기 단기선교는 주님의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있고, 홍근용 장로가 천진한인교회 설립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1994년에 청년 1,



1996년 1월 이남우 선교사 인도네시아 파송예배. 그동안 태국과 캄보디아 등의 해외선교사를 후원해왔던 주님의교회는 2000년부터 해외선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동남아시아 선교를 좀더 강화했다.

2부가 12일간 중국 선교여행을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1995년 8월에도 청년 1, 2부가 중국 단기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이인호 목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관계를 맺게 된 왕청교회에 가서 여름수련회를 도왔다. 1996년 8월에도 강석영 전도사의 인도로 청년부 중국 단기선교가 있었다.

1997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떠났다. 1997년 초에 주님의교회 출신인 한 집사가 출석하는 베트남 한인교회에서 이재철 목사에게 부흥집회를 열어줄 것을 거듭 요청해왔다. 이에 3월 6일 당회에서 이재철 목사가 ‘환태평양 선교’ 일환으로 9, 10월 사이에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배경 아래 8월 7~17일에 청년 6명을 포함해 청년부 부장장로와 담당 교역자 등 총 9명이 베트남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다. 이 기간 중에 이들은 한국 경실련이 운영하는 베트남 직업학교에서 노동을 했고 베트남 한인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 단기선교와 이재철 목사의 집회가 계기가 되어, 11월 23일 베트남 하노이 한인교회는 주님의교회의 형제자매 교회가 되었다.

캄보디아 선교여행은 주님의교회가 단독으로 주관한 것이 아니라 기아대책기구와 연합하여 주도한 선교여행이었다. 참가자 17명 중에 11명이 주님의교회 청년과 교인이었다. 참석자들은 수련회를 개최하고 기독교 그룹을 방문하고, 어린이 운동회를 여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단기선교는 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여름에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되었다.

4

내 적 성 장 에 힘 쓰 며

섬 기 게 하 시 다

내적 성장에 힘쓰며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다

주님의교회가 나아갈 방향 재설정

1999년 주님의교회는 한편으로는 곧 맞이할 새천년을 준비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 대강당 건축비 상환과 같은 교회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임영수 목사가 설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교인들이 찾아왔다. 이 때문에 넓은 주차장이 금세 비좁아져 급기야 주일 3부 예배를 신설해야 했다. 그동안 대강당 건축에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 건물이 완공된 이 시점에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교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이러한 교회 안팎의 배경 속에 1998년 12월 6일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임영수 목사는 자신의 목회 방침을 교인들에게 밝히며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교회란 “기업체나 어떤 영리기관처럼 사람이 운영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해가는 부활의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공동체를 형성해가시는 분도 주님

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² 이러한 교회관은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지내왔던 교회관, 즉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과 교회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재해석하고 통합한 것이다. 여기에는 교회 재정의 50%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삶도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임영수 목사는 새천년을 앞둔 당시 시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새시대에는 컴퓨터와 각종 통신 정보망의 발달 덕에 세계가 서로 긴밀해지고 가까워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양의 정보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종교는 더욱 쇠퇴하고 그로 인해 영적 고갈과 함께 사교(邪敎)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생태계 파괴로 자연재앙이 증가하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소외 현상이 늘고, 마약이나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가정제도 붕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정서의 메마름을 채우고자 신화나 동화 같은 상상의 세계를 동경할 것이라고 보았다.³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21:5)’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했고, 1999년부터 교회가 나아갈 방향 및 주제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로 정했다. 이 주제는 그 뒤로도 바뀌지 않고 2003년 전반기까지 유지되었다.

임영수 목사는 이러한 자신의 목회 주제를 1994년 7월에 발간된 〈함즐함울〉 19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그러나 교회상을 그려가는 데는 어떤 주제와 원칙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 함즐함울 16호(1999. 1), 1쪽 참조.

3 함즐함울 22호(2000. 1), 1쪽.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그 주제와 원칙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 친교의 교회 공동체, 섬김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는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교회상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는 인간에 의해 생겨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친교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이며, 이러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실현해가는 교회입니다. ……」¹

여기에 근거해 임영수 목사는 주님의교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밝지 않은 시대 상황과 급격한 사회변화 앞에서, 기존의 제도 중심의 교회 유형에서 사역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역 중심의 교회는 디아코니아적 교회로 공동체의 삶이 활성화된 교회를 의미했다. 이에 2001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 중심의 교회로 방향을 잡고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다. 사역 중심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2001년부터 교회 제직회 부서가 개편되었다.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역 분야에 헌신적인 교인들이 필요했다. 임 목사는 헌신적인 교인들은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고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로 파악했다. 그는 이러한 비전을 품은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로 형식을 절대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 함즐함울 19호(1999. 7), 1쪽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형식을 너무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주일예배시에 헌금을 무명으로 개인별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교회만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는 이름을 밝히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는 교회에서보다 더 성의 있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할 때 이름을 밝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헌금하는 교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나입니다.

진정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형식 이전에 교인들의 신앙 내용입니다. 우리는 좋은 형식도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건강한 신앙 내용을 가진 교회로 성장해가야 합니다.²

임영수 목사는 교회가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 형식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것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봉사직(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도 생의 궁극 목표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데 돕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³ 그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 이유는 주님의교회 내에 존재하는 지나친 자부심에 대한 환기를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임직자의 임기제를 비롯해 무기명 헌금과 교회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예배당 무소유 등의 제도와 조직을 만들면서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강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자긍심이 지

2 함즐함울 19호(1999. 7), 2쪽.

3 함즐함울 22호(2000. 1), 1쪽.

나치다는 점, 다른 교회의 이목을 끄는 제도와 조직을 만든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고착되고 있는 점 등을 염려했다. 그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담고 있는 알맹이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임영수 목사는 숫자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하며 출석 인원 수를 기록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당회가 동의해 1999년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의 예배 참석 인원 수를 더 이상 주보에 신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성경을 통독하거나 완필한 자들의 이름을 주보에 신던 것도 중지했다. 그동안 성경을 완필하거나 통독을 한 경우에 누가 몇 번째 완독 또는 완필을 했는지도 주보에 실었다. 1999년 1월 17일부터는 그 명단을 더 이상 주보에 신지 않고, 교회 게시판에 매월 말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경건훈련과 내적 성장

위에서 언급한 주님의교회가 사역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영성과 치유'였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인들이 영성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 영성훈련은 크게 세 가지, 영성교육과 성경읽기와 기도로 구성되었다.

임영수 목사는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이전 설교목사로서 1998년 9월 23일부터 4주간 '가족치료를 통한 치유와 성장 세미나'를 열었다. 취임 후에도 장년 교육에서 영성과 내면 치유와 상담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1999년 6월 8~29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임영수 목사의 인도로 상담 세미나가 있었으며, 9월 14일~11월 30일까지 1차 '성장과 치유'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그해 여름에 개최된 수련회의 주제 역시 영성훈련과 관련된 '삶과 영성'이었다. 1차는 8월 2~3일, 2차는 5~6일에 임영수 목사와 장로회신학

대학의 영성 담당 교수인 유해룡 목사가 강사로 수고했다.

이듬해인 2000년 1월 27~29일에는 예년과 달리 교역자와 당회원 영성훈련을 했다. 2월 28일~3월 1일에 원주 복민교육원에서 열린 2차 ‘치유와 성장’ 세미나에는 30명 남짓이 참석했다. 이 ‘치유와 성장’ 강좌는 2001년부터는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기와 후반기 매주 화요일에 열렸다. 특히 이 해에는 이 ‘치유와 성장’ 강좌뿐 아니라 ‘성서학습’, ‘영성과 기도’ 같은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2001년 한 해 동안 모든 교인이 이 세 강좌 중 한 강좌를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다. 주일예배와 구역모임 그리고 한 강좌에 참석해 훈련을 받는 것이 모든 교인의 의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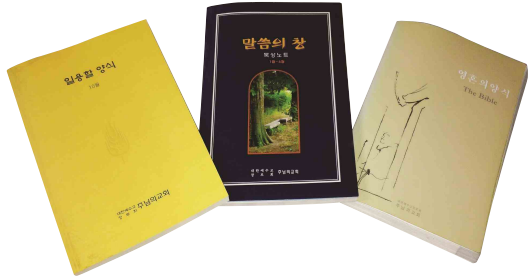
성경읽기와 묵상

1989년 7월 말에 열린 제1회 전교인 수련회를 계기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경읽기의 바람이 불었다. 이에 교회는 신앙과 삶의 근거를 성경에 두도록 하기 위해 성경 읽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통독한 이의 이름을 주보에 신고 완독패를 주었다. 이러한 성경읽기 운동은 1999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또한 1997년 1월부터 정기적으로 성경통독 수련회를 실시해 짧은 기간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 기회도 제공했다.

하지만 1999년 1월 11~15일에 제4회 통독수련회를 개최한 이후, 성경읽기 운동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부터는 더 이상 통독수련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1월 17일 이후로는 주보에도 완독, 완필 명단을 신지 않았다. 대신 매달 말에 교회 게시판에 게시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도록 도움을 주고자 2000년에 《일용할 양식》을 발간했다. 교인들은 이 책의 도움을 받아 성경의 맥을 잡으며 읽어나갈 수 있었다.

《일용할 양식》을 사용해본 교인들이 이러한 안내서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자, 교회

는 2001년에 목상노트인 《말씀의 창》을 준비했다. 교인들은 새벽기도 시간에 이 책을 함께 사용했다. 《일용할 양식》이 통독에 역점을 둔 책이라면, 《말씀의 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목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었다.



교인들의 성경읽기를 위해 마련된 교재들. 2000년에 발간한 《일용할 양식》이 통독에 역점을 둔 책이라면, 2001년 발간된 《말씀의 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목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었다. 2002년에는 《영혼의 양식》을 발간해 새벽기도회 시간에 사용했다. 이 책은 위의 두 가지 성경목상 방법이 통합된 것이었다.

2002년에는 《영혼의 양식》을 발간해 새벽기도회 시간에 사용했다. 이 책은 위의 두 가지 성경목상 방법이 통합된 것이었다. 매일 읽어야 할 통독 말씀이 제시되고 그 가운데 목상할 성경 본문을 발췌해 본문을 목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짧은 글과 함께 실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기존의 말씀 목상용 책들이 아닌 자체 제작한 목상집을 사용했다. 단순히 성경을 통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구원사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특정한 본문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도록 만든 교재들이었다. 이전의 성경읽기 운동이 제1회 수련회에서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교인들이 시작한 주님의교회 초기 신앙운동이라면, 이러한 교재를 사용한 성경읽기 운동은 한층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 한층 발전된 운동이었다. 하지만 2002년의 《영혼의 양식》을 끝으로 이런 종류의 책들은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다. 2002년 8월에 임영수 목사가 사임을 하고 연말에 여러 전임 부교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어수선한 교회 상황에서 이러한 책들의 발간에 관심을 쏟아 진행할 사람이 없었던 까닭이었다.

특별 기도회

주님의교회는 창립 이듬해부터 1997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매년 두 번의 릴레이 금식기도 또는 24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회와 같은 특별 기도회를 가져왔다. 이때의 특별 기도회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와 새해맞이 기도회로 크게 나뉜다. 1998년부터는 이런 특별 기도회의 시기와 기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1998년에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대신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열었다. 이후로 교회는 매년 사순절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다. 새해맞이 특별 기도회는 1998년을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대신 추수감사절 즈음에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다.

1999년 10월 4~16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이 특별새벽기도회를 연 동기는 당시의 현실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1998년 10월에 정신여중고 대강당을 완공한 뒤 교회는 건축비 상환을 위해 건축헌금을 계획했고, 건축헌금 모금을 위해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새벽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이에 고무된 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특별새벽기도회를 1년에 두 차례, 사순절과 추수감사절 즈음에 갖기로 했다.

그리하여 2000년 4월 10~22일에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하반기인 10월 2~14일에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렸다. 2001년 특별새벽기도회는 4월 9~14일까지 정확히 고난주간 동안만 열렸고, 하반기 특별새벽기도회도 11월 12~17일까지 ‘평강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002년에는 고난주간인 3월 25~30일까지 ‘소명’이란 주제로 임영수 목사의 인도 아래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다. 하반기 특별새벽기도회는 임영수 목사가 사임함으로써 높은뜻송의교회 김동호 목사의 인도 아래 11월 11~16일에 ‘좋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즈음에는 특별새벽기도회 기간도 점차 짧아졌다. 1999년 사순절

새벽기도회까지 40일 동안 하던 기도회가 1999년 가을 특별새벽기도회부터는 2주로 짧아졌고, 2001년부터는 일주일간만 열렸다.

1999~2002년까지 새벽기도회 주제는 주로 영적 치유와 성장이었다. 이에 따라 기도회는 교인들 개인의 영적 치유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고, 이후 영적 훈련을 받은 이들의 역할을 다루는 주제로 넘어갔다. 주님의교회의 특별새벽기도회 전통은 1999~2002년 사이에 정착되었다. 이 시기에 열린 특별새벽기도회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모였고, 특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한 많은 이들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아픈 기억이 많은 이들은 그런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 정면으로 마주 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치유받는 기회를 가졌으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처 입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바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한 교인들은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희망과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으며, 어떤 이는 미움과 증오가 들 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또한 친진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좌절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습하기도 했다.

교역자 임기제 재논의와 안수집사·권사 임기제 폐지

1991년부터 시행하게 된 임기제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였다. 담임목사였던 이재철 목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반면 초기 공동체들의 의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1996년에 안수집사와 권사를 포함한 모든 향존직의 임기제가 공식 결정되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상태

에서 목회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이후 임기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된 일이 2대 목회자인 임영수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임영수 목사는 1998년 6월 28일부터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설교를 담당하기 위해 주님의교회에 왔다. 당회는 그해 10월까지 임영수 목사를 2대 담임목회자로 모시기 위해 설득했고 결국 임영수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수락하자, 만 70세 정년을 보장했다.

1. 청빙위원회에서 임영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바, 임영수 목사가 담임목사 수락을 하여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무하기로 한다. 임영수 목사의 수락에 대해 당회에서는 임영수 목사를 정년(만70세) 임기까지 위임목사로 시무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아울러 공동의회에서 임영수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하기로 하다.¹

당회의 이 결정으로 임영수 목사는 주님의교회에서 14년간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담임목사 임기를 10년으로 한다는 1996년 5월 9일의 당회 결정에 상충되는 것이었다. 임 목사가 취임하고 난 뒤인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교회 행정장정에 담임목사의 10년 임기제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당회는 임기제를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임기제의 찬반에 대한 논쟁의 불씨가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안수집사와 권사 임기제는 몇 달 동안 논쟁과 갈등을 거쳐 1996년 5월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2000년에 들어오면서 안수집사와

1 당회록 1998, 10, 22.

권사 임기제에 대해 당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철차 문제와, 치리권도 없는 봉사적인 안수집사와 권사 직분까지 임기제를 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의를 고려하여 6월 정기당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 임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안수집사와 권사 임기제를 폐지한 다음해인 2001년 11월 10일에 열린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임기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담임목사의 목회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 목회자가 비전을 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이 규정이 총회 헌법해석서와 위배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¹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당회는 담임목사의 10년 임기제에 대해 장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후 당회에서 재론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임기제에 대한 논란은 2002년 8월 31일 임영수 목사가 사임을 하고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유력한 후보가 되었던 여러 목회자들이 담임목사의 임기제에 청빙을 고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역량 있는 담임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임기 조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과 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쪽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논의 끝에 당회는 ‘임기제는 주님의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이므로 특정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 그 정체성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²

1 헌법해석서는 1987년 9월 제72호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총회헌법위원회가 마련한 헌법(정치, 권징)에 대한 해석서이며, 2000년 11월 헌법조례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임기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제4장 교회의 직원 제 2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 항존직의 시무정년 시한은 정년되는 해(70세) 연말까지로 한다. 단, 정년 전이라도 본인이 원할 때는 해당회와 노회의 허락으로 조기 은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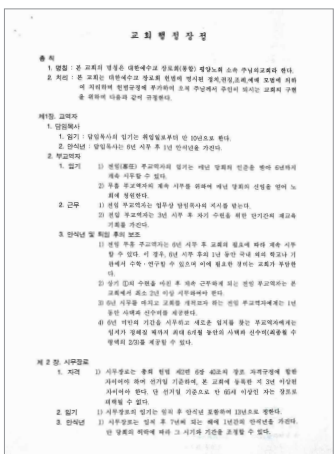
이 조항에 근거하여 총회헌법위원회는 교회 내에서 항존직의 임기제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있으나 한 사람이라도 이에 대하여 문제시하거나 질의를 하면 항존직의 임기제가 무효한 것으로 판단을 한 적이 있다.

또한 제90회 총회 보고서 안양노회에서 질의한 항존직 임기제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장로, 목사 임기제는 적법하지 않다”로 해석한 바 있었다.

2 녹취록 7번, 3쪽.

1999년 1월에 시행된 행정장정에 의하면, 전임 부교역자는 매년 당회의 인준을 받아 6년까지 시무할 수 있었다. 6년이 지나도 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도록 했다. 2001년 1월 21일부터 전임 부교역자의 임기와 안식년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전임 부교역자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재신임하면 3년을 더 시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6년 시무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전임 부교역자에게는 1년의 안식년을, 새로운 임지를 찾는 부교역자에게는 6개월의 안식년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6년 시무 후 1년 안식이라는 전임 부교역자의 안식년 규정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었다. 결국 2003년 10월 10일부터는 전임 부교역자 안식년 규정은 없어지고, 6년의 임기를 마친 전임 부교역자에게는 임지가 정해질 때까지 최장 1년 동안, 3년의 임기를 마친 전임 부교역자에게는 최장 6개월 동안 사택과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퇴임 후 보조 조항을 두어, 다음 사역지를 찾는 전임 부교역자를 배려했다.



행정장정 제정

1998년 12월 임영수 목사의 취임 후 교회 운영의 일관성과 체계를 위해 행정장정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영락교회의 행정장정과 규정집을 참조해서 행정장정이 제정되었고, 199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행정장정은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교회 운영에 적용해오던 창립정신, 관행, 누적된 목회자와 당회의 결정 사항 들을 체계적인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었다. 행정장정은 기본법과 세부 운영 규칙을 통합한 형식으로, 총칙과 총14장으로 구성되었다. 총칙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999년 1월부터 시행된 행정장정. 교회 운영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교회 운영에 적용해오던 창립정신, 관행, 누적된 목회자와 당회의 결정 사항 들을 체계적인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었다.

(통합) 평양노회 소속"이라는 명칭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에 의하여 치리하며 헌법 규정에 부가하여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4장까지는 교역자, 시무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협동장로를 다루며, 5~13장까지 사무국, 인사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 결혼, 장례, 대관 등의 세부 운영 규칙을 다루고 있다.

행정장정에 이렇게 세부적인 운영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세부적인 보완이 자주 필요했다. 2000년에는 협동장로와 협동안수집사와 협동권사에 관한 조항을 개정했으며, 2001년에는 전임 부교역자의 임기와 안식년 조항을 개정했고, 2002년에는 또다시 협동장로와 협동안수집사와 협동권사와 관련된 조항을 고쳤다.

정신여증고 대강당 헌당예배와 증축

교회 공동체가 1997년 8월 5일에 강당 건축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한 후, 10월 30일에 당회는 건축재정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전교인이 건축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었다. 교회는 건축 기간 중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크고 작은 재정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선교비와 구제비까지도 줄이며 건축 비용을 충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강당이 완공되어 입당예배와 기증식을 드릴 즈음 건축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24% 정도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1998년 6월 28일부터 임영수 목사가 주일과 수요예배의 설교를 담당하면서 많은 교인이 출석했고, 빠른 속도로 교인이 늘면서 건축비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중에는 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주일 낮예배에 참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 많은 이들의 헌금은 건축비를 갚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그와 함께 1999년 9월 10일 당회는 부족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건축헌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건축헌금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교인들에게 2주간 공지를 하고, 17일



1998년 11월 10일 완공된 정신학원 강당을 운동장에서 바라본 모습. 대예배당이 있는 김마리아회관은 현재 모습과 같지만, 수련원은 있는 김필례관은 2층까지만 건축되었다. 예배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공사를 통해, 2002년 5층으로 증축하면서, 지하 중예배실도 새로 만들었다.

에 시행했다. 건축현금을 위해 임영수 목사는 10월 4~16일까지 특별새벽기도회를 인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8년 대강당 입당예배를 드린 지 약 2년 만에 교회는 미지급되었던 건축비용을 다 갚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11월 19일 주일에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 날은 입당예배 때처럼 추수감사예배를 겸하여 드렸다. 매년 추수감사주일마다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 대축제를 열었는데, 이 해에는 예배당 헌당의 의미도 함께 더해졌다.

1998년부터 시작된 교인의 급격한 증가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증가를 불러왔고, 자연히 교회학교 예배 공간 문제도 발생했다. 교회학교뿐 아니라 교인들도 예배 외에 다양한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도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2001년 6월, 당회는 예배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해 수련관 위로 3개 층과 지하에 약 600석 규모의 강당을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02년 2월 20일부터 정신여중고 강당 증축 공사가 시작

되었다. 예정했던 기간보다 오래 걸렸지만 강당 증축 공사는 그해 안에 마무리되었다. 교회 공동체는 그해 12월 22일 주일 오후 2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중예배실에서 ‘중예배실 및 교육공간 증축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축하 문화행사가 열렸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청년부 워십 팀이 현대적 찬양과 춤을 선보였고,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이루어진 소년부 글로리엘 중창단의 축가와, 문화부 성극팀의 〈완악 씨의 삶과 죽음〉 공연이 있었다. 이어 지하 식당에서 축하 리셉션을 가진 후 증축된 건물 내부 관람이 진행되었다.

임영수 목사 위임과 사임

1998년 12월 6일에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임영수 목사는 이듬해 5월 16일 위임목사가 되었다. 임영수 목사는 교인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영성 훈련을 도입했고, 교회 내 치리와 행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행정장정의 제정 작업을 이끄는 등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는 데 기여해왔다.

2001년 9월, 임영수 목사는 갑자기 담임목회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임 의사 표명은 교회 내에 적잖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당회에서 임영수 목사는 세계선교대학신학대학원에서 선교사 수업을 받고 있던 홍경환 목사를 교회의 지원 아래 태국 선교사로 파송하겠다고 통보했다. 당회원 가운데 몇 사람이 담임목회자가 당회와 사전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하기는 했으나 결국 담임목회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의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영수 목사가 담임목회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당회와 교인들 사이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장로들은 담임목사의 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에 임영수 목사가 사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몇몇 교인들은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 목회자의 계획에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갈등이 불거지면서, 장로들을 비난하는 글이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10월 13일에 열린 당회에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업적·비방적·이단적·비도덕적인 글과 기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까지 강구하게 되었다.¹

담임목사로 청빙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임영수 목사가 왜 갑자기 사임을 결심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는 담임목회자직을 완강히 거절하다가 왜 결국 수락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함글함울> 제34호에 실린 임영수 목사의 글을 통해 그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목회를 위해 잠시 시간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 역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순간도 지금의 목회로 저의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적당한 시기에 저의 마지막 소명의 길에 발을 내디디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그러한 생각을 그동안 직접 간접으로 몇몇 분들에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도 저의 뜻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목회 모델을 구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을 유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할 때에는 제가 장기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여야 그러한 목회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이상의 장기간의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저는 전 교회의 목회를 마지막으로 기존 교회의 목회는 끝내고 다른 유형의 목회적 삶을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는 일은 저의 남은 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²

1 당회록 2001. 10. 13

2 함글함울 제34호 (2002. 1. 1) 1쪽.

비록 당회가 70세 정년을 보장했지만, 임영수牧사는 담임목회직을 수락하면서도 처음부터 장기 목회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임영수牧사가 애초에 주님의교회에서 정년 은퇴까지 목회할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받아들인다면,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을 통해 왜 1998년도 10월에 담임목사직을 수락하게 되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 1998년 하반기에 정신여중고 대강당이 완공되었지만, 막대한 건축비를 상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고 임영수牧사가 6월 28일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수많은 교인이 오게 되었는데, 대부분 새신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정작 당회원과 힘을 모아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담임목사가 없었다. 임영수牧사는 이런 상황을 목회자의 책무를 전제로 바라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영수牧사가 사임 의사를 당회에 알린 2001년 9월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이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 부담이 되었던 대강당 건축비를 모두 상환하고 2000년 11월 19일에 헌당예배를 드리고, 부족한 교육 공간을 위해 중강당 및 생활교육관 증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강당 건축을 위한 건축재정으로 국내외 선교에 역력이 없다가 대강당 건축비를 다 갚고 나자,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기로 한 창립정신에 따라 교회는 다시금 해외와 국내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0년에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고, 동남아 지역으로 단기 선교 훈련을 보냈으며, 국내외 선교 지원을 재검토하고 재계약을 맺었다. 2001년에는 당회원으로 구성된 동남아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으며, 2001년 10월에 베트남 달랏에서 11명의 교인과 18명의 동남아 지역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세미나를 열었다. 그리고 핵심 해외선교지로 태국을 선정했다. 사역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치유와 영성 교육을 통하여 교인들을 훈련시켜왔으며, 2001년부터는 사역 중심의 목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대강당 건축 이후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임영수 목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물론 이미 그전부터 임영수 목사는 담임목사직 사임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고, 그때마다 당회는 장기 목회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때마침 태국선교사 파송건과 담임목사직 사임이 서로 맞물려서 교회 내에 오해와 갈등이 빚어진 것이었다.

2001년 9월에 사임 의사를 밝힌 임영수 목사는 자신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만 없다고 판단하여 2002년에 들어서면서 전반기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사임하는 것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당회에 ‘리뉴얼 센터’(Renewal Center, 현재의 모세골 공동체)를 세울 계획도 알렸다. 당회가 여러 차례 임영수 목사를 설득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자, 주님의교회에서 목회해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리뉴얼 센터 건립 계획 중 100석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했다.¹ 당회는 임영수 목사의 조언에 따라 후임 목회자가 올 때까지 선임 목사, 서기장로, 당회 재정위원장으로 구성된 목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임영수 목사는 8월 31일자로 담임목사직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했다. 임영수 목사가 주님의교회를 떠나자 그 뒤를 따라간 교인이 몇몇 있었지만, 대다수 교인들은 교회에 머물러서 신앙 공동체를 지켰다.

문동학 목사 청빙

임영수 목사의 사임 의사에 따라, 당회에서는 2002년 2월 9일부터 제3대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10명의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고 7~9월까지 3명의 후보가 각각 한 달씩 설교를 했다. 모든 청빙의 과정이 끝난 뒤 당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였던 김지철 목사를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

1 당회록, 2002. 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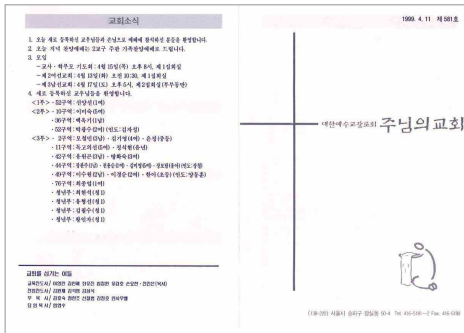
다. 그러나 김지철 목사는 새롭게 발생한 다른 사정을 들어 청빙을 사양했다. 당회와 청빙위원회는 청빙위원을 보강하고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후임 목사를 찾기 시작했다. 2002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마침 지난 1차 후보 10명의 명단에 들어 있던 문동학 목사가 시무 하던 교회를 연말에 사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동안 주님의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다른 교회에서 시무 중인 목사는 제외해왔다. 청빙위원회는 문동학 목사를 만나 담임목사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고, 문동학 목사는 이를 수락했다. 12월 21일 당회에서 청빙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당회원들은 문동학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으며, 12월 25일에 열린 임시제직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했다. 제직회에서는 담임목사 청빙이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담임목사와 함께 2003년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빙위원장의 설명을 받아들여 문동학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다

예배 형식의 변화

1999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드러왔던 주일 낮예배 순서에서 몇 부분이 바뀌었다. 말씀봉독 전 기도는 그동안 서리집사 이상 돌아가면서 하던 것을 시무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협동장로 순으로 번갈아 했으며, 그동안 예배 인도자가 하던 성경봉독을 서리집사가 맡았다. 또한 교역자와 시무장로와 협동장로가 하던 봉헌기도는 예배 인도자가 했다. 그동안 예배 앞부분에 있던 주기도가 참회의 기도과 사죄의 기도로 대체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참회기도와 사죄의 기도 사이에 침묵의 기도가 들어갔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찬송은 일어서서 불렀지만,

1999년부터는 말씀 선포와 설교자의 기도 후 찬송은 다같이 부르지 않고, 성가대의 응답송으로 드렸다. 2000년부터는 예배 참석자들이 주기 도송을 함께 불렀다. 2000년 6월 4일부터는 주일에배시 찬송가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2005년 1월 예배 순서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성경봉독 전에 있던 ‘광고’가 1999년부터는 ‘성도의 교제’로, 2000년부터는 기도와 성시교독 앞에 놓여 ‘평화의 인사’로 바뀌었다.



1990년 4월 새롭게 디자인 된 주보. 종전 예배 순서와 교회소식을 담았던 2면 주보에서 4면으로 바뀌었고, 표지에 도안 그림이 실렸다. 이 무렵 주일예배 참석자가 급증하면서 주일 낮예배가 3부로 늘어났다.

1998년 6월 28일부터 주일예배 참석자가 급증함으로써 예배 공간과 주차 공간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자 대강당 완공 후 2부로 드리는 주일예배를 3부로 드리기로 결정했다. 4월 둘째 주일인 11일부터 1부 예배는 7시 30분에, 2부 예배는 9시 30분에, 3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리기 시작했다.

같은 날 주보가 새롭게 바뀌었다.

그동안 총 2면으로 예배 순서와 교회소식만을 알리던 주보가 총 4면으로 확대되었으며, 표지에 도안그림이 실렸다.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교회 분위기가 주보를 통해 잘 나타났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예배용 성경이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바뀌었고, 매달 마지막 주일에 거행하던 성찬식은 2002년부터 홀수달과 교회 절기마다 거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청년 찬양예배

그동안 주일 저녁에 드리는 찬양예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1995년 11월부터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부하면서 주일 저녁에 가족

끼리 예배를 드리도록 교인들을 배려했으며, 1996년 5월 당회에서는 교인들이 찬양예배를 그만 드리자고 요구하지 않는 한 계속 드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1999년에 들어서면서 찬양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식을 시도했다. 1월 31일에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드라마로 재조명한 '찬송드라마'가 공연되었다. 이 '찬송드라마'는 2월, 3월, 8월에도 공연되었다. 7월 18일과 10월 24일에는 '찬송 배우기'로 찬양예배를 드렸으며, 10월 31일에는 '작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다양한 저녁 찬양예배를 드리는 시도는 2000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신 명절과 세례식, 특별 기도회나 수련회 등 때문에 종종 찬양예배를 생략했다.

주일 찬양예배에 대한 논의는 2001년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00년 12월 9일 모인 당회는 2001년 한 해 동안 주일 저녁 찬양예배와 청년예배를 통합하여 오후 1시 30분에 드리는 것으로 결의했다. 정신여중고 대강당 완공 이후에는 청년예배가 없어졌다. 저녁에 드리던 찬양예배를 오후로 옮기고 청년예배를 다시 부활시켜 오후 1시 30분에 통합예배가 신설된 것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한시적으로 저녁 찬양예배의 폐지를 시행해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1년 동안 시행해본 결과 큰 문제가 없자, 2001년 12월 8일 열린 당회에서 2002년에도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쉰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 주일 저녁에 드리는 찬양예배는 없어지게 되었다.

수요성서강해, 수요성서학당과 수요예배

그동안 '수요예배'로 드려오던 것을 1999년 1월 6일부터 '수요성서강해'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수요성서강해 시간에 임영수 목사가 2000년 말까지 <시편>, <야고보서>, <누가복음>, <히브리서>, <잠언>을 강해하기도 했지만, '기도'와 '침묵의 삶'과 같이 성경강해가 아니라 주제설교를 하기도 했다. 2001년 2월 7일부터는 '수요성서학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강

정호 목사가 ‘복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이끌었다. 이 성경공부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어서 2002년부터 다시 수요 예배로 바뀌었다.

절기에배와 예배 문화

1998년까지는 매년 성금요일에 오전 10시 또는 11시에 고난기념예배를 드렸다. 1999년부터는 성금요일 오후 8시에 고난기념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드리기 시작했다. 많은 교인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교회는 부활절 축하 음악회를 매년 개최했다. 1999년에는 부활절 저녁에 시온성가대가 주관한 부활절 기념음악회를, 2000년에는 부활절이 지난 수요일에 시온성가대가 부활절 축하 음악회(Dudley Buck, 〈승리자 그리스도〉)를, 2001년에는 4부 청년 찬양예배 시간에 살롬성가대가 부활절 축하 음악회(Mendelssohn, 〈시온아 찬양하라〉)를 열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로 전 교인이 동참했던 현혈운동

이전 해와 달리 2002년에는 성찬예식과 시온찬양대의 수난절 칸타타(Theodore Dubois, <십자가상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곱 말씀>)와 함께 성금요일 음악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로 4월 7일에 헌혈운동을 가졌다.

그동안 매년 창립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며 잔치를 했다. 하지만 1999년 6월 27일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에는 행정상의 착오로 장로 피택자가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직식이 없었다. 그 대신 오후에 대예배실에서 장로 권사 연합찬양, 소년부 글로리엘 중창단의 뮤지컬 공연,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축하 공연, 영화 <이집트 왕자> 상영 등 다양한 창립주일 축하 행사가 있었다.

2000년 6월 25일 창립 12주년에는 특별 프로그램 없이 임직식만 치렀다. 2001년에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하여 시온성가대의 축하 음악회(Mendelssohn, <시편 42편>) 공연이 있었고, 토요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실시했다. 기념주일 당일인 6월 24일에는 임직식과 글로리엘 중창단의 정기공연이 있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2002년 6월 19일에는 호산나 찬양대와 초등부와 소년부 연합찬양대가 기념 음악회 공연을 했고, 26일에는 홍경환 선교사 태국과송예배를 드렸으며, 30일에는 창립 1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거행했다.

1997년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에 맞추어 드리기로 결정했지만,¹ 1998년 추수감사절 예배는 대강당 입당예배와 맞추기 위하여 11월 1일로 변경했다. 그러다 1999년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시 전통에 맞춰 11월에 드리기로 결정하여² 11월 21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예전처럼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 같은 잔치는

1 당회록, 1997. 4. 10.

2 당회록, 1999. 9. 11.

열리지 않았고, 권사 안수식과 함께 글로리엘 중창단과 여성중창단, 청년부중창단, 교역자 중창 등으로 감사찬양 축제를 열었다.

새천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감사주일인 2000년 11월 19일은 뜻 깊은 날이었다. 이날 그동안 교회의 무거운 짐이었던 대강당 건축비를 모두 지불하고 헌당예배를 겸하여 드린 것이다. 그리고 전통인 추수감사절 축하 구역별 달란트 한마당 축제가 다시 개최되어, 찬양, 연극, 무용, 뮤지컬, 콩트 등으로 뜻 깊은 감사주일을 맞이했다. 이듬해 추수감사주일은 1, 2, 3부 예배를 전교인 합동예배로 드렸다.

새천년을 눈앞에 둔 1999년 성탄절 행사는 20일 월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교회 대청소’로 시작했다. 19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가 주관하는 성탄축하 잔치를 했고, 22일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살롬 찬양대와 글로리엘 중창단의 주관으로 성탄축하 음악예배를 드렸다. 전년도에는 대강당에서 교회학교를 포함하여 전교인 연합으로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교인 수 급증으로 인해 9시 30분과 11시 30분으로 나누어 드렸다.

배우며 섬기게 하시다

교회학교

1999년에 교회학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1부, 청년2부로 구성되었다. 이전의 유치1부와 2부는 유치부로 통합되었다. 또한 2000년 3월 5일부터 고등부 예배를 7시 30분과 9시 30분으로 나누어 학교와 학원에 쫓기는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01년 8월 5일부터 통합 유아예배가 시작되었다. 통합 유아예배는

9시 30분 2부 장년예배에 참석하는 부모를 따라 교회에 온 영아와 유아와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한 예배이다. 통합 유아예배 외에 11시 30분에는 기존의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를 계속 드렸다.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하나이던 교육부서를 청년 1부와 2부를 담당하는 청년위원회와 그 외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로 나누었다.

1999~2002년은 내적 성장을 통해 봉사와 선교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에 집중하던 시기였다. 1998년 연말에 중등부 학생들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중증장애인 단체인 한사랑 마을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으며, 2000년 8월 8~9일은 고등부가 충청북도 음성 꽃동네 수련원에서 디아코니아 수련회를 개최했다. 다음해에는 교회 차원에서 각 교회학교가 1년에 한 번은 현장봉사로 수련회를 개최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중등부는 겨울수련회 일정에 따라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마누엘 재활원을 방문했다. 그해 여름에는 충북 음성군 금왕리에 있는 꽃동네로 수련회를 갔다. 2001년 8월 26일에는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후속 활동으로 '사랑의 돌림잔치'를 열어 전교인이 아나바다운동(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뀌 쓰고, 다시 쓰는 운동)에 참여하여 이웃을 돕는 일을 실천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등부는 2002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강남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예배를 도왔다. 그와 더불어 매주 주일 오후에 특별성경공부반과 "중당제자반"을 만들어 성경을 더 깊이 체계적으로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훈련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주님의교회는 장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1999년에 등록된 교인 가운데 청년들이 특히 많았다. 교회는 이들이 청년부에 정착하여 성장하도록 소그룹 모임과 특별 모임 및 청년사역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는 교회 내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자들이 청년부 중보기도팀에 지원하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청년부 자체적으로도 청년1부는 금요일기도회로, 청년2부는 토요일기도회로 모였다.

2001년 1월 첫째 주부터 예배 장소를 대강당으로 옮긴 뒤에 없어졌던 4부 청년예배가 오후 1시 30분에 저녁 찬양예배와 통합하면서 부활했다. 이로써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터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3월 11일에는 청년부 활성화를 위한 기획예배 ‘뉴 스타트(New Start)’를 드리기도 했다.

교사양성대학

1996년부터 이어져 온 교사양성대학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주로 전반기에는 교사양성대학을 후반기에는 교사계속교육을 시행했다. 제4기 교사양성대학이 1999년 3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제5기는 2000년 3월 12일부터 매주 주일마다, 6기는 2002년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8주 동안 열렸다. 교사양성대학은 늘 봄에 열었는데 2001년에는 가을인 9월 2일부터 8주간 개설되었다. 봄에는 3월 11일부터 3주간 교사계속교육이 있었다. 2002년에는 4월 2일부터 8주간 교사양성대학이 있었다. 교사양성대학의 강의 내용은 다양해서, 학습자인 학생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교회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사의 자기이해 등을 다루었고, 매주 외부 강사와 교역자들이 강의했다.

장년 신앙교육

1999년과 2000년의 장년교육은 이전 해처럼 다양한 성경공부반과 외국어 성경공부반 들로 편성되었다. 2000년의 장년교육이 이전 해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전체 강좌를 ‘성경탐구’와 ‘생활실천’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성경탐구’에는 일어성경 1과 2, 책별 성경공부 1(요한계시록), 책별 성경공부 2(사도행전), 신약성경이해가 포함되고, ‘생활실천’에는 ‘제자들의 삶’ 연구, 성경과 리더십, 제자훈련반, 영어성경이 해당되었다. 이러



장년들을 위한 신앙훈련 중 하나였던 영성훈련.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향한 여러 형태의 장년 신앙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 무렵부터는 상담을 통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한 구분은 엄밀히 보자면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즉 성경을 지성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에는 이런 강좌를 대폭 줄이고, 화요 강좌 '치유와 성장' 그리고 이전의 수요예배 시간에 진행되었던 수요성서 학당과 화요성경공부반 '복음의 삶'만 개최했다. 이는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목요기도회를 포함하여 화요일에는 '치유와 성장', 수요일에는 '성서 학습', 목요일에는 '영성과 기도'라는 틀로 구성한 것이었다. 강좌 개설이 적은 대신에 모든 교인이 화요성경공부반 '복음의 삶'을 제외한 화요강좌와 수요성서학당과 목요기도회 중 반드시 한 가지는 참석하도록 했다. 2002년 담임목사의 사임문제 때문에 장년교육 역시 비록 강좌 수는 적지만 예전으로 돌아왔다. 전반기에는 마태복음반, 에베소서반, 새교우반, 성경핵심연구반, 귀납적 성경읽기반이, 후반기는 마태복음반, 귀납적 성경읽기반, 성경핵심연구반이 개설되었다.

또 한 가지 이 시기 장년교육의 특징은 상담 세미나가 활발하게 열린

점이다. 1999년까지 주님의교회에 상담 세미나 같은 심리학을 이용한 배움과 신앙훈련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다. 그러다 1999년에 들어서면서 상담을 통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1999년 6월 8~29일에 4주 동안 임영수 목사가 상담교육을 실시했고, 9월 14일~11월 30일에 제1차 ‘치유와 성장’ 강좌가, 2000년 2월 28일~3월 1일에 제2차 ‘치유와 성장’ 강좌가 소수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2001년에는 이 ‘치유와 성장’ 강좌가 더욱 확대되어 전교인을 대상으로 화요강좌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상담부가 제직부서로 신설되었다.

2001년 후반기에 임영수 목사가 담임목사직 사임을 언급하고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자, 2002년에는 다른 강사들이 상담강좌를 담당했다. 2002년 3월 14일과 5월 9일에 정신과 의사인 김광일 집사가 상담부 공개 특강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과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해 강의했다. 6월 11~12일에 ‘공개 상담 세미나’가, 11월 19~21일에 ‘하반기 집중 상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의 강사는 한국상담치료연구소장 김충렬 박사였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과정’도 3~6월에 개설되었다. 이처럼 1999~2002년까지 장차 사역 중심의 교회로 나아갈 주님의교회의 각 분야에서 헌신할 교인들의 내적 성장을 위해 상담을 이용한 강좌가 꾸준히 개설되었다.

교인의 영성과 내적 성장을 위한 이런 교육과 더불어 2000년부터는 섬김과 선교에 대한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2000년 1월 12일~5월 17일에 임영수 목사를 강사로 디아코니아 강의인 ‘섬김의 삶’이 개설되었다. 그해 연말에는 2001년에 교회 내에서 봉사할 장로, 권사, 집사를 위한 ‘사역자 세미나’가 개설되었다. 12월 14~15일에 실시한 이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교인 개인을 위한 성장과 치유교육뿐 아니라, 호스피스 교육을 포함한 디아코니아 교육과 환경교육을 포함한 사회선교 훈련과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 연장선에서 교회학교 각 부서가 매년 1회의 현장봉사 수련회를 가기로 권장하는 등 교회학교에

서도 섬김과 봉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2001년 3월 18일에 열린 교사계속교육에서도 '디아코니아적 삶의 요청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주님의교회는 초기부터 제직회 내에 '녹색부'를 만들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1994년 3월 당회에서는 녹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보와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인쇄물에 재생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에는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일회용 컵 대신에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었다. 2001년에 들어서면서 교회 차원에서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해부터 기존의 '녹색부'를 '환경부'로 변경했다. 2001년 5월 16일 여선교회 연합 월례회에서 '기독교 환경운동과 소비자운동'에 대하여 김재일 목사가 강의한 것을 시작으로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6월 3일에는 환경주일을 지키면서 예장생협을 통한 환경 소비자운동에 전교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며, 10월에는 매주일 폐식용유를 수집하여 환경 친화적인 무공해 세탁비누를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2002년 5월 5일~12월 15일까지 '기독교 환경통신강좌'를 열었다. 이 기간 동안 매주일 강의를 물론, 다양한 환경·생명보호 체험 행사도 열렸다. 6월의 홍천군 유기농 격려 오리입수식, '홍천군 생명농업연대' 창립식과 10월의 '벼 베기, 벼메뚜기 잡기, 다슬기잡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이 강좌에 참여한 이들은 12월 15일에 수료식을 가진 후에, 이듬해 3월 23일에 기독교환경 감시증을 받았다. 이 통신강좌는 2004년 하반기가 되어 2기를 모집했고, 이후 꾸준히 진행되지는 못했다.

여름수련회

‘영성과 치유’와 ‘봉사와 선교’ 중심의 교육 방향이 수련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999년 8월 2~6일까지 교구별 여름수련회가 1, 2차로 나누어 정신여고 대강당에서 열렸다. 임영수 목사와 장신대 유해룡 교수가 ‘삶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2000년 여름수련회가 8월 16~18일까지 ‘삶의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수련회 기간 중에 연세대 이성호 교수가 ‘21세기 자녀교육’에 대해, 부산장신대 이인숙 교수가 ‘가족,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 강의했고, 동안교회의 김동호 목사가 이를 동안 저녁집회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2001년은 주님의교회가 선교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 선교지역을 태국으로 정하는 시기였다. 여름수련회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 열렸다. 1차 8월 6~7일, 2차 8월 9~10일 ‘선교와 봉사’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열린 여름수련회는 교인들이 선교와 봉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이것을 훈련해가는 것이 목표였다. 강석영 목사가 선교에 대해, 이승렬 목사가 봉사(디아코니아)에 대해 강의했으며, 1차 수련회에서는 유의용 목사가, 2차 수련회에서는 손인용 목사가 ‘선교와 봉사’라는 주제로 저녁집회 말씀을 전했다. 이 수련회에서 인상적인 것은 ‘동남아선교’, ‘동북아선교’, ‘농어촌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 등과 같이 선교와 관련된 이름을 각조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임영수 목사의 사임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2002년에는 교회 사정 때문에 장년 여름수련회를 열지 않았다.

서로 화목하게 하시다

구역 모임

1998년까지 주님의교회의 구역은 부부 중심의 모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구와 구역에 대한 교인들의 자부심과 결속력이 매우 강했다. 2대 담임목사인 임영수 목사도 자신의 목회사역에서 교구와 구역을 중요시했다. 교구와 구역은 내적으로 치유받아 훈련된 교인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교제하는 장이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 기존의 교구와 구역을 재편성하면서 구역원들끼리의 결속력이 약화되었다. 구역 편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살고 있는 지역의 구역에 속하게 했으며,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마다 구역의 구성원들을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구역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구역으로 옮겨야 하므로 교인들은 처음 만나는 교인들과 관계를 새롭게 맺어나가야 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구역원 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는 교구와 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과는 달리 남녀선교회는 경시되었다. 교회 내 교제의 장은 교구와 구역으로 충분하며 선교회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남녀선교회는 점차 약화되었다. 여성교회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지만, 남선교회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드라마팀

주님의교회는 매년 고난주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그린 성극을 공연해왔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2001년 1월에 제직회 문화부 아래 드라마팀이 창단되었다. 아마추어 단원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연습을 하고 연극을 완성해 교회에서 공연했다. 특히 2001년 11월 14일에

교회에서 공연된 〈어느 버스 기사의 이야기〉는 3막으로 된 짧은 연극이지만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승객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버스 기사 이야기로 잘 표현해낸 작품이었다. 같은 해 드라마팀은 구리 토핑지구에 있는 은혜로교회의 창립축하 행사 때 이 극을 공연했고, 강남시립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도 공연했다. 이듬해 연말 중예배실 및 교육 공간 증축 감사예배 때에는 축하행사의 하나로 창작극 〈완악 씨의 삶과 죽음〉을 공연했다.

국수 유료화

1990년 초 예배 장소를 YMCA로 옮기고 식당이 갖춰진 후부터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국수를 제공했다. 이는 정신학원 대강당으로 예배 장소를 옮긴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해에 적게나마 국수 값을 받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연말에 열린 당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1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¹ 예배당 건축비 상환에 집중하고 있던 1999년에도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여유가 없었다. 2000년 9월 당회에서 국수 유료화 문제를 당회에서 검토하여, 2001년 1월 첫째 주부터 500원씩 받기로 했다. 당회가 국수 값을 상징적으로 500원씩 받도록 한 취지는 교회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조금씩 문제가 되었던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매주일 국수 먹기를 원하는 교인은 식당 입구에 놓인 모금함에 자발적으로 국수 값을 넣었다. 500원 이상 기부하는 교인들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국수 값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교인들의 참여가 줄어든 것이었다. 당회는 2001년부터 국수 유료화를 교인들에게 적극 알렸고,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은 사회선교위원회 산하 특수봉사부의 노숙자 사역을 위해 전액 사

1 당회록, 1998. 12. 12.

용되었다.

좋은 신앙서적 읽기 모임

초기 주님의교회는 지적인 분위기가 우세하여 사경회보다는 신앙강좌에 더 많은 교인이 모였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초대하기 힘든 비교종교학자나 수녀, 신부 심지어 승려까지 불러서 신앙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인 분위기가 2001년 2월에 이르러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모임'이 시작된 배경이 되었다. 매달 특정한 책을 선정하여 읽고, 정기 모임에서 함께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2001년에는 주로 격월로 모임을 가졌지만, 2002년부터는 매월 모였다. 이 독서 모임은 '좋은 신앙서적 읽기 모임' 이나 '좋은 책읽기 모임' 등 다양하게 불렸다. 이들이 읽은 책은 주로 신앙서적들로, 폴 투르니에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오스 기니스의 《소명》, 필립 안시의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캔 가이어의 《고통의 은혜》 등이었다. 이 모임에는 장년뿐 아니라 청년들도 참여했다. 가끔 독서토론 내용과 독후감을 〈함글함울〉에 실어 전교인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교구의 날

1998년 6월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교인 수는 몇 년 사이에 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교인이 급증함으로써 전교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점점 치르기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2001년에는 교구의 날을 정해 교구마다 자체 행사를 가졌다. 6월 6일 사랑교구는 서울대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희락교구는 서울여대 운동장에서, 온유교구는 올림픽 공원에서 교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2002년 3월 23일에 충성교구는 특별한 교구의 날 행사를 계획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 초청하는 '남편 초청의 날' 행사를 교회 지하식당에서 개최했다. 6월 6일에는 희락, 화평, 온유교구가 함께 '교구 한마음 야외예배'를 서울여대에서 가졌다. 예배 후

미니올림픽과 교구 대항 계주, 줄다리기와 공동 식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같은 교구에 속한 교인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교구의 날 행사를 교구 구성원들 사이의 교제와 단합의 기회로 활용했다.

교회를 섬기며 이웃과 북한동포를 돌보게 하시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창립 초기부터 공동체가 사용하는 예배실과 교육 공간과 사무실 등을 교역자와 교인들이 함께 청소했다. 이러한 전통은 대강당이 건축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매주 토요일마다 구역별로 순서를 정해 대강당과 교회의 여러 방을 청소하기 위해 교인들이 교회에 나왔다. 넓은 대강당과 여러 개의 방들을 매주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아 2000년 7월 당회에서는 교회 청소를 청소 전문 용역회사에 맡기기로 하고 선정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9월 당회에서는 용역회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교인들이 청소를 하되 인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¹ 그해 12월에는 전교인이 건물 대청소를 시행했다. 2002년 11월 당회에서 관리위원장이 미화원 2명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관리위원회에서 청소용역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12월에 당회는 관리위원장의 미화원 보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용역회사를 구하는 대신 미화원 2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교회 건물관리와 청소는 교회 직원으로 고용된 관리기사와 미화원들이 맡게 되었다.

1 당회록, 2000. 9. 23.

교회 밖으로

주님의교회는 1999년부터 사회봉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영성이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 영성으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건강한 영성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 이러한 영성이 회복되도록 노력했다.

1999년은 교회가 북한동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였다. 9월 26일에 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돌림잔치를 교회에서 열었고, 이때 들어온 수익금 151만 9,250원을 한국국제기아대책 기구에 전달해 북한 어린이를 위해 쓰도록 했다.

같은 해에 2000년부터 전 교인이 매월 한 끼를 금식하여 모은 재정으로 북한을 돕는 안건이 통과되었다.¹ 남을 위하여 한 끼를 금식한 뒤 절약한 식사비를 현금하는 일은 남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도 했다. 2000년 1월부터는 매월 1일 아침 한 끼를 금식하고 첫째 주에 현금하도록 했다. 목적현금을 다른 현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북한동포 돕기 금식현금' 봉투를 별도로 마련했다. 11월 첫째 주까지 걷힌 북한 동포 돕기 금식현금 전액을 11월 19일 주일예배 때 대북 인도지원을 위해 1995년 설립된 '유진벨'재단에 전달했다.

교회의 사회봉사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전문 사역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1년 1월에 '교회의 사회봉사'를 주제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렬 목사를 전임 교역자로 청빙하여 다양한 사회봉사 사역을 추진했다. 먼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헌혈운동이 2001년 4월 22일에 실시되었다. 이듬해 4월 7일에는 헌혈운동과 함께 골수 기증자 신청도 받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교회인 안산 소금밭교회 쉼터 건립을 위해 3,000

1 당회록, 1999. 11. 3.

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² 이듬해 5월 12일에는 교회 내 의료봉사팀이 안산 소금밭교회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를 했다.

2002년 9월에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와 경상남도에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자, 교회는 경남지역 수해복구와 구호를 위해 총회 사회부에 1,000만 원을 먼저 전달하고, 이승렬 목사를 비롯하여 3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강원도 삼척에 파견했다. 봉사단은 9월 10~12일에³ 삼척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미로면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교인들이 기부한 나눔의 물품 2.5톤 트럭 1대분을 삼척시와 태백시 각 교회에 분배했다. 9월 15일에는 모금한 수재민 특별구호헌금을 삼척시에 1,000만 원, 태백시에 2,000만 원 전달했다.

청년2부 회원 33명이 청년부가 조직된 이래 처음으로 1999년 8월 10~12일까지 전북 군산, 익산, 옥산으로 국내 전도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군산팀과 익산팀으로 나누어 서울을 출발했다. 군산팀은 다시 4개조로 나누어 군산 시내 땅밟기, 군산의료원 전도, 군산 시청에서 중보기도 및 자료 수집, 군산 시장 땅밟기를 했다. 땅밟기란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도할 지역을 돌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그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시간 익산팀은 원광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땅밟기와 전도를 했다. 두 팀은 옥산 남내리의 남내교회에서 만나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여름철 뜨거운 햇살 아래 옥산에서 노방전도를 계속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각 팀은 다시 군산과 익산으로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강행군을 했다.

청년부는 이어서 2001년 8월 12~16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작실교회에서, 2002년 8월 11~15일까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좌운교회에

2 당회록, 2001. 10. 13.

3 당회록(2002. 10. 12)에는 9월 10~12일까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주보(2002. 9. 15)에는 9월 11~13일까지 한 것으로 적혀 있다.

서 청년여름봉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2002년 9월 11~13일까지 태풍 루사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교회가 강원도 삼척시에 봉사자를 파송했을 때에도 동참했다.

아시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다

해외선교의 새로운 방향 모색

건축헌금을 시행하며 대강당 건축비 상환을 위해 애쓰고 있던 1999년 하반기에 당회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선교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강당 건축 때문에 선교와 구제비 지출을 동결해왔지만, 조만간 건축비를 모두 갚게 되면 다시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장차 교회의 선교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였다. 이전까지는 요청해오는 선교지에 재정 후원을 하는 소극적인 선교만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방법에서 벗어나 교회 스스로 선교지를 선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¹ 이러한 선교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회는 2000년부터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선교사 1명을 파송하고 2000년부터 동남아 지역에서 단기선교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국내외 선교 지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선교 지원 대상자와 재계약하기로 했다.

이 결정 사항은 2001년에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1개 지역을 선교지로 선정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의료·생활환경 등 '사회봉사 선교'를 실시하기로 했고, 기존 선교 지역을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선교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섬이

1 당회록, 1999. 11. 13.

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봉사 선교를 추진하기로 하여, 유진벨 재단과 협력하여 북한 내의 한 곳을 지원하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특수 기관에 대한 의료봉사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00년 7월 15~24일까지 청년부가 태국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다.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

해외선교지 선정을 위해 2001년 2월에 강석영 목사와 몇 명의 장로들이 이성민·김창숙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캄포트로 동남아 선교지 탐방을 떠났다. 이성민 선교사는 주님의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있다가 1995년 10월 29일에 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 캄보디아로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이다.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을 마치고 돌아온 일행은 3월 10일에 열린 당회에서 결과를 보고했다.

당회는 이 보고를 듣고 이성민 선교사를 총회 세계선교부 파송 캄보디아 캄포트 지역 선교사로 계속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매월 800달러를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 이성민 선교사는 주님의교회와 사랑의교회로부터 매달 지원받고 있었다. 양 교회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세운 교회 이름을 두 교회의 이름을 따서 '사랑의주님의교회'라고 했다. 이에 당회는 이성민 선교사가 주님의교회 교인인데도 교회가 생색만 내는 수준의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사랑의교회가 담당하고 있던 선교비까지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당회는 그 외에 이성민 선교사가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더 결정했다. 첫째, 매년 1, 2회 정도 10~20여 명의 의료선교팀을 파견하고, 둘째, 2001년에 여름에 실시하는 청년부 단기 선교여행지를 캄포트로 선정하는 것이었다. 셋째, 신학생, 간호사, 영어·컴퓨터 강사, 청년 자원자 등을 단기·견습 선교사로 캄포트로 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경우 최소한의 기본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민 선

교사의 요청이 있으면 프놈펜 지역에 기독교 청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공동체 사역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베트남 선교 세미나

2001년 전반기에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에 이어 후반기에 임영수 목사와 해외선교부원 10명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서의 선교'라는 주제로 베트남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1년 10월 1~4일에 베트남 달라트에서 개최된 이 선교 세미나에 목회자와 교인 외에도 동남아 지역 선교사 부부 18명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 임영수 목사는 선교사의 영성과 디아코니적 선교에 대해 강의했고 강석영 목사는 미래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강의했다. 강의를 마친 뒤에 미래의 선교 방향과 전략, 동남아 지역 선교의 비전, 바람직한 선교지원 방식에 대해서 해외선교부팀과 선교사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토론의 내용은 뒤에 동남아 선교의 방향에 반영되었다.



2001년 베트남 달라트에서 개최된 선교 세미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서의 선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목회자, 교인과 동남아 지역 선교사 부부 18명이 참석했다.

태국 단독 선교사 파송

2001년에 해외선교 정책에 따라 동남아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정하고 그중 태국을 주선교지로 선정하여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다. 9월 16일 당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 제안을 당회원들이 논란 없이 수용했지만, 내정된 선교사에 대해 당회원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당회는 한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다 10월 13일에 모인 당회에서 홍경환 목사를 태국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승인하고 세부 사항은 해외선교위원장이 총회 세계선교부와 협의 후 당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11월 10일에 모인 당회에서는 안면이 없는 목사를 교회 단독으로 파송하는 것보다는 서로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2002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게 한 뒤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경환 목사는 2001년 11월에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여 이듬해 6월까지 부교역자로 봉사하다가 7월 5일에 교회가 단독으로 3년간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선교사로 태



태국에 파송된 홍경환 선교사의 사역 현장. 주님의교회는 2001년의 해외선교 정책에 따라 동남아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정하고 그중 태국을 주선교지로 선정하여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다. 그 첫 케이스로 홍경환 목사가 2002년 7월 태국으로 파송되어, 태국 남부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국으로 파송되었다. 태국으로 간 홍 선교사는 ‘태국기독교단(Church of Christ in Thailand)’의 요청으로 ‘푸켓과 팡아지역(푸켓 이북지역)’ 등 태국 남부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단기선교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선교 방향 설정으로 단기선교와 의료선교 여행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청년부가 2000년 7월 15~24일에 태국 단기선교를, 2001년 7월 13~23일에 캄보디아 단기선교여행을 다녀왔다.

2001년 12월 16~22일에는 이성민 선교사의 사역지인 캄보디아의 프놈펜과 축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했다. 이 의료봉사에는 의료진과 봉사요원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사흘 동안 380명의 머리를 깎아주었고, 두 남매의 구순구개열 외과수술을 포함하여 1,497명을 치료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선교학교도 개설하여 많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했다.

2002년 7월 9~18일에는 청년부 22명이 다시 태국으로 단기선교여행을 갔다. 이들은 팀을 이루어 장터와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고, 마임팀과 워십팀은 연극과 찬양을 준비하여 성극을 공연했다.

같은 해 8월 4~11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성민 선교사의 선교지인 캄보디아 축 지역에서 의료선교봉사를 했다. 사흘 동안 총 2,000명의 환자를 치료했지만, 1년에 한 번 사흘간 치료하는 것에 회의적인 판단이 들어, 이보다는 본격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현지인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비전 캠프

군선교팀 주최로 군 복무중이거나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전 캠프가 2002년 8월 20~22일에 소망수양관에서 열렸다. 군 입대를 앞

둔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군생활 중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배웠다. 강의는 주로 군에서 활동하고 있던 현역 군종들이 맡았다.

러시아 선교 현장 방문

주님의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선교지 방문이 2002년 9월 17~24일에 있었다. 방문에 앞서 러시아 선교지에 보낼 나눔의 물품을 모았다. 이불, 겨울 목도리, 여자용 스카프, 대형 타월, 노트북과 컴퓨터 등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백경숙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농아인 유치원과 학교를 방문했다. 이 방문 기간 중에 주님의교회의 강석영 목사가 러시아인 10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예배를 집례했다.

5

이웃과 함께하며 청소년 양육에
힘쓰게 하시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하시다

새로운 비전 제시

2002년 8월 말에 2대 임영수 목사가 사임했을 때, 교회는 어수선하고 교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몇몇 교인들은 임 목사가 시작하는 모세골 공동체로 따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주님의교회에 남아서 섬길 것을 당부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교인들 간의 갈등이나 개인 사정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다.

제3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연말에 담임목사 10년 임기제를 수용한 문동학 목사를 청빙할 수 있었다. 이런 혼란 가운데 2003년이 시작되었다.

2003년 1월 첫 주부터 3대 담임목사로 시무하게 된 문동학 목사는 1월 28~29일에 열린 '2003년도 사역자 세미나에서 주님의교회의 비전을 구교 사역자와 제직부서 사역자와 찬양대원들에게 밝혔다. 문동학 목사는 교회의 비전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세우려고 했다. 먼저 교회 창립정신의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을 '교회 자체 건물 무소유와 '무기명 헌금' 그리고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50대 50 원칙'으로 보았다. 이것을 근거로 주님의교회는 처



2004년 6월 2일 세례식을 집전하는 제3대 문동학 목사. 그는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을 '교회 자체 건물 무소유'와 '무기명 헌금' 그리고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50대 50 원칙'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비전을 수립했다.

음부터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닌 비전 중심의 교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창립정신이 '무'(無, Negatives)에서 근거한 것이므로 '유'(有, Positives)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회 자체 건물 무소유'는 구역 모임을 공동체를 세우는 거점으로 삼아 '크리스천의 대안적 공동체 건설'로, '무기명 헌금'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은 사 중심의 사역으로, '50대 50 원칙'은 대외로 사용되는 50%의 50%, 즉 교회 예산의 25%를 특정한 사역을 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역의 집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목사가 제시한 비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주님의교회가 가진 여건을 통해 교

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정신학원에 강당을 건축하여 기부 헌납한 후, 예배와 모임과 사무 관리를 위해 강당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으로부터 세 가지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주님의교회가 예배드리는 학교 강당은 교회와 사회의 중간 지대이며, 학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예배에 초청하기에 적절한 장소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주님의교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회가 강당을 매개로 공존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에 좋은 동반자 관계이므로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로, 중고등학교에 강당이나 실내체육관을 건축하여 기부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주님의교회의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들을 번식하는 운동을 일으키자

사역에 집중하는 비전을 구체화하며, 예산의 25%를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기독교 중고등학교에 '강당'을 건축 기부하여 제2, 제3의 주님의교회를 번식해나가는 일.

넷째, 번식하는 교회로서, 번식 후 매 10년마다 '번식하는 교회축제'를 하자.²

이러한 비전 제안을 당회는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구체화해나갔다. 그리고 2004년 6월 27일부터는 교회 후보 1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록하여 모든 교인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교회 예산의 50%를 세상을 위하여 쓰면서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 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교회의 영문 이름과 인터넷 홈페이지

창립 초기부터 주님의교회는 일본과 미국 내 단체와 종종 교류를 해왔다. 교인들 역시 업무상이나 휴가차 해외여행을 자주 했다. 이렇게 국제적 왕래가 활발해지자 외국에서도 주님의교회의 이름을 정확히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3년 1월 18일에 개최된 임시당회에서 영문 이름을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로 정하고 약자는

2 함글함울 55호(2003. 10. 19), 1쪽.

‘PCL’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터넷의 활성화에 맞춰 홈페이지를 만들고 ‘www.lord-church.or.kr’을 도메인으로 사용해왔다. 2000년 9월 9일에 새로운 도메인 ‘junim.or.kr’을 만들었지만, 기존의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사용했고, 2003년 6월 29일부터 ‘www.pcltv.org’을 새로운 도메인으로 사용했다. 홈페이지는 2009년에 6월 28일에 ‘http://pcltv.org/’라는 새 주소로 옷을 갈아입었다. 옛 홈페이지는 ‘http://old.pcltv.org/’로 도메인을 변경하여 남겨두었다.

15주년사 편찬위원회

그동안 개인이 주님의교회에 대해서 쓴 적은 있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역사를 정리한 적은 없었다. 이에 2002년 4월 13일에 모인 당회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시무장로와 역사적 식견이 있는 교인들로 교회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2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6월 8일 당회에서 교회창립 15년사를 창립 16주년이 되는 해인 2004년에 발간하기로 했다.

15년사의 집필자는 독일에서 교회사를 전공하고 2001~2002년에 주님의교회 교육부서에서 사역한 강치원 목사였다. 그는 15년사를 쓰기 위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려고 창립 교인들을 비롯하여 초창기부터 주님의교회를 다닌 이들을 만나 면담하고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고 작업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집필 작업이 시작되면서 집필의 방향에 대한 집필자와 담임목회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이 늦어지면서, 당회의 공식적인 결의가 있지는 않았으나 15년사 편찬사업은 결국 90여 쪽에 달하는 미완성 원고를 남기고 2004년에 중단되었다.

교회 행정과 재정의 투명화

예전에는 제직회원들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결정 사항과 교회의 재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직분을 맡지 않은 모든 교인이 교회 공동체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과 재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당회에서는 앞으로 당회 결의 사항들을 <함글함울>에 신기로 했다.¹ 이듬해 개최된 당회에서는 제직회 재정 보고 내용을 모든 교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여² 모든 교인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여 공동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동체 전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담임목사 임기제 찬반 투표와 장로 10년 임기제

이재철 목사가 1998년 6월 21일 임기제에 따라 10년 임기를 마치고 1998년 6월 21일 사임을 했지만, 담임목사의 임기제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논의가 계속되었다. 담임목사의 목회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 규정이 총회 헌법해석서와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1년 11월 10일에 열린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임기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 의견은 구체적인 논의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2002년 3대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임기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청빙을 받은 목회자가 10년 임기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당회 내에 임기제에 대한 이론이 발생한 것이다. 당회 내에서 잠정적으로 10년 임기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담임목사를 청빙했지만, 모든 당회원이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2003년 10월 10일 열린 당회에서 행정장정을 항목마다

1 당회록, 2003. 7. 13.

2 당회록, 2004. 1. 10.

재심의하는 기회가 오자, 담임목사 임기제에 대해 찬반투표를 했다. 그 결과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안식년 포함하여 만 10년으로 임기를 재 확정했다.¹

이것으로 담임목사 임기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당회에서 이 따금 사건으로 임기제의 문제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그후 2005년 4월 9일에 문동학 목사가 ‘담임목사 시무 재신임’ 안건을 제시했지만 재신임 안건이 10년 임기제와 모순되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담임목사 청빙시 10년 임기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소수 의견이 다시 나왔지만, 이 역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담임목사의 임기가 당회의 격론을 거쳐 정착되었으므로 행정장정이나 정관은 안식년 조항의 작은 개정 외에 큰 변화가 없었다. 2003년 10월, 시무한 지 6년 후에 안식년을 가진다는 규정을 시무 기간 중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1년의 안식년을 갖는 것으로 개정했을 뿐 임기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3년 6월 29일 3부 예배 때, 1기 장로로 임직한 김도묵 장로와 홍근용 장로가 1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로써 1998년 담임목사의 사임에 이어 처음으로 장로가 임기제에 따라 퇴임함으로써 임기제가 온전히 현실화되었다.

시무장로의 13년제 임기는 담임목회자와 시무장로가 동시에 퇴임하여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초창기 교회 상황을 반영하여 정한 것이었다. 창립 15년을 지나면서 시무장로의 13년제 임기는 의미가 약화되었다. 10월 10일 열린 당회에서 황기언 장로가 담임목회자와 시무장로의 임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장로 임기를 10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당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04년 1월에 임기제도연구위원회를 구

1 당회록, 2003. 10. 10.

성하여 장로 임기제 변경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해 3월 27일에 ‘장로의 안식년 제도를 폐지하며, 향후 임직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장로 피택 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 사항을 당회에 보고했다. 이에 당회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논의한 끝에 장로 임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했다.

장로의 안식년 제도는 5기(1998년 6월)부터 폐지한다.

현재 시무장로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경과 규정

2기는 안식년 포함하여 13년(시무기간 12년), 2005년 6월 퇴임

3기는 안식년 포함하여 12년(시무기간 11년), 2006년 6월 퇴임

4기는 안식년 포함하여 11년(시무기간 10년), 2008년 6월 퇴임

5기는 안식년 없이 10년, 2008년 6월 퇴임으로²

이 결정과 그해 11월 13에 있었던 정책당회의 결의에 따라 2005년 1월 15일에 ‘교회행정장정’의 시무장로 임기 조항을 고치고 안식년 조항을 없앴다. 그리하여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시무장로의 임기도 10년으로 확정된 것이다. 담임목사와 달리 장로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므로 안식년 규정을 없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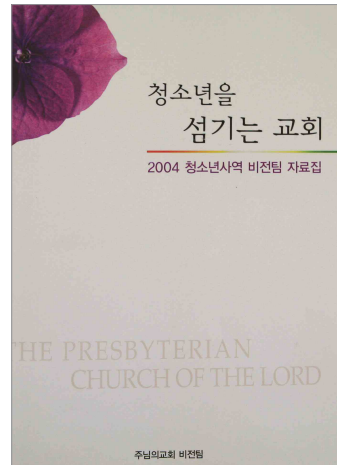
한편 2004년 3월 27일에 당회에서 장로 10년 임기제와 더불어 장로 피택 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수집사회에서 장로 피택 연령 제한에 대해 재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11월 13일 당회에서 이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65세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2. 입시당회록, 2004. 3. 27.

청소년 사역 비전팀과 후속 조치들

주님의교회의 비전 중 하나가 청소년 선교였다. 2003년 1월 말에 열린 사역자 세미나와 4월 말의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에서 그리고 10월 10일에 열린 2004년도 정책당회에서 문동학 목사는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상을 제시했다.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청소년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교인들을 중심으로 2004년 1월 24일에 권오승 장로를 팀장으로 하는 '청소년 사역 비전팀'이 구성되었다. 11월 14일 비전주일까지 총 18차례의 모임, 6차례의 강사 초청, 2차례의 현장 탐방, 7차례의 기도 모임 등을 가지면서 청소년 사역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청소년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2월 7일의 2차 모임에서 담임목사의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들은 뒤, 토론을 통해 청소년 사역의 목표를 '차세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으로 설정했다. 9월 26일 주일부터는 매주 1시에 청소년 사역을 위하여 비전팀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 비전팀은 2004년 11월 14일을 비전주일로 정하고 그동안 연구, 토론, 탐방 및 기도하여 얻은 결과를 교회에 보고했다. 비전팀은 먼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도 비전을 가진 청소년 지도자가 부족한 시대적 상황과 학교 강당 건축으로 자연스럽게 정신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청소년을 섬기는 교회로 주님의교회를 부르셨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차세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의 양성'이라는 청소년 사역을 교회가 직접 추진할 사역과 협력·지원할 사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교회가 직접 추진할 3대 중점 사역으로 방과



2004년 11월 발간된 청소년 사역 비전팀 자료집. 교회의 비전을 청소년 사역에 둔 2004년 정책당회 결정에 따라, 2004년 1월에 청소년 사역 비전팀이 구성되었다. 이 자료집은 총 18차례의 모임, 6차례의 강사 초청, 2차례의 현장 탐방, 7차례의 기도 모임 등을 통해 청소년 사역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청소년 사역의 방향을 모색한 결과물이었다.

후학교 운영, 교회학교의 모델 구축, 청소년 리더십 스쿨 운영을 내놓았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중장기적으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 외에 인터넷 사역, 상담 사역, 문화 사역, 캄보디아 청소년선교관 건립과 같은 해외 청소년 사역을 교회가 직접 추진할 사역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사역원을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회가 협력 및 지원할 사역으로는 정신여중고와 한동대학교 학원사역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 기독교사 연합(좋은교사운동)과 정신여중고 기독교사 모임과 같은 교사 단체를 지원하는 것, 전문 청소년 사역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존 청소년 사역 단체를 연결하여 서로 협력하는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내놓았다.

이러한 청소년 사역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당시 청소년 사역자로 널리 알려져 있던 홍민기 목사를 청빙했으며, 몇 가지 구체적 안들이 제시되었다. 청소년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팀 운영, 전용 공간 마련, 교회 예산의 25%까지 확대, 총괄 전문 사역팀 구성과 전문 간사 채용 등이었다.



2005년의 방과후학교 수업. 2004년부터의 장기적인 연구와 기획에 의해 청소년 사역을 위해 교회가 직접 추진할 3대 중점 사역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교회학교의 모델 구축, 청소년 리더십 스쿨 운영이 제시되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중장기적으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방과후학교는 뒤에 '반가운학교'로 개명되었다.

비전팀은 2004년 11월 14일 비전주일에 보고한 청소년 사역 가운데 먼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방과후학교는 정신여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님의교회가 있는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에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가정형편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부모님 대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학교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비전팀은 2005년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방과후 학교를 위한 교사 기도회를 시작으로 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중고등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고,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수업 신청을 받았다. 2월 28~29일까지 방과후학교를 시작하기 전 교사들이 앞으로 시작될 방과후학교 학생들에게 헌신하기 위한 영적 무장과 단합을 위해 교사 수련회를 가졌다.

3월 12일 방과후학교 입학식에는 교사 40명과 학생 80~90여 명이 참가했다. 방과후학교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종교를 초월하여 학생들을 모집했다. 매주 토요일 2~6시에 교회 수련실에서 열렸는데, 영어, 수학, 논술, 물리, 화학, 프랑스어, 미술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방과후학교는 방학 중에도 수업을 계속했으며, 특히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주일 오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방학 때에는 선생님들의 손을 잡고 견학을 가거나 관람을 하면서 단순한 지식전달을 넘어 전인교육의 뜻깊은 시간을 경험했다.

비전팀이 요청한 기존 청소년 사역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14일에 전국 청소년 사역자 컨퍼런스가 교회에서 열렸다. '청소년 사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는 주님의교회 청소년 사역자들과 다른 교회와 기관의 청소년 사역들이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귀한 자리였다.

청소년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리더십 스쿨 운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5~28일에 중등부 리더십 수련회가 개최되었고, 7월 12~14일, 8월 16~18일 두 차례에 걸쳐 교사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이라는 리더십 세미나가 청소년 사역본부 주최로 열렸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8년 5월 18일에 한국리더십센터와 협력하여 주니어 리더십 페스티벌이 주님의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흥사역위원회와 전도예배 '오늘'

2003년 담임목회자가 주님의교회의 비전을 제시한 이래로 여러 분야에서 비전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시도했다. 2005년부터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제직회 내에 '공흥사역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공흥사역위원회는 어려운 경제현실 아래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일을 하는 8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구제사역팀, 119사역팀, 탈북자사역팀, 소년소녀가장사역팀, 결식아동사역팀, 단전단수가정사역팀, 일용근로자사역팀, 노숙자사역팀. 그 가운데 교회 안팎의 어려운 개인과 가정을 지원하는 구제사역팀과 재난 발생 지역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즉시 파견되어 지원사역을 감당하는 119사역팀은 이미 국내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두 부서를 따로 떼어내어 공흥위원회 아래 두고, 나머지 6개의 팀을 신설했다.

소년소녀가장사역팀은 소년소녀 가장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제반적 어려움을 돕는 사역팀이며, 결식아동사역팀은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역팀이며, 단전단수가정사역팀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전단수가 된 가정을 파악하여 돕는 사역팀이며, 일용근로자사역팀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최저 비용으로 지속적인 일터를 연결해주는 사역팀이다. 이들 사역팀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2006년 4월에 소년소녀가장사역팀과 결식아동사역팀을 합쳐서 꿈나무사역팀으로, 노숙자사역팀을 자유인사역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6년 12월 3일에는 119사역팀과 단전단수가정사역팀은 구제사역팀으로, 일용근로자사역팀과 자유인사역팀은 기관선교팀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사역팀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의 향기를 전하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

한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2005년 5월 29일부터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시작했다. '오늘'이라

고 이름 붙인 이 예배는 예배를 통해 전도를 시도하는 전도예배였다. 교회는 주위에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 정서적으로 친근하게 느끼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교회가 조금만 더 문을 열고 다가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6개월간 연구하고 준비하여 교회와 예배가 낯선 이웃들에게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여 친근하게 다가가는 전도예배를 구상했다. 이렇게 시작된 전도예배 '오늘'은 주님의교회 4대 비전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의 실제 결과물이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5월 29일 오후 2시에 첫 전도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첫 전도예배는 이종익의 곡 〈약속〉을 드럼과 기타와 신디로 연주하면서 시작했고 이어 담임목회자가 교회에 처음 나온 70대 할머니를 환영했다. 초청 가수 이두진 집사의 찬양과 간증 그리고 드라마팀의 〈행복에 관한 몇 개의 소묘〉라는 연극 공연이 있었다. 연극 주제를 이어 받아 담임목회자가 '지금 행복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한 짧은 설교를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사역자의 찬양을 끝으로 전도예배를 마치고 다 함께 로비로 나와 떡과 음료를 나누며 교제했다.

이 후 전도예배 '오늘'은 매 시간마다 다양한 연주자와 가수를 초청하여 그들의 연주와 신앙고백, 간증을 들곤 했다. 특히 2005년 10월 9일에 있었던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공연에는 2,0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몰려왔다. 이날 이루마는 유명한 피아노곡들을 연주하고 음악을 통한 자신의 포부를 참석한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의 아버지가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의미로 순우리말로 지어준 이름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간증도 했다. 그의 연주와 간증은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전도예배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



2005년 10월 9일의 전도예배 '오늘'에 초청된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공연 장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2005년 5월 29일부터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오늘'이라고 이름 붙인 이 예배는 예배를 통해 전도를 시도하는 전도예배였다.

람들이 생겨나자 소그룹팀장을 비롯하여 11명의 팀원이 2005년 9월 22일에 모여 소그룹 사역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렇게 하여 10월 2일부터 교회와 예배에 낮은 사람들의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다. 전도예배 사역팀은 안내팀과 교제나눔팀, 공연팀, 방송팀, 공간장식팀, 탁아양육팀, 중보기도팀, 소그룹 사랑방팀 등으로 세세히 구분되어, 담임목회자를 포함하여 3명의 교역자와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들이 헌신했다.

전도예배 '오늘'은 이렇게 큰 호응을 얻으며 해를 넘겨서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2006년 6월 11일에는 전도예배 '오늘'의 1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 교수와 해금 연주자 최남영 씨를 초청하여 함께 축하잔치를 했다.

2006년에 들어서면서 2, 3부 예배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3부 예배와 동일한 내용의 4부 예배를 신설하는 안이 6월 당회에 제출되었다. 이 안건을 수용하여 8월 27일부터 오후 1시 30분~2시 30분까지 대예배실에서 4부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그리하여 오후 2시에 드

리던 전도예배 ‘오늘’은 8월 20일까지만 드린 후 잠시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5일 주일부터 오후 6시에 드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9월에 담임목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전도예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번식 교회

2005년은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매주 주보 표지에 싣고 교인들에게 알렸던 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였다. 2004년 12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동화고등학교 측에서 주님의교회에 번식 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해왔다. 이에 2005년 1월 15일 열린 당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진행되는 개척교회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교회 번식의 상황이 급하게 진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회번식위원회를 구성하고 번식 교회에 대한 일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3월까지 주님의교회와 동화고등학교 사이에 번식 교회가 사용할 건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님의교회는 동화고등학교가 처음에 제시했던 신축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싸이클부와 유도부가 사용하던 기존의 체육관을 수리하여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먼저 3년 계약을 하고 그 뒤 재계약하는 것으로 동화고등학교 측과 합의했다.

장소 문제가 해결되자 주님의교회는 9월 25일~10월 30일까지 교회 번식을 위한 기도회를 매주일 저녁 7시 소예배실에서 가졌다. 11월 13일부터는 창립예배를 드릴 때까지 동화중고등학교 채플실에서 번식기도회를 가졌다. 9월 28일에 번식 교회의 담당 교역자로 주님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인호 목사를 선정하고, 10월에 ‘길가에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다. ‘길가에교회’에서 ‘길’은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그 교회의 교인들은 길(예수 그리스도)을 묻는 이들을 위해 길가에 서있는 친절한 안내표지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1월 6일은 모든 성도가 설교와 찬양과 영상을 통하여 길가에교회의



2005년 12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동화중고등학교 여호수아홀 강당에서 있었던 길가에교회창립예배. 2004년 12월 번식 교회 설립에 대한 동화중고등학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첫번째 번식 교회로 결정되었고,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던 이인호 목사가 초대 목회자로 부임했다.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교회 번식주일로 보냈다. 이날 길가에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이인호 목사가 1~3부 설교와 영상을 통해 교회 번식의 의미와 길가에교회 비전을 온 교인에게 전했다.

10월 말부터 동화중고등학교의 체육관을 교회 예배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시작했으며, 12월 첫째 주일에 수리가 끝난 길가에교회의 예배실은 160~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담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이름은 여호수아홀로 명명되었다.

12월 11일 3부 예배 시간에 길가에교회 파송식을 한 후 오후 5시에 동화중고등학교 여호수아홀 강당에서 길가에교회창립예배를 드렸다. 제 1호 번식 교회였다. 길가에교회는 지역 교회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 외부에 전단지나 포스터, 플래카드 등을 붙이지 않고 조용히 시작했다. 주님의교회는 길가에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퇴 장로를 포함한 여러 명의 직분자를 1년 동안 길가에교회로 파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문동학 목사 사임과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2006년 9월 12일자로 문동학 목사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했다. 당회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의를 표명한 그는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임의 이유를 밝혔다.

9월 둘째 주간에 담임목사의 사임 의사를 전해 받은 교회는 당회 간담회를 거쳐 9월 16일 새벽 임시당회를 소집했고, 9월 17일 오후 3시 소예배실에서 열린 향존직 및 피택자 기도회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비록 사임 이유는 다르지만 2대 임영수 목사와 3대 문동학 목사가 연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에 사임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담임목회자의 사임을 전해 들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은 9월 25일부터 교회의 공식 행사가 없는 모든 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소예배실에 모여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했다. 2주 동안 월, 화, 목, 토요일마다 모였고, 10월 12일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소예배실에서 기도했다. 이 목요일기도회는 제4대 담임목사인 박원호 목사가 부임하기 전인 2007년 6월 7일까지 계속되었다.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시다

모든 교인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2003년 9월 14일부터 교회 공동체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과 교포 자녀들을 위하여 매주 주일 2, 3부 예배의 설교를 영어로 통역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설교 통역사역팀이 발족한 것은 8



영어예배 장면. 2005년 3월 27일부터 시작한 영어예배는 본래 취지였던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어 성결반 교인들과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참여하면서 처음 8명의 참석자가 한 달 만에 50여 명으로 늘었다.

월 중순이었지만, 9월 첫째 주의 예행연습을 거쳐 실제로 설교 통역을 시작한 것은 9월 둘째 주일부터였다. 토요일에 설교문을 받아 미리 준비한 뒤에 주일 2, 3부 예배 때 통역을 했는데, 1명이 통역을, 6명이 안내와 그 밖의 일을 담당했다. 통역자는 매주 바뀌었다. 이 일을 한 초기 봉사자들은 18여 명이었다. 통역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외국인과 외국 1.5세대들과 성경공부팀 등이었다. 이들은 예배 전에 개인별 수신기와 이어폰을 받아 예배를 드린 뒤 반납했다. 2005년 3월 말 이후부터는 영어예배가 신설되어 통역기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었고, 2006년 말에는 동시 통역팀원들도 통역자 4명과 2명의 안내 봉사자로 현저히 줄었지만, 교회 는 이 봉사 사역을 계속했다.

2005년 3월 27일부터 한국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영영권 성도들을 위한 영어예배가 시작되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린 이 예배에 캘리포니아 출신 한국인 2세인 나현수 전도사가 전임 사역자로 수고했다. 영어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참석자가 8명



2006년 1월부터 시작한 수화통역. 매주 3부 예배 시간에 1층 장애우석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경봉독 등 예배 인도자의 말도 수화로 전달하여, 예배에 참석한 청각장애우들의 편의를 돕는다.

밖에 없었지만, 한 달이 조금 지나자 50여 명으로 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영어예배는 급속히 성장했다. 영어예배 참석자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어성경반 교인들과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2006년 1월 둘째 주일부터 청각장애우를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수화통역은 매주 3부 예배 시간에 1층 장애우석(강단을 바라보고 왼쪽 가장자리 좌석열의 앞줄)에서 이루어졌으며,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경봉독 등 예배 인도자의 말도 수화로 전달하여 예배에 참석한 청각장애우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다.

경건훈련

1995년 12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목요기도회를 했다. 이 목요기도회는 2003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주님의교회의 목요기도회가 특이한 것은 성경공부반처럼 1월과 2월 그리고 7월과 8월에 휴식 기간을 가



2006년 1월의 주보 디자인. 이때 바뀐 주보의 디자인 포맷이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진다는 점이다. 2003년 4월 3일부터 새로 시작한 목요기도회는 중보기도사역자 학교로 시작했다. 중보기도사역자 학교는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사람, 기도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나 기도에 대해 궁금증과 의문점을 갖는 사람, 기도에 대해 배우고 싶은 교인들을 위하여 4월 3일~6월 26일까지 개설되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6일부터는 목요기도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수전도단과 협력하여 진행했다. 주님의교회와 예수전도단은 이 목요기도회의 성격을 30, 40대를 위한 '목요 모임'으로 정하고, 잠실과 송파 지역의 직장인과 주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힘썼다. 기도회는 찬양과 경배, 말씀, 간증 및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수전도단과 협력한 목요기도회에는 점차 주님의교회 교인들의 참여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수전도단 중심의 목요기도회 성격이 강해진 상태로 2007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1999년부터 고난주간과 추수감사절 즈음에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던 주님의교회는 2003~2006년 사이에도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한 번씩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2003년부터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대림절에 특별새벽기도회를 열기 시작했다. 특별새벽기도회마다 담임목회자인 문동학 목사가 설교했다. 2006년 1월 2~3일에는 신년새벽기도회를 했다. 그리고 그해 9월 문동학 목사의 사임으로 인해 12월 4~8일의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감리교신학대학 구약학 교수인 왕대일 목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출25:8)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2003년 4월에 목요기도회 시간에 시작된 중보기도사역자 학교는 2003년과 2004년에 4기에 걸쳐 총 100여 명이 수료했고, 그중 70여

명이 2004년부터 중보기도사역팀을 구성하여 활동했다. 중보기도사역팀은 레위팀, 라파팀, 119팀, 미션팀, 비전팀으로 나뉘었다. 레위팀은 담임목회자와 교역자들과 주일예배를 위해, 라파팀은 화요일마다 교회 내 환자들을 위해, 119팀은 수요일에 교회 내 기도가 필요한 긴급한 문제와 교회 행사를 위해, 미션팀은 목요일에 해외선교와 지역 복음화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비전팀은 금요일에 교회 내 청년과 청소년과 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 교회 5층에 중보기도실이 마련되었지만, 방음과 난방 문제 등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게스트룸 하나를 중보기도실로 활용했다. 중보기도사역팀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수련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더 효율적인 기도사역을 위해 논의했다.

예수전도단 서울지부가 주관하는 브리스길라 중보기도학교가 주님의 교회의 중보기도사역팀과 협력하는 가운데 2005년 2월 15일~5월 11일에 매주 화,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까지 주님의교회 소예배실에서 열렸다. 이 학교는 이전에 개최된 중보기도학교와 조금 다르게 주제를 '서울 지역의 영적 개혁'으로 잡았으며, 소그룹 모임의 중보기도사역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각 지역에 전문적인 중보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한편 중보기도사역팀은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여 2005년 3월 6일에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30Cup 찬양예배와 소그룹 모임

2005년 들어서면서 교회 내 30대를 위한 관심이 깊어졌고, 이들을 위한 사역이 4개월간 준비되었다. 30대는 직장과 결혼, 가정과 육아, 자기계발 등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소홀히 하기 쉽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의 시기에 있어 불안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세대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30대를 위한 사역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30대를 위한 특별한 예배인 30 Cup 찬양예배. 4개월 간의 준비 끝에, 직장과 결혼, 가정과 육아, 자기계발 등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소홀히 하기 쉽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의 시기에 있어 불안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세대인 30대를 위한 예배로 마련되었다.

찾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1,000여 명의 미혼, 기혼의 30대들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교회와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준비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사역이 30Cup이었다.

‘30Cup을 풀어 쓰면 ‘Caring for Unreached People’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의 말씀(막 9:41)¹에 나오는 ‘컵(Cup)’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내포되었다.

30Cup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매월 셋째 주일 오후 5시 30분에 드리는 30Cup 찬양예배(Worship Service)로, 2005년 4월 17일에 첫 찬양예배를 드렸다. 30Cup 찬양예배는 기존의 예배보다 좀 더 자유로우며, 예배 시간에 전문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이나 연극, 설교와 별도로 간증이나 강연 등을 하기도 했다. 6월 19일부터는 주일 오후 4시에 이전보다 더 넓은 대예배실로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서 예배드렸다. 다음으로 30Cup 소그룹 모임이었다. 이 소그룹 연합 모임은 매주일 오후 1시 15분~2시까지 30대가 공감하는 말씀과 기도를 나누었다. 소그룹 모임은 주중이나 주일 오후에 소그룹별로 모였다. 마지막으로 바베트 만찬이었다. 바베트 만찬은 30Cup이 진행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1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in my name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막 9:41).

이었다. 30Cup 사역팀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찬양과 설교 실황을 CD로 제작하여 주일에는 로비에서, 평일에는 교회 내 휴게 공간이자 서점인 '설만한 물가'에서 판매했다. 이렇게 모인 CD 수입금 전액을 바베트 만찬으로 사용했다. 2006년 4월 16일 1주년 기념 예배 후 그동안 모았던 바베트 만찬을 서대문구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위탁 보호기관인 '나무를 심는 학교'를 위해 사용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교인들을 위해 탁아방을 운영하고 어린이를 위한 영화를 상영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다.

30Cup은 교회 내에서 8교구로 편성되어 2005년 교구별 수련회를 할 때, 일일수련회를 시행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30Cup은 예배와 소그룹 모임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시다

아동부

2002년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록함에 따라 국민들 가운데 축구붐이 조성되었다. 이듬해 봄에 문동학 목사가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유소년 축구팀 결성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놀이문화를 마련해주고 이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2003년 9월 7일~11월 31일까지 제1기 주님의교회 유소년 축구클럽을 열었다. 1기 축구클럽은 2002 월드컵 기술위원장이었던 이용수 집사의 도움으로 100명의 초등학생, 14명의 중학생, 20명의 자원봉사자, 8명의 코칭 스태프가 함께했다. 축구클럽이 열리자,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참석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이것을 계기로 교회에 처음 오는 어린이도 있었다. 지금까지 유소년 축구



2003년의 제1기 유소년 축구클럽, 2002년 월드컵 4강에 따른 축구 붐에 부응,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강한 놀이문화를 마련해주는 뜻에서 마련되었으며, 교인들과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다.

클럽은 매년 두 차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에 통합유아부가 시작되었다. 주일 2부예배 시간에 1층 유아부실에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4년 2월에 통합유아부의 이름을 '썩트네'로 변경했다. 2003년 신설 이후 썩트네는 교사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는 놀이 중심으로 활동하던 '탁아부 성격의 공동체'였다. 2005년 1월부터 교육전도사가 부임하여 썩트네는 '교육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다. 교육전도사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는 공과공부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7일부터 통합아동부가 시작되었다. 통합아동부는 초등학교 1~6학년까지 함께 아울러서 장년 2부 예배 시간인 9시 30분에 예배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서이다. 이 통합아동부 예배의 특징은 찬양, 율동, 놀이와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무지개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학년의 어린이



2004년 8월의 통합아동부. 통합아동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 율동, 놀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회학교의 하나였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학년의 어린이가 함께한다고 하여 '레인보우'라고 이름붙였다.

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에서 부서 이름을 '레인보우'로 정했다. 첫 예배 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이 채 안 되어 20명이 넘는 어린이가 참여했다. 초기 레인보우는 담당 교역자 없이 교사들만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사들은 매주 수요일에 모여 주일예배를 준비했다. 2005년 3월부터 레인보우에서 함께 일할 교육전도사가 부임했다.

2004년 3월 28일부터 King's Kids와 King's Teens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King's Kids는 1991년부터 예수전도단이 운영해온 프로그램으로 만 7~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6~17주의 교육 과정이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7시 50분까지, 예배를 시작으로 연령별 소그룹으로 나뉘어 1시간 30분 동안 강의에 대해 서로 토론을 나누고, 묵상과 중보기도를 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석하는 프로그램인 King's Kids는 초등학생 5명과 중고등학생 5명만 모집했다. 10월에 2기 참석자를 모집했다.

어와나클럽

청소년 사역 비전팀이 비전주일로 정하고 그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던 2004년 11월 14일에 어와나클럽(AWANA Club) 학부모 설명회가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있었다. 어와나클럽에서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영어성경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었다. 어와나는 약 50년 전에 미국에서 연구되고 발전된 세계적인 청소년 선교기관으로, 세계 108개 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약 240여 개의 교회에서 어와나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님의교회 교육위원회는 어와나클럽 도입을 2004년 초부터 준비했다. 8월에는 어와나클럽을 담당할 유영안 교육전도사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국제 어와나 컨퍼런스에 참석시켰고, 시카고의 어와나 본부를 방문하여 교육 과정도 밟게 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유영안 전도사는 7월부터는 진행하고 있던 리더 교육을 계속했으며, 어와나 실습 과정과 리허설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어와나클럽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주로 모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어

와나클럽 모임은 매주 토요일 3시에 게임 40분, 핸드북 40분, 교제 40분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단복을 착용하고, 게임 전에 기 게양식과 선서를 했다. 핸드북 시간에는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개인적인 신앙 상담도 받았다. 마지막 교제 시간인 ‘푸른초장 시



어와나클럽. 2004년 12월 4일에 시작된 어와나클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2007년에는 어와나 티엔티, 2009년에는 어와나 트랙, 2010년에는 어와나 커비가 시작되었다.

간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활동에 대한 개인 및 팀 시상을 하고 마쳤다.

어와나클럽에는 ‘어와나 컵비단(Awana Cubbies)’, ‘어와나 불티단(Awana Spark)’, ‘어와나 T&T(Awana Truth & Training)’, ‘어와나 트랙(Awana Trek)’이 있는데, 주님의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어와나클럽은 6~8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와나 불티단(Spark)’이었다. 불티단은 3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3년 동안 3권의 핸드북을 마치는 것인데, 3권의 핸드북을 통해 아이들은 68개의 성경구절을 배우고 암송했다. 2004년 11월 14일 학부모 설명회 시간에 입단원서를 배부하여 단원을 모집한 결과 108명이나 신청을 하는 바람에 추첨을 통해 불티 1반 48명과 2반 48명을 뽑았다. 불티 1반은 11월 27일에 전야제를 하고 12월 4일부터 개강했지만, 교사 부족 때문에 불티 2반은 교사를 모집한 뒤 2005년 4월 2일에 시작했다.

한편 교회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오는 부모를 위하여 ‘여호수아반’이라는 양육 과정을 개설하여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을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게 했다.

어와나 불티단 15명의 어린이들이 2005년 6월 6일에 평택에서 열리는 어와나 게임즈에 참여했다. 어와나 게임즈는 어와나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교회의 아이들과 경기를 해 우열을 가리는 것이다. 처음 출전한 주님의교회 어와나 불티단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렇게 어와나클럽은 점점 활성화되어 갔으며, 2007년도에 이르러 규모도 더욱 커졌다.

중고등부

2003년에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비전을 세우고 2004년에는 청소년 사역 비전팀이 주님의교회가 나아가야 할 청소년 사역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방, 토론하고 연구했다. 이 시기 중고등부는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아 부흥하게 되었다.

그동안 점차 증가한 중등부 학생들의 출석 인원수는 2005년 4월 17일 200명을 넘었다. 출석 학생 수가 계속 늘자 교회는 중등부를 중등 1부(1~2학년)와 중등 2부(3학년)로 나누었다.

중등부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수련회를 열었다. 특히 2003년 2월 26~28일에 90명의 학생들과 25명의 교사와 부모들이 참여한 겨울 수련회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 성막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구약성경을 근거로 재현해놓은 성막의 바깥뜰, 안뜰, 성소, 지성소 순으로 들어갔으며 지성소에 도착한 학생 개개인을 교역자가 기도로 축복했다. 성막체험이 진행되는 다섯 시간 동안 수련회에 참여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중보기도했으며, 학생들은 성막체험 가운데 자신의 죄를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은혜로운 경험을 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은혜로운 경험이 계기가 되어 2008년에는 전교인 수련회에서 성막체험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중등부는 주일에배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도 정기적으로 했다. 2002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에 교사와 학생들이 강남병원 내 주일에배에 참여하여 환자들의 예배를 돕고 환자들을 위로했다. 이 사역은 5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2004년 부활주일에는 달걀을 정성껏 포장하여 환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부활절을 함께 축하했다.

고등부는 매월 마지막 주에 찬양예배를 드렸다. 2003년 3월 찬양예배부터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큰 감동이 일기 시작했다. 4월 20일에는 부활절 특별 찬양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그다지 적극적으로 찬양하지 않던 학생들도 크게 찬양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의 마지막 주일인 12월 27일에도 특별한 찬양예배를 준비했다. 'Jesus Generation'이라고 이름붙인 이 찬양예배는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전도하는 예배였다. 그 외 주님의교회 청소년뿐 아니라 서울 여러 지역의 청



2008년 전교인 수련회에서 성막체험. 중등부 수련회에서 구약성경을 근거로 재현해놓은 성막을 통해 눈물과 함께 회개하는 은혜로운 경험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전교인 수련회에서 성막체험이 이루어졌다.

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찬양축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 6~8까지 개최되었다.

고등부에서는 2002년부터 징검다리운동을 해왔다. 징검다리운동이란 구약 시대 추수할 때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곡식을 조금 남겨두는 하나님의 법칙의 연장선에 서 있는 운동으로, 일상의 경제활동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떼어내어 이웃을 위해 남겨두는 실천운동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영화 볼 때 휴드전화 카드로 할인된 금액을, 어떤 학생은 남자 친구와 만난 지 100일 된 기념으로 친구들이 준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 내기도 했다. 그리고 매년 두 번씩 교회 마당과 식당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징검다리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 물품은 고등부 학생들의 헌물과 징검다리 기금으로 준비했고 수익금은 전액 징검다리로 적립되었다. 이렇게 모인 재정을 가지고 매월 장애우 가정이나 단체의 고등학생 학비와 급식비로 지원했다.

중고등부는 정신여중고를 비롯하여 교회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학원 선교에 힘을 쏟았다. 2004년에는 정신여중 교목실의 협조를 받아 성경 시간에 중등부와 교육지원부 교사들이 함께 중등부 주부와 사탕과 초대장과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중등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005년 전반기에는 풍성중학교에서 그곳에 다니는 자녀를 둔 교인

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먹거리 장터를 열고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들이 솜사탕을 만들어 나눠주면서 전도했다. 6월 3일에는 정신여중의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때 중등부에서 학교 전도의 일환으로 솜사탕을 나눠주며 전도했다. 고등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간단한 간식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믿지 않는 청소년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정신여고뿐 아니라 영파여고, 경기고등학교도 방문하여 전도했다.

주님의교회 중등부와 고등부는 학생들의 신앙교육이 교회학교만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매년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2006년 5월 14일에는 중등 1부와 2부 그리고 고등부가 부모님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다.

2003년부터 장년과 청소년 세례식이 구별되어 거행되었다. 중고등학교생들은 3주간의 세례자 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에 각자 속한 교육부서에서 세례를 받았다.

청년부

청년부는 1995년부터 청년 1, 2부로 편성되어 2004년까지 지속되었다. 2003년도 청년부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2003년 청년부 워십팀 영혼(young H.O.N)과 중창팀이 결성되어 청년부만의 행사가 아닌 전교인을 위한 음악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4월 20일 4부 예배 시간에 청년부가 주최하는 부활주일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6월 22일에는 '열린 예배와 문화공연으로 이루어진 전교인 초청 문화행사'를 열었다. 10월 12일에는 일본 복음성가 가수 모리 유리를 초청하여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11월 16일 감사주일에는 청년부 워십 페스티벌을 열어 교인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12월 21일에는 청년부 혼성 중창단 성탄 축하 발표회로 2003년 청년부 찬양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듬해 2005년 12월 19일에 청년부 워십댄스 스쿨 1기 수료생들의 공연이 있었다. 3개월 동안 전문 강사에게 훈련받은 1기생들은

이날 4부 예배 시간에 청년회원들과 교인들 앞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주제의 워십댄스를 공연했다. 하루 전날인 18일에는 정신여중생들 앞에서 전도 목적으로 공연하기도 했다.

청년부는 찬양을 통한 축제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펼쳤는데, 6월 말에는 교역자와 청년부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정신헌원 운동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했다. 청년부 부흥을 위해 2003년 7월 17~19일에 김원재 목사를 모시고 '본질을 향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말씀사경회를 개최했다. 이웃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무더운 여름 8월 10~13일까지 강원도 홍천 좌운리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청년부 내에서 일어난 이러한 찬양 활성화의 연장선에서 2004년에는 청년부 뮤지컬팀 'J'가 결성되었다. 뮤지컬팀은 총 9명으로 4월 11일 부활절에 '찾으라 그리고 돌아오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공연했다.

2004년 11월 28일에는 새로운 방식의 청년부 총회를 개최했다. 이전까지 총회에서 청년부 임원을 선출했다면, 이 해에는 세부 사역을 담당하는 팀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2004년은 20~30대의 새가족이 가장 많이 등록한 해로, 새로 등록한 전체 새가족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기존 청년부서를 개편하여 교회 내에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30Cup을 신설하고 청년 1, 2부는 청년부로 통합했다.

새롭게 편성된 청년부는 2005년 9월 5일부터 매일 오전 6시 15분에 새벽부흥기도회를 시작했다. 이 새벽부흥기도회는 청년부 담당 교역자였던 윤은성 목사가 문봉주 대사의 '새벽형 크리스천'과 '새벽나라 새벽거인'이라는 두 권의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새벽부흥 팀을 결성하여 8월 29일부터 중보기도를 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 밤문화를 이기며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청년들, 그리고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꾸준하게 성장하는 청년들을 목표로 세운 새벽부흥기도회는 여느 특별새벽기도

와 같이 단기간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2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청년들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새로운 신앙체험을 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장년들과 청년 부모들이 동참함으로 이 기도회는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10월 말부터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기도회에 함께 참여했다. 이 기도회가 활성화되자 정란희 집사와 그 외 여러 명의 직분자들이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기도를 마친 청년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각자 학교와 직장으로 갈 수 있었다. 2006년 3월 27~29에는 당시 뉴욕 총영사였던 문봉주 장로를 강사로 초빙하여 청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이 특별새벽기도회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다. 이 새벽부흥기도회에서 청년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한 변화를 체험했고 이를 통해 청년부 공동체는 더욱 결속되었다.

교사 교육과 학부모—교사 기도회

2004년까지 주님의교회는 교사양성대학을 통해 새로 교사가 되려는 이들을 훈련시켰다. 2005년부터 교사대학이 교사훈련원으로 바뀌고 기간도 8주에서 4주로 짧아졌다. 그 밖에 교사들의 단합과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사 파트너십 트레이닝’이나 ‘교사 모티베이션 트레이닝(Motivation Training)’을 개최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2004년 5월 7~18일에 시카고 윌로크릭교회를 방문하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WCA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했다.

주님의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에서 학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사 교육에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2003년 3월 4일~4월 29일까지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를 개설했다. 이러한 연속 세미나는 이듬해 3월 20, 21, 28, 29일에 재개설되었다.

한편, 학부모와 교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학부모-교사 기도회가

1997년 5월에 시작되어 매달 셋째 목요일에 계속되다가 2000년에 중단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교사들은 매달 1회 교사 기도회를 가졌고, 대학수능시험 직전에는 학부모들이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학부모-교사 기도회는 2005년 3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다시 열렸다. 이번 기도회는 학기제로 운영되었고, 매 학기마다 특정 주제가 제시되었다. 2005년 전반기 주제는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교육'이었고, 2006년 전반기에는 '21C 다니엘 만들기', 후반기에는 '시대를 책임지는 리더십-느헤미야 강해'였다.



학부모 기도회. 이전의 교사대학이 2005년부터 교사훈련원으로 바뀌고, 기간도 8주에서 4주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교회학교 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연속 세미나와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장년 신앙교육

2001년 2월 수요성서학당으로 바꾸었다가 2002년 1월부터 다시 수요일 예배로 환원했다. 2003년 3월 5일에 다시 수요성경공부로 이름을 바꾸고 담임목사가 성경공부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요성경공부에는 교구 장로와 교구 안수집사, 교구 권사, 구역장, 부구역장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는데, 수요성경공부 후에 구역장 성경공부와 모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2003년 9월 17일에 시작된 가을학기 수요성경공부에서는 문동학 목사가 '이사야'서의 위로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사야> 44~50장을 강해했으며, 이듬해 가을 학기에는 구약성경개론을 강의했다. 하지만 수요성경공부는 세례식과 여러 행사 및 명절 연휴 때문에 자주 중단되었다.

2003년 3월 4일~6월 20일까지 다양한 성경공부반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개설되었다. 2003년 가을학기부터는 성경공부반을 체계화해 양육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개설했다. 양육 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단계인 100과정은 건강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새가족 모임과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200과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과 생활법률, 젊은 어머니학교, 불어성경과 유럽 문화, 영어성경공부, 믿음의 여인들,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말씀묵상 출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바이블 네비게이션, 출애굽기, 누가복음 등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단계였다. 300과정은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리더 훈련, 워십 스쿨, 중보기도학교, 선교학교 및 비전트립(Vision Trip), 교사 훈련, 킹스 키즈(King's Kids) 등의 강좌를 개설된 단계였다. 400과정은 매주 수요성경공부 후에 있는 구역장 및 양육 사역자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리더십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 가운데 200과정의 '제자의 삶'과 300과정의 '리더 훈련'은 모든 교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다.

이러한 양육 과정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이 다른 평신도를 교육시키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과목 외에도 서예와 꽃꽂이 같은 훨씬 다양한 강좌들을 교인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이 과정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년 교육뿐 아니라 교회학교를 위한 교사 교육 등 모든 교육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

2003년 후반기에는 200과 300과정의 일부분만 개설되었고, 2004년 1학기부터는 모든 단계의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되었다.

가정 사역팀

주님의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같은 가정을 위한 사역은 1991년 2월 1일부터 있었다. 이 부부 세미나는 1995년 6기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후 이어지지 못하다가 2005년부터 가정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져 가정 사역팀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2005년 3월 5일~4월 2일까지 서울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린 '아버지학교'와 3



2005년부터 주님의교회에 개설된 아버지학교. 가정을 위한 사역은 부부 세미나의 형태로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가, 2005년에는 가정 사역팀이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가정 사역에 집중하면서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었다.

월 19일~4월 16일까지 열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4월 23일부터 5주간 천호동성결교회에서, 6월 11일부터 5주간 남포교회에서 열린 '아버지학교'에도 참여한 뒤 8월 21일부터는 주님의교회에서 '아버지학교'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매년 주님의교회에서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었다.

아버지학교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부부 세미나'가 개설되었다. 2005년 10월 2일에는 문동학 목사가, 2006년 3월 12일에는 아버지학교 본부장인 김성묵 장로가 부부 세미나 공개 강의를 했다. 2006년 12월 30일에도 역시 '행복한 부부 세미나'가 열렸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온 주님의교회 가정 사역팀은 가정 사역자 컨퍼런스를 2005년 11월 12일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개최했다. 그리고 2006년 3월 17일부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실천 그룹을 만들고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그리하여 가정 사역팀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전체 그룹과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가

기 위해 노력하는 소그룹 모임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에는 2개 그룹으로 출발한 소그룹 모임은 2개월에 한 번씩 연합 모임을 갖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발전해갔다.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하시다

무지개 축제

2003년부터 성도의 교제와 관련하여 주님의교회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5월 25일에 전교인이 함께 하는 무지개 축제였다. 이전에도 전교인이 함께하는 잔치로 추수감사절 달란트 잔치가 있었지만, 이것은 절기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그나마 2001년에 들어오면서 없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무지개 축제는 순수하게 친교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이며 그



전교인이 함께하는 잔치인 무지개축제. 2003년부터 교인의 친교를 위해 기획되었던 무지개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 주인과 농어촌 교회와 도시 개척교회와 다문화 가정 등 외부 손님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동안 주님의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안산 소금밭교회의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한 축제였다. 무지개 축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주일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놀이와 축제와 먹거리마당이 개최되었고, 오후에는 무지개 운동회와 모든 교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연이나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1회 무지개 축제는 기독교TV 채널 42번을 통해 방송되기도 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무지개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역 주민과 농어촌 교회와 도시 개척교회와 다문화 가정 등 외부 손님들에게 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공동체의 축제로 치른 무지개 축제가 2009년부터는 전교인 대상에서 어린이만 참여하는 축제로 축소되었다.

교구 수련회

2001년부터는 늘어난 교인 수로 인해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하기 힘들어져 교구별로 수련회를 진행했다. 2003년의 교구 수련회는 1997년과 1998년 그리고 2001년의 교구 수련회와는 차이가 있다. 2003년 이전까지는 교구 수련회라고 해도 교구 전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1, 2차로 수련회를 진행해왔지만, 2003년부터는 각 교구마다 따로 수련회를 열었다. 그에 따라 7개의 교구가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 독자적인 주제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련회를 했다. 때로는 2개의 교구가 연합하기도 했다.

도서실

주님의교회의 교인들의 지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2001년 2월 4일부터 '좋은책 읽기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독서와 토론 문화는 교회 내 도서실 개관으로 이어졌다. 도서실부에 소속된 '좋은책 읽기 모임'의 회원 10여 명이 도서관 개관을 위한 작업을 도와, 2003년 9월 28일 1시에 도서실 개관식을 가졌다. 주님의교회 5층에 문을 연 도서실은 30여 석의 열람석과 어린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쿠션 바닥을 갖



주님의교회 5층에 자리잡은 도서관. 2001년 시작된 '좋은책 읽기 모임'이 계기가 되어 2003년 9월 28일 교인들에게서 기증받은 약 3,000권의 도서로 출발했다.

추었다. 초기에 교인들에게 기증받은 약 3,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필요한 책이나 잡지는 구입했다. 소장 권수는 점점 늘어나 2004년 6월에 6,000여 권이 되었다. 필요한 이들에게는 대출도 했다. 도서관은 주중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그리고 주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열었고, 월요일에는 휴관했다. 2004년 전반기에 전산화 작업을 거쳐 6월부터는 한층 더 편하게 교인들에게 책을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6월부터 도서관 내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도서 검색과 대출 예약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월만한 물가와 '푸른초장'

주님의교회는 교회 내 교인들의 교제를 위하여 주일에만 1층에 친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인 비교인 구분 없이 이웃 주민에게 더 다가가는 열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회는 2004년 5월 이 친교실을 카페 형식의 휴식과 교제 공간으로 꾸민 '월만한 물가를 열었다. '월만한 물가'는



실만한 물가와 서점 풍경. 교인 비교인 구분 없이 이웃 주민에게 더 다가가는 열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2004년 5월 카페 형식의 휴식과 교제 공간으로 꾸민 '실만한 물가'를 열었다. 같은 해 6월에는 한쪽 벽을 서가로 하여 서점 운영도 시작했다.

월요일~토요일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팀이 운영했다. 이용 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주일에는 오전 8시~오후 1시까지였다. '실만한 물가'의 운영을 통해 들어온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었다.

6월에는 '실만한 물가'의 한쪽 공간을 이용하여 교회 서점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기독교 서적과 교양서적 등 2,000여 권의 책을 진열하여 판매했으나 이후 4,000권 정도로 늘었다. 대부분의 수익금은 '실만한 물가'와 마찬가지로 구제와 선교헌금으로 사용되었다. 주중에는 '실만한 물가' 봉사팀이 서적을 판매했지만, 주일에는 봉사회원이 담당했고, 이용 시간은 '실만한 물가'와 같았다.

이러한 교인들의 휴식 공간이 좋은 반응을 얻자, 2006년 2월에 '실만한 물가'에 이어 성도들을 위한 쉼터와 만남의 장소로 중예배실 1층 로비에 '푸른초장'을 열었다. 푸른초장은 실만한 물가처럼 독립된 방이 아니라 탁 트인 로비에 의자와 탁자를 가져다 놓고, 교인들이 지나다니면



지하 1층 중예배실 앞 로비에 마련된 푸른 초장. 교인들의 휴식 공간이 좋은 반응을 얻자, 2006년 2월에 '실만한 물가'에 이어 성도들을 위한 쉼터와 만남의 장소로 중예배실 앞에 교인들이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서 잠깐씩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교회 내 친교 모임들

1999~2002년까지 주님의교회는 봉사과 선교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교인 간에 친교를 나누기보다는 대외적인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했고, 교회 전체 분위기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러다 2003년에 들어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면서 교회 내 친교 모임들이 하나씩 생겨났다. 3월 15일에 호렙산 등반대가 발족하여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 모여 함께 등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2001년 2월부터 시작한 '좋은책 읽기 모임'도 꾸준히 활동하며 교회 도서실 설립에 큰 힘을 더했다. 하지만 2004년 4월 이후로는 별다른 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2003년 4월 27일에는 제1남선교회 회원이 주축이 되어 100여 명이 참여하는 '실버 합창단'을 창단했다. 실버 찬양단은 11월에 '앙코르 찬양

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실버(silver)라는 단어는 단지 노년의 상징이므로, 그것보다는 노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름받아 쓰이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찬양단의 이름을 바꾼 후 2003년 가을 추수감사주일 2부와 3부 예배 때 응답송을 맡기도 했다.

2005년 5월 1일에는 미술인선교회가 창립되었다. 미술인선교회는 서양미술, 동양미술, 서예,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일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들이 참여한 선교회로 그해 11월에 교회 지하 제2식당에서 전시회 '움'을 개최했다. 이듬해 11월에도 두 번째 전시회 '감사와 나눔'을 가지는 등 선교회는 꾸준히 활동했다.

문화 공연들

주님의교회 내에는 장애우들과 그들을 돕는 이들로 구성된 정립 구역이 있다. 이들은 1996년 제1회 구역별 달란트 잔치에서 우승하는 등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3년 4월 22일에 이들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제1회 '장애우 초청 작은 음악회'는 구의동 정립전자강당에서 1부 식사와 2부 음악회로 진행되었다. 정립전자는 주님의교회 장애우 교인 20여 명이 일하는 곳으로, 작은음악회는 믿지 않는 직원들도 초청하여 함께한 행사였다. 그래서 이 행사는 교인들에게, 낮은 자와 작은 자를 섬기려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그의 사랑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매년 장애인의 달인 4월마다 '장애우를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2006년에는 제4회 '정립음악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1년 1월에 제직회의 한 부서로 설립된 드라마팀이 2003년 12월 17일에 세 번째 작품인 <예수의 탄생>을 공연했다. 이 작품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극화한 것으로 대부분은 광림교회와 SBS 드라마팀이 썼다. 드라마팀은 대림절 기간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재조명한 이 극을 공연함으로써 교인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

게 만들었다.

2004년 고난주간 특별 행사로 전교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행사를 가졌다. 4월 8, 11일에 영화관을 임대하여 전교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그린 <패션(The Passion of the Christ)>을 관람했다. 이날 담임목사는 거룩한 성도가 모인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며, 영화관에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슴 아파 울다 눈이 붓기도 했고,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할 말을 잃고 조용히 영화관을 빠져나왔다. 교회 공동체는 영화관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경험하며 고난과 부활의 증언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다. 이 행사는 매년 고난주간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신앙훈련을 영화를 매개로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04년부터 학부모들이 세미나나 30Cup 등의 다양한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에 동반한 아이들을 위해 영화를 상영했다. 'Challengers-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2004년 3월 14, 21일 양일간 중예배실에서 <부르스 올마יתי>와 <니모를 찾아서>를 상영했다. 매회 50~70명의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여 즐겁게 영화를 관람했다. 2005년 4월 17일부터 시작한 30Cup 예배에 참석하러 온 30대 젊은 부부들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탁아방을 설치했고, 그곳에서 <몬스터주식회사>, <아이언 자이언트>, <발리언트> 등의 영화를 상영했다. 이처럼 교인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이 시기 교회 문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함즐함울

1998년 8월에 격월지로 창간된 <함즐함울>이 2003년 4월 주간지로 재창간되었다. 격월로 발간되다 보니 신문의 기능보다는 행사 후기나 문예지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교회는 <함즐함울>이 교회 신문으로

서 신앙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교회 각 기관 및 교인들 사이의 의사 소통의 통로가 되도록 2003년 4월부터 주간으로 전환했다. 2006년 1월부터는 누구든지 각 부서의 행사와 소식을 손쉽게 접해 교회의 공동 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받아 볼 수 있게 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다

하프타임 사역

2005년 3월 13일에 하프타임 사역팀이 첫 모임을 가졌다. 하프타임(half time)은 인생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후반기를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운동경기에 쓰는 '하프타임'이란 용어를 부서명으로 정했다. 하프타임은 2005년에 신설된 제직부서로 50대 이상의 교인들이 참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출발했다. 이 팀이 교회에서 담당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개설했다. 다음으로 교회 내 기존 사역부서에서 소화할 수 없는 봉사활동을 맡았다. 셋째는 연세가 많은 하프타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사역과 교회 구제부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요양중인 노인을 심방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하프타임 사역팀에서 주최한 경로잔치. 하프타임(half time)은 인생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후반기를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운동경기 용어 '하프타임'에서 빌려왔다. 하프타임은 2005년에 신설된 제직부서로 50대 이상의 교인들이 참여하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개설하고, 교회 내 기존 사역부서에서 소화할 수 없는 봉사활동을 담당하며, 연세가 많은 하프타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사역과 교회 구제부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요양중인 노인을 심방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하프타임 사역팀은 2006년 3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양육과정 가운데 하나로 16주 과정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강좌를 개설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강사를 통하여 주제강의 및 실습활동 혹은 소그룹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5월 9일에는 교회 지하식당에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 경로잔치에 1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식사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고경봉 교수(연세대 의대 정신과, 주님의교회 집사)의 스트레스와 그것의 해소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10월 25일에는 칸티클합창단의 지휘자인 이동훈 집사를 섭외하여 결식학생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역팀은 이날 모금된 460여만 원을 정신학교를 비롯한 인근 지역 결식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전교인 무료 건강검진과 의무실 개설

해외 의료단기선교에 참여하고 안산 외국인 노동자를 진료하는 의료선교부가 2003년 6월에는 주님의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못지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교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전교인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다. 이때 실시된 항목은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동맥경화검사, 비만도 측정, 혈액검사 등이었으며 130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

한편, 주일에 교회 안에서 긴급 환자가 발생했으나 진료할 공간이 없어 곤란을 겪은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5층에 의무실을 만들었지만, 이후 교회 내 공간 부족 때문에 세미나실로 쓰곤 했다. 2005년 4월 3일에 주일 응급환자를 위한 의무실이 1층 안내 데스크 뒤편에 마련되었다.

북한동포를 향하여

북한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주님의교회는 2000년부터

선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던 중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04년 3월 28일에 옥수수 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이어 2004년 4월 19일에는 그동안 유진벨(EugeneBell) 재단을 통해 북한 결핵퇴치운동을 한 결산보고가 있었다. 주님의교회는 2002~2003년까지 유진벨 재단을 통해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 대안구역 제3결핵요양소에 12,500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농업 지원물품을 지원했다. 이에 남포시 제3요양원 김영노 소장이 적은 전달받은 물품의 내용과 사용처 그리고 감사의 인사말을 유진벨을 통해 보내왔다.



2004년 유진벨 재단과 협력해 지원한 북한 결핵환자용 구호 물품. 1999년부터 북한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된 후, 2000년부터는 1995년 창립된 유진벨 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을 지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는 2001년부터 정기적으로 광장동과 안산 외국인 근로자들을 진료했다. 이들의 70~80%가 불법 체류자여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몸이 아파도 높은 진료비 때문에 병원 가기가 힘들어 대개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데, 그나마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 부담이 컸다. 초기에는 격월로 하다가 나중에는 안산 지역 두 곳을 매월 진료하기도 했다. 6년간 총 60여 회에 걸쳐 매회 10여 명의 의과, 치과, 한의, 약무, 지원팀 등 총 2,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진료했다.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외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 불법체류증이거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병원 가기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가 2001~2006년까지 계속되었다.

인 근로자를 섬길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교회와 가까운 하남외국인센터로 진료사역을 변경함에 따라 안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는 2006년 12월 10일에 마쳤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주님의교회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3년 9월에 태풍 ‘매미’로 인하여 경남 마산시 진동면에서는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의교회는 수재의연금으로 5,000만 원을 냈고, 교인들은 수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집을 잃고 절망에 빠진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 9월 24일 ~10월 17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십 명의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이 행사명은 ‘희망의 집짓기’였다. 드디어 희망의 집 1호가 완공되어 10월 31일 완공식을 가졌다.

이처럼 재난과 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 담임목사의 제안으로 2004년에 응급후원팀인 119사역팀을 제직부서 가운데 하나로 조직했다.

2004년 연말에는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들이닥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여러 나라와 단체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스리랑카의 이재민을 지원하는 가운데 주님의교회도 119사역팀 3명을 스리랑카로 파견하여 1차 구호활동을 지원했다. 주님의교회가 파견한 이들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월 8일까지 주로 갈레지역에서 한국 기독교연합봉사단과 연합하여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쌀, 달(콩), 설탕, 라면, 싸롱(남자용 옷), 속옷, 우유(밀크파우더), 물, 빵, 돛자리, 치약, 칫솔, 비누 등 2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1차 구호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이들이 1월 15일에 열린 당회에서 다른 지역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갈레지역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의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집 건축을 지원할 필

요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에 당회는 논의를 거쳐 주님의교회가 파송한 홍경환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푸켓지역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스리랑카지역에는 1월 9일과 16일에 모금한 이재민을 위한 특별헌금을 합하여 3,300만 원을 이재민을 위한 '희망의 집' 건축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주님의교회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과 연합하여 스리랑카에 '희망의 집' 28채를 건축해 2006년 4월에 모두 완공했다.



2004년~2005년에 걸친 스리랑카 구호활동. 주님의교회는 구호팀을 파견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태국에는 건축비를 지원하고 스리랑카에는 '희망의 집'을 건축했다.

2005년에는 호남 지방에 15일간 내린 폭설 때문에 장애인 시설인 전주 소망재활원의 나무빔 공장 시설이 붕괴했다. 이에 주님의교회 119사역팀이 복구 공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2006년 2월 6~10일, 2차로 2월 20~24일까지 현장에 내려가서 공사를 했다.

자원봉사 사역 박람회

주님의교회 사회선교위원회는 일하고 싶은데도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여 '터요람공동체'(일터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2003년 4월 20일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이 터요람공동체는 3개월간 한 시적으로 시험 운영해보기로 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월~토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12시까지 4층 당회원실에서 모임을 갖



2005년 제2회 사역박람회. 사역이나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과 각 부서를 연결해주기 위해 2003년 마련된 자원봉사 연결 안내 데스크를 기점으로, 같은 해 자원봉사박람회가 열렸고, 이듬해인 2004년 사역박람회로 명칭이 바뀌어 이후 매년 개최되었다.

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교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재민을 도왔는데 이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봉사하기 원하는 이들도 많고 필요한 인원도 많지만, 문제는 그 둘을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2003년 10월 12일부터 매주일 교회 내에 자원봉사 연결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과 봉사자를 적절히 연결해주었다.

12월 21, 28일 주일에는 교회 내의 다양한 봉사자들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 부서에서 섬길 수 있도록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했다. 교회 내 각 부서별로 박람회 일정과 시간을 정해 교인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계기를 마련한 행사였다.

이 자원봉사박람회는 2004년에 사역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11월과 12월에 개최했다. 2005년에는 박람회 기간이 짧아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들도 제때 신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 견해들을 반영하여 1월 23, 30일, 2월 27일, 3월 6일에 개최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초창기부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혈이 종종 실시되었다. 2003년 9월 21일과 2004년 10월 17일에도 전교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있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결식아동 돕기 자선음악회인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2005년 6월 8일에 개최된 음악회는 제1남선교회가 주최하고 긍휼사역위원회가 후원했지만, 2006년 10월 25일 열린 음악회는 하프타임 사역팀이 주관했다.

2005년 12월 4일, 청년부 주최로 몽골 샤르하드 지역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위한 선교음악회 ‘복음의 빛을 갚으라!’가 열렸다. 몽골은 2003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음악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좋은 통로가 되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가 열렸다.

년 여름 청년부 단기선교와 2005년 8월 고등부 단기선교로 인연을 맺은 나라이다. 몽골 샤르하드 지역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위한 음악회는 청년 공동체 내의 숨은 음악 인재들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전문 CCM 사역자 ‘소망의 바다’도 선교 후원으로 참여했다.

2003년 12월에는 전남 순천 어린이 마을과 군산 모자원에 성탄 선물을 보냈다. 선물을 보내기 위해 11월 16일~12월 7일까지 교회 게시판에 어린이들이 갖고 싶은 물건의 목록이 게시되었다.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이 목록 중 하나씩 골라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 목록은 11월 16일에 게시되자마자 3시간 만에 모두 채워졌다. 뜻밖의 성탄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위탁 경영

2005년 6월 14일에 당회는 서울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경영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복지관은 온누리교회의 주수일 장로가 온누리교회의 지원을 받아 위탁 경영했지만, 온누리교회가 자체 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주 장로가 주님의교회에서 맡아 주기를 요청해왔다. 그리고 한 교인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당회는 복지관을 운영하기로 하기로 결정하고 복지관의 관장을 선임했다. 2005년 11월 감사주일에는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실버 찬양대 50명의 특송에 이어 주님의교회 앙코르찬양대가 답송을 하면서 복지관과 주님의교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이에 2006년부터 교회는 그동안 매월 지원하던 지원금을 배로 상향조정하여 후원했다. 6월부터는 모든 지원사역을 복지관교사역팀으로 일원화하고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사역팀장과 담당 교역자가 정기적으로 복지관을 방문하여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복음을 전하며 번식하게 하시다

전도집회

2003년 11월 2일 저녁 7시에 '해바라기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전도집회가 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콘서트 시작 전 오후 5시부터 각 교구와 구역별로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기성 가수인 '해바라기'는 3개월 전에 주님의교회에 등록했고, 이 전도집회 후에도 2004년에는 주님의교회의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군 선교 위문 예배에 참여하고, 2004년 9월 신병 세례식에서 공연도 했다.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는 주님의교회의 여러 비전 중 하나이다. 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5년 3월 8~10일까지 2005년 춘계 전도 부흥회를 개최했다. 강사로 온 채수권 목사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와 개성에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전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부흥회는 교인들에게 5월 29일에 시작될 전도예배 '오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주님의교회창립 18주년 기념주일 다음날인 2006년 6월 26~28일까지 '이제 가라'(출3:9~10)는 주제로 2006 선교부흥회가 개최되었다. 강사는 LA영락교회에서 파송받아 중앙아시아 ○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문○ ○ 선교사였다.¹ 부흥회를 준비한 선교사역본부에서 부흥회 기간 동안 개별 사역팀별로 사역 현황을 알리는 부스를 마련하여 교인들의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 선교지와 선교사의 실명을 밝힐 수 없어 기호로 표기했다.

학원선교—기도어머니와 사랑어머니

1998년 이래 정신학원의 대강당을 매개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주님의교회 측에서는 학원선교 차원에서 대강당을 건축했으므로 정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이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2001년에 시범적으로 정신여고 1개 반을 주님의교회와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성경공부 시간 중 매월 1시간을 교회 어머니들의 시간으로 할애받았다. 이창성 권사가 아이디어를 내어 시작하게 된 이 프로그램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 무조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 신뢰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기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보호자를 만들어주자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가르침과 평가의 이미지가, '엄마'는 잔소리꾼의 이미지가 떠오르기에, 좀더 가깝고 편안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택했다. 이 '어머니'들은 맡겨진 학생들을 딸처럼 품에 안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별적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서 2003년에 주님의교회 학원선교부에서 처음으로 7명의 '성경어머니'를 정신여고 2학년 4반



2004년의 기도어머니 활동.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정신여고 학생들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01년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경어머니'였으나 2005년부터 '기도어머니'로 바뀌었다. 정신여중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랑어머니'도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다.

에 파송했다. 나머지 14개의 반은 영락교회 '어머니'들이 맡고 있었다. '성경어머니'의 활동으로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사역이 4개 반으로 확대되어 4개 사역 팀에 기도어머니 25명이 연결되었다. 2005, 2006년을 지나면서 정신여고 2학년 15개반 모두에 기도어머니를 파송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그 이름도 가르침의 이미지가 강한 '성경어머니'에서 학생들을 품에 품고 기도하는 사역 본연의 이미지를 더욱 잘 드러내는 '기도어머니'로 바뀌었다.

기도어머니들은 성경공부 시간에 하는 사역 외에도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정신여교 예랑캠프에 간식을 제공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예랑캠프(예수사랑캠프의 줄임말)는 1987년부터 매년 불광동에 자리하고 있는 팀비전수양관에서 실시되는 정신여교 수련회이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2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간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여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생들과 운동장에서 원을 만들어 서로 돌아가며 돌씩 안고 기도해주는 루치아 인사를 하고,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거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정신여중의 '사랑어머니'도 '기도어머니'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2001년 정신여중의 사감으로 있던 당시 우진선 집사가 광장동 광현교회 전도폭발팀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여 60여 명이 결신하게 되었다. 우 집사는 이것을 주님의교회가 했으면 좋겠다고 구역원들에게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2002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와 집사들을 권면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랑어머니가 정신여중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은 세 가지였다. 먼저 정신여중에서 매년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련회의 인성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시간에 사랑어머니들은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자신의 고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어머니들은 인성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알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교목실을 통해 소개받아, 그들을 1대1 또는 1대2로 만나 기독교 기본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사영리' 소책자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었다. 전문적인 훈련이나 체계화된

조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여 명의 여중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두 번째로, 기도어머니들처럼 매월 1번씩 학교 성경시간에 반에 들어가서 6~7명의 학생들을 맡아서 신앙과 자신의 고민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주는 일을 했다. 세 번째로 2004년부터는 정신여중에서 특별활동반을 운영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학교에서 개성이 강한 10명의 학생들을 모아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상담해주는 '종교재미반'이었다. 이 특별활동반은 주님의교회에서 파송한 인도자가 바뀔 때마다 '단편영화 제작반', '비전 바이블반', 'QT반'으로 그 이름과 성격이 계속 바뀌었다. 이것은 주님의교회 측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지원이 부족했기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했다. 기도어머니처럼 사랑어머니도 2005~2006년에 이르자 정신여중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초창기 정신학원 어머니 사역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졌던 교인이 헌신적으로 친분 있는 주변의 권사와 집사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동참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시작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운영해오다가 교회 차원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차츰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 현재는 학원선교부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으며, 기도어머니와 사랑어머니 사역에 각각 50여 명과 80여 명이 봉사하고 있다.

기도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니영이에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벌써 2006년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어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1년 동안 어머니와 같은 조 친구들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얼굴 볼 기회가 없어져서 슬퍼요. 1년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좋은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시험기간마다 꼬박꼬박 전화해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친구들과 어머니와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많이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3학년이 돼서도 계속 성경시간을 갖고 싶어요. 계속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어머니도 만나고 싶고……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고3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저희 조 애들끼리 어머니 찾아뵙게요. 그때까지 저희 잊으시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각자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그럼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엄마 사랑해요!

군선교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비전캠프 같은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교회 군선교는 빈약했다. 2003년에 군선교부가 제직부서로 신설되었고, 2004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군선교부 회원뿐 아니라 중직자와 교회 찬양대 또는 청년 워십팀이 함께 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특히 2004년 2월 9일부터 시작한 논산 육군훈련소 선



장병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 2003년에 군선교부가 제직부서로 신설되었으며, 2004년부터 논산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군선교부 회원뿐 아니라 중직자와 교회 찬양대 또는 청년 워십팀이 함께 가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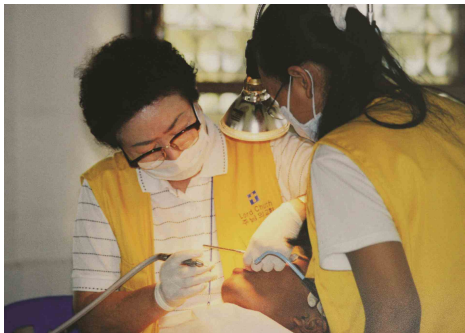
교사역이 두드러졌다. 논산육군훈련소 사역팀은 자신들의 사역을 짧은이 선교의 주요 전략지로 인식하고 6주마다 한 번씩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훈련소 사역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뉘었다. 중보기도로 사역을 돕는 것과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팀사역이었다. 2004년도에는 육군훈련소사역팀과 청년부 워십팀이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를 방문했다.

2002년에 이어서 2003년 8월 18~20일까지 용인 대화산 수련원에

서 주님의교회 내 군입대 예정자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선교 2003 비전캠프’를 실시했다. 이 캠프에서는 청년들이 군에 입대한 뒤에도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더 나아가 군으로 파견된 선교사라는 자의식을 갖고 군생활을 하도록 신앙을 훈련했다.

해외선교

2003~2006년 해외선교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주님의교회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1명씩 파견하고 있었으며, 중국, 러시아, 네팔, 남아프리카와 미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다. 해외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차



2004년 캄보디아 의료선교 현장. 이 해의 단기선교는 의료선교와 문화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총 56명으로 구성된 선교단은 축 지역에서 1190명을, 바탐방 지역에서 911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이미용사역팀은 530여 명의 머리를 다듬었고, 사진팀은 가족사진을 촬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원에서 한두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정하고 2001년에 태국으로 선정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2001년 후반기에 태국으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에 흥경환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했다. 하지만 2003년 7월 말에 의료선교부가 태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것을 제외하고 그 이후 대부분의 단기선교 파송지는 캄보디아, 중국,

몽골이었다.

2003년에 들어서면서 해외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견하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교인들이 해외선교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선교나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선교현장과 교인들을 연결해주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님의교회를 섬기던

교역자나 주님의교회에서 성장한 교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곳이 바로 주님의교회 출신 이성민·김창숙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캄보디아였다.

이런 배경에서 2004년 8월 1~8일에 주님의교회 해외선교단 2개 팀이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이 단기선교의 목적은 우선 주님의교회 해외선교위원회의 정책에 부응하여 해외선교 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이었고, 둘째는 문화선교가 해외선교 현장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단기선교를 위해 4개월간 준비한 끝에 캄보디아 남단에 있는 축 지역(캄퓏)과 서북쪽에 있는 바탐방 지역에 각각 한 팀씩 보내기로 했다. 선교단은 총 5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축 지역으로 간 팀은 의료선교를 위주로 팀을 구성하고 관련된 지원 행사를 더한 형식으로 진행했고, 바탐방 지역에서는 의료선교와 청년 중심의 문화선교를 시행했다. 이성민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던 축 지역에서는 1,190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미용사역팀은 530여 명의 머리를 깎고 사진팀은 지역주민들의 가족사진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껏 한 번도 의료팀이 들어가보지 않았던 바탐방 지역에서 선교단은 911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12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 단기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캄보디아 선교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정해졌다. 그것은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자'는 주님의교회 목회비전과 일치하는 캄보디아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주도해온 의료선교였다. 이것을 위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 '캄보디아 비전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이 11월 13일 당회에 제기되어 12월 11일 당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캄보디아선교추진본부 구성을 결의했다. 이 모든 단기선교의 경험을 모은 캄보디아 선교 결산 자료집 《하나님의 사랑 캄보디아》가 12월 12일에 발간되었다.

이후 선교사역 계획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2005년에는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캄보디아 선교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까지 실시하지 못했다. 2005년 하반기에 캄보디아 의료센터를 건립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2006년 예산에 반영했지만, 캄보디아는 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불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간 토지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어 부지 매입의 어려움이 대두됐다. 이에 2006년 2월 7~10일에 담임목회자와 당회 서기와 선교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의료선교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썼다. 이 양해각서에는 실무팀을 쌍방이 동수로 구성하며 주님의교회가 연차적으로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며 캄보디아 정부는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의료선교에 필요한 건물과 이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주님의교회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해외선교센터와 현지 의사 양성 등 다양한 선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교회는 캄보디아 정부와 1차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6년 여름단기선교를 캄보디아에 집중했다. 2006년 7월 23일에 캄보디아 단기선교 파송식을 갖고, 총 6개의 팀이 각기 다른 시간에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떠났다. 가장 먼저 출발한 팀은 캄보디아 우물 파기 단기선교팀으로 7월 26일~8월 2일까지 식수가 필요한 캄보디아인들을 위해 캄פות 3개, 프놈펜 1개, 다케오 1개의 우물 'Angel'을 팠다. 캄보디아 청년 1팀은 20명이 참여하여 8월 9~18일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돌면서 워십, 간증, 설교 드라마 등으로 복음을 전했고, 베트남에서는 지하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캄보디아 선교이야기팀은 주님의교회 교인 11명과 다른 4개 교회 연합으로 구성된 팀으로 8월 7~13일까지 시아누크빌과 인근 지역에서 의료활동과 이동성정형학교 등을 통해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캄보디아 의료팀은 의료인과 의료보조와 문화사역자 총 34명이 참여하여, 8월 14~20일까지 캄보디아 정부와 협정을 맺은 다케오지역의 키리봉병원에서 지역주민을 무료로 진료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케오 지역에 비전센터를 건립하려던 캄보디아 선



2006년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우물파기 단기선교. 2003년 무렵부터 해외선교의 방향이 선교사 후원 방식에서 교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단기선교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캄보디아는 한동안 주된 선교사역지였다.

교사업 핵심 계획은 2006년 9월 담임목회자 사임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2003~2006년까지 해외선교의 큰 특징은 중고등학생들이 단기선교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4년 해외선교위원회가 가능한 한 많은 교인들이 해외선교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도록 방향을 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등부가 2005년 8월 13~17일에 베트남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학생 21명, 교사 6명이 참석하여 낮에는 베트남 곳곳을 둘러보고, 저녁마다 비전 나누기의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가졌던 첫 사랑을 회복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15~18일에 135명의 중등부 학생과 17명의 교사

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의 청소년’이란 주제로 중국 베이징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너무도 많은 참석 인원으로 인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북경한인교회의 도움과 많은 이들의 중보기도와 교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무사고로 마칠 수 있었다. 이 단기선교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용기 있게 고백한 학생들이 나왔으며 여러 학생들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2006년 8월 14~17일에는 중고등부 학생 30명과 교역자와 교사 8명이 캄보디아 시소폰과 파이린과 시엠리엵에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이들은 시소폰에서 고아원을 방문하여 고아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공을 차며 즐거운 교제를 나눴다.

6

하 나 님 나 라 위 한

알 곡 공 동 체 되 게 하 시 다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가 되게 하시다

제4대 담임 박원호 목사 부임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문동학 담임목사가 개인 문제로 갑자기 사임하자 교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비롯한 직분자들과 교인들은 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교회를 위해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2008년 6월 연주된 금난새 초청 클래식 음악회. 20주년 기념사업의 주제는 '도약'이었으며, 전교인 교회 대청소, 선교사 파송식, 창립기념 사진전, 주오첼버오케스트라, 역사자료 전시, 기념 CCM 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새로 만든 주님의교회
 로고. 이듬해 창립주일인 2009년 6월 28일부터
 교회 기념품과 대내외 부서들의 현수막과
 홍보물 등에 공식 로고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동안 양육 과정을 통해 잘
 훈련된 교인들이 교회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갔다. 그러는 동안 당회는 새로운 담임목회자
 청빙 절차를 밟아 2007년 6월 17일에 박원호
 목사가 부임했고 10월 28일에 제4대 담임목사
 로 위임을 받았다.

2008년 6월은 주님의교회가 20주년을 맞이
 하는 해였다. 이미 2006년 6월 정기당회에서 주
 님의교회 20년사를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19주년이 되는 2007년 6월에 20년사 편찬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 절차를 밟기로 결의
 했다. 교회는 이미 2006년 5월 17일부터 역사자
 료 보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역

사자료 보존팀은 당회의 후원을 받아 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최신 기
 록관리 이론을 도입하여 과학적인 방식으로 교회 역사기록 정리 사업
 을 수행해나갔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보관하기 위해 2007
 년 11월 30일에는 주님의교회 기록관을 설치했다. 그해 11월 정기당회
 와 정책당회에서는 20주년 정책당회자료집을 마련하여 20주년 기념사
 업을 의논했고, 2008년 1월 정기당회를 거쳐 기념사업위원회를 발족시
 켜다. 기념사업위원회는 20주년 기념사업의 주제를 '도약'으로 정하고
 20주년이 되는 6월 말에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벌였다. 먼저 6월 21일
 에 지휘자 금난새를 초청하여 클래식 음악회(Symphony in Church)를
 열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에는 전교인이 교회에
 나와 창립 20주년 맞이 교회대청소를 실시했다.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에는 임직식과 은퇴식, 서정운 목사와 윤영수·김미숙 선교사의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으며, 교회 역사 20년 사진자료를 전시한 창립기념 사진
 전과 주오챔버 오케스트라의 기념 연주회가 펼쳐졌다. 또한 6월 22일~7

월 13일까지 그동안 수집한 역사자료의 전시회가 4층에서 열렸고, 12월 14일에는 이 역사자료 전시물을 1층으로 옮겨 모든 교인이 볼 수 있도록 기록관을 만들고 제막식을 가졌다. 12월 16일에는 20주년 기념 CCM 콘서트를 개최하여 입장료 전액을 '기아대책'에 기부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비로 사용하게 했다.



주님의교회 역사기록관. 2008년 2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2008년 6~7월간 역사자료 전시회를 열었으며, 그해 12월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1층에 기록관이 마련되었다.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로고를 새로 제작하기 위해 공모했지만 적합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 전문가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만들었고, 이를 이듬해 창립주일인 2009년 6월 28일부터 교회 기념품과 대내외 부서들의 현수막과 홍보물 등에 공식 로고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

한편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인 2008년 6월 29일 주일예배 시간에 박원호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를 주님의교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는 정신으로 기도, 생명, 공동체, 의로움, 나눔과 섬김, 기쁨, 최선을 들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첫째, 체계적인 말씀 사역, 둘째, 선교 공동체로서 소그룹 활성화, 셋째, 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넷째,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주일인 2008년 6월 29일 주일예배에서 박원호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를 주님의교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정신으로 기도, 생명, 공동체, 의로움, 나눔과 섬김, 기쁨, 최선을 들었다.

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다섯째,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여섯째,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청소년 집중 사역, 일곱째 통합적 환경 복지 사역을 들었다. 이러한 비전과 실천 과제에 따라 2008년부터 여러 사역이 진행되었다.

12단계 성경공부

체계적인 말씀 사역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3월 5일부터 12단계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박원호 목사가 인도한 12단계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4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12단계는 성지순례로 기획되었다. ‘12단계 성경공부’는 수요일반, 토요일반, 인터넷반으로 편성되었고, 3개월 과정, 8~10과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전산 시스템 등을 동원한 엄격한 출석 관리와 함께, 과제와 기말 테스트를 통해 수료증을 발급해왔다. 그동안 1,876명이 참여했으며, 어느 한 단계 이상 수료한 성도는 1,615명, 10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수료한 성도는 408명으로 집계되었고, 11단계까지 수료한 성도는 400여 명이었



온 교인이 참여한 12단계 성경공부. 체계적인 말씀 사역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3월 5일부터 12단계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박원호 목사가 인도한 12단계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4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12단계는 성지순례로 기획되었다.

다. 2012년 4월 17일~5월 4일까지 3개의 팀으로 나누어 12단계 마지막 과정인 성지순례에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성경공부는 주님의교회 사상 처음이었다. 이 12단계 성경공부를 교회 행정에도 활용하여 임직자 선거에서도 12단계 중 일정한 단계 이상을 반드시 수료해야만 후보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12단계 성경공부 연혁

1단계 (2008. 3. 5.~6. 14):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2단계 (2008. 9. 3.~11. 19):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3단계 (2009. 1. 7.~3. 28): 구원의 여정을 따라

4단계 (2009. 5. 6.~7. 29):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들 I

5단계 (2009. 9. 2.~11. 25):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들 II

6단계 (2010. 1. 6.~3. 31): 엘림으로의 초대

7단계 (2010. 9. 8.~11. 24): 하나님의 모습을 빚어가는 사람들

8단계 (2011. 1. 19.~4. 13): 이제는 삶입니다

9단계 (2011. 5. 25.~7. 27): 신앙의 지평을 넓혀라

10단계 (2011. 9. 7.~11. 30): 타종교와의 대화

11단계 (2012. 1. 11.~3. 28):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12단계 (2012. 4. 17.~5. 4): 성지순례

12단계 성경공부에 교인들의 호응이 크자, 2012년 10월 6일부터 12 단계 성경공부 집중 강좌가 시작되었다. 530여 명이나 참가한 이 강좌는 2013년 6월에 마쳤다.

청소년 사역원과 국제교육선교센터

2008년 10월 11일에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청소년 집중 사역을 위해 기존의 교육사역본부가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사역본부로 나뉘었고, 2008년 10월 27일에는 청소년 사역원을 개원했다. 청소년 사역원이 감당한 업무는 다양했는데, 먼저 정기적으로 교회교육 정책을 연구하여 발표하거나 교회 외부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학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회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일을 했으며, 청소년들의 건



미자립교회 청소년 초청 캠프, 2005년 1월에 열린 중고등부 수련회에 농어촌교회 청소년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2009년부터는 청소년 사역원이 주도하여 미자립 교회 청소년을 초청, 주님의교회에서 신앙캠프를 개최했다.

전한 문화 형성을 위해 지원했다. 여름에는 미자립교회 청소년을 초청하여 신앙수련회를 개최했고, 2009년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2010년에는 '아침'과 같은 말씀묵상집을 집필하여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는 2008년 10월 청소년 사역을 위한 정책 세미나와 2010년 11월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한 2011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2011년 11월 21일에는 청소년 사역원 2012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그동안 청소년 사역원이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와 협력하여 개발한 “성경과 연계한 중고등 교과서(국어, 수학)” 제작 발표회를 했다. 이 교과서는 성경과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접목하여 만든 것으로 그 효율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소년 사역원은 외부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함께 개최했다. 2011년 3월 21일 제1차 외부 사역자 세미나 ‘청소년 사역과 코칭’이 개최되자 125명이나 등록했다. 이듬해 3월 12일에 제2차 외부 청소년 사

역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005년 1월에 열린 중고등부 수련회에는 농어촌교회 청소년을 초청하여 함께 신앙 수련회를 열었다. 2009년부터는 청소년 사역원이 주도하여 미자립 교회 청소년을 초청하여 주님의교회에서 신앙캠프를 개최했다. 2010년 8월 12~14일에 제1회 미자립 교회 청소년 초청 신앙캠프가 'Vision Action'이라는 주제로, 2011년 7월 28~30일에 제2회 신앙캠프가 'Act Prayer'라는 주제로 열렸다. 2012년 7월 26~28일에 열린 제3회 신앙캠프에는 12교회 112명의 학생과 교사 32명이 참석했다.

청소년 사역원은 2011년부터 학원선교, 반가운학교, 커리큘럼연구소, 교회대외사역을 관할하는 당회 직속으로 독립기관이 되었다가, 11월 13일에 신설된 국제교육선교센터로 편입되었다.

2011년 목회 차원에서 교육이 강조되어 선교 정책 방향도 교육선교로 전환하여 11월 13일 정책당회에서 논의를 거쳐 국제교육선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국제교육선교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기독교 교육이 빈약하거나 부재한 현 시대에 기독교 교육을 통해 시대를 이끌어갈 콘텐츠를 마련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드웨어 중심의 선교에서 소프트웨어, 즉 교육과 사람 중심의 선교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문화된 사역을 한 곳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독교 교육을 선교에 접목하는 과제를 연구할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중심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청소년 사역원과 예수친구 사역원, 12단계성경연구원이 국제교육선교센터로 편입되었고, 교육선교 연구소를 신설하여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구체적으로는 베트남과 케



국제교육선교센터가 주최하여 2012년 11월 19일 개최된 미래목회 세미나. 2011년 개설된 국제교육선교센터는 설립 이후 주님의 교회의 중요한 교육정책을 관리하고 이끌어나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래목회 세미나였다.

나에서 교육선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렇게 국제교육선교센터는 설립 이후 주님의교회의 중요한 교육정책을 관리하고 이끌어나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래목회 세미나였다. 국제교육선교센터가 주최하여 2012년 11월 19일에 개최된 미래목회 세미나 “이제는 교육선교다”에 전국 각지의 목회자 70여 명을 포함하여 교육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 성도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박원호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교육선교’를, 김영동 교수가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육선교’를 강의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과 겨자씨 모임

주님의교회는 2008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주제를 ‘도약’으로 정하고 준비하면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 구역원의 4분의 1 정도만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구역을 새롭게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2009년 2월 27일 오후 7시 개회 예배와 함께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시작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로 규정하고, 이 운동을 통해 전교인이 소그룹에 소속되어 역동적인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선교 공동체로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먼저 기존의 구역 모임을 재편성해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위한 소그룹을 만들고, 소그룹이 모임 장소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개회 예배에 이어 예배주일, 교제주일, 훈련주일, 사역주일, 전도주일을 거쳐 부활절인 4월 12일은 축제주일로 지켰다. 각 주일마다 그 주일의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소그룹별로 모여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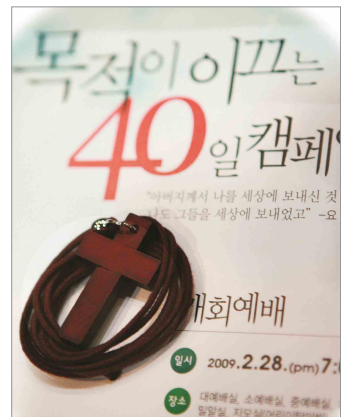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교인들은 주일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매주일 제시되는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

며, 매주 진행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매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해야 하고, 매주 제시되는 성경구절을 한 구절씩 암송해야 했다.

그리하여 행사 5번째 주일인 사역주일에는 373명이 사역을 지원하고, 행사 6번째 주일이자 전도주일인 4월 5일에만 250여 명의 교인이 선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목적이 이끄는 40일'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 성황리에 진행된 것에 고무되어 2009년 5월 8일부터 후속 프로그램으로 '겨자씨 모임'을 시작했다. 겨자씨 모임이란 '내일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존의 구역 모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그룹 모임이다. 겨자씨 모임은 겨자씨 인도자를 중심으로 12명 내외의 구성원이 매주 모여서 성경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정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몇 개의 겨자씨를 지역별로 묶어 교구를 구성하는데 이를 맡아서 관리하며 교구목사를 도와 교구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겨자채 돌봄이와 교회와 교구를 연결하여 서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겨자목 섬김이가 있었다. 겨자목 섬김이는 주로 장로들이 담당했다.

겨자씨를 이끄는 인도자들을 위한 겨자씨 인도자 교육이 매주 수요일 오전과 오후에 있었으며, 이들을 위한 수련회가 매년 겨자씨 모임을 열기 직전 봄과 가을에 개최되었다. 매년 연말에는 새생명을 초대하는 새생명 축제를 겨자씨 모임이 주도했으며, 2010년 10월부터는 겨자씨 모임에서 걷힌 헌금으로 20여 개의 베트남 개척교회를 지원했다. 현재 지원 교회는 약 30개로 늘었다.



2009년 봄 진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인간의 존재 목적을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로 규정하고, 이 운동을 통해 전교인이 소그룹에 소속되어 역동적인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겨자씨 모임'이 시작되었다.

2009년 새로 건축된 잠실 1, 2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인이 대폭 증가했다. 겨자씨 모임은 점점 성장하여 2011년 7개 교구에서 9개 교구로 재편되었고, 2013년 현재 10개의 교구와 283개의 겨자씨가 있으며, 20~30대 부부 겨자씨로 구성된 2030부부교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예수친구 사역

2010년 교육목회가 강조되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자체 제자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예수친구사역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각자가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는 제자화 사역이 바로 예수친구 사역이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자체 제자화 훈련 프로그램인 예수친구사역 서약식. 2010년 9월 이 사역을 이끌어갈 '뿌리기수'가 선정되면서 출범한 이 프로그램은 기수 별 3단계로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훈련 단계는 모두 3단계로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는 개인훈련 단계로 1년 동안 자기점검표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교회가 제공하는 양육 과정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그룹훈련 단계로 섬김이(인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리더훈련 단계로 리더가 되기 위해 소그룹을 이끌며 그들을 지도하는 훈련을 하는 단계이다.

2010년 9월에 시무장로들의 추천을 받아 6명을 예수친구사역의 첫 훈련생이자 전체 사역을 이끌어갈 '뿌리기수'로 뽑음으로 예수친구사역이 시작했다. 그리고 당회 차원에서 예수친구사역의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시무장로 전원을 핵심 그룹으로 편성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친 모임을 가졌다.

이어 2011년 예수친구사역 1기 61명의 훈련생을 선발했다. 예수친구사역 1기 훈련에는 3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이 참여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2년에는 2기 훈련생 108명을, 2013년에는 3기 훈련생 136명을 선발했다.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복지가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도 복지정책을 확대했으며, 그 방향은 정부와 민간참여의 혼합복지제도로 가고 있었다. 2006년 하반기에 복지사업본부는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복지사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2011년 6월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창립총회. 섬김과 나눔의 주된 사업은 늘푸른대학과 무료 급식, 송파구 독거노인 죽 배달,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계층인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생계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일 등이었다.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독거노인을 위한 죽 배달. 2000년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자, 노인 복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은 노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대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 3일 당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때 상정된 것이 사회복지재단법인 설립이었다. 정부정책이 종교단체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점차 종교복지 법인에 허가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는데다, 교회 규모에 걸맞게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사

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복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교회는 복지사업 내용을 선정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에 대해 검토한 끝에 노인복지사업을 선택하고 2010년 10월 당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주님의교회는 이듬해 5월 17일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6월 12일에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개소식을 가졌다. 이때 섬김과 나눔의 주된 사업은 늘푸른대학과 무료 급식, 송파구 독거노인 죽 배달,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계층인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생계비와 난방비 지원 업무 등이었다.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은 10월에 서울시로부터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손비인정을 해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의교회 사회복지 정책을 떠맡게 된 '섬김과 나눔'은 2011년 11월 23일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한 김치 담그기 같은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동안 주님의교회는 건물 무소유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사역을 실천해나갔다. 이렇게 법인이 설립되자 교회가 2012년부터 이미 위탁 운영하고 있던 가락본동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

정지원센터를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이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다.

번식 교회 'J주님의교회' 창립

2005년 12월 11일 주님의교회가 남양주시 도농동에 창립한 '길가에 교회'에 이은 두 번째 번식 교회 'J주님의교회'가 2011년 8월 14일에 송파구 거여동 20-5번지 정림빌딩 2층에서 창립되었다. 제2의 번식 교회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9년 11월 정책당회에서 있었다.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목회 실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기도 했다. 2010년 4월 당회에서 번식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21세기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전통적인 교회형태로서는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회 본질적인 사역인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에 전문화된 여러 개의 교회가 협력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한 교회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개척 교회 위원회는 개척교회가 전반적인 목회사역을 하면서도 각 교회마다



2011년 8월, 두 번째 번식 교회인 J주님의교회 창립예배. 2009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두 번째 번식 교회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중 전문화된 여러 개의 교회가 협력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한 교회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J주님의교회는 그중 다문화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창립되었다.

전문화된 사역을 가지고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2년 동안 재정과 인적 자원 등 모든 면에 지원을 하되 그 후에는 번식 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계획 중인 번식 교회는 다문화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정했다.

8월 15일 당회는 이호 목사가 교회 번식 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을 들은 후 번식 교회 담당 교역자를 이호 목사로 결정했다. 2011년 6월 19일 당회에서 번식 교회의 장소를 송파구 거여동 20-5 정림빌딩 2층으로 정하고, 창립 23주년 기념일인 2011년 6월 26일에 교회를 설립할 장소에서 주님의교회 교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척 감사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체적인 창립절차에 들어갔다. 교회는 7월 24일주일부터 번식 교회에 동참할 교인들을 모집하고, 교회에 필요한 각종 물건을 봉헌 받았다. 그리하여 주님의교회는 8월 14일 3부 예배 때 이호 목사를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날 오후 4시에 정림빌딩 2층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21일부터 매주일 오전 11시에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님의교회』는 길가에교회 때와는 달리 철저한 준비 과정이 부족하여 교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조용히 창립되었으며, 아직은 번식 초기여서 원래 창립 의도대로 다문화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다.

창립 23주년 기념 설문조사

〈함글함울〉에서는 교회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교인 23명을 표본 집단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나와 주님의교회’라는 주제로 2011년 6월 18~21일까지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다. 문항은 총 5개로 그 가운데 한 문항만 객관식이고 나머지는 주관식이었다.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주로 ‘친지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43%)’와, ‘이사와 함께 집 주위의 교회를 수소문하다가(35%)’, ‘전에 다니던 교회 비전과 맞지 않아서(13%)’ 주님의교회로 옮겨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님의교회에 나온 교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주님의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새신자가 아니라 기성 신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친지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 이들 가운데 기성신자가 있을 것을 추측한다면 그 수는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님의교회에 처음 출석하면서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인 것으로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전통, 임기제, 재정의 투명성, 무기명 헌금 등의 교회 설립취지와 목적(39%)’이 첫 번째였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스러움(26%)’, ‘말씀(22%)’이 그 뒤를 이었다. 2008년 6월 박원호 목사가 제시한 주님의교회 일곱 가지 가치(기도, 생명, 공동체, 의로움, 나눔과 섬김, 기쁨, 최선)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기도(38%)’와 ‘나눔과 섬김(30%)’를 선택했다. 제시된 7가지 가치 가운데 ‘예배’와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신앙적 의미 면에서 가장 가까운 가치로 ‘기도’를 가장 우선시한 교인들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는 예배와 말씀을 우선시하는 일반 대형 교회의 성격과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비로 사용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강조하는 주님의교회 고유한 특징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님의교회에 바라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대,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대세가 좋으니 설립 취지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35%)’를 꼽았고, 그 외 사람들은 ‘청소 년 사역을 좀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13%)’, ‘금요심야예배, 수요 오전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고 찬양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13%)’,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 도왔으면 좋겠다(9%)’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역 분야로 ‘교육(35%)’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주방, 주차 봉사(17%)’, ‘선교(9%)’, ‘찬양(9%)’, ‘문화예술(9%)’ 등이 있었다.

2011년 6월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주님의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옮겨오게 되었으며, 창립정신과 목적과 교회 분위기에 강한 첫인상을 받았고, 그 창립정신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막상 교

회 내에는 창립 초기 정신의 고유한 전통과 더불어 일반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분석되었다.

주님의교회 정관 제정

한편 주님의교회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2011년 12월 7일을 기점으로 일단락되었다. 2003년 당회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담임목사 임기제를 재차 확정했지만,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서 임기제에 대한 견해차로 논란이 이는 등, 주님의교회 내에서 임기제와 관련한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2009년 10월에 열린 정책당회에서도 안식년 없이 10년 시무라는 장로임기제에 대해 6년 사역 후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고 나서 재신임 후 6년 사역이라는 임기제 6.1.6 안건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정책당회에서 그동안 교회가 시행해온 '50대 50'의 재정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창립준비 기도회 때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자는 정신을 표현한 '50대 50'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 정확한 이해와 그 기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것이었다. 당회가 이에 대하여 기획조정위원회가 2010년 1/4분기까지 정리해서 당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여, 2010년 2월 21일에 열린 당회에서 기획조정위원회는 “'50대 50' 개념은 숫자적인 '50대 50'이라기보다는 정신을 강조하며 실천에 최대한 힘쓰도록 노력한다. 실제 재정지출의 적용에서 불합리한 것은 대내외 계정의 분류작업을 재정장로 중심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당회에 상정하기로 하다”¹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아 2010년 3월 14일 당회에서 '50대 50'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안건이 재차 제기되었다. 이 안건 처리가 계속 보류되다가 이듬해 2월 13일 당회는 '50대 50'에 대한 정의를 기획조정위원회에서 논하여 5월 당회까지 안

1 당회록 2010. 2. 21.

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 후 당회록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논의가 속행되지는 않았다.

2010년 6월에는 주님의교회 창립정신 그리고 교회와 정신학원의 관계에 대해 견해차를 가진 은퇴장로와 당시 서기장로의 글이 <함글함울>에 실리기도 했다.¹ 김도묵 은퇴장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의교회가 지켜온 창립정신을 잘 지키도록 하되 시대가 변해서 개정이나 폐기가 필요하면 교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호길 당시 서기장로는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대별로 그 패러다임은 3번에 걸쳐 바뀌었기에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견해는 창립정신의 중요성과 그것이 시대에 맞추어 바뀔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와 교회와 정신학원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바람직하나에 대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김 은퇴장로는 창립정신을 '50대 50'과 무기명 헌금과 목사, 장로 임기제라고 했지만, 박 장로는 '50대 50'과 교회 자체 건물 무소유와 무기명 헌금을 들었다. 김 장로는 자신의 글에서 교회 자체 건물 무소유는 교회창립정신이 아니며 '50대 50'이 가져온 결과론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또한 박 장로는 대강당 건축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이 맺은 합의서는 편의적 공존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여주었기에 이제 새 시대에 적합한 창조적 공존으로 두 공동체 간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박 장로가 제시한 창조적 공존이란 두 기관이 “하나님 나라 세움을 위한 기독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 양성”을 공통 가치 기반으로 구축함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김 은퇴장로는 베푸는 자의 오만함이 받는 자의 저항과 비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학원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몸을 낮

1 함글함울 267호, 2010. 6. 27, 5쪽.

추어야 한다”²고 말했다. 이 글들을 <함글함울>에 신게 된 이유는 주님의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님의교회 정체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토론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으나, 그러한 논의는 박호길 당시 서기장로의 임기가 끝나고 토론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더 이상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회는 ‘창립정신 개념 정립과 주님의교회 정신’에 대한 은퇴장로와 시무장로의 공식적인 토의를 거쳐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창립정신과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고 반영하기 위해 행정장정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개정된 행정장정은 ‘주님의교회 정관’이라고 이름붙이고 2011년 12월 7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행정장정과 정관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기존의 행정장정이 기본법과 실무적 운영규칙들을 통합하고 있었던 데 비해서, 정관은 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회 내 모든 규칙의 기본을 제시하는 헌법 수준으로 정비된 것이었다. 그리고 정관은 행정장정에 비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회의 창립 목적과 실천 이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2조(목적)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구현”함을 밝히고, 제3조(실천이념)에서 “선교와 구제를 교회창립정신의 근간”이라고 제시하고, 이어서 “청소년 사역에 노력”, “예배당 무소유”,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임기제”, “무기명 헌금”, “예산의 50% 이상을 대외 경비로 사용”이라는 다섯 가지 교회 운영의 대원칙을 명시했다.

이 정관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그동안 있어왔던 주님의교회의 고유한 정체성과 제도에 대한 갈등이나 논란은 가라앉게 되었다.

2 함글함울 267호, 2010. 6. 27, 5쪽.

25년사 편찬

교회 창립 25주년을 1년 앞둔 2012년, 교회 내에서 25년사 편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해 6월 25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편찬을 위한 필자 섭외가 진행되었다. 7월에는 교회사 집필에 좀더 전문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고자 교회 외부에서 교회사를 전공한 집필자를 선정했다. 미발간 '주님의교회 15년사' 원고를 포함한 역사자료의 수집과, 여러 초기 교회 관계자 인터뷰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2월에는 그간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회사의 집필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교회의 정체성에 따라 교회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임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25년사의 구조와 내용, 편찬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계속되는 추가 인터뷰와 자료 확인을 거쳐 9월 부록을 포함한 1차 원고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한 사실의 확인과 부록의 전교인 열람, 사진 자료의 검증, 초기 창립 교인 및 당회원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면서 2014년 2월까지 수정 집필 작업이 진행되었다.



25년사 편찬회의 후 함께 한 2013년 당회원. 25년사 편찬에 있어, 교회의 정체성에 따라 교회가 이룬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임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드리며 경건훈련을 하게 하시다



특별 세례식. 2010년부터 유학과 직장 문제 등으로 정기적인 세례식을 받지 못한 이를 위해 특별 세례식을 거행하기 시작했다. 특별 세례는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성도로 두 차례에 걸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특별 세례식은 이후 매년 7월에 꾸준히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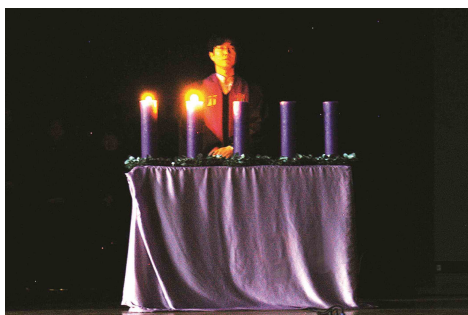
예배와 성례식에서의 변화들

주님의교회는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2009년 1월 첫 주부터 예배 순서와 예배와 관련된 양식을 바꾸었다. 먼저 설교단과 예배 인도자의 단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사용했다. 목회자는 가운을 입었다. 인도자의 기원이 빠지고 봉헌기도 후 성도의 교제 시간이 신설되었으며 성도의 교제 뒤에 파송의 찬양을 불렀다.

2010년 새해부터는 사도신경의 고백 형식이 바뀌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인도자의 물음에 공동체의 고백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2011년 역시 예배 양식에 변화가 있었다. 1999년에 예배 양식을 바

꾸릴 때처럼 주일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기도가 들어갔고,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했다. 파송의 찬양은 주기도송으로 바뀌었고, 찬양대가 찬양하면 박수가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했다.



2011년 사순절의 '테네브레' 예배.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를 드린다는 비전에 따라 주님의교회는 절기에 따라 특별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테네브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희생과 죄의 무서운 결과를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주기 위해 초대교회 때부터 고난주간에 드려온 고전적 예배 양식이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를 드린다는 비전에 따라 특별한 형식의 예

배를 드리기도 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2011년 3월 13일에 교회 공동체는 ‘테네브레’ 예배를 드렸다. 테네브레(Tenebrae)란 ‘어둠’이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이 세상이 어둠에 싸였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테네브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희생과 죄의 무서운 결과를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주기 위해 초대교회 때부터 고난주간에 드려온 고전적 예배 양식이었다. 예배 중 말씀이 봉독될 때, 미리 켜놓았던 촛불을 차례로 끄면 교회 안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이윽고 완전히 어둠에 잠기는 경험을 통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주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절기 회복을 위해 2012년 4월 8일에 부활절 특별 예배로 예배드라마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 이 예배드라마는 미국 필라델피아 랭카스터에 있는 성극을 전문으로 공연하는 밀레니엄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전교인이 절기에



2012년 4월 8일에 부활절 특별 예배로 드려진 예배드라마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2,000여 명이 준비, 제작, 연기, 연출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예배드라마는 복음에 대한 나눔과 교육의 시간이 되도록 온 가족이 참여하는 세대 통합 예배이기도 했다.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특히 이 예배드라마는 가족들이 부활절 특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어린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부모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등 복음에 대한 나눔과 교육의 시간이 되도록 온 가족이 참여하는 세대 통합 예배가 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예배드라마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친구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 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고 용서해주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이었다. 교인들은 2,00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이 참여하는 이 예배드라마를 통하여 큰 감명을 받았다.

사경회와 기도회

1999년 이후 한동안 신앙대강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데 반하여, 신앙사경회는 200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다. 2004년 2월 23~25일에는 신앙사경회 “영광(Gloria)”(조현삼 목사)이, 2005년 3월 8~10일에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채수권 목사)이, 그리고 2006년 6월 26~28일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국 치과전문인 선교인 ○선교사)가 열렸었다.



2009년 10월 19~21일, 3일간 가을 신앙사경회를 이끈 필립 안 시. 1999년까지의 신앙대강좌를 대신하여 기획된 신앙사경회에는 나라 안팎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초청되었으며, 2004년부터 거의 매년 진행되었다.

2007년 전반기에 담임목사가 없는 가운데 교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부활절 신앙사경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4월 9~11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사60:1)’라는 주제로 장신대 김명용 교수가 사경회를 이끌었다. 김 교수는 먼저 다양한 영성신학의 흐름을 소개한 한

뒤에 바람직한 기독교 영성이란 영과 육을 나누지 않고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통전적 영성이며, 그 영성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전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사경회를 위하여 사전에 두툼한 자료집이 배포되었다. 그 덕분에 비교적 전문적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신앙사경회를 가질 수 있었다.

2년 뒤 2009년 10월 19~21일에는 가을신앙사경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필립 안시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필립 안시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존 기독교 신앙의 상투적인 측면을 예리한 문제의식과 역동적인 필치로 파헤쳐 대안을 모색하는 힘을 지닌 기독교 저술가였다. 안시는 3일간 “영적 성장의 단계”, “기도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주제로 진행했다. 뛰어난 통찰력과 어려운 신학적 주제를 쉽게 풀어내는 안시의 은사로 인하여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사경회의 주제에 교인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마음먹기에 따라 곧 실천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이 사경회를 계기로 주님의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한국교회와 교역자의 신앙 발전을 위하여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면서 신앙의 거장을 초청하여 사경회를 개최하기로 11월 정책당회에서 결의했다.

2003년 3월에는 중보기도사역자학교를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중보기도사역팀을 구성해 매일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해왔다. 이 중보기도사역팀과는 별도로 2011년 연말에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교회’,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120명의 헌신자를 모집했다. 2008년 선포된 주님의교회 비전을 이루는 정신 가운데 ‘기도’를 우선 가치로 강조함에 따



2007년 11월 7일 중보기도자 전체 모임. 주님의교회에서는 2003년 3월에 중보기도사역자학교를 시작하고, 이듬해 중보기도사역팀을 구성해,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라 헌신자를 모집하게 된 것이다. 새벽기도 헌신자들은 2012년 1월 22일에 전체 모임을 가진 뒤 1월 29일에 헌신자 157명이 헌신의 시간을 가졌다. 이 헌신자들이 2012년 새벽기도를 지키는 일꾼으로 활약했다. 9월 8일에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헌신자 수련회를 가진 뒤 추가 모집도 했다.

사랑나무와 에바다 예배

2009년 4월 19일에 발달장애와 자폐 장애인 예배 '사랑나무'가 시작되었다. 교사 30여 명과 4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사랑나무는 점점 성장하여 2009년 7월에는 8명의 학생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동안 교사들은 장애인 시설이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장애인 사역자 훈련을 받으며, 사랑나무 학생들을 바르게 돌보기 위해 틈틈이 교육을 받았다. 사랑나무 모임은 1부 예배, 2부 교제와 식사로 진행되었다. 9월 27일에는 그동안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한쪽 공간에 사랑나무를 위한 예배실을 개관했다.

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도 못하는 사랑나무 학생들이지만,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도 했고, 2012년 5월 20일 장애인 주일에는 교인들 앞에서 밤벨 연주를 하며 은혜를 전파했다.



2012년 사랑나무의 밤벨 연주. 2009년부터 시작한 사랑나무는 발달장애와 자폐 장애인 예배이다. 장애인 사역자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2012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에바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2010년에 장애인 부서는 크게 농아부와 지체장애인부와 사랑나무로 구성되었다. 각 부서는 저마다 주일예배 혹은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다. 지체장애인부는 겨자씨에 편성되어 독자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장애우를 위한 교회 내 신앙교육과 모임이 활기를 띠자, 사랑나무에 이어 2012년 5월 20일, 청

각장애우를 위한 ‘에바다 예배’가 신설되었다. 이미 2006년 1월 둘째 주일부터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청각장애우를 위해 수화통역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청각장애우들은 장애의 특성상 많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3부 예배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들도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싶어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가 있으면 청각장애인 선교에도 효과적인 것이라는 제안을 같은 해 3월 11일 당회가 받아들여, 매주 오후 2시에 사랑나무실에서 에바다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신앙교육에 힘쓰게 하시다

아동부

2009년 새해부터 교회학교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교회학교를 총괄하던 ‘교육사역본부’는 ‘주님의숲과나무’로 명칭이 바뀌면서 어린이사역본부, 청소년 사역본부, 젊은이사역본부로 나누어졌다.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주일 3부 예배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기에 심각한 공간 부족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부서의 경우는 더 심하여 비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서도 있었고, 머지않아 곧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부서도 있었다.

이에 주일 2부 예배 시간(오전 9:30)에 모이던 싹트네(통합유아부)와 레인보우(통합아동부)는 영아 1부, 유아 1부, 유치 1부, 유년 1부, 초등 1부, 소년 1부로 세분화하고, 3부 예배 시간(오전 11:30)에 있던 기존 부서를 영아 2부-소년 2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3부 예배 시간대에 15개월 미만의 아기와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아기부가 개설되었다. 이렇게 나뉜 부서는 비록 같은 목표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활동과

방법에서 다양성을 추구했다. 즉 1부는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2부는 온전한 신앙전통의 틀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어와나클럽

2004년 12월 4일에 시작된 어와나클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성장하고 확장했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은 7~8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와나 불티(Spark)였다. 그리고 2007년 3월 3일에 7~9세 어린이 단원들로 어와나 티엔티(T&T)가 신설되었다. 2009년 3월 1일에는 10~12세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어와나 트렉(AWANA Trek)을 개설했고, 2010년에는 5~6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와나 커피(Cubbies)가 시작되었다.

2007년 6월 6일에는 불티단과 티엔티단이 경기도 평택 이충 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어와나 게임즈에 참가했다. 어와나 게임즈는 전국에 있는 어와나클럽이 그동안 각 교회에서 갖고 닦은 실력들을 함께 모여 겨루는 행사였다. 2008년 6월 28일 부천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어와나 게임즈에서 주님의교회 어와나 티엔티단과 불티단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후 어

와나는 정기적으로 게임즈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08년 2월 15~27일에 어와나 티엔티단은 어와나 비전 트립 “KA AWANA 2008” 참가차 미국을 방문했다. ‘KA AWANA 2008’은 ‘믿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제로 한국의 네 교회와 미국 두 교회가 참여한 연합 행사로 티엔티단은 미국나성영락교회와 동양성결교회 어와나 친구들과 홈스테이, 어와나, 계



2007년 4월의 어와나 불티단.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영어성경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어와나는 약 50년 전에 미국에서 연구되고 발전된 세계적인 청소년 선교기관으로, 현재 세계 108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임즈를 함께 하고, 미 서부지역을 일주하고 돌아왔다.

2013년 현재 커비는 6개 반 30여 명, 불티와 티앤티는 12개 반 60여 명, 트랙은 8개 반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일에 열리는 트랙을 제외하고 모두 토요일 9:30~1:30에 교회 2~3층에서 열리고 있다.

반가운학교

청소년 사역 비전팀이 제안하여 2005년 3월에 시작한 방과후학교는 주말 프로그램만을 개설했다가, 2008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반갑게 맞아서,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 키운다'는 의미로 '반가운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전일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국어, 수학,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과학, 사회,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미술, 영어성경 등의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주중에는 학과목 중심으로, 주말엔 특기와 적성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정신여중 학생들 중심으로 100여 명으로 출발했지만, 많은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반가운학교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서 매년 50~70여 명 정도로 한정했다. 현재 이들을 위해 30여 명의 교사와 스태프가 봉사하고 있다.



반가운학교의 작은 간판. 교회의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교회 내외의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과 예체능 활동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은 교과목부터 논술, 미술, 피아노, 바이올린 등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맞춘 직접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영어 캠프와 수요 어린이 영어예배

2010년 8월 2~10일에 제1회 킹덤 어린이 영어 캠프가 개최되었다. 미국 풋스텝 선교단 협력으로 진행된 이 영어 캠프에는 125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함께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11, 2012



킹덤 어린이 영어 캠프. 미국 풋스텝 선교단 협력으로 진행된 이 영어 캠프에는 매년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함께 영어로 성경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년에도 계속 8월에 킹덤 영어 캠프가 개최되었다.

2011년 9월 7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내 아버지의 집(My Father’s House)’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영어예배를 드렸다. 수요일 어린이 영어예배팀은 2011년 12월 21일에 성탄절 찬양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의 모닝콜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학부모-교사 기도회(PTP)는 2007, 2008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학기제로 운영된 이 기도회에서는 특강이나 설교도 있었다. 2009년부터 학교가 토요일에 격주로 휴업하게 되자, 중고등부는 이 ‘놀토’에 단순히 학교를 쉬고 노는 토요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신앙훈련을 하는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의 모닝콜’을 시작했다. 예수님의 모닝콜은 부모와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오전 7시~9시까지 찬양기도회, 큐티말씀 나눔, 식사와 운동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전의 학부모-교

사 기도회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토요일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모닝콜은 학생들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공부로 지친 아이들이 쉬는 토요일 이른 아침에 교회로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교사기도회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2년여 만에 중단되었다.

청년부

2005년부터 청년부와 30Cup으로 구성되어 있던 청년 조직이 2009년에 이르러 미혼으로 구성된 청년 1, 2, 3부와 4부 예배 후 셀모임을 갖는 30대 부부와 미혼으로 구성된 30Cup으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4월 6일부터 청년 예배가 '젊은이 예배'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0년에는 또다시 20plus(청년 1, 2부)와 30plus(싱글, 커플)로 개편되었다. 20plus는 젊은이 예배에 참여하고, 30대 미혼과 기혼으로 구성된 30plus는 4부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교회에 등록된 30대만 해도 1,000명이 넘지만, 기존의 청년 3부나 30Cup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30대가 4부 예배를 통하여 교회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20대 초반과 후반, 30대 미혼자와 기혼자의 관심사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이도록 한 것이었다. 2010년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10시에 성경 통독학교를 가져 성경말씀을 꾸준히 읽었으며, 청년새벽기도로 기도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특히, 매월 첫날은 모두 함께하는 새벽기도 시간을 가졌다.

2011년 20Plus는 예배팀과 양육팀과 선교팀으로 조직을 재구성했다. 예배팀에 브리지 합창단, 워십팀, 챔버팀, 드라마팀이 추가로 신설되어 중 예배실에서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 이에 예배 인원이 전년도 대비 평균 20%이상 증가했다. 양육팀에는 새신자 6주간의 양육과정을 개설하고 예비리더교육을 통하여 20Plus의 소그룹을 이끌어갈 청년리더들을 꾸



2008년부터 이름이 바뀐 젊은이 예배. 2005년부터 청년부와 30Cup으로 구성되어 있던 청년 조직이 2009년에 이르러 미혼으로 구성된 청년 1, 2, 3부와 4부 예배 후 셀 모임을 갖는 30대 부부와 미혼으로 구성된 30Cup으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4월 6일부터 청년 예배가 '젊은이 예배'로 이름이 바뀌었다.

준히 양성했다. 4회에 걸친 특별 새벽기도회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묵상(Lectio Divina)을 통하여 신앙훈련을 했다. 30plus는 4부 예배 시간을 2월 둘째 주부터 2시로 옮겨서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렸다.

2012년에 청년부서가 재조정되었다. 20plus 전체와 30plus 미혼을 합쳐서 청년부로 이름붙이고, 예배 시간도 오후 3시 30분으로 하여 그동안 20plus가 예배드리던 중예배실이 아니라 30plus 미혼자들이 정서적으로 거부감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렸다. 한편 30plus 기혼자들은 젊은부부 교구로 개편되어 교육부서가 아닌 목양사역위원회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교회는 거자씨에서 흩어져 있던 20-30대 부부를 모아서 집중적인 신앙적 돌봄과 양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창조질서 보존 운동-환경 강좌와 환경주일 캠페인

2006년 11월 1~29일에 환경학교 개설에 이어, 환경사역팀 주관으로 2007년 3월 21일~4월 25일에는 환경 강좌 '에덴동산을 꿈꾸는 로하스의 삶'이 시작되었다. 강사는 환경학교 강사였던 유미호(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였다. 2007년 10월 17일에는 '실생활에서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의 종류와 건강 영향'이라는 주제로 환경 강좌가 열렸다. 2012년 5월 27일 환경주일에는 <녹색성장>이라는 만화책을 교인들에게 나눠주어 캠페인을 벌였다. 이처럼 주님의교회는 제직회 내에 환경부서를 두고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했다.

전교인 수련회

주님의교회는 1997년부터 많은 교인 수로 인하여 교구별 수련회를 가지기 전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성장했다. 이에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로 전교인이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 2008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7월 11~12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광림수도원에서 개최했다. '성령, 함께함,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수련회에는 1,2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참석했다. 1박 2일로 치러진 이 해의 수련회 프로그램의 특징은 수련회의 중심에 성극 <건너가게 하소서>와 성막 행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극적으로 보여준 4막 7장의 이 성극은 전교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연되었는데, 2개 교구가 1개의 막을 맡아 연습하고 공연한 것이었다. 교회는 실



2008년 전교인 수련회에서 공연된 성극 <건너가게 하소서>. '성령, 함께함,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수련회에는 1,2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세의 삶을 전교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연했다.



2010년 7월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충주호 리조트에서 열린 전교인 수련회.. 역대 최다인 1,270명의 성도가 참여한 이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10여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2010년의 전교인 수련회에는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여 전교인 수련회라는 본래의 뜻을 되살리고자 했다.

제 크기의 2분의 1로 만든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인 6월 25일 수요일 예배 시간에 민경진 교수(부산장신대 구약학 교수)가 성막강의를 했다. 성막 제작 역시 성막제작본부가 주관하고 각 교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리하여 수련회 당일 전 교인이 공동으로 만든 성막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마치 타임머신

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듯한 감동과 생생함을 느꼈다.

2년 뒤인 2010년 7월에도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충주호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1,270명의 성도가 참여한 이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10여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이 수련회에는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영성 프로그램으로 12세기에 성지순례의 길을 대신하여 프랑스 수도원에 설치한 영성훈련 코스인 레버린스가 있었다. 수련회에서 교인들은 이 길을 침묵으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묵상했다. '주님의 발자취'라는 시간에는 교구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특색 있게 발표하여 성도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은혜를 끼쳤다. 2008년 전교인 수련회는 어른들만 참여했지만 2010년 수련회에는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여 전교인 수련회라는 본래의 뜻을 되살리고자 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다

2003~2006년까지 활발했던 교인들의 친교 모임이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미술작품 전시회와 무지개 축제 등 여러 행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다. 반면에 사진작품 전시회나 전교인 '다문화 사랑'걷기 대회와 싱글매칭학교와 같이 새롭게 신설된 행사들도 있었다.

미술인선교회, 사진동우회

2005년 5월에 시작된 미술인선교회는 꾸준히 활동을 하여 가을마다 교회 지하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2007년 11월 18~25일에는 '가을의 꿈'이라는 주제로 제3회 작품 전시회를 했고, 2008년 11월 16~30일에는 추수감사절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전년도에는 평일에도 관람할 수 있었지만 2008년에는 토요일, 주일만 가능했다. 제5회 전시회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2009년 12월에 열렸다. 2009년 이후에는 전시회를 열지 못하다가 2011, 2012년에는 사진팀과 연합하여 작품 전시회를 했다.

미술인 선교팀은 2008년부터 제직회의 전문인 선교팀의 한 부서로



미술인선교회와 사진사역팀의 연합 작품 전시회. 미술인선교회는 미술 활동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도왔고, 사진사역팀은 교회 안팎의 각종 사역 현장을 취재 촬영하여 역사 자료로 보존하는 일을 맡았다.

편성되었고, 선교의 일환으로 하남 외국인비전센터의 다문화가족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육과 개원여중의 특별활동 미술교육을 맡았다.

사진동우회 '주사동'은 교회의 양육 과정인 사진학교에서 배운 이들과 사회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출사를 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08년부터 제작회 목양사역본부의 한 부서로 신설된 사진사역팀에서 활동했다. 사진 사역팀은 교회의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역 현장을 취재 촬영하여 교회 홈페이지 업로드하거나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었다.

이 동우회와 사진 사역팀은 2008년부터 전시회를 했다. 특히 2008년 교회창립 20주년 기념사진전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개안수술 후원금으로 실로암안과병원에 기증하여 시각장애우 10명의 눈을 수술시켜 주었다. 이후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2012년 7월 15~29일에는 '말씀사진 전시회'를 했다. 이 전시회는 다양한 꽃을 촬영한 사진 아래쪽에 그 꽃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함께 전시함으로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낸 행사였다.

무지개축제

2003년부터 시작된 가장 큰 친교 행사인 무지개축제가 2007년 이후에도 매년 개최되었다. 특히 2008년 5월 5일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로 열린 제6회 무지개축제는 '우리 축제를 넘어 지역 축제로'라는 슬로건 아래 교인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어린이, 농어촌 교회와 도시 개척교회에서 온 손님들, 다문화 가정과 형제 교회의 교인들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5월 25일~6월 1일까지 무지개축제 사진전을 열어 축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렸다. 2009년에는 이진과 달리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무지개축제가 열렸다. 주님의교회 어린이뿐 아니라 교회 주변의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들만의 축제



2012년 지역주민과 함께 한 무지개축제. 전교인과 지역주민, 농어촌 교회와 다문화가정이 함께 해온 무지개 축제는 매년 계속되었지만, 2009년부터 3년간은 특히 어린이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였다. 그리고 이 축제에서 모인 어린이 돕기 ‘수호천사’ 후원금을 전남 교창의 벨엘교회에 전달했다. 이후 열린 무지개축제 때에는 교인들에게 물품을 기증받아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에게 선물로 나눠주었다. 어린이 무지개축제는 2010, 2011년까지 이어졌다가, 2012년에 다시 전교인의 축제로 열렸다.

다양한 축하 음악회

2007년에 들어와서도 교회 절기와 창립기념주일에 맞춰 다양한 음악회가 계속 열렸다. 6월 10일에는 청소년 사역원의 초청으로 1996년에 방문해 공연한 적이 있는 미국 남가주 주님의교회 찬양단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이 주님의교회창립 19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찾아왔다. 이 찬양단은 2009년에도 창립주일을 기념하여 다시 찾아와 공연을 했다.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도 열렸다. 2006년에 이어 2007년 5월 14일에 정립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5회 지체장애우



2011년 12월 16일 주님의교회에서 사역중인 교역자들이 준비한 가곡 및 성가 발표회 '남자 목사의 자격'. 교회 절기와 창립기념일마다 다양한 음악과 찬양이 주님의교회를 은혜롭게 했다.

와 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교회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로 개최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작은 음악회는 이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2008년 12월 16일에는 창립 20주년 기념 CCM콘서트를 개최하여 입장료 수익금 전액을 '기아대책'에 기부하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난방비로 쓰게 했다. 2010년 7월 11일에는 장

에인 공동체인 '살림의 집' 집짓기 자선 음악회 'HOWZING'을 중등부에서 주최했다.

일반 음악회와는 다른 독특한 '로비 콘서트'가 2011년 9월 25일 열렸다. 청년부에 속한 20플러스 브리지(20Plus Bridge) 합창단이 교회 로비에서 찬양 콘서트를 연 것이었다. 이 로비 콘서트는 이듬해에도 열렸다.

그해 12월 16일에는 주님의교회에서 사역중인 교역자들이 준비한 가곡 및 성가 발표회 '남자 목사의 자격'이 중예배실에서 열렸다.

2008년 20주년 기념주일에 공연한 주오챔버오케스트라가 2009년에 정식 예배와 기타 사역을 위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27일 창립주일에 주오챔버 찬양 콘서트 로비에서 열렸다.



2009년 신설된 주오챔버오케스트라. 절기에 맞춰 교회 로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은혜로운 연주로 성도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다.



2008년 12월 성극팀이 공연한 연극 <살로메>. 2001년~2004년까지 활동했던 드라마부에 이어 2008년 제작부서가 된 성극팀은, 이후 2009년 <퀸 에스더>, 2010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등을 공연했다.

연극 공연

2001년에 제작부서의 하나로 드라마팀이 만들어져 2004년까지 활동을 했다가 2005년에 없어졌다. 그후 3년여 지난 2008년 9월 21일 당회에서 제작부서로 성극팀을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그해 12월 10일에 성극팀이 주관하여 연극 <살로메>를 공연했다. 이 연극은 오스카 와일드가 <마태복음> 14장에 실린 유대 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건을 바탕으로 쓴 희곡 <살로메>를 성극팀이 재해석하여 공연한 것이었다. 2009년 2월 4일에는 성극팀 창립 예배를 드리고, 활발하게 활동하여 2009년 12월 2일에는 <퀸 에스더>를 공연하고, 2010년 11월 24일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12단계 성경공부 중 7단계 종강을 기념하여 공연했다. 성극팀은 각박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 시대에 희생과 헌신의 순교자의 삶을 보여주려고 손양원 목사 일대기인 이 대본을 선택하고, 공연 시간을 50분 안으로 맞추어 대본을 수정했다. 그리고 은혜로운 공연이 되도록 한 달간 성극팀 전원이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

리하여 이 연극은 교인들의 커다란 호응에 힘입어 11월 28일에 앵콜 공연을 올렸다.

인터넷 개편과 스마트폰 서비스

주님의교회는 1997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03년 6월 29일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계속 사용했다. 인터넷 사역팀이 홈페이지를 관리했고, 누구나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배와 교회안내와 설교 다시듣기 서비스(VOD)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 외에 교회행사 사진과 함즐함울 다시보기 서비스 등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했다. 2008년부터는 주일설교뿐만 아니라 수요일 배설교도 업로드하고 있으며, 12단계 성경공부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각 부서의 개별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 교회 내 다양한 소식과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6월 28일부터는 그동안 사용해오던 인터넷 홈페이지(<http://old.pcltv.org>)를 중단하고 새로운 홈페이지(www.pcltv.org)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님의교회가 2010년 10월 16일 정책당회에서 스마트폰 방송팀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2011년 7월 31일부터는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주일 설교와 12단계 성경공부, 수요일 설교, 주보, 알림마당, 앨범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채로운 행사들

2009년 10월 10일에 주님의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송과구와 하남시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돕고 겨자씨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회 전교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2010년에는 ‘다문화사랑’ 걷기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송과구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150명 다문화가족과 660



2009년의 전교인 걷기대회. 송파구와 하남시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돕고 겨자씨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렸다. 2010년에는 '다문화사랑' 걷기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송파구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150명 다문화가족과 660명의 성도가 참여했다.

명의 성도가 참여하여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양재천 영동4교까지 왕복 8킬로미터를 걷는 제2회 다문화 사랑 걷기대회가 열렸다. 이듬해에 10월 27일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교인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2009년 10월부터 젊은이사역본부는 싱글매칭학교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청년이 배우자를 찾도록 돕는 것이었다. 2009년 10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5주간 25세 이상의 크리스천 싱글 남녀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매년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2012년 10월에 10기 싱글매칭학교(돌싱 재혼편)을 마쳤다.



2009년부터 젊은이사역본부에서 미혼 청년의 만남을 돕기 위해 개설한 싱글매칭학교, 각각 5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배필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매년 평균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

2005년 4월 3일에 주일 응급환자를 위한 의무실이 1층 안내데스크 뒤편에 마련되었는데, 이 의무실이 발전하여 2008년 8월 31일에 응급진료실이 개설되었다. 응급진료실이 개설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시 교인 수가 증가하면서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함 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안산, 하남, 광장동의 외국인 진료와 하나 원 탈북동포 진료 등 국내 사역과 해외 단기 의료선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위한 전진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 응급진료실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열렸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성도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한편, 2003년 12월에 개최된 자원봉사 박람회와 2004년 사역 박람회로 이름을 바꾼 이래 매년 실시되었다. 2008년에는 ‘받는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으로’라는 주제로 1월에 2주간 열린 사역 박람회는 교회 내외의 다양한 자원봉사 사역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라 그동안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과 그들의 손길이 필요한 다



2008년 개설된 응급진료실. 교인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고, 여러 지역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의료 진료 선교가 늘어남에 따라 전진기지가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양한 사역지를 자세히 연결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행사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170여 명이 참여했다.

2012년에는 그동안 사역 박람회를 하루 이틀에 하다 보니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2005년도처럼 교인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9월과 10월에 8주간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탈북동포, 북한동포 돕기 바자회

1997년 북한동포를 위한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던 주님의교회는 2010년에도 북한 돕기를 계속했다. 2010년 11월 13일 정신여중고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나눔과 만남'이라는 주제로 '북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 바자회는 교인들이 서로 물품을 가져와 팔고 사면서 교인들과 이웃주민과 만남과 나눔을 즐기며 북한선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인들에게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에 교인들이 집에서 쓰던 소소한 물품에서부터 가전제품, 운동용품, 유아용품, 그리고 판매하던 구두, 가방 등 신상품, 값비싼 사진 작품과 그림과 상품권을 기증했다. 각 교구별로 약 한 달여 동안 물품을 기증받았고 각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와 농어촌교회와 함께 하는 직거래장



2010년 11월 13일 '나눔과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북한 선교를 위한 바자회'. 이 바자회는 교인들이 서로 물품을 가져와 팔고 사면서 교인들과 이웃주민과 만남과 나눔을 즐기며 북한선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인들에게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터와 권사회에서 준비하는 김치 등 다양한 물품이 준비되었다. 이 날 바자회로 2,345만 원의 순수익을 얻게 되었으며, 바자회 수익금으로 국내 하나원을 나가게 되는 탈북자들에게 생필품을 마련해 전해주고, 중국 내 탈북 고아들을 돌보는 기관인 ‘손과 마음 재단’을 지원하고, 중국 연변에서 사역하는 주님의교회 협력선교사의 사역을 도와 북한에 내복을 보냈다. 이 바자회는 이후 매년 10월에 꾸준히 열렸다.

재난을 당한 이웃을 위해

주님의교회는 재난을 당한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언제나 재정적인 후원뿐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때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주님의교회 성도. 9차례에 걸쳐 1,004 명이 참여하는 한편, 방제지원금도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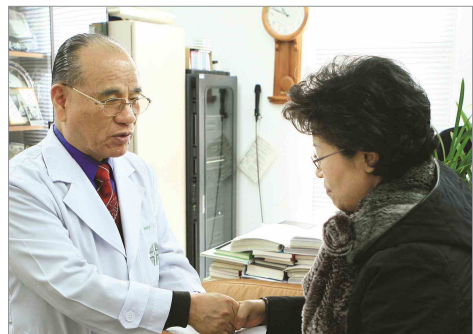
2007년 10월에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여 기름이 흘러 나오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청년부, 영어예배 사역팀, 장애인부서 등 어느 부서를 가릴 것 없이 교인들은 태안반도 기름 제거 자원봉사에 발 벗고 나섰다. 한 성도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새벽 6시에 깨워 함께 태안바닷가에 가서 방제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교회는 구체적인 봉사 일정을 세우고 목적헌금을 실시했다. 그리하여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3월 2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1,004명이 기름제거 자원봉사에 참여했으며, 교회는 3,800여만 원을 방제작업을 위해 지원하고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에 방제지원금 5,000만 원을 후원했다.

2010년 1월 13일에는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1월 31일에 아이티 재난 구호헌금을 모금하고 교회 재정을 더해 월드비전에 구호헌금을 전달했다.

2011년 초에 일본에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3월 23일 '이웃사랑 나눔 예배'를 통해 일본의 재난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특별 헌금을 했다. 이날 예배의 설교는 서울 일본인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요시다 고조 목사가 맡았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님의교회의 믿음 구역은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과 그 가족이 모이는 구역이다. 2007년 1월 28일 장애인 사역팀과 사단법인 '소리나눔 캠페인'이 연합하여 6명의 청각장애인에게 디지털 보청기를 제공했다. 2008년 6월과 12월에도 이 행사를 실시하여 각각 9명과 18명이 보청



2008년의 개인수술 후원금 전달. 사진동우회 '주사동'이 교회창립 20주년 기념사진전의 수익금을 시각장애인 개인수술 후원금으로 실로암안과에 전달했다.

기를 제공받아 듣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2008년에는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다. 4월 24일에는 지구촌의 굶주린 이웃에게 식량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굵은 빗줄기와 강풍을 무릅쓰고 ‘기아대책’과 ‘주님의교회’가 함께 자선바자회를 개설했다. 5월 25일에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여 약 2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그해 가을 11월 22일에는 농어촌 협력교회를 위한 직거래 장터가 개설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사진동우회 ‘주사동’이 교회창립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통하여 모인 수익금을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후원금으로 실로암안과에 전달했다.

2011년에는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고 그 금액을 성금요예배 때 봉헌하여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지원 운동을 벌였다. 4월 24일 첫 번째 개안수술 헌금 전달식을 했고, 이듬해 고난주간에도 같은 행사를 실시했다.

주님의교회는 교회를 창립한 해의 성탄절에 나눔의 주일 행사의 일환으로 물품 대신 쌀을 거두어 불우한 이웃이나 복지시설에 보내주는 ‘나눔의 쌀’ 행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몇 해 동안 이어지다가 중단된 이 행사는 2008년 추수감사절에 ‘쌀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었



2008년 추수감사절부터 재개된 쌀나눔 행사. 교회창립한 해 성탄절에 쌀을 거두어 불우한 이웃이나 복지시설에 보내주었던 ‘나눔의 쌀’ 행사의 전통을 추수감사절에 되살려 진행했다.

다. 이전의 나눔의 쌀이 쌀만을 모았던 것에 비해 ‘쌀나눔’은 현물(쌀)뿐 아니라 현금까지 모금했으며 ‘나눔의 쌀’이 성탄절에 시행된데 반해 ‘쌀나눔’은 추수감사절에 진행되었다.

주님의교회 복지지역팀은 2009년 6월부터 송파구 거여, 마천, 오금동 일대 중증 질환자와 장애가 있는 저

소득 독거노인에게 영양죽을 배달하여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적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해왔다.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두 차례 2인 1조로 된 18명의 봉사팀이 점심식사 시간에 맞추어 직접 영양죽을 배달하여 2009년 6월~2012년 12월까지 4년 동안 총 15,992인분의 죽을 배달했다.

주님의교회는 2011년 1월부터 송파구에 거주하는 경제력 없는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무료 점심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했다. 동사무소와 유관기관으로부터 무료 급식 대상자 100명을 추천받아 2011년 1월~2012년 12월까지 2년간 총 12,120여 명분의 급식을 무료로 제공했다.

늘푸른대학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고연령자들에게 대한 깊은 관심과 그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회는 2009년 9월 22일부터 65세 이상의 교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며 친교 및 여가생활을 통해 노년생활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보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늘푸른대학을 개설했



65세 이상 교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늘푸른대학.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며 친교 및 여가생활을 통해 노년생활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보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개설되었다.

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까지 예배, 특강, 식사, 특별활동(찬양대, 붓글씨, 성경읽기,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탁구, 원예반)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1년 2학기 운영했다. 2009년 1기에 135명이 수료한 이후, 2010년 2기에는 120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3기부터는 180명이 넘는 노인들이 수료했다.

특히 2012년 3월부터 늘푸른대학 뜨개질반 학생들이 털모자를 만들어 아프리카 신생아 생명 살리기와 중증 독거노인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는데, 이 운동은 그해 12월에는 전교인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

2010년 1월부터는 노령화 시대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인 지역사회의 유아 보육과 어린이 복지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본동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시작했다.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2010년 3월 3일 개원하여 아토피 질환을 앓는 아이 20명과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하여 131명의 원아를 17명의 직원들이 돌보았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돕기 위해 제직부서로서 어린이집 지원팀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자를 모



2010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가락본동 어린이집.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2010년 3월 3일 개원하여 첫 해 아토피 질환을 앓는 아이 20명과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하여 131명의 원아를 17명의 직원들이 돌보았다. 교회는 어린이집 지원팀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하고 있다.



2011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하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 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개인 및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집하여 봉사하고 있다.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5월 17일에 아이들이 숲에서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감성과 창의성을 배양하도록 돕는 숲반을 개원했다. 오금공원에서 개원한 숲반에는 만 3세 이상의 원아 18명과 교사들이 함께했다. 이 숲반은 6월 4일 국회에서 이 교육방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 현재 3년간의 1차 위탁운영(2010. 1. 19~2012. 1. 18)을 마치고 5년간 재위탁운영을 맡아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이 담당하고 있으며, 가락본동 어린이집 총 원아수는 131명에 대가 아동 1,642명이다.

또한 2011년 7월 1일부터 하

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곳에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 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개인 및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 6월까지 주님의교회가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위탁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나눔, 돌봄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 아이돌봄 지원, 대외협력 등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 또한 2014년 6월까지 주님의교회가 운영하게 된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VIP 초청 주일과 새생명 축제

주님의교회는 2010년 하반기부터 가족, 친족, 친구, 이웃 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나도 한 영혼, 당신도 한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겨자씨 VIP전도는 9월 말에 1인당 2장의 VIP전도카드를 나눠줌으로 시작했다. 전도 대상자를 적은 이 카드를 10월 10일까지 교회에 제출하고 나서 전도 대상자가 교회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10월 23일에 진행된 제2회 '다문화사랑' 걷기대회와 11월 13일에 정신여중고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열린 북한선교바자회에 초청했다. 그리고 12월 첫 겨자씨 모임에 초청하여 교인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한 뒤에 성탄주일인 12월 19일에 교회로 초청했다. 이 날 교회는 VIP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주차 장소와 예배당 좌석을 특별히 지정하여 준비했으며, 예배 후 식사하고 난 뒤에 쉴 수 있도록 1층 제3집회실을 준비하여 이들이 교회에 있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이렇게 진행된 전도 프로



2010년부터 시작한 새생명 축제. 가족, 친족, 친구, 이웃 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럼은 이 후로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2011년과 2012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2011년 10월 9일에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22일에 개최된 ‘북한 돕기 바자회’에 초청하여 교회의 뜻을 자연스럽게 밝도록 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 교인

들은 교구별로 10월 31일~11월 13일까지 2주간 노방전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님의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교구에 편성되지 못한 500여 명의 미등록 새가족들을 찾아 그중 120여 명을 일일 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 각자의 겨자씨로 인도했다. 12월 3일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특별 초청의 밤을 갖고 11월 28일~12월 10일까지 겨자씨 오픈하우스를 운영하여 처음 교회에 오는 이들이 열려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12월 18일 주일예배에 이들을 초청했는데, 66명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16명이 교인으로 등록했다.

2012년에 11월 4일에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갖고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해 11월 26일~12월 8일까지 열린 겨자씨 오픈하우스에는 새신자가 아니라 겨자씨 구성원이지만 아직 겨자씨 모임에 참석해보지 못한 가정을 참여하게 하는 행사를 가졌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웃과 친구를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CBS 방송설교

1996년 10월~2002년 8월 임영수 목사가 사임할 때까지 주님의교회 예배설교가 극동방송을 통해 방송되었다. 2005년 11월 말과 12월에는 문

동학 목사의 '사도 요한 선교-리더십편'이 CTS 기독교 TV로 방영된 적도 있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주님의교회 주일에 배설교가 2011년 6월 19일부터는 CBS를 통해 매주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었다.

해외선교정책의 변화

주님의 교회가 2006년 2월에 캄보디아 정부와 선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캄보디아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주님의교회 캄보디아 선교팀과 의료팀은 “캄보디아 프로젝트(안)”를 세워 선교사업을 진행했다. 이 계획안에는 단기계획으로 다케오 키리봉 병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낡고 노후한 건물 재건축과 의료장비 지원과 외국인 의료인과 현지인 의료인을 연결하여 진료지원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현지 관리자이자 주님의교회 협력자로 이성민 선교사를 세우고 공식적인 임무를 부여했으며, 이 선교사는 주님의교회에 진행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했다. 중기계획은 프놈펜 지역에 의료 센터를 설립하여 캄보디아 의료인 중에 지도자급의 인물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시키고 센터의 지도자로서 현지 선교사와 협력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과 센터에서 훈련된 의료인을 지방 의료기관으로 파송하는 것, 교회와 동역할 만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했고, 장기계획은 의료와 교육을 망라하는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 센터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문동학 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계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2007년 3월 10일 당회는 이 “캄보디아 프로젝트(안)”를 보고받고 현지의 치과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현지 의료인을 초청하여 치과병원에서 실무를 경험하게 하고 난 뒤에 캄보디아 치과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계획을 실시하도록 허락했다. 이에 캄보디아의 치과 의사 세라이(Chou Mean Serey)가 2007년 8월 21일에 한국을 방문하여 3개월간 주님의교

회 의료팀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11월 20일에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밖의 전반적인 계획들은 2007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11월에 열린 당회에서 캄보디아 선교계획을 좀더 연구하기로 하고 그 실행을 보류했다. 선교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2006년 9월~2007년 5월까지 담임목회자가 없어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고, 이후 캄보디아 선교본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캄보디아 정부가 사업 진행을 계속 지연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해외선교를 주도해온 교인들의 임기가 2006년으로 끝나고 2007년에는 새로운 이들이 맡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2007년과 2008년의 단기선교는 캄보디아 선교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던 까닭에 캄보디아에 집중했던 2006년과는 달리 여러 나라를 향한 다양한 선교팀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20주년 기념주일인 6월 29일에 서정운 목사와 윤영수·김미숙 선교사의 파송식을 거행했다. 서정운 목사는 총회 선교 협력목사로 파송되어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윤영수·김미숙 선교사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슬람권 사람들을 위해 태권도를 통한 복음전파 사역과 치과대학 내 치위생사 훈련을 통한 복음전파 사역을 진행했다.

결국 2008년 10월 정책당회에서 주선교지로 캄보디아에 집중해왔던 정책을 포기하고, 여러 나라에 대한 다차원 선교로 방향을 바꾸었다. 캄보디아 선교팀은 동남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남아시아의 선교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했다.

2009년 11월 정책당회에서 해외선교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전교인의 선교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10-10 겨자씨 선교동역

화 운동'이 제시되었다. 이 운동은 한 겨자씨에서 10만 원의 선교헌금을 하고 이러한 겨자씨 10개를 묶어 1명의 선교사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과거 공산권 지역과 중국, 쿠바, 북한 등과 같은 현재 공산권 지역을 최우선 선교지역으로 삼고 선교역량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 해당되는 나라는 캄보디아, 헝가리, 키르기스스탄, 코스타리카(쿠바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국, 북한 등이었다. 세 번째는 선교 목적헌금의 허용 문제였다. 이것은 선교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헌금을 거두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선교목적헌금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한 끝에 목적헌금은 근본적으로 수용하되 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거주 다문화 가정을 선교적 안목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섬길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선교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는 해외선교 차원에서 베트남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3월에는 김성훈 선교사를 중국 단둥 탈북자 선교를 위한 협력선교사로, 김덕규 선교사를 베트남 협력선교사로 선정했다. 6월에 계획되었던 키르기스스탄 비전트립이 현지 민족분규로 취소되고 헝가리 비전트립이 현지 교회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비전트립의 대상 국가를 베트남으로 변경했다. 8월에 청년부, 스포츠부와 당회원 등 3개 팀이 베트남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10월부터는 겨자씨 선교동역화 운동으로 모금한 겨자씨 선교헌금을 베트남 총회 산하 20개 교회에 매달 각각 100달러씩 총 2,000달러를 보내기 시작했다.

해외선교 정책은 2011년 2월 13일에 열린 당회에서 또다시 바뀌었다. 캄보디아 선교의 중심은 '의료'였으나, 2011년부터의 선교정책 핵심어는 '교육선교'였다. 원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는 현지 선교사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원주민교육을 통한 선교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된 선교지도 바뀌었는데, 캄보디아와 함께 여러 나

라로 분산되어왔던 선교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베트남과 케냐를 주선 교지로 새롭게 선정했다. 캄보디아가 배제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동안 주님의교회는 캄보디아 선교에서 현지 선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성민 선교사에게 협력선교사로서의 공식적인 권한과 함께 보고의 의무를 부여했으나, 선교비 지원에 대한 사역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데다가, 개인적으로 교인들과 접촉하여 후원을 종용하여왔다는 문제점도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당회는 이성민 선교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캄보디아를 대체할 새로운 선교지를 모색하기로 했다.

베트남을 주선교지로 선택하기까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선교학 김영동 교수에게 선교지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베트남을 추천받기도 했고, 베트남이 주님의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통합측 세계선교부의 정책과 잘 조화를 이루었으며,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던 김덕규 선교사가 이미 주님의교회 협력선교사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미 2010년 10월부터 교회의 거자씨 선교헌금으로 베트남의 20개 교회와 목회자를 돕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이날 당회는 선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대륙별로 국가를 정하기로 하고, 아시아 선교센터로 베트남을 선정하고, 다음 단계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는 케냐를 거점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베트남이 주선교지로 결정됨에 따라 주님의교회는 2011년 4월 10일에 최병관·김경희 목사 부부를 베트남 파송 선교사로 선정했다. 2011년 창립 23주년 기념일인 6월 26일에는 최병관 선교사의 베트남 선교사 파송식이 거행되었다. 최병관 선교사 부부는 이미 한인목회 선교사로 베트남에 파송되어 4년 반 동안 섬기면서 베트남에서 적응을 마친 상태였다.

베트남 선교를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정책 당회에서는 베트남 중장기 선교계획서가 제시되었다. 이 계획서에 제시

된 네 가지 주요 사업은 첫째 겨자씨 선교헌금으로 베트남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 후원, 둘째 기독교 학교 설립의 첫 단계로서 현지인 유치원 설립 운영을 통한 현지 기반과 경험 축적, 셋째 빈롱성 정부와 협력 추진하는, 극빈가정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 넷째 최병관·김경희 선교사의 전문적인 현지어 습득 및 폭 넓고 깊이 있는 문화 적응훈련 지원 등이었다. 이 정책당회에서는 또한 케냐의 이원재 선교사를 협력선교사로 선정하고 케냐 선교를 위한 과정을 하나씩 밟아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외선교의 중심축이 될 베트남에 교육선교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베트남 총회 임원과 최병관, 김덕규 선교사를 2011년 11월 8~13일에 한국으로 초청했다. 한국에 온 그들은 주님의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해외선교분과팀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교계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등 선교협력에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주님의교회는 2011년 2월에 제시된 교육선교를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에 ‘국제교육선교센터’를 제직부서로서 신설하고, 하부 조직으로 케냐와 베트남 선교를 위한 교육선교연구소를 각각 두었다. 이 센터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기독교 교육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여 케냐와 베트남 청소년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선교지에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8월 12일 주님의교회와 베트남 사이에, 2012년 7월 27일 주님의교회와 케냐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해외 목회자 초청 선교포럼

1996년 10월 주님의교회 형제 교회의 교역자들이 모여 환태평양 선교대회를 열었다. 그후 이러한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가 2008년에 전세계를 연결하는 선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주님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한 경험이 있는 해외 목회자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개최했다.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인 2008년 6월 28일에 이인호, 금상호, 김원재, 김



2008년의 해외 목회자 세미나. 주님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한 경험이 있는 해외 목회자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목회 경험담의 공유와 더불어 목회적 차원과 선교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토의했다.

화수, 신철범, 안사무엘, 윤덕영, 이동규, 정현희, 김영동 등의 해외 목회자가 참석하여 목회 경험담과 더불어 목회적 차원과 선교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토의했다. 먼저 목회적 차원에서는 영어캠프나 홈스테이 등과 같은 자녀교육 및 신앙교육 차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 청소년 사역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 인터넷을 통한 연결망 구성과 목회자간 상호 강단 교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선교적 차원에서는 각 교회가 가진 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단기선교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좌담회를 통하여 이후 전개될 상호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선교를 위한 교육

2008년 선교사 파송과 더불어,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며, 체계적인 선교훈련 및 선교 지원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선교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2009년 1월 6일~3월 31일까지 시행했던 12주 과정의 총회선교대학이었다. 1기 총회 선교대학 수료생은 주님의교회 교인 184명, 총회 수료생 153명이었다. 이듬해 1월에 열린 2기 총회 세계선교대학은 폭설로 첫날 34명의 적은 인원이 참여했다. 세계선교대학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선교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지식들을 알게 된 기회여서 의미가 깊었다고 평하면서도, 주로 교수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전문적 내용과 딱딱한 선교지식을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루 불만을 제기했다. 이론적인 부분은 선교학 교수의 강의로 듣더라도, 실질적인 선교현장에 대해서는 해외선교사들에게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 또한 선교교육을 굳이 해외선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국내선교의 다양한 분야와 그 현황 등을 강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011년 10월에 있었던 정책당회에서는 이런 여러 제안을 수렴, 총회 세계선교대학을 대신할 새로운 선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논하고, 총회의 “카이로스 선교훈련”과 “미션 퍼스펙티브” 중에서 후자를 주님의교회 교육 과정으로 선택했다. “미션 퍼스펙티브”는 선교한국 파트너스가 주최하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으로 세계기독교운동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기본적인 선교훈련이다. 2012년 9월 27일부터 12주 동안 교회에서 제1기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 훈련에는 65명이 참석했고, 앞으로도 선교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하반기에 계속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전교인의 선교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0년 5월 12일~6월 23

일 수요예배 시간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선교 연속강좌 “열방을 가슴에 품고”를 개설했다.

7

지 난 25년 을 돌 아 보 며
비 전 을 품 게 하 시 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주님의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귀한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왔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로 지출하고, 봉헌은 무기명으로 하며, 당회원의 임기제를 실시하는 등 남다른 여러 제도를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교회의 지난 역사를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초창기에는 남다른 창립 정신을 지닌 구성원들이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느 교회와는 다른 제도를 만들었고, 크고 작은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이를 정착시켰다.

교회의 중요한 제도를 확립한 초창기 10년에 이어 교회의 구성원들의 내적 성장과 헌신을 위한 훈련의 시기가 잇따랐다. 아무리 좋은 교회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성도들이 경건과 헌신과 봉사를 위해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도 각자의 내적인 신앙 훈련과 이웃을 섬기는 훈련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였다. 초창기 10년이 제도를 통한 외적 개혁에 힘쓴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깊은 영성으로 내면화하기 위한 내적 개혁이 필요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예측하지 못했던 담임목회자의 이른 사임으로 이 내적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다.

이어진 시기에서는 잘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의 행사들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교회재정의 25%를 청소년 사역에 투입하기로 했고, 기독교 신앙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도프로그램과 교육과 의료를 통합하여 추진된 해외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무지개축제 등 교회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친교 프로그램인 무지개 축제가 진행되었다. 반면,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존교회에서 주님의교회로 옮겨 오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개인적인 경건과 헌신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40일’과 ‘겨자씨 모임’을 통하여 기존의 구역모임을 새롭게 가다듬는 한편, ‘예수친구사역’을 통하여 전교인들이 제자화 훈련을 받게 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했다.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을 설립하여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25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는 창립 당시 가졌던 목표와 전통을 미래에 이어가기 위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는 개혁교회의 표어는 지금-여기에서도 유효하다. 주님의교회의 창립 정신은, 바로 ‘개혁의 계속’에 의해 미래에도 구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진정한 ‘주님의교회’ 됨을 위하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단지 임기제로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의교회가 장로교교단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선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그리고 장애가 없이 선포되고 모든 교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또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교회는 강해설교 전통과 다양한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공부를 중시해 왔다. 그러므로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분위기가 교회 내에 가득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주님의교회 정관에 제 3조 실천이념으로 “본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 사역에 노력하며, 원칙적으로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님의교회의 선교와 구제정책의 핵심은 50대50 정신이다. 창립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는 부단히 노력해 왔다. 50대 50 정신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고백이며 이웃을 향한 나의 희생과 수고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재정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본질적 정신도 공동체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어야만 한다.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항존직과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을 내면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의교회에 나오게 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교회의 정신과 그 실천방향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주님의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가르치며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학원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주님의교회는 청소년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와나클럽, 반가운 학교, 학원선교차원에서 기도어머니와 사랑어머니, 그리고 기존 청소년사역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사역원을 만들어 주님의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청소년 사역에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도우고 있다. 청소년 사역이 주님의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인들이 함께 공유할 비전과 그 단계적 실천과제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온 교인들이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의 주인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를 아우른다. 지금까지 주님의교회가 노력해 온 것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회를 포함한다고 이해한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주님의교회는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철학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도 기존교회가 후원하여 세운 지교회도 아니다. 주님의교회는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아픔을 가진 자들이 세운 교회이다. 이러한 창립구성원들의 특징이 교회의 이름에서부터 주님의교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교회제도에 이르기까지 깊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동안 교회구성원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협의를 거쳐 형성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도 공동체 구성원간의 논의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될 때, 진정 주님이 교회와 온 세계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주님의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 뒤에 부쳐

주님의교회 25년사를 펴낸 뜻

주님 앞에, 여기 지난 두 해에 걸쳐 준비한 ‘주님의교회 25년사’를 올립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지체들인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교회 25년사’는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지난 25년간의 역사입니다.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닌데, 굳이 교회사를 펴내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없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성년이 지난 교회의 어느 시점에서,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지난날을 되짚어 보고, 그 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동체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요컨대, 주님의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느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이를 공동체의 전통으로 정리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부여하여,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하려는 것이 가장 큰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담기 위해 아래 몇 가지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째, 주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밝히려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불필요한 가식과 과장, 특정한 관점이 반영되는 해석은 되도록 피하여, 지난 25년을 정리하여 후대에 남기는 기록의 성격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교회이므로, 역사의 주체도 어떤 한 두 인물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

로 보아, 교회사의 시대 구분, 제목, 문장 기술에서도 되도록 주님과 주님의교회를 주제로 했습니다.

둘째, 주님의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의 주님의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탕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었고, 어떠한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본적인 원칙들로 정리되고 실천되었는지를 밝혀서, 현재와 미래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재정의할 뿐 아니라, 교회와 교단에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기억되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님의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 온 역사와 전통이, 주님의교회가 속한 교단 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어떤 실존적 기억으로 존재하는지를 되짚어보려 했습니다. 사회와 분리된 교회란 있을 수 없으므로, 교회와 사회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교회 역시 동시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해서, 창고에 쌓인 문서와 자료 더미를 뒤져 역사 자료를 새로 정리하고, 먼지 쌓인 앨범에서 묵은 사진들을 찾아내어 설명을 붙이며, 기록이 없는 역사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구술을 듣고 채록하는 고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교회사를 전공한 최영재 박사가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좀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자료 정리를 지휘하고, 본문을 집필했습니다.

이 작은 책을 이루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특히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도움을

주신 이재철 목사님과 초창기 창립멤버이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책에 많은 결함들이 있을 터, 그 모두 이 일을 맡았던 저희 편찬위원들의 부족함 때문이니,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의 질정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의교회 25년사 편찬위원 일동

일러두기

1. 부록에 들어간 모든 자료는 주님의교회가 만 25주년을 맞는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 부록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자로 기록된 여러 문서를 1차 사료로 삼아 정리했고, 이후 전 교인 열람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충했습니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공란으로 두거나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부 록

1. 주일 낮예배 설교
2. 교역자 재임 연표
3. 부목사 명단
4. 장로 임직 현황
5. 장로 시무기간 현황
6. 권사 임직 현황
7. 안수집사 현황
8. 제직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9. 교육목회원 담당 교역자 및 부서장 명단
10. 찬양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명단
11. 연도별 교구, 구역, 교역자 현황
12. 연도별 세례 입교자 현황
13. 교회 조직도(2013)
14. 당회원 명단(2013)
15. 서리집사(남) 명단(2013)
16. 서리집사(여) 명단(2013)
17. 역대 남선교회 회장 명단
18. 역대 여전도회 회장 명단
19. 역대 장로회 회장 명단
20. 역대 권사회 회장 명단
21. 역대 안수집사회 회장 명단

1. 주일 낮예배 설교(1988~2013)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88. 06. 26.	행 15:36~16:10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	이재철	
1988. 07. 03.	마 1:21~23	임마누엘 예수님	이재철	
1988. 07. 10.	마 2:9~23	순례의 길을 떠나자!	이재철	
1988. 07. 17.	마 3:13~17	그리스도의 길 I	이재철	
1988. 07. 24.	마 4:1	그리스도의 길 II	이재철	
1988. 07. 31.	마 4:2~4	그리스도의 길 III	이재철	
1988. 08. 07.	마 4:5~7	그리스도의 길 IV	이재철	
1988. 08. 14.	마 4:8~11	그리스도의 길 V	이재철	
1988. 08. 21.	마 4:17 / 창 2:8~14	하늘나라	이재철	
1988. 08. 28.	마 4:13~25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	이재철	
1988. 09. 04.	마 5:1~3	천국을 얻는 자	이재철	
1988. 09. 11.	마 5:4 / 4:12~16	위로를 얻는 자	이재철	
1988. 09. 18.	마 5:5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은?	이재철	
1988. 09. 25.	마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이재철	
1988. 10. 02.	마 5:7	금홍히 여김을 받으려면?	이재철	
1988. 10. 09.	마 5:8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재철	
1988. 10. 16.	마 5:9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재철	
1988. 10. 23.	마 5:10~12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이재철	
1988. 10. 30.	마 5:13~16	빛과 소금	이재철	
1988. 11. 06.	마 8:1~15	몇 층에 계십니까?	이재철	
1988. 11. 13.	마 5:17~20	율법의 완성	이재철	
1988. 11. 20.	마 6:1~4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재철	
1988. 11. 27.	마 6:5~8	참선 기도	이재철	
1988. 12. 04.	마 6:9~15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재철	
1988. 12. 11.	마 6:9~15	주기도문 II	이재철	
1988. 12. 18.	마 6:9~15	주기도문 III	이재철	
1988. 12. 25.	사 52:7~10 / 마 2:1~12	새벽이 빛날 때	이재철	
1989. 01. 01.	행 14:8~10 / 삼상 6:7~16	바로 서는 해	이재철	
1989. 01. 08.	마 6:9~15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재철	
1989. 01. 15.	마 6:9~15	우리 죄를 사하여주소서	이재철	
1989. 01. 22.	마 6:9~15	시험에 들게 마소서	이재철	
1989. 01. 29.	마 6:19~24	크리스찬의 금고	이재철	
1989. 02. 05.	마 6:25~34	먹이시는 하나님	이재철	
1989. 02. 12.	마 7:1~6	비판받지 않는 비결	이재철	
1989. 02. 19.	마 7:7~12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이재철	
1989. 02. 26.	마 7:15~29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89. 03. 05.	마 8:1~4	기적은?	이재철	
1989. 03. 12.	마 8:5~13	이만한 믿음	이재철	
1989. 03. 19.	마 8:14~22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재철	
1989. 03. 26.	마 8:23~34	어디에 계시는가?	이재철	
1989. 04. 02.	마 9:1~38	어느 쪽입니까?	이재철	
1989. 04. 09.	마 10:1~15	일꾼의 조건과 사명	이재철	
1989. 04. 16.	마 10:1~15	일꾼의 조건과 사명 II	이재철	
1989. 04. 23.	마 10:1~15	일꾼의 조건과 사명 III	이재철	
1989. 04. 30.	마 10:1~15	일꾼의 조건과 사명 IV	이재철	
1989. 05. 07.	마 10:1~15	일꾼의 조건과 사명 V	이재철	
1989. 05. 14.	마 10:1~15	일꾼의 조건과 사명 VI	이재철	
1989. 05. 21.	마 10:1~15	일꾼의 조건과 사명 VII	이재철	
1989. 05. 28.	마 10:16	양(羊)이여라	이재철	
1989. 06. 04.	마 10:16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재철	
1989. 06. 11.	마 10:17~23	핍박받는 크리스찬	이재철	
1989. 06. 18.	마 10:24~26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재철	
1989. 06. 25.	마 10:27~33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재철	
1989. 07. 02.	마 10:34~42	검을 주러 왔노라	이재철	
1989. 07. 09.	마 10:40~42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재철	
1989. 07. 16.	마 10:40~42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II	이재철	
1989. 07. 23.	마 11:1~10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I	이재철	
1989. 07. 30.	마 11:1~11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II	이재철	
1989. 08. 06.	마 11:12~19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재철	
1989. 08. 13.	마 11:20~24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재철	
1989. 08. 20.	마 11:25~30	다 내게로 오라	이재철	
1989. 08. 27.	마 11:25~30	다 내게로 오라 II	이재철	
1989. 09. 03.	마 11:28~30	다 내게로 오라 III	이재철	
1989. 09. 10.	마 11:28~30	내게 배우라	이재철	
1989. 09. 17.	마 12:1~21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재철	
1989. 09. 24.	마 12:22~37	하늘나라가 임하면	이재철	
1989. 10. 01.	마 12:31~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이재철	
1989. 10. 08.	마 12:38~45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재철	
1989. 10. 15.	마 12:46~50	누가 내 형제들이나?	이재철	
1989. 10. 22.	마 13:1~17	가장 위대한 선생	이재철	
1989. 10. 29.	마 13:1~23	뿌리는 자와 맺는 자	이재철	
1989. 11. 05.	마 13:18~23	뿌리는 자와 맺는 자 II	이재철	
1989. 11. 12.	마 13:18~23	이런 감사를!	이재철	
1989. 11. 19.	마 13:18~23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	이재철	
1989. 11. 26.	마 13:24~30 / 36~43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89. 12. 03.	마 13:31~33	폭발하지 않으면	이재철	
1989. 12. 10.	마 13:31~33	무슨 누룩입니까?	이재철	
1989. 12. 17.	마 13:44	그리스도, 나의 보화	이재철	
1989. 12. 24.	마 13:45~46	그리스도, 나의 진주	이재철	
1989. 12. 31.	마 13:47~50	무슨 그물을 가졌습니까?	이재철	
1990. 01. 07.	마 13:51~52	새것과 옛것	이재철	
1990. 01. 14.	마 13:53~58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위한 결단	이재철	
1990. 01. 21.	마 13:53~58	그리스도의 배척자들	이재철	
1990. 01. 28.	마 14:01~21	예수님의 차별대우	이재철	
1990. 02. 04.	마 14:13~21	오병이어의 시작은?	이재철	
1990. 02. 11.	마 14:13~21	당신의 오병이어는?	이재철	
1990. 02. 18.	마 14:13~33	오병이어 다음엔?	이재철	
1990. 02. 25.	마 14:13~33	오병이어와 폭풍	이재철	
1990. 03. 04.	마 14:22~33	폭풍과 예수 그리스도	이재철	
1990. 03. 11.	마 14:22~33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재철	
1990. 03. 18.	마 14:22~33	소리를 질러라	이재철	
1990. 03. 25.	마 14:22~33	실패는 없다	이재철	
1990. 04. 01.	마 14:34~15:20	손을 대라	이재철	
1990. 04. 08.	마 15:21~28	개죽음, 보배죽음	이재철	
1990. 04. 15.	마 15:29~38	부활의 증거	이재철	
1990. 04. 22.	마 15:29~38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재철	
1990. 04. 29.	마 15:39~16:4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	이재철	
1990. 05. 06.	마 16:5~12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재철	
1990. 05. 13.	마 16:13~28	넘어지게 하는 자	이재철	
1990. 05. 20.	마 16:13~17	주님의 교회 I	이재철	
1990. 05. 27.	마 16:13~17	주님의 교회 II	이재철	
1990. 06. 03.	마 16:13~18	주님의 교회 III	이재철	
1990. 06. 10.	마 16:15~19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재철	
1990. 06. 17.	마 16:15~24	일어서게 하소서	이재철	
1990. 06. 24.	마 16:24~28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재철	
1990. 07. 01.	마 16:24~27	무엇이 유익하리오?	이재철	
1990. 07. 08.	마 16:28~17:8	신령한 은혜	이재철	
1990. 07. 15.	마 16:28~17:8	여기 있는 것이 좋소오니	이재철	
1990. 07. 22.	마 16:28~17:8	너희 중에 볼 자도 있느니라	이재철	
1990. 07. 29.	마 17:9~13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재철	
1990. 08. 05.	마 17:14~20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재철	
1990. 08. 12.	마 17:14~23	한 겨자씨 믿음만 있으면	이재철	
1990. 08. 19.	마 17:24~27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재철	
1990. 08. 26.	마 18:1~14	어린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0. 09. 02.	마 18:6~14	아버지의 뜻	이재철	
1990. 09. 09.	마 18:15~35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이재철	
1990. 09. 16.	마 18:21~35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재철	
1990. 09. 23.	마 19:1~2	거기서 고치시더라	이재철	* 는 성직
1990. 09. 30.	마 19:1~2	고난 받은 뒤	이재철	자가 아닌
1990. 10. 07.	마 19:3~12	한몸이 될지니라	이재철	경우
1990. 10. 14.	마 19:13~15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재철	
1990. 10. 21.	마 19:16~30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재철	
1990. 10. 28.	마 19:23~29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II	이재철	
1990. 11. 04.	마 19: 30~20:16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재철	
1990. 11. 11.	마 20:1~16	우리를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재철	
1990. 11. 18.	마 20:17~28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재철	
1990. 11. 25.	마 20:29~34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재철	
1990. 12. 02.	마 21:1~11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재철	
1990. 12. 09.	마 21:12~17	기도하는 집, 강도의 굴혈	이재철	
1990. 12. 16.	마 21:18~22	다 받으리라	이재철	
1990. 12. 23.	마 21:23~32	먼저 들어가리라	이재철	
1990. 12. 30.	마 21:33~46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재철	
1991. 01. 06.	사 6:8 / 마 21:42~46	모퉁이의 머릿돌	이재철	
1991. 01. 13.	마 21:42~46	모퉁이의 머릿돌 II	이재철	
1991. 01. 20.	마 21:42~46	모퉁이의 머릿돌 III	이재철	
1991. 01. 27.	마 21:42~22:14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재철	
1991. 02. 03.	마 22:1~14	택함을 입은 자 II	이재철	
1991. 02. 10.	마 22:1~14	택함을 입은 자 III	이재철	
1991. 02. 17.	마 22:15~22	외식하는 자들아	이재철	
1991. 02. 24.	마 22:15~22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재철	
1991. 03. 03.	마 22:23~33	산 자의 하나님	이재철	
1991. 03. 10.	마 22:23~33	우리가 놀라더라	이재철	
1991. 03. 17.	마 22:34~40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재철	
1991. 03. 24.	마 22:34~40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재철	
1991. 03. 31.	마 22:41~46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철	
1991. 04. 07.	마 23:1~12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재철	
1991. 04. 14.	마 23:13~15	화 있을진저 I	이재철	
1991. 04. 21.	마 23:16~22	화 있을진저 II	이재철	
1991. 04. 28.	마 23:23~24	화 있을진저 III	이재철	
1991. 05. 05.	마 23:25~28	화 있을진저 IV	이재철	
1991. 05. 12.	마 23:29~36	화 있을진저 V	이재철	
1991. 05. 19.	마 23:37~24:2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재철	
1991. 05. 26.	마 24:1~14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1. 06. 02.	마 24:15~51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재철	
1991. 06. 09.	마 24:15~22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재철	
1991. 06. 16.	마 24:23~28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재철	
1991. 06. 23.	마 24:29~31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재철	
1991. 06. 30.	마 24:32~47	그 종이 복이 있으리하다	이재철	
1991. 07. 07.	마 24:44~51	술친구로 더불어 마시게 되면	이재철	
1991. 07. 14.	마 25:1~13	보라, 신랑이로다	이재철	
1991. 07. 21.	마 25:14~30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재철	
1991. 07. 28.	마 25:14~30	각각 그 재능대로	이재철	
1991. 08. 04.	마 25:14~30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이재철	
1991. 08. 11.	마 25:31~46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재철	
1991. 08. 18.	마 26:1~16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이재철	
1991. 08. 25.	마 26:6~25	내나이까?	이재철	
1991. 09. 01.	마 26:17~29	무교절의 첫날에	이재철	
1991. 09. 08.	마 26:30~35	다 나를 버리리라	이재철	
1991. 09. 15.	마 26:36~46	원대로 하옵소서	이재철	
1991. 09. 22.	마 26:36~46	함께 가자	이재철	
1991. 09. 29.	마 26:36~46	이제는 자고 쉬라	이재철	
1991. 10. 06.	마 26:47~56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재철	
1991. 10. 13.	마 26:47~56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재철	
1991. 10. 20.	마 26:57~68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재철	
1991. 10. 27.	마 26:57~75	심히 통곡하니라	이재철	
1991. 11. 03.	마 27:1~10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재철	
1991. 11. 10.	마 27:11~26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이재철	
1991. 11. 17.	마 27:27~36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이재철	
1991. 11. 24.	마 27:37~50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재철	
1991. 12. 01.	마 27:45~50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재철	
1991. 12. 08.	마 27:46~54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이재철	
1991. 12. 15.	마 27:46~54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재철	
1991. 12. 22.	마 27:46~54	백부장과 밧 함께 지키던 자들	이재철	
1991. 12. 29.	마 27:46~56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이재철	
1992. 01. 05.	마 27:57~61	자기 새무덤에	이재철	
1992. 01. 12.	마 27:62~66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재철	
1992. 01. 19.	마 28:1~10	말씀하시던 대로	이재철	
1992. 01. 26.	마 28:1~10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재철	
1992. 02. 02.	마 28:1~10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재철	
1992. 02. 09.	마 28:1~10	와서 보라, 가서 이르라	이재철	
1992. 02. 16.	마 28:1~10	달음질할새	이재철	
1992. 02. 23.	마 28:1~10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2. 03. 01.	마 28:1~10	내 형제들에게	이재철	
1992. 03. 08.	마 28:1~10	다른 마리아	이재철	
1992. 03. 15.	마 28:1~10	평안하노	이재철	
1992. 03. 22.	마 28:1~10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이재철	
1992. 03. 29.	마 28:11~15	여자들이 갈제	이재철	
1992. 04. 05.	마 28:11~15	군병들이 돈을 받고	이재철	
1992. 04. 12.	마 28:16~17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재철	
1992. 04. 19.	마 28:18~20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재철	
1992. 04. 26.	요 1:1~3	그가 없이는	이재철	
1992. 05. 03.	요 1: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재철	
1992. 05. 10.	요 1:1~5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재철	
1992. 05. 17.	요 1:6~8	믿게 하려 함이라	이재철	
1992. 05. 24.	요 1:9~13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재철	
1992. 06. 07.	요 1:14~18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재철	
1992. 06. 14.	요 1:19~34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재철	
1992. 06. 21.	요 1:35~42	게바라 하리라	이재철	
1992. 06. 28.	요 1:35~51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재철	
1992. 07. 05.	요 2:1~11	처음 표적 I	이재철	
1992. 07. 12.	요 2:1~11	처음 표적 II	이재철	
1992. 07. 19.	요 2:1~11	처음 표적 III	이재철	
1992. 07. 26.	요 2:1~12	그 어머니	이재철	
1992. 08. 02.	요 2:13~22	성전 된 자기 육체	이재철	
1992. 08. 09.	요 2:13~25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재철	
1992. 08. 16.	요 3:1~2	그가 밤에 와서	이재철	
1992. 08. 23.	요 3:1~3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재철	
1992. 08. 30.	요 3:1~3	거듭나지 아니하면 II	이재철	
1992. 09. 06.	요 3:1~5	물과 성령으로	이재철	
1992. 09. 13.	요 3:1~13	성령으로 난 것은	이재철	
1992. 09. 20.	요 3:1~15	저를 믿는 자마다	이재철	
1992. 09. 27.	요 3:16	이처럼 사랑하사	이재철	
1992. 10. 04.	요 3:17~21	저로 말미암아	이재철	
1992. 10. 11.	요 3:22~30	그는 흥하여야	이재철	
1992. 10. 18.	요 3:31~36	아들을 믿는 자는	이재철	
1992. 10. 25.	요 4:1~2	천히 주신 것이 아니요	이재철	
1992. 11. 01.	요 4:3~26	내가 그로라	이재철	
1992. 11. 08.	요 4:19~26	신령과 진정으로	이재철	
1992. 11. 15.	요 4:27~42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이재철	
1992. 11. 22.	요 4:31~38	나의 양식은	이재철	
1992. 11. 29.	요 4:35~38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2. 12. 06.	요 4:39~42	우리가 친히 듣고	이재철	
1992. 12. 13.	요 4:43~54	믿지 아니하리라	이재철	
1992. 12. 20.	요 5:1~9	오랜 줄 아시고	이재철	
1992. 12. 27.	요 5:9~15	알지 못하니	이재철	
1993. 01. 03.	요 5:9~15	죄를 범치 말라	이재철	
1993. 01. 10.	요 5:9~15	다시는	이재철	
1993. 01. 17.	요 5:9~18	그 사람이 누구냐	이재철	
1993. 01. 24.	요 5:15~20	친아버지라	이재철	
1993. 01. 31.	요 5:21~29	생명의 부활로	이재철	
1993. 02. 07.	요 5:30	보내신 이의 원대로	이재철	
1993. 02. 14.	요 5:31~37a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이재철	
1993. 02. 21.	요 5:36~40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이재철	
1993. 02. 28.	요 5:41~47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재철	
1993. 03. 07.	요 6:1~2	그 후에	이재철	
1993. 03. 14.	요 6:1~2	큰 무리가 따르니	이재철	
1993. 03. 21.	요 6:3~13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재철	
1993. 03. 28.	요 6:3~13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이재철	
1993. 04. 04.	요 6:3~13	얹게 하라 하신대	이재철	
1993. 04. 11.	요 6:14~15	다시 혼자	이재철	
1993. 04. 18.	요 6:14~15	역지로 잡아	이재철	
1993. 04. 25.	요 6:14~15	산으로 가시니라	이재철	
1993. 05. 02.	요 6:16~21	내니 두려워 말라	이재철	
1993. 05. 09.	요 6:16~21	가려던 땅에	이재철	
1993. 05. 16.	요 6:22~27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재철	
1993. 05. 23.	요 6:28~40	하나님의 일	이재철	
1993. 05. 30.	요 6:41~48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재철	
1993. 06. 06.	요 6:41~48	이끌지 아니하면	이재철	
1993. 06. 13.	요 6:47~50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재철	
1993. 06. 20.	요 6:51~59	내 살과 내 피	이재철	
1993. 06. 27.	요 6:60~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재철	
1993. 07. 04.	요 6:60~71	너희도 가려느냐	이재철	
1993. 07. 11.	요 7:1~13	내 때는	이재철	
1993. 07. 18.	요 7:14~18	불의가 없느니라	이재철	
1993. 07. 25.	요 7:19~24	외모로 말고	이재철	
1993. 08. 01.	요 7:25~36	오지도 못하리라	이재철	
1993. 08. 08.	요 7:37~52	생수의 강	이재철	
1993. 08. 15.	요 7:40~52	그중에 한 사람	이재철	
1993. 08. 22.	요 7:53~8:1	감람산으로	이재철	
1993. 08. 29.	요 8:2	가르치시더니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3. 09. 05.	요 8:3~9	현장에서	이재철	
1993. 09. 12.	요 8:3~9	가운데 섰는 여자	이재철	
1993. 09. 19.	요 8:10~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재철	
1993. 09. 26.	요 8:13~20	연보궐 앞에서	이재철	
1993. 10. 03.	요 8:21~25	말하여 온 자	이재철	
1993. 10. 10.	요 8:26~30	사람이 믿더라	이재철	
1993. 10. 17.	요 8:31~32	자유케 하리라	이재철	
1993. 10. 24.	요 8:33~37	아들이 자유케 하면	이재철	
1993. 10. 31.	요 8:37~44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재철	
1993. 11. 07.	요 8:45~51	내 말을 지키면	이재철	
1993. 11. 14.	요 8:52~59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재철	
1993. 11. 21.	요 8:52~59	오심도 못 되었는데	이재철	
1993. 11. 28.	요 8:56~9:5	내가 있느니라	이재철	
1993. 12. 05.	요 9:1~7	밝은 눈으로	이재철	
1993. 12. 12.	요 9:6~12	진흙을 이겨	이재철	
1993. 12. 19.	요 9:13~25	지금 보는 그것	이재철	
1993. 12. 26.	요 9:18~25	저에게 물어보시오	이재철	
1994. 01. 02.	요 9:26~34	하나님께로부터	이재철	
1994. 01. 09.	눅 5:1~11	예수님의 관심	이재철	
1994. 01. 16.	눅 10:21~24	예수님의 기쁨	이재철	
1994. 01. 23.	눅 23:39~43	예수님의 아멘	이재철	
1994. 01. 30.	요 9:35~41	그를 만나사	이재철	
1994. 02. 06.	요 9:35~41	네가 믿느냐	이재철	
1994. 02. 13.	요 9:39~41	본다고 하니	이재철	
1994. 02. 20.	요 10:1~6	양의 목자라	이재철	
1994. 02. 27.	요 10:1~6	이름을 각각 불러	이재철	
1994. 03. 06.	요 10:1~9	나는 양의 문이라	이재철	
1994. 03. 13.	요 10:1~9	구원을 얻고	이재철	
1994. 03. 20.	요 10:1~9	들어가며 나오며	이재철	
1994. 03. 27.	요 10:1~15	목숨을 버리노라	이재철	
1994. 04. 03.	요 10:10	생명을 더 풍성히	이재철	
1994. 04. 10.	요 10:11~18	얻기 위하여 버림이라	이재철	
1994. 04. 17.	요 10:14~18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	이재철	
1994. 04. 24.	요 10:14~18	한 무리가 되어	이재철	
1994. 05. 01.	요 10:19~21	눈 뜨게 할 수 있느냐	이재철	
1994. 05. 08.	엡 6:1~3	주 안에서의 효도	이재철	
1994. 05. 15.	요 10:22~27	솔로몬 행각에서	이재철	
1994. 05. 22.	막 1:9~11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재철	
1994. 05. 29.	막 1:12~13	성령과 사탄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4. 06. 05.	요 10:22~27	수전절이 이르니	이재철	
1994. 06. 12.	요 10:22~27	듣고 알고 따르느니라	이재철	
1994. 06. 19.	요 10:22~27	행하는 일들이	이재철	
1994. 06. 26.	요 10:28~29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재철	
1994. 07. 03.	요 10:28~39	신이라 하셨거든	이재철	
1994. 07. 10.	요 10:28~39	너희 율법	이재철	
1994. 07. 17.	요 10:28~39	그 손에서 벗어나	이재철	
1994. 07. 24.	마 5:43~48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재철	
1994. 07. 31.	마 11:25~30	도덕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이재철	
1994. 08. 07.	마 7:21~27	기독교와 현대사회	이재철	
1994. 08. 14.	마 6:25~34	하늘나라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재철	
1994. 08. 21.	요 10:40~42	처음 세례 주던 곳	이재철	
1994. 08. 28.	요 10:40~42	예수를 믿으니라	이재철	
1994. 09. 04.	요 10:40~42	다 참아라	이재철	
1994. 09. 11.	요 11:1~4	하나님의 영광	이재철	
1994. 09. 18.	요 11:1~8	이름을 더 유하시고	이재철	
1994. 09. 25.	수 1:5~9	넘치는 사랑	안요한	
1994. 10. 02.	사 55:8~9	하나님의 또다른 뜻	안요한	
1994. 10. 09.	합 3:17~19	왜로부터 비록으로	안요한	
1994. 10. 16.	마 25:31~46	그리스도적 행동	안요한	
1994. 10. 23.	요 11:1~8	또 가시려나йка	이재철	
1994. 10. 30.	요 11:5~10	실족치 아니하고	이재철	
1994. 11. 06.	요 11:7~10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이재철	
1994. 11. 13.	요 11:11~16	죽으러 가자	이재철	
1994. 11. 20.	요 11:11~16	깨우러 가노라	이재철	
1994. 11. 27.	계 2:8~11	실상은 부요한 자	이인호	
1994. 12. 04.	눅 5:1~11	깊은 데로 가라	이동규	
1994. 12. 11.	롬 13:8~10	모르는 착하시며	김화수	
1994. 12. 18.	고전 4:1~2	그리스도의 일꾼	금상호	
1994. 12. 25.	눅 2:8~14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인호	
1995. 01. 01.	레 25:8~12	자유를 공포하라	이재철	
1995. 01. 08.	요 11:17~20	위문하러 왔더니	이재철	
1995. 01. 15.	요 11:21~27	내가 믿나이다	이재철	
1995. 01. 22.	요 11:21~27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재철	
1995. 01. 29.	요 11:28~39	통분히 여기사	이재철	
1995. 02. 05.	요 11:38~42	네가 믿으면	이재철	
1995. 02. 12.	요 11:40~42	우리를 위함이니	이재철	
1995. 02. 19.	요 11:43~44	풀어 다니게 하라	이재철	
1995. 02. 26.	요 11:45~53	어떻게 하겠느냐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5. 03. 05.	요 11:47-53	한 사람이 죽어서	이재철	
1995. 03. 12.	요 11:54	제자들과 함께	이재철	
1995. 03. 19.	요 11:54	빈들 가까운 곳	이재철	
1995. 03. 26.	요 11:55-57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재철	
1995. 04. 02.	요 12:1~8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재철	
1995. 04. 09.	요 12:9~19	온 세상이 좇는도다	이재철	
1995. 04. 16.	요 12:12-19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재철	
1995. 04. 23.	요 12:12-19	보라 온 세상이	이재철	
1995. 04. 30.	요 12:20~23	안드레와 빌립이	이재철	
1995. 05. 07.	요 12:20~25	죽으면	이재철	
1995. 05. 14.	요 12:23~26	거기 있으리니	이재철	
1995. 05. 21.	요 12:27~33	땅에서 들리면	이재철	
1995. 05. 28.	사 30:18~26	1부 아! 주님이셨군요	김화수	
	요 20:19~29	2부 도마의 신앙고백	금상호	
	빌 2:5~11	3부 너희 안에	이동규	
1995. 06. 04.	요 12:34~36	빛이 있을 동안에	이재철	
1995. 06. 11.	요 12:37~43	주의 영광을 보고	이재철	
1995. 06. 18.	요 12:37~43	사람의 영광을	이재철	
1995. 06. 25.	요 12:44~46	빛으로 왔나니	이재철	
1995. 07. 02.	요 12:44~50	외쳐 가라사대 I	이재철	
1995. 07. 09.	요 12:44~50	외쳐 가라사대 II	이재철	
1995. 07. 16.	요 12:44~50	외쳐 가라사대 III	이재철	
1995. 07. 23.	요 12:44~50	외쳐 가라사대 IV	이재철	
1995. 07. 30.	행 9:31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금상호	
1995. 08. 06.	요 13:1~2	자기 사람들	이재철	
1995. 08. 13.	요 13:1~2	끝까지	이재철	
1995. 08. 20.	요 13:2	가룟 유다의 마음	이재철	
1995. 08. 27.	요 13:2	시몬의 아들	이재철	
1995. 09. 03.	요 13:3~11	예수는 아시고	이재철	
1995. 09. 10.	요 13:3~17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재철	
1995. 09. 17.	요 13:3~7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재철	
1995. 09. 24.	요 13:3~17	행한 것을 아느냐	이재철	
1995. 10. 01.	요 13:18~20	나의 택한 자들	이재철	
1995. 10. 08.	요 13:18~30	밤이러라	이재철	
1995. 10. 15.	요 13:31~35	서로 사랑하면	이재철	
1995. 10. 22.	요 13:31~35	곧 주시리라	이재철	
1995. 10. 29.	요 13:34~38	내가 사랑한 것같이	이재철	
1995. 11. 05.	요 14:1~3	나를 믿으라	이재철	
1995. 11. 12.	요 14:1~6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5. 11. 19.	요 14:7~11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재철	
1995. 11. 26.	요 14:7~11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이재철	
1995. 12. 03.	요 14:12~14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재철	
1995. 12. 10.	요 14:15~21	나를 사랑하면	이재철	
1995. 12. 17.	롬 13:8~10	완성이니라	이동규	
1995. 12. 24.	요 14:15~21	내가 너희 안에	이재철	
1995. 12. 31.	요 14:15~21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재철	
1996. 01. 07.	요 14:15~26	진리의 영이라	이재철	
1996. 01. 14.	요 14:25~27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재철	
1996. 01. 21.	요 14:28~31	말을 많이 많으리니	이재철	
1996. 01. 28.	요 14:28~31	나보다 크심이니이다	이재철	
1996. 02. 04.	요 15:1~8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재철	
1996. 02. 11.	요 15:1~8	내 안에 거하라	이재철	
1996. 02. 18.	요 15:1~8	영광 받으실 것이요	이재철	
1996. 02. 25.	요 15:1~17	나의 친구라	이재철	
1996. 03. 03.	요 15:16~17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이재철	
1996. 03. 10.	요 15:16~17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재철	
1996. 03. 17.	요 15:18~27	세상이 미워하면	이재철	
1996. 03. 24.	요 16:1~4	기억나게 함이요	이재철	
1996. 03. 31.	요 16:5~6	묻는 자가 없고	이재철	
1996. 04. 07.	요 16:5~24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재철	
1996. 04. 14.	요 16:7~15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이재철	
1996. 04. 21.	요 16:7~15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재철	
1996. 04. 28.	요 16:7~15	책임하시리라	이재철	
1996. 05. 05.	요 16:7~15	죄라 함은	이재철	
1996. 05. 12.	요 16:7~15	의라 함은	이재철	
1996. 05. 19.	요 16:7~15	심판이라 함은	이재철	
1996. 05. 26.	고후 5:17	새로운 피조물	장경철	
1996. 06. 02.	요 16:7~15	지금은 감당치	이재철	
1996. 06. 09.	요 16:7~15	진리 가운데로	이재철	
1996. 06. 16.	요 16:7~15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재철	
1996. 06. 23.	요 16:7~15	장래 일을	이재철	
1996. 06. 30.	요 16:7~15	내 영광을	이재철	
1996. 07. 07.	요 16:7~15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재철	
1996. 07. 14.	요 16:7~15	다 내 것이라	이재철	
1996. 07. 21.	요 16:16~24	다시 보리니	이재철	
1996. 07. 28.	요 16:16~24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재철	
1996. 08. 04.	요 16:25~33	너희가 구할 것이요	이재철	
1996. 08. 11.	요 16:25~33	나를 혼자 들 때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6. 08. 18.	요 16:25~33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재철	
1996. 08. 25.	요 16:25~33	내가 이기었노라	이재철	
1996. 09. 01.	요 17:1~5	눈을 들어	이재철	
1996. 09. 08.	요 17:1~5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재철	
1996. 09. 15.	요 17:1~5	영생은 아는 것	이재철	
1996. 09. 22.	요 17:6~8	내게 주신 사람들	이재철	
1996. 09. 29.	요 17:1~5	아버지의 이름을	이재철	
1996. 10. 06.	요 17:6~9	주신 말씀들을	이재철	
1996. 10. 13.	요 17:6~12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재철	
1996. 10. 20.	요 17:9~19	보전하시기를	이재철	
1996. 10. 27.	요 17:9~21	그들도 위함이니	이재철	
1996. 11. 03.	요 17:9~21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재철	
1996. 11. 10.	요 17:13~21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재철	
1996. 11. 17.	요 17:17~23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재철	
1996. 11. 24.	요 17:20~26	세상으로 알게 하려	이재철	
1996. 12. 01.	요 17:20~26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재철	
1996. 12. 08.	요 17:20~26	창세 전부터	이재철	
1996. 12. 15.	요 18:1~11	기드론 저편으로	이재철	
1996. 12. 22.	요 18:1~11	자주 모이시는 곳	이재철	
1996. 12. 29.	요 18:1~11	알더라, 아시고	이재철	
1997. 01. 05.	요 18:1~11	앞드러지는지라	이재철	
1997. 01. 12.	요 18:1~11	하나도	이재철	
1997. 01. 19.	요 18:1~11	그 종의 이름은	이재철	
1997. 01. 26.	요 18:1~14	한 사람	이재철	
1997. 02. 02.	요 18:15~27	또 다른 제자	이재철	
1997. 02. 09.	요 18:15~27	몰아내신지라	이재철	
1997. 02. 16.	요 18:15~27	곧 닭이 울더라	이재철	
1997. 02. 23.	요 18:15~27	서서 불을 쬐더니	이재철	
1997. 03. 02.	요 18:28~32	말씀을 응하게	이재철	
1997. 03. 09.	요 18:28~38a	내 나라는	이재철	
1997. 03. 16.	요 18:28~38a	무엇을 하였느냐?	이재철	
1997. 03. 23.	요 18:38b~19:3	채찍질하더라	이재철	
1997. 03. 30.	요 18:38b~19:7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재철	
1997. 04. 06.	요 18:38b~19:7	바라바라하니	이재철	
1997. 04. 13.	요 18:38b~19:16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재철	
1997. 04. 20.	단 12:5~13	기다리는 사람들 I	장홍길	
1997. 04. 27.	요 19:7~16	위에서	이재철	
1997. 05. 04.	요 19:7~16	더 크니라	이재철	
1997. 05. 18.	요 19:12~22	유대인의 왕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7. 05. 25.	요 19:17~22	해골이라는 곳	이재철	
1997. 06. 01.	요 19:23~30	각각 얻고	이재철	
1997. 06. 08.	요 19:23~30	여자여 보소서	이재철	
1997. 06. 15.	요 19:23~30	네 어머니라	이재철	
1997. 06. 22.	요 19:23~30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재철	
1997. 06. 29.	요 19:23~30	내가 목마르다	이재철	
1997. 07. 06.	요 19:23~30	다 이루었다	이재철	
1997. 07. 13.	요 19:23~30	돌아가시니라	이재철	
1997. 07. 20.	요 19:31~42	성경을 응하게	이재철	
1997. 07. 27.	요 19:31~42	시체를 구하매	이재철	
1997. 08. 03.	요 20:1~18	안식 후 첫날	이재철	
1997. 08. 10.	엡 3:14~21	1부 믿음의 사랑	김화수	
	창 2:10~14	2부 네 근원	안사무엘	
	고후 12:1~10	3부 약할 그 때에	강정호	
1997. 08. 17.	요 20:1~18	막달라 마리아	이재철	
1997. 08. 24.	요 20:1~18	개켜 있더라	이재철	
1997. 08. 31.	요 20:1~18	돌아가니라	이재철	
1997. 09. 07.	합 3:17~19a	없을지라도	이재철	
1997. 09. 14.	요 20:1~18	울고 있더니	이재철	
1997. 09. 21.	요 20:1~18	시체 누웠던 곳	이재철	
1997. 09. 28.	요 20:1~18	만지지 말라	이재철	
1997. 10. 05.	요 20:1~18	1~3부 내가 주를 보았다	이재철	
	창 50:15~21	4부 믿음-약속	이재철	
1997. 10. 12.	요 20:1~18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재철	
1997. 10. 19.	요 20:19~23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재철	
1997. 10. 26.	요 20:19~23	너희를 보내노라	이재철, 김효숙	
1997. 11. 02.	요 20:19~23	나를 보내신 것같이	이재철	
1997. 11. 09.	창 29:14	1부 라반의 두 얼굴	신철범	
	행 27:22~26	2부 약속 그리고 그 이후	김화수	
	고전 10:12	3부 선 줄로 생각하는 자	안사무엘	
1997. 11. 16.	요 20:19~23	숨을 내쉬며	이재철	
1997. 11. 23.	요 20:19~23	누 죄든지	이재철	
1997. 11. 30.	요 20:24~29	내 손과 옆구리	이재철	
1997. 12. 07.	요 20:24~29	우리가 보았노라	이재철	
1997. 12. 14.	요 20:24~29	믿는 자가 되라	이재철	
1997. 12. 21.	요 20:24~29	넣어보라	이재철	
1997. 12. 28.	요 20:24~29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재철	
1998. 01. 04.	요 20:24~29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재철	
1998. 01. 11.	요 20:30~31	기록함은	이재철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8. 01. 18.	요 20:30~31	생명을 얻게	이재철	
1998. 01. 25.	요 21:1~15	또 나타내셨으니	이재철	
1998. 02. 01.	요 21:1~14	우리도 가겠다	이재철	
1998. 02. 08.	요 21:1~14	고기가 있느냐?	이재철	
1998. 03. 15.	요 21:1~14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재철	
1998. 03. 22.	요 21:1~14	조반을 먹어라	이재철	
1998. 03. 29.	요 21:1~14	묻는 자가 없더라	이재철	
1998. 04. 05.	요 21:1~14	죽은 자 가운데서	이재철	
1998. 04. 12.	요 21:12~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재철	
1998. 04. 19.	요 21:15~17	나를 사랑하느냐? I	이재철	
1998. 04. 26.	요 21:15~17	나를 사랑하느냐? II	이재철	
1998. 05. 03.	시 144:12~15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재철	
1998. 05. 10.	요 21:15~17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재철	
1998. 05. 17.	요 21:15~17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양	이재철	
1998. 05. 24.	요 21:15~17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재철	
1998. 05. 31.	요 21:18~24	죽음으로 영광을	이재철	
1998. 06. 07.	요 21:18~24	너는 나를 따르라	이재철	
1998. 06. 14.	요 21:18~24	하신 것이 아니라	이재철	
1998. 06. 21.	요 21:25	부족할 줄 아노라	이재철	
1998. 06. 28.	렘 29:10~14	우리와 다른 하나님	임영수	
1998. 07. 05.	벧전 3:15~16	기독교 영성	임영수	
1998. 07. 12.	시 23:1~6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임영수	
1998. 07. 19.	고후 5:16~21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임영수	
1998. 07. 26.	마 13:1~9	하나님 나라의 위기	임영수	
1998. 08. 02.	시 1:1~6	인간의 길	임영수	
1998. 08. 09.	마 11:25~30	구원의 현실성	임영수	
1998. 08. 16.	막 8:34~38	자기 부인의 삶	임영수	
1998. 08. 23.	요 16:5~11	보혜사 성령	임영수	
1998. 08. 30.	행 2:37~47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공동체	임영수	
1998. 09. 06.	고전 14:15	대화로서의 기도	임영수	
1998. 09. 13.	막 2:1~12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	임영수	
1998. 09. 20.	눅 16:19~31	영원을 향한 삶	임영수	
1998. 09. 27.	행13:16~23	1부 내 마음에 합한 사랑	노영한	
	요일 4:7~12	2~4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임영수	
1998. 10. 04.	롬 5:12~21	제 이 아담 그리스도	임영수	
1998. 10. 11.	마 20:1~16	모든 이를 위한 자리	임영수	
1998. 10. 18.	시 107:1~9	구원받은 자의 노래	임영수	
1998. 10. 25.	마 23:23~28	경계해야 할 바리새인의 누룩	임영수	
1998. 11. 01.	막 11:15~19	만인의 기도하는 집	임영수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8. 11. 08.	롬 12:1~8	산 제물로서 예배	임영수	
1998. 11. 15.	딤후 4:9~22	겨울이 오기 전에—인생의 가을	임영수	
1998. 11. 22.	전 12:1~8	인생의 겨울	임영수	
1998. 11. 29.	창 9:8~17 / 계 21:1~8	혼돈의 대지 위에 무지개	임영수	
1998. 12. 06.	마 25:14~30	기다리는 자의 삶	임영수	
1998. 12. 13.	롬 13:11~14	대강절의 묵상	임영수	
1998. 12. 20.	눅 2:1~14	첫번 크리스마스	임영수	
1998. 12. 27.	눅 15:15~24	성서적 모험	임영수	
1999. 01. 03.	계 21:1~8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있는 교회	임영수	
1999. 01. 10.	마 6:5~13 / 눅 15:20~2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임영수	
1999. 01. 17.	마 6:5~13 / 출 20:1~7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영수	
1999. 01. 24.	마 6:9~13 / 눅 4:16~21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임영수	
1999. 01. 31.	마 6:9~13, 26:36~46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영수	
1999. 02. 07.	마 6:9~13 / 출 16:4, 11~18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임영수	
1999. 02. 14.	마 6:9~13, 18:23~25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임영수	
1999. 02. 21.	마 6:9~13 / 히 4:14~16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임영수	
1999. 02. 28.	출 16:4~16 / 시 78:23~29 / 요 6:47~59	주님의 식탁	임영수	
1999. 03. 07.	마 6:9~13 / 약 4:7~10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임영수	
1999. 03. 14.	마 6:9~13 / 약 1:5~8	나라, 권능, 영광이 영원히	임영수	
1999. 03. 21.	막 8:27~38	십자가의 삶	임영수	
1999. 03. 28.	막 14:3~9	장례를 위한 준비	임영수	
1999. 04. 04.	마 22:23~33 / 요 20:19~29	삶의 완성으로서의 부활	임영수	
1999. 04. 11.	딤후 4:7~13	인생의 봄	임영수	
1999. 04. 18.	골 3:1~4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삶	임영수	
1999. 04. 25.	출 32:30~35 / 골 3:5~14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임영수	
1999. 05. 02.	잠 9:1~12	지혜의 초청	임영수	
1999. 05. 09.	엡 5:22~6:4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임영수	
1999. 05. 16.	요 15:1~8	인생의 여름	임영수	
1999. 05. 23.	갈 5:16~24	생명의 영	임영수	
1999. 05. 30.	빌 4:10~20	자족의 비결	임영수	
1999. 06. 06.	빌 4:8~9	긍정으로 향하는 삶	임영수	
1999. 06. 13.	마 22:1~14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임영수	
1999. 06. 20.	시 11:1~7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임영수	
1999. 06. 27.	에 4:1~14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임영수	
1999. 07. 04.	마 23:25~28	겉사람과 속사람	임영수	
1999. 07. 11.	엡 3:14~21	강건한 속사람	임영수	
1999. 07. 18.	막 6:30~44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임영수	
1999. 07. 25.	눅 10:25~37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임영수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1999. 08. 01.	히 11:1~7	믿음의 의미	임영수	
1999. 08. 08.	약 2:14~26	믿음과 행함	임영수	
1999. 08. 15.	갈 5:13~15	자유애로의 부름	임영수	
1999. 08. 22.	눅 9:57~62	제자로서의 신분	임영수	
1999. 08. 29.	눅 14:25~35	제자의 길	임영수	
1999. 09. 05.	마 28:16~20	제자를 삼으라	임영수	
1999. 09. 12.	마 5:1~3, 19:16~22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임영수	
1999. 09. 19.	마 5:1~4 / 사 61:1~3	애통과 위로	임영수	
1999. 09. 26.	마 5:1~5 / 눅 9:9~10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삶	임영수	
1999. 10. 03.	마 5:1~6 / 사 42:1~4	은혜에 목마른 자들	임영수	
1999. 10. 10.	마 5:1~7 / 마 6:6~8	정의를 능가하는 자들	임영수	
1999. 10. 17.	마 5:1~8 / 시 24:3~6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임영수	
1999. 10. 24.	마 5:1~9 / 사 11:6~9	화평케 하는 자들	임영수	
1999. 10. 31.	마 5:1~12	항상 충성하는 자들	임영수	
1999. 11. 07.	엡 5:15~21	세월을 아끼라	임영수	
1999. 11. 14.	마 25:1~13	준비되지 않은 자의 운명	임영수	
1999. 11. 21.	눅 17:11~19	감사의 귀함	임영수	
1999. 11. 28.	사 11:1~9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하게 하라	임영수	
1999. 12. 05.	요 14:1~6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임영수	
1999. 12. 12.	빌 2:1~11	종으로 오신 하나님	임영수	
1999. 12. 19.	벧후 3:8~13 / 시 90:1~4	천년과 하루	임영수	
1999. 12. 26.	눅 13:6~9	하나님의 유예	임영수	
2000. 01. 02.	막 2:18~22	새것을 새것으로	임영수	
2000. 01. 09.	히 12:1~4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임영수	
2000. 01. 16.	창 1:1~5, 2:1~3	태초에 생긴 일	임영수	
2000. 01. 23.	창 2:4~17	에덴에 있는 인간	임영수	
2000. 01. 30.	창 3:1~10, 22~24	에덴을 떠나는 인간	임영수	
2000. 02. 06.	눅 12:22~34	자유로운 삶	유해룡	
2000. 02. 13.	요 13:1~17	이렇게 삼시다	유해룡	
2000. 02. 20.	창 4:1~15	첫 번째 살인	임영수	
2000. 02. 27.	창 9:8~17 / 계 21:1~8	혼돈의 대지 위에 무지개 II	임영수	
2000. 03. 05.	창 11:1~9	환영(幻影)에 사로잡힌 사람들	임영수	
2000. 03. 12.	창 12:1~9	아브라함의 부름	임영수	
2000. 03. 19.	창 12:10~20	위기에 처한 족장의 어머니	임영수	
2000. 03. 26.	창 22:1~14	아브라함의 시험	임영수	
2000. 04. 02.	창 25:1~11	아브라함의 유산	임영수	
2000. 04. 09.	딤후 4:6~8	영적 성장의 길	임영수	
2000. 04. 16.	막 11:12~25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임영수	
2000. 04. 23.	요 20:19~29	새로 열린 역사의 지평	임영수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0. 04. 30.	행 1:4~11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임영수	
2000. 05. 07.	잠 22:1~12	재물보다 더 귀한 것	임영수	
2000. 05. 14.	막 9:21~24	나(우리)는 믿습니다-아멘	임영수	
2000. 05. 21.	출 3:13~16 / 시 23:1~6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영수	
2000. 05. 28.	요일 4:7~15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영수	
2000. 06. 04.	시 104:24~31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임영수	
2000. 06. 11.	마 16:13~20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임영수	
2000. 06. 18.	눅 1:26~38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임영수	
2000. 06. 25.	눅 23:13~25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임영수	
2000. 07. 02.	사 53:4~9 / 고전 1:21~25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임영수	
2000. 07. 09.	눅 10:29~37	선한 사마리아인	이상현	
2000. 07. 16.	고전 15:1~11	사흘 만에—다시 살아나셔서	임영수	
2000. 07. 23.	행 1:6~10 / 히 8:1~6	하늘에 오르사—십판하러 오시리라	임영수	
2000. 07. 30.	행 2:1~13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임영수	
2000. 08. 06.	엡 4:1~6	거룩한 공교회	임영수	
2000. 08. 13.	행 2:43~47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임영수	
2000. 08. 20.	고후 5:14~19	죄를 사함받는 것	임영수	
2000. 08. 27.	골 3:1~4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임영수	
2000. 09. 03.	창 24:12~27	사소한 것의 섭리	임영수	
2000. 09. 10.	약 3:1~12	작으나 강력한 것	임영수	
2000. 09. 17.	히 4:11~13	말씀의 위력	임영수	
2000. 09. 24.	창 32:23~32	생의 어두운 밤	임영수	
2000. 10. 01.	막 12:38~44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임영수	
2000. 10. 08.	갈 6:1~10	무엇으로 심든지	임영수	
2000. 10. 15.	요 5:1~13	오직 당신의 뜻만이	임영수	
2000. 10. 22.	미 6:1~8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임영수	
2000. 10. 29.	롬 10:1~15	잘못된 열심	임영수	
2000. 11. 05.	빌 4:4~7	항상 기뻐하라	임영수	
2000. 11. 12.	빌 4:1~10	자족의 비결	임영수	
2000. 11. 19.	시 136:1~14	은혜의 회상	임영수	
2000. 11. 26.	시 40:27~31	여호와를 앙망하라	임영수	
2000. 12. 03.	사 9:1~7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임영수	
2000. 12. 10.	눅 2:25~35	실현된 꿈	임영수	
2000. 12. 17.	롬 15:1~13	서로 받으라	임영수	
2000. 12. 24.	창 6:5~22	기다리는 자의 삶	임영수	
2000. 12. 31.	벧전 4:7~1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임영수	
2001. 01. 07.	전 3:1~13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임영수	
2001. 01. 14.	잠 9:1~6, 13~18	두 여인의 초대	임영수	
2001. 01. 21.	창 13:1~13	약속 가운데 있는 삶	임영수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1. 01. 28.	창 18:20~33	소돔을 위한 중보	임영수	
2001. 02. 04.	눅 5:1~11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임영수	
2001. 02. 11.	눅 18:1~8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임영수	
2001. 02. 18.	시 33:1~9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사역	임영수	
2001. 02. 25.	요일 2:12~17	치우친 삶	임영수	
2001. 03. 04.	눅 4:1~13	십자가의 길	임영수	
2001. 03. 11.	사 52:13~53:9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임영수	
2001. 03. 18.	요 9:1~12	고난의 의미	임영수	
2001. 03. 25.	눅 15:11~24	하나님의 마음	이상훈, 김병모	
2001. 04. 01.	창 3:1~12	죽음, 가장 큰 선물	임영수	
2001. 04. 08.	눅 19:28~40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임영수	
2001. 04. 15.	고후 4:16~5:7	덧입는 생	임영수	
2001. 04. 22.	마 28:16~20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영수	
2001. 04. 29.	마 25:31~46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하지 아니한 것	임영수	
2001. 05. 06.	시 128:1~6	복된 가정	임영수	
2001. 05. 13.	고전 13:4~13	위대한 힘, 사랑	임영수	
2001. 05. 20.	롬 12:1~2	변형과 통합	임영수	
2001. 05. 27.	행17:24~31	1·2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이승렬	
	수 3:1~6	3부 언약궤를 매고	강석영	
2001. 06. 03.	시 104:24~35 / 행 2:1~13	생명의 영 — 성령	임영수	
2001. 06. 10.	사 6:1~8	하나님의 부르심	임영수	
2001. 06. 17.	롬 8:18~26	피조물들이 바라는 희망	임영수	
2001. 06. 24.	빌 3:12~16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임영수	
2001. 07. 01.	시 121:1~8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임영수	
2001. 07. 08.	요 3:1~12	위로부터 난 사람	임영수	
2001. 07. 15.	시 23:1~6	של 만한 물가	임영수	
2001. 07. 22.	시 23:1~6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임영수	
2001. 07. 29.	왕하 20:1~7	1·2부 작전타임이 필요한 때	신철범	
	시 57:1~11	3부 광야에서	강정호	
2001. 08. 05.	마 6:19~24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임영수	
2001. 08. 12.	학 1:1~11	거룩한 중심	임영수	
2001. 08. 19.	눅19:41~44	1·2부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강석영	
	삼상6:7~16	3부 뻔세메스로 가는 길	이승렬	
2001. 08. 26.	시 51:5~17	1·2부 상한 심령으로	강정호	
	창 22:1~19	3부 신앙의 새출발	이상훈	
2001. 09. 02.	요 10:7~10	1·2부 생명을 풍성히	이승렬	
	눅 16:1~13	3부 영원한 부자	강석영	
2001. 09. 09.	마 13:1~9	경작과 돌봄	임영수	
2001. 09. 16.	시 11:1~7	터가 무너지면	임영수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1. 09. 23.	딤후 1:12~17	죄인을 향한 은혜	임영수	
2001. 09. 30.	롬 8:31~39	아무것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사랑	임영수	
2001. 10. 07.	마 24:1~14	그리스도의 장래와 세계의 종국	임영수	
2001. 10. 14.	롬 7:18~25	인간의 조건	임영수	
2001. 10. 21.	갈 5:1~6, 13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상현	
2001. 10. 28.	롬 1:16~17	자랑스러운 복음	임영수	
2001. 11. 04.	마 6:25~34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임영수	
2001. 11. 11.	마 11:25~30	쉼을 얻는 길	임영수	
2001. 11. 18.	살전 5:12~22	범사에 감사하라	임영수	
2001. 11. 25.	롬 15:1~3 출 28:15~30	1·2부 주님도 그리하셨습니다 3부 에봇과 흉패를 입을 때	강정호 신철범	
2001. 12. 02.	갈 4:1~7	때가 차매	임영수	
2001. 12. 09.	마 3:1~12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임영수	
2001. 12. 16.	요 1:14~18	말씀이 육신이 되심	임영수	
2001. 12. 23.	벧전 4:7~11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임영수	
2001. 12. 30.	눅 24:13~32 사 6:1~8	1·2부 한 해의 마지막 성찬 3부 참된 예배	이상훈 김병모	
2002. 01. 06.	수 24:14~18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임영수	
2002. 01. 13.	창 32:22~32	브니엘의 새아침	강석영	
2002. 01. 20.	막 8:33~38	자기 부인의 길	임영수	
2002. 01. 27.	고후 5:16~19	새로운 피조물	임영수	
2002. 02. 03.	신 8:1~6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임영수	
2002. 02. 10.	막 9:25~29	실패의 원인	임영수	
2002. 02. 17.	고전 1:18~25	십자가에 대한 묵상	임영수	
2002. 02. 24.	엡 4:12~16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김원재	
2002. 03. 03.	요 12:20~26	역설적 진리	임영수	
2002. 03. 10.	요 13:1~11	십자가의 삶	임영수	
2002. 03. 17.	요 14:1~11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임영수	
2002. 03. 24.	마 25:31~40	사랑의 실천	임영수	
2002. 03. 31.	고전 15:35~44	삶의 변형으로서 부활	임영수	
2002. 04. 07.	눅 24:13~24	석양길에서 만난 그분	임영수	
2002. 04. 14.	히 12:1~3	그리스도를 본받아	임영수	
2002. 04. 21.	마 7:24~27	반석 위에 세운 집	임영수	
2002. 04. 28.	히 10:19~25	온전한 신앙생활	이승렬	
2002. 05. 05.	벧후 1:3~7	완전예로의 도정	임영수	
2002. 05. 12.	벧전 1:13~19	삶의 낮은 틀로부터 해방	임영수	
2002. 05. 19.	딤후 2:11~14	성육신의 능력	임영수	
2002. 05. 26.	시 42:1~5	기억의 은총	김병모	
2002. 06. 02.	갈 6:1~5	짐을 서로 지라	임영수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2. 06. 09.	막 3:1~6	자유와 그 한계	임영수	
2002. 06. 16.	창 18:1~14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임영수	
2002. 06. 23.	히 12:1~2	꿈의 구장	이상훈	
2002. 06. 30.	렘 18:1~6	토기장이의 비유	임영수	
2002. 07. 07.	히 11:1~6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안교성	
2002. 07. 14.	막 14:3~9	예수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일	안교성	
2002. 07. 21.	벧전 4:1~11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	안교성	
2002. 07. 28.	빌 1:27~30	선교의 협력자가 되라	안교성	
2002. 08. 04.	시 28:7~8	여호와는 나의 힘	최재덕	
2002. 08. 11.	엡 5:15~21	빛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	최재덕	
2002. 08. 18.	롬 3:9~26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최재덕	
2002. 08. 25.	롬 8:31~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최재덕	
2002. 09. 01.	마 6:24~34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김지철	
2002. 09. 08.	마 13:44~46	감추인 보화	김지철	
2002. 09. 15.	시 50	감사로 드리는 예배	김지철	
2002. 09. 22.	마 18:10~14	작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김지철	
2002. 09. 29.	눅 13:6~9	증보기도하시는 예수님	김지철	
2002. 10. 06.	고전 3:10~11	지혜로운 건축자	강석영	
2002. 10. 13.	빌 1:1~5	감사와 기쁨	장경철	
2002. 10. 20.	빌 1:6~11	고백과 기도	장경철	
2002. 10. 27.	삼상8:4~9 롬1:16~17	1부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2·3부 오직 믿음으로만	김원재 마틴 브레히트	
2002. 11. 03.	고전 15:9~10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윤철호	
2002. 11. 10.	사 61:1~3 / 눅 4:16~21	하나님 나라의 비전	윤철호	
2002. 11. 17.	시 126:1~6 / 골 3:15~17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국일	
2002. 11. 24.	롬 5:6~11	그리스도인의 자랑	한국일	
2002. 12. 01.	갈 5:16~17 / 고전 2:6~12	신앙의 신비	유해룡	
2002. 12. 08.	눅 4:1~13 / 히 2:18~3:1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유해룡	
2002. 12. 15.	마 2:1~11	그분이 오신다!	김운용	
2002. 12. 22.	요 1:1~14	놀라운 거래	김운용	
2002. 12. 29.	딤후 6:11~21	축복이나 축복의 날들	김운용	
2003. 01. 05.	창 9:8~17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문동학	
2003. 01. 12.	시 23:1~6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문동학	
2003. 01. 19.	눅 22:24~30	나는 너희 가운데 종으로 있노라	문동학	
2003. 01. 26.	눅 9:16	사랑받는 이들의 삶	문동학	
2003. 02. 02.	빌 3:11~14	다시 새롭게	문동학	
2003. 02. 09.	눅 7:11~17	울지 말라!	문동학	
2003. 02. 16.	벧후 1:1~11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문동학	
2003. 02. 23.	막 5:1~20	메트로폴리탄 사람들	문동학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3. 03. 02.	시 133:1~3	아름다운 공동체	문동학	
2003. 03. 09.	눅 5:27~32	레위 파티	문동학	
2003. 03. 16.	창 1:26~28	집중하고 번식하는 교회	문동학	
2003. 03. 23.	요 9:1~3	인간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문동학	
2003. 03. 30.	고전 11:23~26	언약의 역사와 십자가	문동학	
2003. 04. 06.	사 53:1~6	고난받는 종	문동학	
2003. 04. 13.	눅 19:28~40	주님은 평화의 왕	문동학	
2003. 04. 20.	막 5:25~34	다시 찾은 생명@부활	문동학	
2003. 04. 27.	눅 4:18~19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사람	문동학	
2003. 05. 04.	눅 2:41~52	어린 예수와 가정	문동학	
2003. 05. 11.	사 49:14~15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	문동학	
2003. 05. 18.	갈 6:2~5	짐을 서로 지라	문동학	
2003. 05. 25.	마 18:1~4	어린이들의 천국	문동학	
2003. 06. 01.	행 1:1~11	사도행전 29장의 교회	문동학	
2003. 06. 08.	행 1:12~14	성령님을 기다릴 때	문동학	
2003. 06. 15.	행 1:15~26	사도적 지도자	문동학	
2003. 06. 22.	행 2:1~13	성령님께서 임하시다	문동학	
2003. 06. 29.	마 16:13~24	주님의 교회	이재철	
2003. 07. 06.	행 2:12~15	사도적 지도자의 도전	문동학	
2003. 07. 13.	행 2:16~21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문동학	
2003. 07. 20.	행 2:22~36	하나님께서 주를 높이시다	문동학	
2003. 07. 27.	호 6:1~6	하나님을 아는 것	김원재	
2003. 08. 03.	미 6:6~8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김원재	
2003. 08. 10.	요 8:31~36	진리 안에서의 자유	김원재	
2003. 08. 17.	요 6:38~40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문동학	
2003. 08. 24.	수 1:1~9	두려워하지 말라!	문동학	
2003. 08. 31.	삼상 12:1~5	의로운 왕이 되라!	문동학	
2003. 09. 07.	행 2:37~41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문동학	
2003. 09. 14.	행 2:42~47	주님의 교회, 사도적 교회	문동학	
2003. 09. 21.	행 3:1~10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문동학	
2003. 09. 28.	행 3:11~26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문동학	
2003. 10. 05.	행 4:1~22	오직 그 이름밖에는 없다!	문동학	
2003. 10. 12.	행 4:23~31	사도들아, 이렇게 기도하라!	문동학	
2003. 10. 19.	행 4:32~37 / 요 6:1~21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다	문동학	
2003. 10. 26.	행 5:1~11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동학	
2003. 11. 02.	히 13:12~13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문동학	
2003. 11. 09.	행 5:12~16	민간 그리스도인	문동학	
2003. 11. 16.	행 5:17~42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	문동학	
2003. 11. 23.	행 6:1~7	성령, 지혜, 칭찬	문동학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3. 11. 30.	행 6:8~15	천사의 얼굴, 스테반	문동학	
2003. 12. 07.	행 7:1~53	세 개의 금송아지	문동학	
2003. 12. 14.	행 7:54~8:4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문동학	
2003. 12. 21.	행 8:5~8	사마리아의 기쁨!	문동학	
2003. 12. 28.	요 21:2~13	다시 희망!	문동학	
2004. 01. 04.	고전 13:13	신뢰, 희망, 사랑	문동학	
2004. 01. 11.	갈 1:1~10	다른 복음은 없다	문동학	
2004. 01. 18.	갈 1:11~24	오직 계시	문동학	
2004. 01. 25.	갈 2:1~10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문동학	
2004. 02. 01.	갈 2:11~21	율법에 대하여 죽고, 믿음으로 살라!	문동학	
2004. 02. 08.	갈 3:1~5	체험과 믿음	문동학	
2004. 02. 15.	갈 3:6~1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문동학	
2004. 02. 22.	갈 3:15~29	그런즉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문동학	
2004. 02. 29.	갈 3:21~29	'율법 아래'인가? '그리스도 안에'인가?	문동학	
2004. 03. 07.	갈 4:1~11	너희가 삼가 지키니	문동학	
2004. 03. 14.	갈 4:12~20	네 안에 그리스도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문동학	
2004. 03. 21.	갈 4:21~5:1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문동학	
2004. 03. 28.	갈 5:1~15	자유·성령·사랑	문동학	
2004. 04. 04.	눅 19:41~44	주님께서 우시디!	문동학	
2004. 04. 11.	눅 24:1~12	빈 무덤	문동학	
2004. 04. 18.	출 13:17~22	돌아가는 길	문동학	
2004. 04. 25.	갈 5:16~25	육체와 성령의 싸움과 그 승리	문동학	
2004. 05. 02.	갈 5:26~6:1	화살 쏘기와 그물 낚기	문동학	
2004. 05. 09.	갈 6:1~10	사랑의 법	문동학	
2004. 05. 16.	눅 15:3~7	나와 함께 즐기자	문동학	
2004. 05. 23.	갈 6:11~18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문동학	
2004. 05. 30.	행 8:9~25	권력과 돈, 그리고 복음	문동학	
2004. 06. 06.	행 8:26~40	광야에 핀 꽃	문동학	
2004. 06. 13.	행 9:1~19상	바울의 회심과 부름	문동학	
2004. 06. 20.	행 9:19 하~30	준비되어가는 사울	문동학	
2004. 06. 27.	행 13:1~3	캐톨릭 교회	이재철	
2004. 07. 04.	행 9:31	번식하는 교회	문동학	
2004. 07. 11.	고전 9:19~21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문동학	
2004. 07. 18.	신 33:12	베냐민의 축복: "하나님의 무동 타는 아이"	문동학	
2004. 07. 25.	대하 14:7, 8, 11 / 15:7	아사왕의 교훈	문희곤	
2004. 08. 01.	사 43:14~20	약속이 있는 사람들	이인호	
2004. 08. 08.	출 14:10~14	보이는 표적, 아직 보지 못한 표적	이창현	
2004. 08. 15.	요일 2:12~14	아비의 마음	김성관	
2004. 08. 22.	골 3:1~17	영적 웰빙	이호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4. 08. 29.	막 9:21~24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문동학	
2004. 09. 05.	시 13:1~6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문동학	
2004. 09. 12.	마 1:1~16	네 안에 내가 있다!	문동학	
2004. 09. 19.	고전 16:14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문동학	
2004. 09. 26.	요 21:15~17	사랑·사랑·사랑	문동학	
2004. 10. 03.	행 9:32~43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문동학	
2004. 10. 10.	행 10:1~23	이방인과 함께!	문동학	
2004. 10. 17.	행 10:24~11:18	팔을 벌린 교회	문동학	
2004. 10. 24.	마 5:3~10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문동학	
2004. 10. 31.	행 11:19~21	그중에 몇 사람	문동학	
2004. 11. 07.	행 11:22~26	그리스도인(Christian)은?	문동학	
2004. 11. 14.	사 58:11~12	물댄 동산	문동학	
2004. 11. 21.	시 100:1~5	감사의 노래!	문동학	
2004. 11. 28.	눅 7:36~50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문동학	
2004. 12. 05.	눅 17:1~6	12월은 용서의 계절	문동학	
2004. 12. 12.	눅 13:18~21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성탄	문동학	
2004. 12. 19.	엡 2:11~22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문동학	
2004. 12. 26.	삼상 7:3~14	미스바와 에벤에셀	문동학	
2005. 01. 02.	히 6:19	영혼의 닻, 희망!	문동학	
2005. 01. 09.	벧전 1:1~12	고난 너머 보이는 산 희망	문동학	
2005. 01. 16.	벧전 1:13~25	유혹 너머 얻어지는 희망	문동학	
2005. 01. 23.	벧전 2:1~10	버림받음 너머 다시 가질 꿈	문동학	
2005. 01. 30.	벧전 2:11~25	사회악 너머 다시 볼 꿈	문동학	
2005. 02. 13.	벧전 3:8~12	미숙함 너머 다시 가질 희망	문동학	
2005. 02. 20.	엡 5:15~21	세월을 아끼라	오대원	
2005. 02. 27.	벧전 3:13~22	역울함 너머 보이는 희망	문동학	
2005. 03. 06.	벧전 3:18~22	역울함 너머 희망: 예수 그리스도	문동학	
2005. 03. 13.	벧전 4:1~6	세상성 너머 다시 갖는 희망	문동학	
2005. 03. 20.	벧전 4:7~11	마지막 너머 볼 이상	문동학	
2005. 03. 27.	벧전 4:12~19	시련 너머 얻을 영광	문동학	
2005. 04. 03.	사 41:8~10	요즘 어떠십니까?	홍민기	
2005. 04. 10.	벧전 5:1~7	조직 너머 꿀 꿈	문동학	
2005. 04. 17.	벧전 5:8~14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문동학	
2005. 04. 24.	수 6:1~7	1·3부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라	박의일	
	고후 6:4~10	2부 하나님의 일꾼답게	김현령	
2005. 05. 01.	행 13:1~3	선교적 교회:그 존재와 부름과 보냄	문동학	
2005. 05. 08.	잠 4:3	오늘은 어머니날!	문동학	
2005. 05. 15.	에 9:20~22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문동학	
2005. 05. 22.	요 15:1~5 / 골 4:2~6	1~3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습관	문동학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5. 05. 29.	민 14:1~10	4부 영적 도전	윤은성	
	행 14:1~7	1~3부 사도적 그리스도인의 삶	문동학	
2005. 06. 05.	요 10:10	4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 14:8~10	1~3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문동학	
2005. 06. 12.	시 13:1~3	4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요?		
	행 14:11~18	1~3부 하나님만 예배하라!	문동학	
2005. 06. 19.	잠 4:23	4부 내 인생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딤후 3:16~17	1~3부 온전케 하는 교육	홍민기	
2005. 06. 26.	시 22:1	4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럴지요?	문동학	
	마 9:35	1~3부 주님의교회	문동학	
2005. 07. 03.	요 15:7	4부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시 42:1~11	1~3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문동학	
2005. 07. 10.	딤후 6:10	4부 하나님은 돈을 싫어하나요?		
	시 127:1~5	1~3부 하나님, 그리고 일과 자식	문동학	
2005. 07. 17.	마 7:12	4부 대인관계와 나르시스	양창순	성직자 아님
	시 121:1~8	주님께서서 너를 지키신다	문동학	
2005. 07. 24.	요 8:1~12	1~3부 세상의 빛, 예수님	문동학	
	히 8:10	4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호	
2005. 07. 31.	행 3:1~10	1~3부 오순절 이후	이인호	
	고후 12:9~10	4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이지선	
2005. 08. 07.	요 4:5~30	1~3부 그분을 만나면 물동이를 버린다	정영환	
	엡 2:10	4부 당신의 우선 순위는?	이창현	
2005. 08. 14.	벧전 4:7~11	1~3부 선한 청지기같이	김성관	
	시 121:1	4부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용수	
2005. 08. 21.	빌 3:7~17	1~3부 조용한 혁명	정희성	
	눅 15:11~32	4부 전 너무 지쳐 있어요	김현령	
2005. 08. 28.	눅 10:25~37	1~3부 이웃으로의 부르심	우동윤	
	고후 3:17	4부 벗어나고 싶어요	이호	
2005. 09. 04.	갈 5:22~23	1~3부 "기쁨을 찾아주는 7가지" 1.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문동학	
	요 14:27	4부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2005. 09. 11.	롬 3:20~24	1~3부 "기쁨을 찾아주는 7가지" 2.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라!	문동학	
	롬 12:14~18	4부 종교 얘기만 하면 싸운다		
2005. 09. 18.	고후 11:1~3	1~3부 "기쁨을 찾아주는 7가지" 3.단순하게 살라!	문동학	
	엡 6:4	4부 테마 1.자식 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는데...		
2005. 09. 25.	빌 3:8~12	1~3부 "기쁨을 찾아주는 7가지" 4.하나님을 신뢰하라!	문동학	
	마 11:28~30	4부 관계테마 2.일? 아니면 사람?		
2005. 10. 02.	눅 6:27~28	1~3부 "기쁨을 찾아주는 7가지" 5.빨리 용서하라!	문동학	
	요 10:28~29	4부 관계 테마 3.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요!		
2005. 10. 09.	느 8:10	1~3부 "기쁨을 찾아주는 7가지" 6.하나님을 기뻐하라!	문동학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5. 10. 16.	요 10:28~29 빌 4:10~13 마 7:13~14	4부 누구? 나 사랑하는 이 없소! 1~3부 "기쁨을 찾아주는 7가지" 7만족하라! 4부 두갈래 길,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문동학	
2005. 10. 23.	대하 7:11~14 시 23:1~6	1~3부 내가 땅을 고칠지라! 4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나요?	문동학 김현령	
2005. 10. 30.	시 138:1~8 요 10:1~6	1~3부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4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 믿겠어요!	문동학	
2005. 11. 06.	민 14:1~10 잠 12:16	1~3부 그 땅을 주시리라 4부 이걸 어떻게 참아요?	이인호 문동학	
2005. 11. 13.	삼하 16:5~14 골 3:22~4:1 행 27:25	1부 주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2~3부 그리스도인의 일과 직업 4부 옛 이 산이 아닌가?	문동학 폴 스티븐스 이호	
2005. 11. 20.	시 139:13~18 벧전 3:13~18	1~3부 주께 감사, 그 사랑이 영원해! 4부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문동학	
2005. 11. 27.	마 8:1~4 롬 12:19~21	1~3부 더러운 사람을 만지신 주님의 손 4부 용서—선으로 악을 이기기	문동학	
2005. 12. 04.	마 8:14~15 롬 8:28	1~3부 말없이 만지시는 주님의 손 4부 나의 골프와 인생	문동학 김형신	성직자 아님
2005. 12. 11.	마 28:19~20 롬 8:31~39	1~3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부 크리스마스의 의미	문동학 이광재	
2005. 12. 18.	창 12:1~4 마 2:9~11	1~3부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 4부 동방박사의 선물	김화수 김현령	
2005. 12. 25.	마 2:1~12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문동학	
2006. 01. 01.	시 5:1~12 롬 12:1~2	1~3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4부 새로운 해, 새로운 마음	문동학 이호	
2006. 01. 08.	마 9:18~26 살전 5:16~18	1~3부 죽은 소녀를 붙잡아 살리신 주님의 손 4부 원더풀 라이프	문동학 이호	
2006. 01. 15.	마 14:22~33 시 5:11	1~3부 물에 빠진 손을 잡으신 주님의 손 4부 내겐 너무 거룩한 교회?	문동학	
2006. 01. 22.	갈 5:1 출 34:4~7	1~3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 4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하나님?	문동학	
2006. 01. 29.	요 4:23~24 요 15:13~15	1~3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4부 내 친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문동학	
2006. 02. 05.	고전 13:13 시 126:1~6	1~3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 4부 하루의 기적	문동학	
2006. 02. 12.	시 19:7~11 전 7:14	1~3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경읽기 4부 스마일 어게인	문동학 이정용, 이마리 카르멘	
2006. 02. 19.	요 16:24 신 14:22~29	1~3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 4부 현금 무서워 발 못 담근다	문동학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6. 02. 26.	딤후 6:9~10, 17~19 막 2:23~28	1~3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터 4부 학교 출석? 교회 출석?	문동학	
2006. 03. 05.	사 52:7~10 요 20:30~31	1~3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교 4부 성경 100배 즐기기	문동학 이호	
2006. 03. 12.	행 5:12~13 롬 12:14~18	1~3부 솔로몬 생각 4부 니들끼리만 노냐?	문동학	
2006. 03. 19.	빌 1:1~2 고전 15:10	1~3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4부 SBS 예술단장 김정택의 음악과 삶	문동학 김정택	성직자 아님
2006. 03. 26.	빌 1:3~11 고전 14:40	1~3부 성도를 위한 감사·사랑·기도 4부 교회 일에 빠진 내 마누라	문동학	
2006. 04. 02.	빌 1:12~14 롬 3:23	1~3부 복음 그리고 '나의 매임' 4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죄인	문동학	
2006. 04. 09.	빌 1:15~26 요일 4:10	1~3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부 누가 대신 죽어달라고 했나요?	문동학	
2006. 04. 16.	마 28:1~10 요 11:25~26	1~3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4부 뭔가 수상한 부활?	문동학	
2006. 04. 23.	빌 1:17~30 살전 4:13~14	1~3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4부 부활은 미래의 것인가?	문동학	
2006. 04. 30.	빌 2:1~4 요 8:31~36	1~3부 그리스도인의 마음 4부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 있다면	문동학	
2006. 05. 07.	신 5:16 출 34:6	1~3부 네 부모를 공경하라 4부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문동학 이호	
2006. 05. 14.	빌 2:5~11 유 1:2	1~3부 그리스도의 마음 4부 남과 여, 바른 해답을 찾아서	문동학 이호	
2006. 05. 21.	빌 2:12~18 잠 31:29~30	1~3부 서로 구원을 이루라! 4부 여자, 그 자랑만장한 이름	문동학 이호	
2006. 05. 28.	빌 2:19~24 요 15:15	1~3부 디모데: 크리스찬의 한 모델 4부 진짜 가정과 가짜 가정	문동학 이호	
2006. 06. 04.	빌 2:25~30 아 8:6~7	1~3부 에바브로디도: 존귀한 크리스찬 4부 사랑을 잃다	문동학 이호	
2006. 06. 11.	행 1:8 눅 19:10	1~3부 행복하십니까? 4부 길 잃어버린 아들	김주윤 문동학	
2006. 06. 18.	빌 3:1~6 살전 5:18	1~3부 주 안에서 기뻐하라 4부 직장을 잃다	문동학 이호	
2006. 06. 25.	엡 1:23 약 5:13	1~3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4부 존재할 이유를 잃다	문동학 이호	
2006. 07. 02.	빌 1:23 마 11:28~30	1~3부 그리스도와 나를 얻다 4부 완전한 놀이와 쉼	문동학	
2006. 07. 09.	삿 2:6~10	1~3부 여호와의 알지 못하는 세대	홍민기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6. 07. 16.	마 11:28~30 빌 3:12~16 요 10:10	4부 몸과 마음의 쉼 1~3부 나는 아직 달려가고 있다 4부 사람, 가장 어려운 선택	양창순 문동학 이호	성직자 아님
2006. 07. 23.	출 19:1~6 창 2:1~4	1~3부 제사장나라 4부 창조적인 선택—잘 놀기	문동학 강우현	성직자 아님
2006. 07. 30.	빌 3:17~21 신 7:6~8	1~3부 나를 본받으라! 4부 하나님의 선택	문동학 이호	
2006. 08. 06.	빌 4:1 막 10:43~45	1~3부 주 안에 서라! 4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문동학 이호	
2006. 08. 13.	빌 4:2~7 행 17:22~23	1~3부 주 안에서 기뻐하라! 4부 다빈치코드 해부하기	문동학 정영환	
2006. 08. 20.	빌 4:8~9 롬 5:17	1~3부 이제 행하라! 4부 은혜가 왕노릇하게	문동학 이호	
2006. 08. 27.	빌 4:10~23	복음에 참여하라!	문동학	
2006. 09. 03.	창 22:1~12	이삭의 웃음	문동학	
2006. 09. 10.	왕하 4:1~7	희망의 문을 만들리라!	김현령	
2006. 09. 17.	마 14:22~33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정영환	
2006. 09. 24.	고전 3:1~11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창현	
2006. 10. 01.	롬 8:31~39	고요한 외침	정희성	
2006. 10. 08.	골 1:24~29	내가 수고하는 이유	우동윤	
2006. 10. 15.	사 7:1~9	굳게 믿지 아니하면	박동현	
2006. 10. 22.	레 19:13~14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박동현	
2006. 10. 29.	눅 7:1~10	이만한 믿음	이호	
2006. 11. 05.	미 6:6~8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신화식	
2006. 11. 12.	골 2:6~7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박의석	
2006. 11. 19.	살전 5:16~18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박의석	
2006. 11. 26.	사 40:25~31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장형	
2006. 12. 03.	마 20:8~16	포도원 안의 사람들	이장형	
2006. 12. 10.	눅 19:1~10	하나님 나라의 비전	윤동일	
2006. 12. 17.	마 20:27~28	섬김의 능력	윤동일	
2006. 12. 24.	요 3:14~16	예수 사건의 위대함	라준석	
2006. 12. 31.	행 16:25~34	참된 예배자	라준석	
2007. 01. 07.	막 1:14~15	여행자가 소망하는 이유	이창현	
2007. 01. 14.	빌 3:12~14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박의일	
2007. 01. 21.	행 13:36~39	사명이 이끄는 삶	윤은성	
2007. 01. 28.	빌 2:12~18	없어도 되는 사람	정요섭	
2007. 02. 04.	막 16:15	그리스도인의 성장	정희성	
2007. 02. 11.	고후 6:1~10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장홍길	
2007. 02. 18.	빌 4:1~9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장홍길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7. 02. 25.	눅 10:25~37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장홍길	
2007. 03. 04.	엡 5:1~10	신앙인과 철들	임성빈	
2007. 03. 11.	빌 1:9~11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임성빈	
2007. 03. 18.	롬 9:1, 10:1~4	지금은 근심할 때입니다!	임성빈	
2007. 03. 25.	롬 12:1~2	영적 예배로의 초대	임성빈	
2007. 04. 01.	출 3:13~15 / 눅 19:32~42	호산나와 예수님의 눈물	임성빈	
2007. 04. 08.	전 3:16~22 / 요 14:6	부활! 우리의 소망	임성빈	
2007. 04. 15.	요 17:20~23	축복의 공동체	우동윤	
2007. 04. 22.	요 1:35~42	어디 계십니까?	신화식	
2007. 04. 29.	행 1:3	삶의 한가운데	이호	
2007. 05. 06.	마 19:13~15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들 세상	정영환	
2007. 05. 13.	고전 12:31~13:7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라!	박익일	
2007. 05. 20.	왕하 7:3~9	잠잠할 수 없습니다	김현령	
2007. 05. 27.	요 4:1~26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윤은성	
2007. 06. 03.	시 29:1~11	여호와와의 소리	정요섭	
2007. 06. 10.	레 16:29~31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창현	
2007. 06. 17.	사 43:1~3 / 롬 1:1~7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박원호	
2007. 06. 24.	골 2:28~30 / 행 2:42~47	쓰임 받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박원호	
2007. 07. 01.	전 11:6~8 / 마 13:31~32	오늘도 농부는 겨자씨를 심습니다	박원호	
2007. 07. 08.	살전 5:12~18	화살표가 있는 공동체	정희성	
2007. 07. 15.	엡 5:15~18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박익일	
2007. 07. 22.	눅 11:1~13	기도로 여는 소망	이호	
2007. 08. 05.	눅 5:1~11	인생의 전환점	우동윤	
2007. 08. 12.	요일 2:12~14	아직도 가야 할 길	이창현	
2007. 08. 19.	수 6:10~16	외치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김현령	
2007. 08. 26.	겔 34:4~6 / 행 8:1~6	흩어진 사람들	박원호	
2007. 09. 02.	레 19:1~2 / 마 5:43~48	너희도 온전하라(온전한 신앙 1)	박원호	
2007. 09. 09.	시 128:4~6 / 엡 4:11~16	소망을 공급하는 사람들(온전한 신앙 2)	박원호	
2007. 09. 16.	잠 1:7~9 / 딤후 3:16~17	하나님의 사랑(온전한 신앙 3)	박원호	
2007. 09. 23.	사 1:18~20 / 마 9:1~8	온전한 용서(온전한 신앙 4)	박원호	
2007. 09. 30.	렘 31:31~33 / 갈 2:20~21	온전한 십자가(온전한 신앙 5)	박원호	
2007. 10. 07.	사 55:1~3 / 눅 15:1~7	복음은 생명 사랑입니다(온전한 신앙 6)	박원호	
2007. 10. 14.	아 4:1~5 / 요일 4:7~12	사랑은 여기 있으니!(온전한 신앙 7)	박원호	
2007. 10. 21.	민 14:1~3 / 히 11:1~6	믿음의 터전(믿음의 사람 1)	박원호	
2007. 10. 28.	마 16:13~18	주님의 교회	서정운	
2007. 11. 04.	창 22:11~12 / 빌 2:6~11	3일간의 여정(믿음의 사람 2)	박원호	
2007. 11. 11.	시 103:1~5 / 막 11:12~14	왜 신앙은 자라야 하나니까?(믿음의 사람 3)	박원호	
2007. 11. 18.	고전 15:9~11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박원호	
2007. 11. 25.	전 3:1~8 / 딤후 4:19~22	겨울이 오기 전에(믿음의 사람 4)	박원호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7. 12. 02.	사 40:3~5 / 요 10:7~10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비결	박원호	
2007. 12. 09.	미 5:2~5 / 눅 2:1~7	사랑의 수고: 참 평화의 길	박원호	
2007. 12. 16.	시 23:1~6 / 눅 2:8~14	회복의 성탄	박원호	
2007. 12. 23.	시 72:17~20 / 마 2:9~12	돌을 닦는 사람들	박원호	
2007. 12. 30.	삼상 7:12~14 / 딤후 4:6~8	에벤에셀(1)	박원호	
2008. 01. 06.	시 1:1~3 / 막 2:21~22	말씀의 새 가족부대	박원호	
2008. 01. 13.	시 104:29~33 / 롬 8:19~22	주의 영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박원호	
2008. 01. 20.	출 26:34~37 / 롬 12:3~5	한몸, 여러 지체	박원호	
2008. 01. 27.	단 12:2~4 / 막 1:16~20	'위대함'에로의 도약	박원호	
2008. 02. 03.	창 19:23~28 / 막 1:21~28	기독교의 권위	박원호	
2008. 02. 10.	신 8:1~3 / 히 12:6~10	광야를 기억하라	박원호	
2008. 02. 17.	창 45:5~8 / 빌 1:29~30	고난과 소망	박원호	
2008. 02. 24.	시 71:22~24 / 빌 4:6~7	염려를 넘어 기쁨으로	박원호	
2008. 03. 02.	대삼 16:23~26 / 마 16:13~20	위대한 고백	박원호	
2008. 03. 09.	시 131:1~3 / 눅 1:46~55	거룩한 기쁨	박원호	
2008. 03. 16.	시 22:16~19 / 마 26:36~41	왜 슬퍼하셨습니까?	박원호	
2008. 03. 23.	사 60:20~22 / 눅 24:30~35	주께서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박원호	
2008. 03. 30.	합 3:17~19 / 마 17:9~11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박원호	
2008. 04. 06.	렘 33:6~9 / 눅 15:31~32	두 아들 이야기	박원호	
2008. 04. 13.	시 85:9~13 / 요 14:1~6	길, 진리, 생명	박원호	
2008. 04. 20.	창 34:30~31 / 요 4:6~10	말 한마디의 기적	박원호	
2008. 04. 27.	겔 36:24~27 / 롬 12:1~2	1·2·4부 헌신예로의 부르심	박원호	
	고전 13:1~13	3부 영원한 세 가지	Dr. Hans	
2008. 05. 04.	삿 13:8~9 / 마 19:13~15	천국의 아이들	박원호	
2008. 05. 11.	수 24:14~15 / 계 3:11~13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박원호	
2008. 05. 18.	렘 4:3~4 / 고후 5:17~19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박원호	
2008. 05. 25.	대하 31:5~7 / 고전 3:10~11	영적 부흥을 위하여: 히스기야의 결단	박원호	
2008. 06. 01.	창 32:24~29 / 히 12:26~29	벤엘과 브니엘	박원호	
2008. 06. 08.	왕하 5:1~6 / 눅 19:1~7	아름다운 두 영혼의 만남	박원호	
2008. 06. 15.	출 18:21~22 / 고전 3:7~9	아폴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박원호	
2008. 06. 22.	스 1:2~3 / 딤후 2:14~15	책임있게 응답하는 교회	박원호	
2008. 06. 29.	사 43:19~21 / 마 13:31~32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박원호	
2008. 07. 06.	암 5:21~24 / 마 5:1~3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박원호	
2008. 07. 13.	시 51:17~19 / 마 5:1~5	애통하는 자의 복	박원호	
2008. 07. 20.	시 37:7~11 / 마 5:1~5	거룩한 분노	박원호	
2008. 07. 27.	호 11:1~4 / 마 5:1~6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삶	박원호	
2008. 08. 03.	창 1:11~12, 24~25	흙에서 나온 생명	임희국	
	눅 12:15~21			
2008. 08. 10.	고후 2:14~16	그리스도의 향기	고무송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8. 08. 17.	시 40:11~13 / 마 5:1~7	주여,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박원호	
2008. 08. 24.	렘 17:9~11 / 마 5:1~8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박원호	
2008. 08. 31.	렘 29:11~13 / 마 5:1~9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자들	박원호	
2008. 09. 07.	단 6:10~12 / 마 5:9~12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박원호	
2008. 09. 14.	시 92:4~8 / 마 25:24~29	생명의 즐거움이 있는 나라	박원호	
2008. 09. 21.	창 4:9~12 / 마 13:24~30	이 가을엔 국화꽃을 꺾읍시다	박원호	
2008. 09. 28.	시 14:1~3 / 눅 12:15~21	생명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원호	
2008. 10. 05.	시 67:1~3 / 마 18:23~27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성도의 용서 나눔	박원호	
2008. 10. 12.	렘 31:31~33 / 눅 18:3~8	인자가 올 때에	박원호	
2008. 10. 19.	시 40:1~3 / 눅 7:9~10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박원호	
2008. 10. 26.	시 69:6~9 / 요 2:18~21	성전을 헐라	박원호	
2008. 11. 02.	시 14:1~3 / 눅 14:28~32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이유	박원호	
2008. 11. 09.	잠 19:20~23 / 고전 4:16~17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박원호	
2008. 11. 16.	잠 3:13~18 / 마 6:19~21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박원호	
2008. 11. 23.	잠 12:24~28 / 빌 3:10~14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박원호	
2008. 11. 30.	잠 22:24~25 / 딤후 4:9~11	겨울이 오기 전에	박원호	
2008. 12. 07.	시 73:25~28 / 롬 8:35~37	믿음으로 직시하십시오	박원호	
2008. 12. 14.	민 14:8~10 / 벰전 5:8~11	소망을 키우는 사람들(소망의 신학 2)	박원호	
2008. 12. 21.	사 11:6~9 / 눅 2:8~10	큰 기쁨의 좋은 소식(소망의 신학 3)	박원호	
2008. 12. 28.	삼상 7:10~12 / 마 15:3~6	에베에셀(2)	박원호	
2009. 01. 04.	시 98:1~2 / 행 2:46~47	새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박원호	
2009. 01. 11.	시 93:1~3 / 마 28:18~20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박원호	
2009. 01. 18.	삿 7:15~18 / 막 9:21~24	믿음의 승리	박원호	
2009. 01. 25.	창 12:1~3 / 마 7:21~23	떠남의 여정	박원호	
2009. 02. 01.	출 20:1~6 / 마 5:17~20	1·2부 언약 공동체의 계명	박원호	
	미 6:6~8	3·4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서정운	
2009. 02. 08.	출 20:1~3 / 마 5:17~18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박원호	
2009. 02. 15.	시 133:1~3 / 요 17:20~23	그들도 하나님께 하소서	박원호	
2009. 02. 22.	민 11:11~12 / 요 21:17~18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원호	
2009. 03. 01.	전 3:11 / 딤후 4:7~9	달려갈 길	박원호	
2009. 03. 08.	창 35:3~5 / 골 3:16~17	우리가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 예배	박원호	
2009. 03. 15.	요 4:9~11 / 행 2:6~13	우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교제	박원호	
2009. 03. 22.	겔 20:10~12 / 엡 4:13~14	예수를 닮기 위해 사는 사람들: 훈련	박원호	
2009. 03. 29.	사 43:5~7 / 요 13:4~7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노라: 섬김	박원호	
2009. 04. 05.	시 67:1~3 / 행 11:22~26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전도	박원호	
2009. 04. 12.	시 150:1~6 / 마 28:1~10	부활이 이끄는 삶	박원호	
2009. 04. 19.	신 20:1	세상을 보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덕호	
2009. 04. 26.	롬 14:7~9	그리스도인의 사생관(死生觀)	나채운	
2009. 05. 03.	사 10:20~23 / 막 3:31~35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나	박원호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09. 05. 10.	출 2:1~6 / 딤후 1:3~5	대를 잇는 믿음의 비결	박원호	
2009. 05. 17.	시 51:10~14 / 마 5:13~16	아름다운 교회(1): 소금과 빛	박원호	
2009. 05. 24.	대상 29:10~11 / 마 6:9-13	기도가 다른 사람들!	박원호	
2009. 05. 31.	시 56:12~13 / 행 3:6~10	생명은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박원호	
2009. 06. 07.	렘 17:9~11 / 롬 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박원호	
2009. 06. 14.	시 73:12~14 / 롬 8:3~6	악의 문제와 교회의 사명	박원호	
2009. 06. 21.	시 96:11~13 / 롬 13:1~3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박원호	
2009. 06. 28.	사 29:13-14 / 딤후 3:14-16	진실한 교회	박원호	
2009. 07. 05.	단 6:26~27 / 행 4:18~21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박원호	
2009. 07. 12.	렘 31:31~33 / 살전 5:16~24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박원호	
2009. 07. 19.	렘 17:9~11 / 살전 5:16~22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	박원호	
2009. 07. 26.	시 103:1~5 / 살전 5:15~18	감사에 헌신한 사람들	박원호	
2009. 08. 02.	시 51:10~14 / 살전 5:16~22	포기할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	박원호	
2009. 08. 09.	사 34:16~17 / 살전 5:15~22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	박원호	
2009. 08. 16.	레 19:17~18 / 마 5:43-48	원수를 사랑하라	김상환	
2009. 08. 23.	사 7:7~9 / 마 17:17~20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기독교 신앙의 근본 1)	박원호	
2009. 08. 30.	사 66:22~24 / 고전 15:20~24	가장 먼저 할 마지막 일	박원호	
2009. 09. 06.	사 53:10~11 / 마 16:24~28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기독교 신앙의 근본 3)	박원호	
2009. 09. 13.	고후 5:14~19	은혜 받은 자의 사명	이승만	
2009. 09. 20.	시 8:3~5 / 막 7:20~23	사람이 무엇이기에(기독교 신앙의 근본 5)	박원호	
2009. 09. 27.	욥 42:5~6 / 요 3:16~17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다가옵니까?(기독교 신앙의 근본 6)	박원호	
2009. 10. 04.	잠 22:1~4 / 롬 12:1~2	예수 믿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기독교 신앙의 근본 7)	박원호	
2009. 10. 11.	시 22:1~3 / 빌 3:7~9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십자가 1)	박원호	
2009. 10. 18.	레 7:11~14 / 고후 5:20~21	화목의 직분(십자가 2)	박원호	
2009. 10. 25.	대하 20:10~13 / 롬 1:17~18	교회는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박원호	
2009. 11. 01.	사 53:7~9 / 롬 3:9~12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뇨	박원호	
2009. 11. 08.	렘 44:8~10 / 요 15:15~16	너희는 나의 친구라(십자가 4)	박원호	
2009. 11. 15.	민 6:22~27 / 눅 24:50~53	생명의 감사	박원호	
2009. 11. 22.	겔 14:12~14 / 딤후 4:17~21	겨울이 오기 전에(3)	박원호	
2009. 11. 29.	시 136:1~5 / 요 1:1~5	기다림의 은총	박원호	
2009. 12. 06.	출 25:8~9 / 요 1:14~16	은혜와 진리	박원호	
2009. 12. 13.	막 1:35~39 / 마 2:1~11	이를 위하여 왔노라 / 경배하러 왔노라	우동윤 / 이호	
2009. 12. 20.	미 5:2~5a / 눅 2:17~20	성탄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박원호	
2009. 12. 27.	삼상 7:8~12 / 빌 3:7~9	에벤에셀(3)	박원호	
2010. 01. 03.	사 11:6~9 / 눅 4:16~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박원호	
2010. 01. 10.	출 20:8~11 / 마 18:1~3	안식의 은총	박원호	
2010. 01. 17.	사 40:27~31 / 빌 4:11~13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	박원호	
2010. 01. 24.	출 3:10~11 / 눅 13:6~9	왜 아이티에 이런 일이?	박원호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10. 01. 31.	시 123:1~4 / 요 13:4~7	사랑과 섬김(예수의 친구들 1)	박원호	
2010. 02. 07.	사 42:1~4 / 요 3:27~30	부름받은 자와 쫓겨다니는 자(예수의 친구들 2)	박원호	
2010. 02. 14.	왕하 5:15~19 / 롬 12:1~2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노라(예수의 친구들 3)	박원호	
2010. 02. 21.	잠 29:18~20 / 고전 9:23~27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자들(예수의 친구들 4)	박원호	
2010. 02. 28.	사 62:10~12 / 막 9:1~7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예수의 친구들 5)	박원호	
2010. 03. 07.	사 1:18~20 / 막 9:23~24	생명이 사는 길은 변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예수의 친구들 6)	박원호	
2010. 03. 14.	느 2:1~3 / 요일 4:16~18	두려움을 이기는 길(예수의 친구들 7)	박원호	
2010. 03. 21.	애 4:1~3 / 고전 13:1~3	사랑이나 무소유냐?	박원호	
2010. 03. 28.	레 6:11~14 / 롬 3:23~26	화목제물	박원호	
2010. 04. 04.	사 25:6~8 / 고전 15:12~15	예수 부활하셨네!	박원호	
2010. 04. 11.	마 28: 16~20	위대한 유산	정영환	
2010. 04. 18.	행 1:1~5	1·4부 부활 후 사십일	신화식	
	눅 17:11~19	2·3부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서정운	
2010. 04. 25.	고전 13:1~13	사랑의 성품	정영환	
2010. 05. 02.	수 24:14~15 / 록 23:28~29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박원호	
2010. 05. 09.	신 24:1~4 / 막 10:6~9	가정이 뿔났다(가정에 대한 신학적 담론)	박원호	
2010. 05. 16.	시 1:1~3 / 마 5:1~10	복 있는 사람	성중현	
2010. 05. 23.	행 2:42~47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중현	
2010. 05. 30.	요 2:1~11	가나 혼인잔치	고무송	
2010. 06. 06.	요 12:24~25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고무송	
2010. 06. 13.	마 5:13~16	어둠을 밝히는 빛	김명용	
2010. 06. 20.	마 5:43~48	전쟁과 평화	김명용	
2010. 06. 27.	에 4:1~14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임영수	
2010. 07. 04.	출 26:31~33 / 고전 11:23~26	하늘나라의 은총	박원호	
2010. 07. 11.	출 20:1~3 / 마 5:1~10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박원호	
2010. 07. 18.	사 9:1~4 / 마 5:13~16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박원호	
2010. 07. 25.	창 4:5~7 / 마 5:21~24	악순환을 끊는 사람들(기쁨의 사람 4)	박원호	
2010. 08. 01.	레 19:17~18 / 마 5:43~48	이웃 사랑인가? 원수 사랑인가?	박원호	
2010. 08. 08.	시 127:1~2 / 마 6:19~21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기쁨의 사람들 5)	박원호	
2010. 08. 15.	사 55:6~8 / 마 7:1~5	생명과 역사	박원호	
2010. 08. 22.	시 21:1~5 / 마 7:9~12	존귀함, 그 영혼의 소망(기쁨의 사람들 6)	박원호	
2010. 08. 29.	호 14:5~8 / 마 7:18~21	나의 궁극적인 소망(기쁨의 사람들 7)	박원호	
2010. 09. 05.	단 6:8~10 / 갈 2:20~21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박원호	
2010. 09. 12.	대하 6:32~33 / 요 17:19~21	1·3·4부 내가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은	박원호	
	갈 6:2	2부 그리스도인의 기본 법칙		
2010. 09. 19.	시 119:93~96 / 요 8:31~36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것은	박원호	
2010. 09. 26.	왕상 8:49~51 / 막 5:12~15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음은	박원호	
2010. 10. 03.	계 4:1~6	미래를 기억하라!	Blount	
2010. 10. 10.	창 33:1~4 / 눅 15:20~24	번쩍 들어올리시는 하나님	박원호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10. 10. 17.	시 136:23-26 / 골 3:16-17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박원호	
2010. 10. 24.	시 29:1~5 / 엡 4:1~4	아인슈타인의 거룩한 상상력	박원호	
2010. 10. 31.	시 119:105-109 계 3:10~12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박원호	
2010. 11. 07.	시 78:5~8 / 눅 16:9~13	마음의 습관	박원호	
2010. 11. 14.	창 27:30~33 / 히 12:14-16	거룩한 떨림	박원호	
2010. 11. 21.	아가 2:10~14 / 고전 13:1~3	사랑이 없으면	박원호	
2010. 11. 28.	시 133:1~3 / 롬 16:3~5	겨울이 오기 전에(4)	박원호	
2010. 12. 05.	시 29:3~5 / 요 1:1~4	말씀	박원호	
2010. 12. 12.	사 53:10~12 / 마 16:13-16	그리스도	박원호	
2010. 12. 19.	수 24:14~15 / 갈 1:3~5	자유와 소망의 복된 소식	박원호	
2010. 12. 26.	삼상 7:10~12 / 롬 8:28-30	에벤에셀(4)	박원호	
2011. 01. 02.	신 6:5~9 / 엡 4:14~16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박원호	
2011. 01. 09.	엡 1:3~10 막 5:25~34	1~3부 복받은 자의 비전 4부 딸아 평안히 가라	신화식 권대선	
2011. 01. 16.	욥 10:5~7 / 갈 6:9~10	왜 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박원호	
2011. 01. 23.	민 21:7~9 / 갈 1:4~7	복음이란 무엇인가?(기독교 신앙의 근본 1)	박원호	
2011. 01. 30.	시 104:24-30 / 롬 8:19-22	참 좋은 세상(기독교 신앙의 근본 2)	박원호	
2011. 02. 06.	시 8:4~9 / 눅 19:5~10	사랑이 무엇이기에	박원호	
2011. 02. 13.	사 65:23~25 / 뱀전 2:1~5	그리스도(기독교 신앙의 근본 4)	박원호	
2011. 02. 20.	시 51:15~17 / 마 26:72-75	울지 마 베드로	박원호	
2011. 02. 27.	왕상 19:11~14 / 마 11:2~6	묻지 마 세례요한	박원호	
2011. 03. 06.	시 119:105~107 / 요 2:1~5	기억하라 마리아	박원호	
2011. 03. 13.	창 37:25~27 / 마 27:3~5	떠나지 마 유다야	박원호	
2011. 03. 20.	호 14:4~8 / 요 1:45~51	너를 축복하마 나다니엘	박원호	
2011. 03. 27.	사 61:1~3 / 막 10:35~38	내가 너를 세우마, 야고보와 요한	박원호	
2011. 04. 03.	창 3:3~5 / 마 27:39-42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오마, 예수여	박원호	
2011. 04. 10.	욥 2:28~32 / 요 13:34~35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박원호	
2011. 04. 17.	고후 12:5~10	고난에서 받는 은혜	김선태	
2011. 04. 24.	시 168~11 / 고전 15:21~26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박원호	
2011. 05. 01.	삿 13:12~14 / 엡 5:24~27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박원호	
2011. 05. 08.	민 23:8~10 / 마 6:9~13	아버지의 기도	박원호	
2011. 05. 15.	왕상 19:10~18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은준관	
2011. 05. 22.	말 2:5~6 / 요 8:31~32	신앙·진리·자유	박원호	
2011. 05. 29.	창 29:4~6 / 마 13:44~46	감추인 보화(신앙의 지평을 열라 1)	박원호	
2011. 06. 05.	사 42:6~9 / 마 15:21~28	구원을 이룬 믿음(신앙의 지평을 열라 2)	박원호	
2011. 06. 12.	잠 30:7~9 / 마 7:13~14	좁은 문 생명의 진리	박원호	
2011. 06. 19.	시 47:1~4 / 마 10:34~39	믿음의 합당함	박원호	
2011. 06. 26.	신 6:4~5 / 마 22:34~40	주님처럼	서정운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11. 07. 03.	사 43:8~11 / 빌 2:5~8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	박원호	
2011. 07. 10.	벧전 2:6~12 단 1:8~17	1~3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4부 신앙인의 자유를 배우라	신화식 권대선	
2011. 07. 17.	출 12:12~14 / 딤후 6:6~12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박원호	
2011. 07. 24.	느 2:1~5 / 엡 6:5~8	주께 하듯 하라	박원호	
2011. 07. 31.	사 65:17~20 / 롬 8:18~25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박원호	
2011. 08. 07.	시 145:1~3 / 요일 4:7~11	함께 부를 사랑의 노래	박원호	
2011. 08. 14.	왕상 19:9~12 / 롬 5:3~6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박원호	
2011. 08. 21.	룻 4:13~17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공광승	
2011. 08. 28.	시 67:1~7 / 엡 5:17~21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박원호	
2011. 09. 04.	레 11:44~45 / 히 9:18~22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	박원호	
2011. 09. 11.	레 1:1~9 / 엡 5:1~3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거룩 2)	박원호	
2011. 09. 18.	레 2:1~3 / 히 13:15~17	소제로 드리는 감사의 삶(거룩 3)	박원호	
2011. 09. 25.	레 3:1~5 / 고후 5:17~19	화목제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거룩 4)	박원호	
2011. 10. 02.	레 4:1~7 / 갈 2:20~21	속죄제는 생명의 은총입니다(거룩 5)	박원호	
2011. 10. 09.	레 5:14~19 / 골 1:18~20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눈물(거룩 6)	박원호	
2011. 10. 16.	레 11:1~8 / 눅 14:21~24	음식과 하나님의 나라(거룩 7)	박원호	
2011. 10. 23.	렘 5:12~18 / 눅 11:9~13	1~3부 불신의 세대와 영적 자녀들 4부 마지막 때, 마지막 선물	박원호 권대선	
2011. 10. 30.	레 17:10~14 / 요 10:10~15	생명의 본능(어느 목사와 스님 간의 대화)	박원호	
2011. 11. 06.	출 20:1~3 / 마 22:16~22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박원호	
2011. 11. 13.	눅 10:25~28 눅 13:1~9	1·4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3부 고난과 기회	박원호 Thai Phouc Truong	
2011. 11. 20.	암 5:4~8 / 딤후 2:11~15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박원호	
2011. 11. 27.	룻 2:10~12 / 딤후 4:9~13	겨울이 오기 전에(5)	박원호	
2011. 12. 04.	사 53:1~5 / 롬 3:23~26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박원호	
2011. 12. 11.	미 5:2~4 / 마 2:9~12	별을 따라온 생명의 여정	박원호	
2011. 12. 18.	사 40:1~5 / 요 14:5~9	길·진리·생명	박원호	
2011. 12. 25.	사 11:1~5 / 요 2:1~7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박원호	
2012. 01. 01.	시 1:1~3 / 고후 5:17~19	새 피조물의 소망	박원호	
2012. 01. 08.	신 6:4~9 / 마 28:16~20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박원호	
2012. 01. 15.	시 27:1~4 / 마 14:26~33	나를 명하사 물위로 오라 하소서!	박원호	
2012. 01. 22.	수 1:7~9 / 빌 4:6~7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길	박원호	
2012. 01. 29.	레 3:1~5 / 롬 3:23~26	진리의 지렛대	박원호	
2012. 02. 05.	시 104:30~35 / 엡 6:10~13	영적 씨름꾼들	박원호	
2012. 02. 12.	창 19:12~14 / 엡 6:13~17	진리의 허리띠	박원호	
2012. 02. 19.	출 28:15~28 / 엡 6:14~17	홍패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십시오!	박원호	
2012. 02. 26.	신 8:1~3 / 마 4:3~10	광야의 유혹과 십자가	박원호	
2012. 03. 04.	사 42:5~9 / 마 4:18~22	그물을 버린 사람들	박원호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12. 03. 11.	호 6:1~6 / 마 9:9~13	제사와 금홀	박원호	
2012. 03. 18.	사 61:1~3 / 눅 23:13~21	민란과 진리	박원호	
2012. 03. 25.	사 53:1~6 / 마 4:23~25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박원호	
2012. 04. 01.	시22:14-18 / 요 19:28-30	신포도주의 사랑	박원호	
2012. 04. 08.	사 65:17~19 / 눅 24:1~10	예수 부활하셨네	박원호	
2012. 04. 15.	출 3:1~5 / 엡 6:13~17	평화의 복음과 사탄의 가면	박원호	
2012. 04. 22.	창 1:26~28	하나님은 예술가이시다	김경진	
2012. 04. 29.	행 9:1~9	예수를 만난 사람들	문성모	
2012. 05. 06.	수 4:4~8 / 엡 6:13~17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박원호	
2012. 05. 13.	룻 1:15~18 / 엡 6:14~17	구원의 투구	박원호	
2012. 05. 20.	스 9:9~11 / 엡 6:14~20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박원호	
2012. 05. 27.	단 6:10~12 / 엡 6:18~20	쇠사슬에 매인 대사	박원호	
2012. 06. 03.	삼상 18:1~4 / 엡 4:1~4	관계의 은총	박원호	
2012. 06. 10.	계 1:9~10	참여의 영성	Blount	
2012. 06. 17.	사 40:9~11 / 히 11:1~3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박원호	
2012. 06. 24.	대상 16:19~24 / 고전 15:9~11	다시 언약궤를 올려드리며...	박원호	
2012. 07. 01.	렘 9:23~24 / 요 5:2~9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박원호	
2012. 07. 08.	시 80:17~19 / 계 3:20~22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박원호	
2012. 07. 15.	시 34:1~9 / 요일 4:17~19	두려움에서 찬송으로	박원호	
2012. 07. 22.	왕상 21:1~3 / 마 25:31~36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박원호	
2012. 07. 29.	창 18:19~25 / 막 10:46~52	의인들이 부르짖어라!(기도 1)	박원호	
2012. 08. 05.	출 14:19~24 / 딤후 4:4~5	권세 있는 기도의 길(기도 2)	박원호	
2012. 08. 12.	삼하 7:18~22 / 고후 1:18~20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기도 3)	박원호	
2012. 08. 19.	삼상 2:1~3 / 눅 1:46~56	오만과 편견(기도 4)	박원호	
2012. 08. 26.	왕상 3:6~9 / 마 6:28~29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케 하소서(기도 5)	박원호	
2012. 09. 02.	온 2:4~7 / 히 12:1~4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라(기도 6)	박원호	
2012. 09. 09.	렘 32:21~24 / 롬 8:28~30	구원 역사의 흐름을 회복하라!(기도 7)	박원호	
2012. 09. 16.	왕하 19:14~19 / 마 5:46~48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기도 8)	박원호	
2012. 09. 23.	엡 2:1~10	1~3부 하나님의작품 4부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기도8)	김선배 박원호	
2012. 09. 30.	단 9:17~19 / 딤후 2:10~15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기도 9)	박원호	
2012. 10. 07.	욥 42:4~6 / 빌 2:5~11	나로 주의 얼굴 보게 하옵소서(기도 10)	박원호	
2012. 10. 14.	창 1:1~5 / 마 5:14~16	빛은 생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오직 기독교! 1)	박원호	
2012. 10. 21.	욥 23:10~12 / 롬 9:19~23	깊은 감사(오직 기독교! 2)	박원호	
2012. 10. 28.	시 127:1~2 / 딤후 4:6~9	겨울이 오기 전에	박원호	
2012. 11. 04.	렘 31:33~34 / 요 5:38~43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오직 기독교! 3)	박원호	
2012. 11. 11.	호 11:8~11 / 눅 22:18~20	계약(오직 기독교! 4)	박원호	
2012. 11. 18.	창 11:29~12:3 / 고후 2:15~17	생명의 향기(오직 기독교! 5)	박원호	
2012. 11. 25.	숙 4:11~14 / 요일 2:21~23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적 그리스도의 역사(오직 기독교! 6)	박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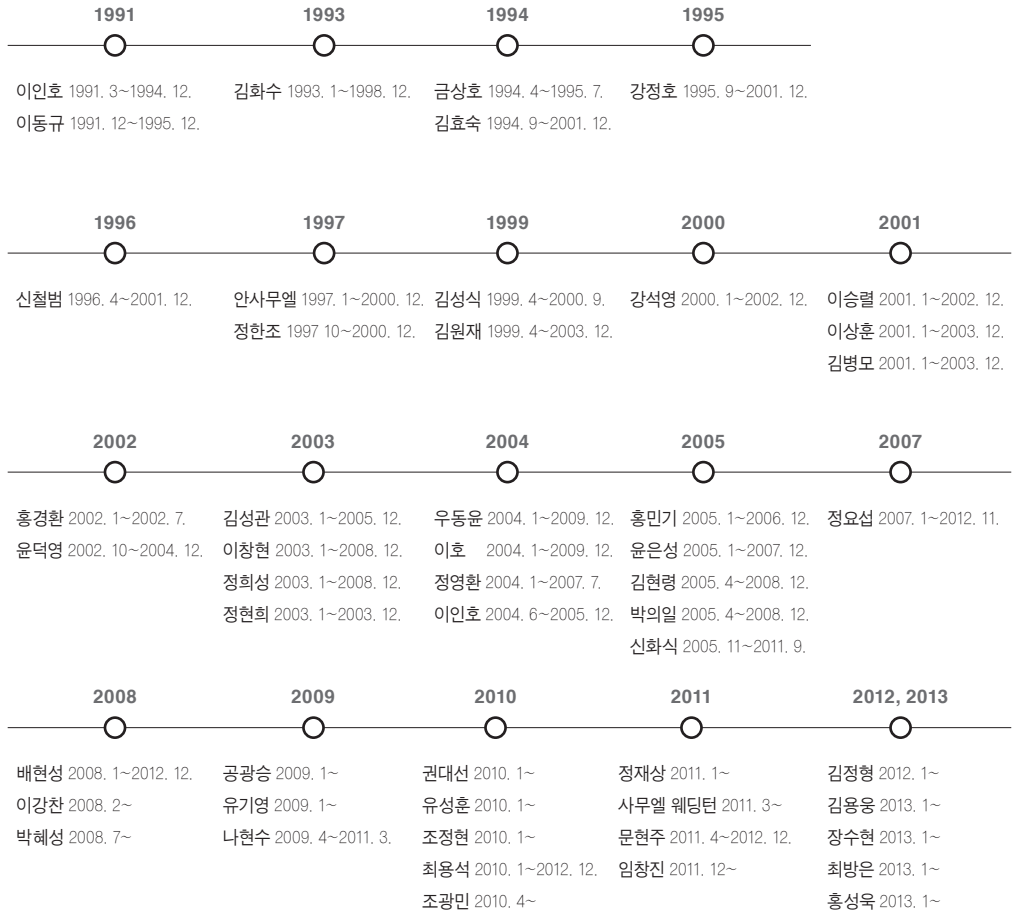
날짜(주일)	본문	제목	설교자	비고
2012. 12. 02.	창 28:10~19	약속과 성취	문성모	
2012. 12. 09.	시 130:1~8 / 계 22:19~21	기다림과 소망(오직 기독교! 7)	박원호	
2012. 12. 16.	사 7:14~17 / 마 1:18~25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오직 기독교! 8)	박원호	
2012. 12. 23.	사 9:6~7 / 요 1:9~14	빛으로 오신 예수(오직 기독교! 9)	박원호	
2012. 12. 30.	삼상 7:12~14 / 롬 12:1~2	에벤에셀(5)	박원호	
2013. 01. 06.	사 60:1~3 / 마 4:12~17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박원호	
2013. 01. 13.	사 52:9~10 / 막 8:34~36	생명과 그리스도(예수 1)	박원호	
2013. 01. 20.	사 53:7~9 / 요 17:1~5	메시아를 알아야 예수가 보입니다(예수 2)	박원호	
2013. 01. 27.	호 6:4~6 / 마 9:9~13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예수 3)	박원호	
2013. 02. 03.	단 2:31~35 / 마 13:17~23	팔자나 도전이나?(예수 4)	박원호	
2013. 02. 10.	사 7:7~9 / 눅 13:10~17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예수 5)	박원호	
2013. 02. 17.	사 53:1~3 / 막 10:35~40	예수와 제자들(예수 6)	박원호	
2013. 02. 24.	욘 1:11~16 / 마 12:40~42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	박원호	
2013. 03. 03.	요 2:4~6 / 마 23:37~39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보리라!	박원호	
2013. 03. 10.	요 3:4~8 / 눅 11:29~32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박원호	
2013. 03. 17.	요 4:9~11 / 마 14:28~32	내가 어찌 아까지 아니하겠느냐?	박원호	
2013. 03. 24.	속 9:9~10 / 마 21:6~9	어미 나귀의 눈물	박원호	
2013. 03. 31.	마 28:1~10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박원호	
2013. 04. 07.	시 115:4~9 / 갈 1:1~5	생명의 복음과 상품복음	박원호	
2013. 04. 14.	시 67:1~4 / 갈 2:19~21	오직 은혜	박원호	
2013. 04. 21.	출12:5~10 / 갈 3:10~14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박원호	
2013. 04. 28.	눅 15:11~24	그 품에 안기고 싶다	정장복	
2013. 05. 05.	신 6:4~9 / 갈 5:13~15	자녀 교육의 세 가지 우선 순위	박원호	
2013. 05. 12.	삼상 17:45~47 / 갈 5:22~26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박원호	
2013. 05. 19.	시 55:22~23 / 갈 6:1~5	강남 할아버지 개구리 이야기	박원호	
2013. 05. 26.	시 85:8~13 / 갈 6:14~16	새롭게 맺어가는 생명의 열매들	박원호	
2013. 06. 02.	창 12:1~4 / 눅 9:29~33	천성을 향한 여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박원호	
2013. 06. 09.	삿 13:12~14 / 딤후 3:15~17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	박원호	
2013. 06. 16.	예 7:3~7 / 눅 10:30~37	교회, 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박원호	
2013. 06. 23.	사 60:1~3 / 행 1:6~8	증인 되리라	박원호	
2013. 06. 30.	창 35:3~5 / 요 4:23~24	우리가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	박원호	

2. 교역자 재임 연표(1988~2013)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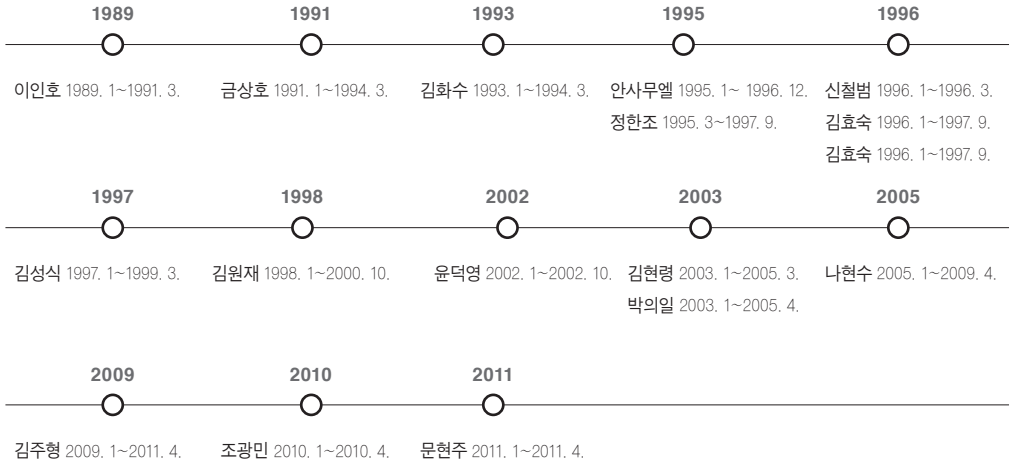
부목사



교육목사



전임전도사



준전임 목사



준전임 전도사



교육전임 전도사



전임 대우 전도사



교육전임 대우



교육전도사



2006	이창현	정희성	우동윤	윤은성	이호	정영환	홍민기	김현령	박의일	신화식	
2007	이창현	정희성	우동윤	윤은성	이호	정영환	김현령	박의일	신화식	정요섭	
2008	김화수	김효숙	강정호	이호	김현령	박의일	신화식	정요섭	배현성	이강찬	박혜성
2009	우동윤	이호	신화식	정요섭	배현성	이강찬	박혜성	공광승	유기영	나현수	
2010	신화식	정요섭	배현성	이강찬	박혜성	공광승	유기영	나현수	권대선	유성훈	조정현
	최용석	조광민									
2011	정요섭	배현성	이강찬	박혜성	공광승	유기영	권대선	유성훈	조정현	최용석	조광민
	정재상	사무엘 웨딩턴	문현주								
2012	정요섭	배현성	이강찬	박혜성	공광승	유기영	권대선	유성훈	조정현	최용석	조광민
	정재상	사무엘 웨딩턴	문현주	임창진	김정형						
2013	이강찬	박혜성	공광승	유기영	권대선	유성훈	조정현	조광민	정재상	사무엘 웨딩턴	임창진
	김정형	김용웅	장수현	최방은	홍성욱						

4. 장로 임직 현황(1990~2013)

◆안식년 ●휴식년 ♣안식년(전반기) ▲안식년(후반기)

1990	사무장로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1991	사무장로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1992	사무장로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1993	사무장로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1994	사무장로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협동장로	이수웅		
1995	사무장로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협동장로	이수웅	이병식	

1996	사무장로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1997	사무장로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협동장로	이수웅	이병식	권현일	이강현
		강신후	김우림	조동인	하재구
1998	사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은퇴장로	이재원			
	협동장로	이수웅	이병식	권현일	이강현
		강신후	김우림	조동인	하재구
1999	사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은퇴장로	이재원			
	협동장로	이수웅	이병식	권현일	이강현
		강신후	김우림		
2000	사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전세표	
	은퇴장로	이재원			
	협동장로	이수웅	이병식	권현일	이강현
		강신후	김우림		
2001	사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전세표	이병식
		최창섭	박시만		
	은퇴장로	이재원			
협동장로	이수웅	권현일	강신후	김우림	

2002	사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전세표	이병식
		최창섭	박시만	황기연	김현덕
	은퇴장로	이재원			
	협동장로	이수용	권현일	강신후	김우림
김인택		장길석	박호길	엄주면	
최대형					
2003	사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전세표	이병식
		최창섭	박시만	황기연	김현덕
	은퇴장로	이재원			
	협동장로	이수용	권현일	강신후	김우림
김인택		장길석	박호길	엄주면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이해복	
사임장로	박시만				
2004	사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정재경
		양동훈	계학용	임동진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전세표	이병식
		최창섭	김현덕	김경빈	김성배
		김원중	김재현	류달현	박호길
	은퇴장로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협동장로	이수용	권현일	강신후	김우림	
	김인택	장길석	엄주면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이해복		
2005	사무장로	정규창	양동훈	정재경	계학용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윤좌원	전세표
		이병식	최창섭	김현덕	김경빈
		김성배	김원중	김재현	류달현
		박호길	엄주청	이영자	이지화
		최상용			

2005	은퇴장로	이재원	김도묵	홍근용	
	협동장로	이수용	권현일	강신후	김우림
		김인택	장길석	엄주면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이해복	김영식
사임장로	황기언(2004.12.)				
2006	사무장로	계학용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이병식
		김현덕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김성배	이영자	류달현	김재현
		김완중	김양자	한득현	
	은퇴장로	김도묵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협동장로	권현일	강신후	김우림	장길석
		엄주면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이해복	김영식	박정규	류석우
		홍연표	이을형	백항기	
사임장로	황기언	전세표(2005.12.)			
2007	사무장로	계학용	김소일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이병식	김현덕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김성배
		이영자	류달현	김완중	김재현
		김양자	김용일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김도묵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협동장로	계학용	김소일	성백술	
		권현일	강신후	장길석	엄주면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이해복
		김영식	박정규	류석우	홍연표
	사임장로	이을형	백항기		
		황기언	전세표	류달현(2007.9.)	
2008	사무장로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이병식	김현덕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김성배	이영자	김재현
		김완중	김양자	김용일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박종규	박대길	장일형	조성득
		김도묵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은퇴장로	계학용	성백술		

2008	협동장로	권헌일	강신후	장길석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김영식	류석우
		홍연표	이을형	백항기	김수호
사임장로	황기언	전세표	류달현		
2009	사무장로	김현덕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김성배	이영자	김재현	김완중
		김양자	김용일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박종규
		박대길	장일형	조성득	최종명
		박중순			
	은퇴장로	김도묵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계학용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이병식	
	협동장로	권헌일	강신후	장길석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김영식	류석우
		홍연표	이을형	백항기	김수호
사임장로	황기언	전세표	류달현		
2010	사무장로	김현덕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김성배	이영자	김재현	김완중
		김양자	김용일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박종규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박대길	장일형	조성득	최종명
	박중순	박재준			
	은퇴장로	김도묵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계학용	김소일	성백술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이병식
	협동장로	권헌일	강신후	장길석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김영식	류석우
홍연표		이을형	백항기	김수호	
정재운	김영재				
사임장로	황기언	전세표	류달현		
2011	사무장로	김현덕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김성배	이영자	김재현	김완중
		김양자	김용일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박종규

2011	사무장로	박대길	장일형	조성득	최종명
		박중순	박재준	김성구	
	은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계학용	김소일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이병식	
	협동장로	권현일	강신후	장길석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김영식	류석우
		홍연표	이을형	백항기	김수호
		정재윤	김영재	김영실	
	사임장로	황기언	전세표	류달현	
2012	사무장로	김현덕	이영자	김재현	김완중
		김양자	김용일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박중규
		박대길	장일형	조성득	최종명
		박중순	박재준	김성구	지유철
		손천숙	김유호	동현수	김학원
	은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계학용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이병식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김성배		
	협동장로	장길석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노경환	류석우	홍연표	이을형
		백항기	김수호	정재윤	김영재
		김영실			
	사임장로	황기언	전세표	류달현	
	2013	사무장로	이영자	김재현	김완중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장일형	박중규	박대길
조성득			최종명	박중순	박재준
김성구			지유철	손천숙	김유호
동현수			김학원	노봉욱	정종국
강진식			이용수		
은퇴장로		김도목	홍근용	정규창	양동훈
		계학용	김경신	한윤경	권오승
		문창복	이병식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김성배	김현덕	김용일

2013	협동장로	장길석	최대형	구자삼	노경환
		김영식	류석우	홍연표	이을형
		백항기	김수호	정재윤	김영재
		김영실			
	사임장로	황기언	전세표	류달현	

5. 장로 시무기간 현황(1990~2013)

강진식 2013. 6. 23~현재	신정웅 2007. 6. 24~현재
계학용 1994. 6. 26~2006. 6. 25. (2000. 안식년)	양동훈 1992. 6. 21~2005. 6. 26. (1999. 하반기 안식년)
권오승 1997. 6. 29~2008. 6. 29. (1999. 전반기 안식년)	엄주청 2004. 6. 27~2011. 12. 25.
김경빈 2004. 6. 27~2005. 12. 교회 옮김	윤좌원 1999. 10. 10~2005. 12. 교회 옮김
김경신 1997. 6. 29~2008. 6. 29.	이병식 2001. 6. 24~2008. 12. 28.
김도목 1990. 10. 14~2003. 6. 29. (1996. 안식년)	이영자 2004. 6. 27~현재
김성구 2011. 6. 26~현재	이용수 2013. 6. 23~현재
김성배 2004. 6. 27~2011. 12. 25.	이재원 1990. 10. 14~1997. 12. (1995. 안식년)
김소일 1994. 6. 26~2006. 6. 25. (2001. 안식년)	이지화 2004. 6. 27~2011. 12. 25.
김양자 2006. 6. 25~현재	임동진 1994. 6. 26~ 2004. 2. (2002. 안식년, 2006. 교회 개척, 2007. 목사안수)
김완중 2004. 6. 27~현재	장일형 2008. 6. 29~현재
김용일 2007. 6. 24~2012. 12. 31.	전세표 2000. 6. 25~2005. 12. 사임
김유호 2012. 6. 24~현재	정규창 1992. 6. 21~2005. 6. 26. (1997. 안식년)
김재현 2004. 6. 27~현재	정재경 1992. 6. 21~2005. 6. 24. (1998. 안식년)
김창안 2007. 6. 24~현재	정종국 2013. 6. 23~현재
김학원 2012. 6. 24~현재	조성득 2008. 6. 29~현재
김한중 2007. 6. 24~현재	조원호 2007. 6. 24~현재
김현덕 2002. 6. 30~2012. 6. 24.	지유철 2012. 6. 24~현재
노봉욱 2013. 6. 23~현재	최상용 2004. 6. 27~2005. 12. 교회 옮김
동현수 2012. 6. 24~현재	최상인 2007. 6. 24~현재
류달현 2004. 6. 27~ 2007. 9. 8. 사임	최중명 2009. 6. 28~현재
문창복 1998. 6. 21~ 2008. 6. 29.	최창섭 2001. 6. 24~2005. 12. 교회 옮김
박대길 2008. 6. 29~현재	한득현 2006. 6. 25~2006. 12. 2. 사임. '길가에교회'로 장로이명
박시만 2001. 6. 24~ 2003. 1. 교회 옮김	한윤경 1997. 6. 29~2008. 6. 29.
박재준 2010. 6. 27~현재	홍근용 1990. 10. 14~2003. 6. 29. (1993. 11~1994. 12. 휴식년)
박중규 2008. 6. 29~현재	황기언 2002. 6. 30~2004. 12. 30. 사임
박중순 2009. 6. 28~현재	
박호길 2004. 6. 27~2011. 12. 25.	
성백술 1997. 6. 29~2005. 12. 31. (2001. 안식년)	
손천숙 2012. 6. 24~현재	

6. 권사 임직 현황(1991~2013)

1991	시무	김영숙 박두리	전선옥 김영희	장남순 남옥련	정연희 강정혜	김경신	이정원	원정희	조문자	이영자	김미자
1992	시무	김영숙 박두리	전선옥 김영희	장남순 남옥련	정연희 강정혜	김경신 소효용	이정원 박영숙	원정희	조문자	이영자	김미자
1993	시무	김영숙 박두리	전선옥 김영희	장남순 남옥련	정연희 강정혜	김경신 소효용	이정원 박영숙	원정희	조문자	이영자	김미자
	협동	오병희	윤용자	이금선	조춘실						
1994	시무	김영숙 김영희	전선옥 남옥련	장남순 강정혜	정연희 소효용	김경신 박영숙	이정원 오병희	조문자 노봉옥	이영자	김미자	박두리
	협동	윤용자	이금선	김지자	조춘실						
1995	시무	김영숙 김영희	전선옥 남옥련	장남순 강정혜	정연희 소효용	김경신 박영숙	이정원 오병희	조문자 노봉옥	이영자 김양자	김미자 김갑수	박두리 이성연
	협동	윤용자	이금선	김지자	조춘실						
1996	시무	김영숙 강정혜 이동순	장남순 박영숙	정연희 오병희	김경신 노봉옥	이정원 김양자	이영자 김갑수	김미자 이성연	박두리 김화진	김영희 송경녀	남옥련 임선자
	협동	윤용자	이금선	김지자	전은숙	이성민	이창성	장혜자			
1997	시무	김영숙 박영숙 윤용자	장남순 오병희 이혜자	정연희 노봉옥 이승애	이정원 김양자 양한민	이영자 김갑수 변아경	김미자 김갑수 김은정	박두리 김화진 김원경	김영희 송경녀 김경희	남옥련 임선자 김영아	강정혜 이동순 권미희
	협동	이금선	김지자	전은숙	이성민	이창성	장혜자	김기숙	안정복	임성찬	
1998	시무	김영숙 박영숙 윤용자 장순현	장남순 오병희 이혜자	정연희 노봉옥 이승애	이정원 김양자 양한민	이영자 김갑수 변아경	김미자 김갑수 김은정	박두리 김화진 김원경	김영희 송경녀 김경희	남옥련 임선자 김영아	강정혜 이동순 권미희
	협동	이금선	김지자	전은숙	이성민	이창성	장혜자	김기숙	안정복	임성찬	김형기
1999	시무	김영숙 노봉옥 양한민	이정원 김양자 변아경	이영자 김갑수 김은정	김미자 이성연 김원경	박두리 김화진 김경희	김영희 송경녀 김영아	남옥련 임선자 권미희	강정혜 이동순 장순현	박영숙 윤용자 고초순	오병희 이혜자
	협동	이금선	김지자	전은숙	이성민	이창성	장혜자	임성찬	김형기		
2000	시무	이정원 김양자 변아경 박영옥	이영자 김갑수 김은정	김미자 이성연 김원경	박두리 김화진 김경희	김영희 송경녀 김영아	남옥련 임선자 권미희	강정혜 이동순 장순현	박영숙 윤용자 고초순	오병희 이혜자 전은숙	노봉옥 양한민 이경아
	협동	이금선	김지자	이성민	이창성	장혜자	임성찬	김형기			
2001	시무	이정원 김양자 변아경 박영옥 배홍자	이영자 김갑수 김은정 강은애	김미자 이성연 김원경 곽예스더	박두리 김화진 김경희 이상경	김영희 송경녀 김영아 남현숙	남옥련 임선자 권미희 최성화	강정혜 이동순 장순현 신성숙	박영숙 윤용자 고초순 서은숙	오병희 이혜자 전은숙 이금선	노봉옥 양한민 이경아 최명숙
	협동	이금선	김지자	이성민	이창성	장혜자	임성찬	김형기			

2006	사무	고선욱 송정현 정영숙	유은숙 김순희 송경혜	최영순 이경자 이봉순	고정순 손혜선 백숙자	김금숙 박영남 최정윤	이승숙 박귀희 고유자	강경원 신영숙	김선례 최재경	한영미 김운선	이종은 은영희
	협동	이성민 임성찬									
2007	사무	이정원	김미자	박두리	남옥연	강정혜	박영숙	노봉옥	김갑수	이성연	송경녀
		임선자	이동순	김은정	장순현	고초순	이경아	박경옥	곽에스더	이상경	남현숙
		최명숙	배홍자	최윤정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	김귀옥	김홍도	이경희	김성애
		전혜영	우일강	이지연	손천숙	신재숙	전영선	이영남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강옥희	박인숙	오점덕	이경희	오영실	김명애	고선욱	유은숙
		최영순	고정순	김금숙	강경원	김선례	이종은	김순희	이경자	박영남	박귀희
		신영숙	최재경	김운선	은영희	정영숙	송경혜	이봉순	백숙자	최정윤	고유자
		정옥춘	허명숙	이드보라	조순자	도성자	허영자	김청자	박혜숙	김화자	임선자
		김영희	이영남	장경애	김연희	이혜숙	박순희	유영옥	김영숙	이희순	최진옥
		박서연	김설희	이해옥	조명희	김정숙	이현숙	서금란	김예식	백경애	강혜선
이은우	우진선	김현주	이미화	이동숙	김향순	장혜정	신명식	이춘옥	권승님		
협동	임성찬										
2008	사무	이정원	김미자	박두리	남옥연	강정혜	노봉옥	김갑수	이성연	송경녀	임선자
		이동순	김은정	장순현	이경아	박경옥	곽에스더	이상경	남현숙	최명숙	배홍자
		최윤정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	김귀옥	김홍도	이경희	김성애	전혜영	우일강
		이지연	손천숙	신재숙	전영선	이영남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강옥희	박인숙	오점덕	이경희	오영실	김명애	고선욱	유은숙	최영순	고정순
		김금숙	강경원	김선례	이종은	김순희	이경자	박영남	박귀희	신영숙	최재경
		김운선	은영희	정영숙	송경혜	이봉순	백숙자	최정윤	고유자	정옥춘	허명숙
		이드보라	조순자	도성자	허영자	김청자	박혜숙	김화자	임선자	김영희	이영남
		장경애	김연희	이혜숙	박순희	유영옥	김영숙	이희순	최진옥	박서연	김설희
		이해옥	조명희	김정숙	이현숙	서금란	김예식	백경애	강혜선	이은우	우진선
김현주	이미화	이동숙	김향순	장혜정	신명식	이춘옥	권승님	박형자	권이홍		
고정옥	방혜준	오영숙	김고미	김진숙	유임순	이영란	길금옥	김화순	박지원		
문현주	양계수	김영림	김홍숙	문희주	이정임	조옥실	서광숙	김현진	이명자		
한정신	전진희	황정매	황옥자	김순자	박혜진	정숙자	허건오	정선용	이기원		
협동	임성찬										
2009	사무	이정원	김미자	박두리	남옥연	강정혜	노봉옥	김갑수	이성연	송경녀	임선자
		이동순	김은정	장순현	이경아	박경옥	곽에스더	이상경	남현숙	최명숙	배홍자
		최윤정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	김귀옥	김홍도	이경희	김성애	전혜영	우일강
		이지연	손천숙	신재숙	전영선	이영남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2009	사무	강옥희	박인숙	오점덕	이경희	오영실	김명애	고선욱	유은숙	최영순	고정순
		김금숙	강경원	김선례	이종은	김순희	이경자	박영남	박귀희	신영숙	최재경
		김운선	은영희	정영숙	송경혜	이봉순	백숙자	최정윤	고유자	정옥춘	허명숙
		이드보라	조순자	도성자	허영자	김청자	박혜숙	김화자	임선자	김영희	이영남
		장경애	김연희	이혜숙	박순희	유영옥	김영숙	이희순	최진옥	박서연	김설희
		이해옥	조명희	김정숙	이현숙	서금란	김예식	백경애	강혜선	이은우	우진선
		김현주	이미화	이동숙	김향순	장혜정	신명식	이춘옥	권승님	박형자	권이홍
		고정옥	방혜준	오영숙	김고미	김진숙	유임순	이영란	길금옥	김화순	박지원
		문현주	양계수	김영림	김홍숙	문희주	이정임	조옥실	서광숙	김현진	이명자
		한정신	전진희	황정매	황옥자	김순자	박혜진	정숙자	허건오	정선용	이기원

	사무	조현숙 이은영	이승주 김진숙	김영희 이은순	이정선 박성은	김천희	김희순	강정녀	정연희	정해연	최영숙
	협동	임성찬									
2010	사무	이정원	김미자	박두리	남옥연	강정혜	노봉옥	김갑수	이성연	임선자	이동순
		김은정	김영아	장순현	이경아	박경옥	곽에스더	이상경	남현숙	최명숙	배홍자
		최윤정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	김귀옥	김홍도	이경희	김성애	전혜영	우일강
		이지연	손천숙	신재숙	이영남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강옥희
		박인숙	오점덕	이경희	오영실	박순실	김명애	고선옥	유은숙	최영순	고정순
		김금숙	강경원	김선례	이종은	김순희	이경자	박영남	박서영	신영숙	최재경
		김운선	은영희	정영숙	송경혜	이봉순	백숙자	최정윤	고유자	허명숙	이드보라
		조순자	도성자	허영자	김청자	김화자	임선자	김영희	이영남	장경애	김연희
		이혜숙	박순희	유영옥	김영숙	최진옥	박서연	김설희	이해옥	이희순	조명희
		김정숙	이현숙	서금란	김예식	백경애	강혜선	이은우	우진선	김현주	이미화
		이동숙	김향순	장혜정	신명식	이춘옥	권승님	박형자	권이홍	고정옥	방혜준
		오영숙	김고미	김진숙	유임순	이영란	길금옥	김화순	박지원	문현주	양계수
		김영림	김홍숙	문희주	이정임	조옥실	서광숙	김현진	이명자	한정신	전진희
		황정매	황옥자	김순자	박혜진	정숙자	허건오	정선용	이기원	조현숙	이승주
		김영희	이정선	김천희	김희순	강정녀	정연희	정해연	최영숙	이은영	김진숙
		이은순	박성은	김정순	박희주	윤영숙	윤현숙	구정숙	송경엽	최명희	안종택
	안경희	이은숙	윤숙연	민옥기	이동명	윤명희	정순모	김희숙	유마노	장계영	
김신애	김인숙	윤여금	이미영	윤미숙	강은주	이연숙	장근희	최인실	김동순		
협동	임성찬										
2011	사무	이정원	김미자	박두리	남옥연	강정혜	노봉옥	김갑수	이성연	임선자	이동순
		김은정	김영아	장순현	이경아	박경옥	곽에스더	이상경	남현숙	최명숙	배홍자
		최윤정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	김귀옥	김홍도	이경희	김성애	전혜영	우일강
		이지연	손천숙	신재숙	이영남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강옥희
		박인숙	오점덕	이경희	오영실	박순실	김명애	고선옥	유은숙	최영순	고정순
		김금숙	강경원	김선례	이종은	김순희	이경자	박영남	박서영	신영숙	최재경
		김운선	은영희	정영숙	송경혜	이봉순	백숙자	최정윤	고유자	허명숙	이드보라
		조순자	도성자	허영자	김청자	김화자	임선자	김영희	이영남	장경애	김연희
		이혜숙	박순희	유영옥	김영숙	최진옥	박서연	김설희	이해옥	이희순	조명희
		김정숙	이현숙	서금란	김예식	백경애	강혜선	이은우	우진선	김현주	이미화
		이동숙	김향순	장혜정	신명식	이춘옥	권승님	박형자	권이홍	고정옥	방혜준
		오영숙	김고미	김진숙	유임순	이영란	길금옥	김화순	박지원	문현주	양계수
		김영림	김홍숙	문희주	이정임	조옥실	서광숙	김현진	이명자	한정신	전진희
		황정매	황옥자	김순자	박혜진	정숙자	허건오	정선용	이기원	조현숙	이승주
		김영희	이정선	김천희	김희순	강정녀	정연희	정해연	최영숙	이은영	김진숙
		이은순	박성은	김정순	박희주	윤영숙	윤현숙	구정숙	송경엽	최명희	안종택
	안경희	이은숙	윤숙연	민옥기	이동명	윤명희	정순모	김희숙	유마노	장계영	
김신애	김인숙	윤여금	이미영	윤미숙	강은주	이연숙	장근희	최인실	김동순		
조성희	김종란	손경숙	유석희	최귀선	우금순	박주희	정승아	박인평	오미혜		
김순희	김혜중	홍기현	임미경	왕명숙	김현희	성향순					

2012	사무	이정원	김미자	박두리	남옥연	강정혜	노봉옥	김갑수	이성연	임선자	이동순
		김은정	장순현	김영아	이경아	박경옥	곽에스더	이상경	남현숙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	김귀옥	김홍도	이경희	김성애	전혜영	우일강	이지연	신재숙	이영남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강옥희	박인숙	오점덕	이경희	오영실
		박순실	김명애	고선옥	유은숙	최영순	고정순	김금숙	강경원	김선례	이종은
		김순희	이경자	박영남	박서영	신영숙	최재경	김운선	은영희	정영숙	송경혜
		이봉순	백숙자	최정윤	고유자	도성자	허영자	김청자	김화자	임선자	김영희
		이영남	장경애	김연희	이혜숙	박순희	유영옥	김영숙	최진옥	박서연	김설희
		이해옥	이희순	조명희	김정숙	이현숙	서금란	김예식	백경애	강혜선	이은우
		우진선	김현주	이미화	이동숙	김향순	장혜정	신명식	이춘옥	권승님	박형자
		권이홍	고정옥	방혜준	오영숙	김고미	김진숙	유임순	이영란	길금옥	김화순
		박지원	문현주	양계수	김영림	김홍숙	문희주	이정임	조옥실	서광숙	김현진
		이명자	한정신	전진희	황정매	황옥자	김순자	박혜진	정숙자	허건오	정선용
		이기원	조현숙	이승주	김영희	이정신	김천희	김희순	강정녀	정연희	정해연
		최영숙	이은영	김진숙	이은순	박성은	유마노	민옥기	안경희	김인숙	윤숙연
		장계영	김정순	정순모	윤현숙	윤명희	송경엽	이미영	이은숙	박희주	최명희
		이동명	윤미숙	강은주	구정숙	김신애	윤여금	윤영숙	안종택	이연숙	장근희
		최인실	김동순	조성희	김종란	손경숙	유석희	최귀선	우금순	박주희	정승아
		곽인평	오미혜	김순희	김혜중	홍기현	임미경	왕명숙	김현희	성향순	김혜숙
		조혜조	김라마	남택숙	박서경	최정숙	이덕례	김분자	박향숙	김용숙	문유숙
김미혜	한경임	방순희	김경미	김미자	임연옥	박경숙	송용미	성순현	성순현		
2013	사무	이정원	김미자	박두리	남옥연	강정혜	김갑수	이성연	임선자	이동순	김은정
		장순현	김영아	이경아	박경옥	곽에스더	이상경	남현숙	김지자	한은수	이희숙
		김귀옥	김홍도	이경희	김성애	전혜영	우일강	이지연	신재숙	이영남	이광자
		장혜경	이창성	김옥라	김형기	강옥희	박인숙	오점덕	이경희	오영실	박순실
		김명애	고선옥	유은숙	최영순	고정순	김금숙	강경원	김선례	이종은	김순희
		이경자	박영남	박서영	신영숙	최재경	김운선	은영희	정영숙	송경혜	이봉순
		백숙자	최정윤	고유자	도성자	허영자	김청자	김화자	임선자	김영희	이영남
		장경애	김연희	이혜숙	박순희	유영옥	김영숙	최진옥	박서연	김설희	이해옥
		이희순	조명희	김정숙	이현숙	서금란	김예식	백경애	강혜선	이은우	우진선
		김현주	이미화	이동숙	김향순	장혜정	신명식	이춘옥	권승님	박형자	권이홍
		고정옥	방혜준	오영숙	김고미	김진숙	유임순	이영란	길금옥	김화순	박지원
		문현주	양계수	김영림	김홍숙	문희주	이정임	조옥실	서광숙	김현진	이명자
		한정신	전진희	황정매	황옥자	김순자	박혜진	정숙자	허건오	정선용	이기원
		조현숙	이승주	김영희	이정신	김천희	김희순	강정녀	정연희	정해연	최영숙
		이은영	김진숙	이은순	박성은	유마노	민옥기	안경희	김인숙	윤숙연	장계영
		김정순	정순모	윤현숙	윤명희	송경엽	이미영	이은숙	박희주	최명희	이동명
		윤미숙	강은주	구정숙	김신애	윤여금	윤영숙	안종택	이연숙	장근희	최인실
		김동순	조성희	김종란	손경숙	유석희	최귀선	우금순	박주희	정승아	곽인평
		오미혜	김순희	김혜중	홍기현	임미경	왕명숙	김현희	성향순	김혜숙	조혜조
		김라마	남택숙	박서경	최정숙	이덕례	김분자	박향숙	김용숙	문유숙	김미혜
한경임	방순희	김경미	김미자	임연옥	박경숙	송용미	성순현	윤숙숙	엄성임		
김영희	이승희	손정아	원옥윤	이준숙	김영남	이혜자	우현숙	홍성현	심미숙		
김신정	유혜경	유희정	송정애								

연도	은퇴권사			
1995. 12.	소호용			
1998. 12.	장남순			
1999. 12.	김영숙			
2002. 01.	김화진			
2006. 06.	전은숙			
2009. 12.	송경녀	전영선	정옥춘	
2010. 12.	최명숙			
2011. 12.	배홍자	이드보라	조순자	최윤정 허명숙
2012. 12.	김지자	도성자	이경아	조옥실

7. 안수집사 임직 현황(1990~2013)

1990	정규창	황기언	정재경	양동훈						
1991	정규창	황기언	정재경	양동훈	김소일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1992	황기언	김소일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박시만									
1993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박시만
	성백술	김광태	문창복	한정웅	김성식					
1994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박시만
	성백술	김광태	문창복	한정웅	김성식	한윤경	권오승			
1995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박시만
	성백술	김광태	문창복	한정웅	김성식	한윤경	권오승	이정순	박양기	
1996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박시만
	성백술	김광태	문창복	한정웅	김성식	한윤경	권오승	이정순	박양기	김현덕
1997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박시만
	김광태	문창복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김현덕	이지화	김재현	김성배
	김경빈	정양재	윤좌원	류달현	최창섭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1998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박시만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김현덕	이지화	김재현	김성배	김경빈
	정양재	윤좌원	류달현	최창섭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오세운	전세표	
1999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박시만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김현덕	이지화	김재현	김성배	김경빈
	정양재	류달현	최창섭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오세운	전세표	이종석	
2000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박시만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김현덕	이지화	김재현	김성배	김경빈
	정양재	류달현	최창섭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오세운	이종석	엄주청	백승준
	김한중	조원호	최상용	김완중	한병호	박치용				

2001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용	하승락	이총길	박시만
	김광태	한정용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김현덕	이지화	김재현	김성배	김경빈
	정양재	류달현	최창섭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오세운	이종석	엄주청	백승준
	김한중	조원호	최상용	김완중	한병호	박치용	임현표	조일승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한득현	장일형	김창안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2002	황기언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용	하승락	이총길	김광태
	한정용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김현덕	이지화	김재현	김성배	김경빈	정양재
	윤좌원	류달현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오세운	이종석	엄주청	백승준	김한중
	조원호	최상용	김완중	한병호	박치용	임현표	조일승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한득현	장일형	김창안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응순	박종규	한상근	조성득			
2003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용	하승락	이총길	김광태	한정용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이지화	김재현	김성배	김경빈	정양재	류달현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오세운	이종석	엄주청	백승준	김한중	조원호	최상용	김완중
	한병호	박치용	임현표	조일승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한득현	장일형	김창안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응순	박종규	한상근	조성득						
2004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용	하승락	이총길	김광태	한정용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정양재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오세운	이종석	백승준
	김한중	조원호	한병호	박치용	임현표	조일승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한득현	장일형	김창안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응순	박종규	한상근	조성득	강진식	김용일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신정용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만	
최종명										
2005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용	하승락	이총길	김광태	한정용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정양재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오세운	이종석	백승준
	김한중	조원호	한병호	박치용	임현표	조일승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한득현	장일형	김창안	남장희		
2005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응순	박종규	한상근	조성득	강진식
	김용일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신정용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만	최종명	김기용	김홍용	박대길	김구중	이상윤	김동근	이용수
2006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용	하승락	이총길	김광태	한정용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정양재	김성구	유중화	최상인	오세운	이종석	백승준
	김한중	조원호	한병호	박치용	임현표	조일승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장일형	김창안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응순	박종규	한상근	조성득	강진식	김용일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신정용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만	최종명	
김기용	김홍용	박대길	김구중	이상윤	김동근	이용수	김학원	동현수	박종순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조영률	최성준						

2007	박용주	성범용	이상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용	하승락	이충길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정양재	김성구	유중화	오세운	이종석	백승준	한병호
	박치용	임헌표	조일송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장일형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운순	박종규
	한상곤	조성득	강진식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만	최종명	김기용	김홍용	박대길	김구중	이상윤	김동근
	이용수	김학원	동현수	박중순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조영률	최성준	양태홍
	박 건	송승엽	박홍현	권순영	박재준	이재현	왕승근	정종국	전건호	정원영
	이 열	배익환	장득순	김병한	고한규	이진원	손철규	정재훈	김유호	박영주
공진권	신형섭	김용진	권승환	김은성	최성진	이병직	한군희	이진걸	윤성진	
조선연	손영익	박기운	지호선							
2008	박용주	성범용	이상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용	하승락	이충길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정양재	김성구	유중화	오세운	이종석	백승준	한병호
	박치용	임헌표	조일송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운순	한상곤	강진식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만
	최종명	김기용	김홍용	김구중	이상윤	김동근	이용수	김학원	동현수	박중순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조영률	최성준	양태홍	박 건	송승엽	박홍현	권순영
	박재준	이재현	왕승근	정종국	전건호	정원영	이 열	배익환	장득순	김병한
	고한규	이진원	손철규	정재훈	김유호	박영주	공진권	신형섭	김용진	권승환
	김은성	최성진	이병직	한군희	이진걸	윤성진	조선연	손영익	박기운	지호선
	최재규	윤하중	권덕원	유정식	황용환	홍운식	이문채	박규택	이성래	박인국
	유승하	송행근	고석창	방치용	김두용	이성준	김낙균	유희문	김창균	김 혁
	조병길	최영배	하광엽	김성운	황준기	강승중	임봉수	김인성		
2009	박용주	성범용	이상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용	하승락	이충길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정양재	김성구	유중화	오세운	이종석	백승준	한병호
	박치용	임헌표	조일송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운순	한상곤	강진식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만
	김기용	김홍용	김구중	이상윤	김동근	이용수	김학원	동현수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조영률	최성준	양태홍	박 건	송승엽	박홍현	권순영	박재준	이재현
	왕승근	정종국	전건호	정원영	이 열	배익환	장득순	김병한	고한규	이진원
	손철규	정재훈	김유호	박영주	공진권	신형섭	김용진	권승환	김은성	최성진
	이병직	한군희	이진걸	윤성진	조선연	손영익	박기운	지호선	최재규	윤하중
	권덕원	유정식	황용환	홍운식	이문채	박규택	이성래	박인국	유승하	송행근
	고석창	방치용	김두용	이성준	김낙균	유희문	김창균	김 혁	조병길	최영배
	하광엽	김성운	황준기	강승중	임봉수	김인성	남기방	장정덕	이동훈	한석주
황의완	김윤섭	서기춘	전재운	임경수	이상욱	임영규	김윤희	김동익	이병권	
황남호	이동희	이현식	박영상	홍기협						

2010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정양재	김성구	유중화	오세운	이종석	백승준	한병호
	박치용	임현표	조일송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응순	한상근	강진식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만
	김기용	김홍용	김구중	이상윤	김동근	이용수	김학원	동현수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조영률	최성준	양태홍	박 건	송승엽	박홍현	권순영	이재현	왕승근
	정종국	전건호	정원영	이 열	배익환	장득순	김병한	고한규	이진원	손철규
	정재훈	김유호	박영주	공진권	신형섭	김용진	권승환	김은성	최성진	이병직
	한근희	이진길	윤성진	조선연	손영익	박기운	지호선	최재규	윤하중	권덕원
	유정식	황용환	홍윤식	이문채	박규택	이성래	박인국	유승하	송행근	고석창
	방치용	김두용	이성준	김낙균	유희문	김창균	김 혁	조병길	최영배	하광업
	김성윤	황준기	강승중	임봉수	김인성	남기방	장청덕	이동훈	한석주	황의완
	김윤섭	서기춘	전재윤	임경수	이상욱	임영규	김윤희	김동익	이병권	황남호
	이동희	이현식	박영상	홍기협	김청옥	김학식	신광이	성규철	김수철	박석영
이종태	탁준한	나관주	노형래	주용규	윤용석	박일영	박기석	박인석	정준호	
변춘석	이문영	이승일	박혁동	남성엽	지성호	김령훈	김광일			
2011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김재현	정양재	유중화	오세운	이종석	백승준	한병호
	박치용	임현표	조일송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응순	한상근	강진식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만
	김기용	김홍용	김구중	이상윤	김동근	이용수	김학원	동현수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조영률	최성준	양태홍	박 건	송승엽	박홍현	권순영	이재현	왕승근
	정종국	전건호	정원영	이 열	배익환	장득순	김병한	고한규	이진원	손철규
	정재훈	김유호	박영주	공진권	신형섭	김용진	권승환	김은성	최성진	이병직
	한근희	이진길	윤성진	조선연	손영익	박기운	지호선	최재규	윤하중	권덕원
	유정식	황용환	홍윤식	이문채	박규택	이성래	박인국	유승하	송행근	고석창
	방치용	김두용	이성준	김낙균	유희문	김창균	김 혁	조병길	최영배	하광업
	김성윤	황준기	강승중	임봉수	김인성	남기방	장청덕	이동훈	한석주	황의완
	김윤섭	서기춘	전재윤	임경수	이상욱	임영규	김윤희	김동익	이병권	황남호
	이동희	이현식	박영상	홍기협	김청옥	김학식	신광이	성규철	김수철	박석영
이종태	탁준한	나관주	노형래	주용규	윤용석	박일영	박기석	박인석	정준호	
변춘석	이문영	이승일	박혁동	남성엽	지성호	김령훈	김광일	임근원	이상록	
노대홍	윤희욱	김기창	김관호	노환욱	박동수	하영중	김순종	강석인	김익훈	
김달원	박현욱	김복수	나영일	김이권	임익수	하태원	이상균	이재덕		
2012	박용주	성범용	이성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하승락	이충길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김재현	정양재	유중화	오세운	이종석	백승준	한병호
	박치용	임현표	조일송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2012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용순	한상근	강진석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최종만	김기용	
	김홍용	김구중	이상윤	김동근	이용수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조영률	최성준	
	양태홍	박 건	송승엽	박홍현	권순영	이재현	왕승근	정종국	전건호	정원영	
	이 열	배익환	장득순	김병한	고한규	이진원	손철규	정재훈	박영주	공진권	
	신형섭	김용진	권승환	김은성	최성진	이병직	한군희	이진걸	윤성진	조선연	
	손영익	박기운	지호선	최재규	윤하중	권덕원	유정식	황용환	홍운식	이문채	
	박규택	이성래	박인국	유승하	송행근	고석창	방치웅	김두용	이성준	김낙균	
	유희문	김창균	김 혁	조병길	최영배	허광엽	김성운	황준기	강승중	임봉수	
	김인성	남기방	장청덕	이동훈	한석주	황의완	김윤섭	서기춘	전재윤	임경수	
	이상욱	임영규	김윤희	김동익	이병권	황남효	이동희	이현식	박영상	홍기협	
	김청욱	김학식	신광이	성규철	김수철	박석영	이종태	탁준한	나관주	노형래	
	주용규	윤용석	박일영	박기석	박인석	정준호	변춘석	이문영	이승일	박혁동	
	남성엽	지성호	김명훈	김광일	임근원	이상록	노대홍	윤희욱	김기창	김관호	
	노환욱	박동수	허영종	김순종	강석인	김익훈	김달원	박헌욱	김복수	니영일	
	김이권	임익수	하태원	이성균	이재덕	원재환	전석식	신현재	이한성	김봉근	
	최종현	김진수	태재승	이흥모	김중호	김유석	최호성	박석진	권성호	여인목	
	최병욱	정상철	서정하								
	2013	박용주	성범용	이상우	최광열	전무작	이창웅	허승락	이충길	김광태	한정웅
		김성식	이정순	박양기	김재현	정양재	유중화	오세윤	이종석	백승준	한병호
박치웅		임현표	조일승	김영중	김규화	최두순	김동일	서길원	이재형	김대현	
박인호		남장희	장승수	이진세	강대준	강윤식	서인석	박용천	조남홍	오종세	
최경호		정해춘	손달진	김영봉	한형석	김경덕	정용섭	강용순	한상근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최종만	김기용	김홍용	
김구중		이상윤	김동근	심동욱	윤의탁	이원철	조영률	최성준	양태홍	박 건	
송승엽		박홍현	권순영	이재현	왕승근	전건호	정원영	이 열	배익환	장득순	
김병한		고한규	이진원	손철규	정재훈	박영주	공진권	신형섭	김용진	권승환	
김은성		최성진	이병직	한군희	이진걸	윤성진	조선연	손영익	박기운	지호선	
최재규		윤하중	권덕원	유정식	황용환	홍운식	이문채	박규택	이성래	박인국	
유승하		송행근	고석창	방치웅	김두용	이성준	김낙균	유희문	김창균	김 혁	
조병길		최영배	허광엽	김성운	황준기	강승중	임봉수	김인성	남기방	장청덕	
이동훈		한석주	황의완	김윤섭	서기춘	전재윤	임경수	이상욱	임영규	김윤희	
김동익		이병권	황남효	이동희	이현식	박영상	홍기협				
김청욱		김학식	신광이	성규철	김수철	박석영	이종태	탁준한	나관주	노형래	
주용규		윤용석	박일영	박기석	박인석	정준호	변춘석	이문영	이승일	박혁동	
남성엽		지성호	김명훈	김광일	임근원	이상록	노대홍	윤희욱	김기창	김관호	
노환욱		박동수	허영종	김순종	강석인	김익훈	김달원	박헌욱	김복수	니영일	
김이권		임익수	하태원	이성균	이재덕	원재환	전석식	신현재	이한성	김봉근	
최종현	김진수	태재승	이흥모	김중호	김유석	최호성	박석진	권성호	여인목		
최병욱	정상철	서정하	김중권	석관징	김건홍	이형구	정의영	최오섭	신영백		
이명기	이승원	안성봉	김하방	권영식	이중만	정해천	김정래	김병연	안경삼		
최영인											
2006	퇴임 임현표										

8-1. 제직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1991~1995)

	부서	부장(권사)	부서	부장(권사)
1991	피택	이재원, 최광열, 이영자	관리	황기언, 이충길, 장남순
	선교	김도목, 장승수, 이정원	교육	정재경, 조형기, 박두리
	구제	홍근용, 박시만, 김영희	음악	양동훈, 박양기, 김영숙
	봉사	정규창, 하승락, 강정혜		
1992	부서	부장(권사)	부서	부장(권사)
	선교	이재원, 전선옥	홍보	정규창
	구제	김도목, 장남순	안내1	김소일
	봉사	홍근용, 윤웅자, 김현숙	안내2	박용주
	심방	강정혜, 박두리, 김영희, 원정희, 이정원, 박영숙	주방	김영숙, 소호용
	경조	정재경, 권사 전원	운동	김경신
	재정	양동훈	교육	황기언
	관리	전무작	음악	계학용
1993	부서	부장(권사)	부서	부장(권사)
	홍보	정규창	운동	김경신
	경조	정재경	상담	윤웅자
	미화	양동훈	해외선교	박용주
	교육	김소일	기관선교	이성우
	관리	전무작	특수선교	이창웅
	재정	박시만	농어촌선교	하승락
	안내1	성백술	지역사회봉사	이충길
	안내2	한정웅	도시선교	김광태
	봉사	문창복	청소년	김성식
	음악	계학용	구제장학	임동진
주방	김영숙	여성	김미자	
1994	대내부서	부장	대내부서	부장
	문화부	임동진	안내2부	한정웅
	경조부	정재경	봉사부	문창복
	미화부	양동훈	음악부	이수용
	교육부	김소일	주방부	강정혜
	관리부	이정순	운동부	김현덕
	재정부	박시만	상담부	이금선
	안내1부	성백술	미술부	한희숙

1994	대외부서	부장	대외부서	부장
	아세아 선교부	홍근용	구미 선교부	이성우
	기관선교부	김광태	구제부	계학용
	특수선교부	성백술	장학부	이창용
	농촌선교부	박용주	여성부	정연희
	광어촌선교부	문창복	의료선교부	박시만
	지역사회봉사부	하승락	녹색부	노봉옥
	도시선교부	한정웅	전도부	김갑수
	청소년부	정규창	호스피스부	김양자
1995	대내부서	부장	대내부서	부장
	문화부	임동진	안내2부	한정웅
	경조부	정재경	봉사부	문창복
	미화부	양동훈	음악부	이수웅
	교육부	김소일	주방부	강정혜
	관리부	이정순	울동부	김현덕
	재정부	박시만	상담부	이금선
	안내1부	성백술	미술부	한희숙
	대외부서	부장	대외부서	부장
아세아 선교부	홍근용	구미 선교부	이성우	

8-2. 제직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1996~2002)

1997년 당회 당회장: 이재철 | 제직회 의장: 이재철 / 서기: 문창복
1998년 당회 당회장: 이재철 | 제직회 의장: 이재철 / 서기: 류달현
1999년 당회 당회장: 임영수 / 서기: 김도목 | 제직회 의장: 임영수 / 서기: 류달현
2000년 당회 당회장: 임영수 / 서기: 김도목 | 제직회 의장: 임영수 / 서기: 류달현
2001년 당회 당회장: 임영수 / 서기: 정재경 | 제직회 의장: 임영수 / 서기: 최상인
2002년 당회 당회당: 임영수 / 서기: 정재경 | 제직회 의장: 임영수 / 서기: 최상인

1996	대내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문화위원회	계학용	울동부	김영아
		성백술	미술부	곽정명
		박용주	문화부	송영혜
	봉사위원회	김소일	봉사부	성백술, 김은정

1996	대내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봉사위원회	김소일	미화부	최상인
			주방부	남옥련
	경조위원회	양동훈	경조부	이정원, 김경빈
			새신자부	노봉옥, 장혜경
			안내1부	한윤경
			안내2부	문창복
			계수위원회	정재경
	음악위원회	계학용	관리부	문창복
			호산나	한득현
			시온	박양기
			살롬	최창섭
			지저스	유중화
			할렐루야	강대준
			주부	이경아
			오케스트라	이종석
	정신여고 강당 건축위원회	정재경		
	교육위원회	이재철		
	대외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해외선교위원회	정규창	아세아선교부	이병식
구미선교부			이진세	
국내선교위원회	이재원	도시선교부	김규화	
		농어촌선교부	백승준	
특수선교위원회	임동진	기관선교부	박시만	
		의료선교부	최상용	
		전도부	우일강	
		호스피스부	이성연	
		특수선교부	김성배	
사회봉사위원회	정규창	녹색부	변이경	
		여성부	이승애	
		청소년부	윤의탁	
		지역사회봉사부	하승락	
구제장학위원회	김소일	구제부	이정순	
		장학부	한정웅	
상담위원회	홍근용	상담1부	이동순	
		상담2부	김완중	

	대내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지도권사
1997	문화위원회	계학용	울동부	김영아	
			미술부	곽정명	
			문화부	최창섭	
			사진부	김현덕	
			출판부	조원호	
	봉사위원회	성백술	봉사부	한병호, 김은정	
			미화부	최상인	
			주방부	이정원, 이승애	
	심방경조위원회	양동훈	심방부	장로, 권사 전원	
			경조부	이정순, 김경희	
			새신자부	노봉옥	
			안내1부	윤좌원	
	관리재정위원회	김소일	안내2부	문창복	
			재정부	이종복	
			관리부	이충길	
	음악위원회	양동훈	호산나	한득현	
			시온	이종석	
			샬롬	최두순	
			지저스	유중화	
			할렐루야	전세표	
			남성	조원호	
			주부	이경아	
			오케스트라	강대준	
			국악부	신혜영	
			연합찬양대 총무	김경빈	
	교육위원회	이재철	영아부	김원경	임선자
			유아부	김화진	김경희
			유치부	김갑수	김영아
			유년부	최상인	송경녀
			초등부	김진택	전은숙
			소년부	나영일	오병희
			중등부	윤좌원	김미자
고등부			김재현	권미희	
청년2부			권오승	김양자	
청년1부			류달현	이혜자	

	대내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1997	해외선교위원회	정재경	아세아선교부	이병식
구미선교부				이성우	
국내선교위원회		김도묵	방송선교부	고정록	
			도시선교부	권현일	
			농어촌선교부	하승락	
특수선교위원회		임동진	기관선교부	김성구	
			의료선교부	최상용	
			전도부	권미희	
			호스피스부	이성연	
			특수선교부	김성배	
사회봉사위원회		권오승	녹색부	변아경	
			여성부	김영숙	
			청소년부	정양재	
구제장학위원회		정재경	지역사회봉사부	양한민	
	구제부		이정순		
상담위원회	홍근용	장학부	한정웅		
		상담1부	이동순		
			상담2부	김원중	
1998	대내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문화위원회	임동진	문화기획부	최창섭	
			성극부	최승철	
			운동부	김영아	
			미술부	정원영	
			사진부	김현덕	
			출판부	최상인	
	봉사위원회	성백술	봉사부	한병호, 장순현	
			미화부	오세윤	
			주방부	이성연	
	심방경조위원회	김도묵	차량부	박시만	
			심방경조부		
			새신자부	노봉옥	
			안내1부	정규창, 문창복, 성백술	
	관리재정위원회	김소일	안내2부	임동진, 양동훈, 홍근용	
			안내3부	한윤경, 김소일, 김경신	
				계수부	이종복, 권승환
				관리부	이충길

1998	대내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지도권사
	건축위원회	양동훈			
	음악위원회	계학용	호산나	김진규	
			시온	이종석	
			살롬	최두순	
			지저스	윤나리	
			할렐루야	전세표	
			남성	이정순	
			여성	박경옥	
			오케스트라	강대준	
국악부			신혜영		
연합찬양대 총무	김경빈				
교육위원회	이재철	영아부	김원경	이금선	
		유아부	김경희	김화진	
		유치1부	김갑수	김영아	
		유치2부	이혜자		
		유년부	최상인	임선자	
		초등부	정오석	전은숙	
		소년부	나영일	남옥련	
		중등부	윤좌원	김미자	
		고등부	김재현	권미희	
		청년2부	남승호	장순현	
		청년1부	이병식	노봉옥	
		노인대학	감연희, 이승숙	김영아	
		대외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해외선교위원회	정규창	구미선교부	이성우		
		아세아선교부	황기언		
국내선교위원회	양동훈	도시선교부	권현일		
		농어촌선교부	하승락		
		방송선교부	고정록		
		주한외국인 선교부	손영익		
특수선교위원회	문창복	기관선교부	김성구		
		의료선교부	서준규		
		특수선교부	김성배		
사회봉사위원회	김경신	녹색부	김은정		
		여성부	김영숙		
		지역사회봉사부	양한민		

	대외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1998	사회봉사위원회	김경신	전도부
호스피스부				김양자
구제장학위원회		한윤경	구제부	이지화
			장학부	한정웅
			청소년부	정양재
			인터넷부	유중화, 임채권
상담위원회		홍근용	상담1부	이동순
			상담2부	김완중
	대내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1999	문화위원회	김경신	문화기획부
성극부				최승철
울동부				김영아
미술부				정원영
사진부				이재형
출판부				최상인
봉사위원회		정재경	봉사부	전세표, 장순현
			주방부	권미희, 송경녀
			차량부	박시만
경조위원회		김소일	새신자부	고초순
	경조부		이정순	
관리위원회	성백술	관리부	류달현	
		미화부	오세윤	
재정위원회	한윤경	계수부	권현일	
		경리부	김성구	
음악위원회	계학용	호산나	김재현	
		시온	유중화	
		살롬		
		할렐루야	임창남	
		남성	이정순	
		여성	박경옥	
		오케스트라	강대준	
		국악부	신혜영	
연합찬양대 총무	최창섭			
예배위원회	홍근용	방송부	고종록	
		성찬부	박순실	
		꽃꽂이부	최진옥	

	대내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지도권사
	1999	예배위원회	홍근용	안내1부	한정웅
안내2부				이상우	
교육위원회		양동훈(상) 권오승(하)	영아부	변아경	김화진, 전은숙
			유아부	김경희	이혜자
			유치부	김영아	김원경
			유년부	최상인	임선자
			초등부	정오석	김갑수
			소년부	김현덕	남옥련
			중등부	이상경	이정원
			고등부	류달현	이영자
			청년2부	남승호	장순현
			청년1부	이병식	노봉옥
대외부서		위원장	부서	부장	
해외선교위원회		정규창	구미선교부	김영희	
	아세아선교부		황기언		
	인터넷부		이종석, 임채권		
국내선교위원회		전도부	노봉옥		
		도시선교부	박양기		
		농어촌선교부	김성배		
		주한외국인 선교부	손영익		
		기관선교부	윤용자		
		의료선교부	서준규		
		특수선교부	하승락		
사회위원회	문창복	녹색부	김은정		
		여성부	이드보라		
		지역사회봉사부	박두리		
		호스피스부	김양자		
		상담1부	이동순		
		상담2부	황용환		
장학위원회	임동진	구제부	이지화		
		장학부	김경빈		
		청소년부	양한민		
2000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장	
	해외선교위원회	정규창	구미선교부	권미희	
			아세아선교부	황기언	
			인터넷부	이종석, 유중렬, 임채권, 태재승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장
2000	국내선교위원회	윤좌원	전도부	노봉옥
			도시선교부	박양기
			농어촌선교부	김성배
			주한외국인 선교부	손영익
			기관선교부	이혜자
			의료선교부	김종순
			특수선교부	하승락
	사회위원회	문창복	녹색부	장순현
			여성부	이드보라
			지역사회봉사부	박두리
			호스피스부	전혜영
			상담1부	고정순
	장학위원회	임동진	상담2부	황용환
			구제부	윤용자
			장학부	백승준
	문화위원회	김경신	청소년부	양한민
			문화기획부	김미자
			성극부	손정아
			유희부	김영아
			미술부	김영주
			사진(촬영)부	이재형
	봉사위원회	정재경	출판부	김완중
			봉사부	박시만, 김경희
			주방부	김영희(상), 남현숙(하)
	경조위원회	김소일	차량부	김경빈
			새신자부	고초순
	관리위원회	성백술	경조부	이정순, 이동순
			관리부	정양재
미화부			박경옥	
재정위원회	한윤경	예식부	강정혜	
		계수부	권현일	
			경리부	김성구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장	지도권사	
2000	음악위원회	양동훈	호산나	김재현		
			시온	유중화		
			살롬	김우림		
			할렐루야	임창남		
			남성	엄주청		
			여성	신재숙		
			오케스트라	김영화		
			국악부	김한중		
			음악전문위원장	이단열		
	예배위원회	홍근용	방송부	고정록		
			성찬부	박순실		
			꽃꽂이부	최진옥		
			안내1부	이지화		
			안내2부	이성우		
			안내3부	한정웅		
	교육위원회	권오승	영아부	변아경	전은숙, 김화진	
			유아부	강은혜	김은정	
			유치부	오세윤	김원경	
			유년부	한병호	임선자	
			초등부	최창섭	김갑수	
			소년부	김현덕	노봉옥	
			중등부	이상경	이정원	
			고등부	류달현	이영자	
			청년2부	강신후	김미자	
			청년1부	최상인	남옥련	
	2001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장	
		해외선교위원회	한윤경	해외선교부	권헌일	
				인터넷부	엄주면	
전도위원회		계학용	국내전도부	서길원		
			특수전도부	강윤식		
사회선교위원회		임동진	환경부	곽에스터		
			구제부	윤웅자		
			호스피스부	전혜영		
			상담부	황용환, 김혜숙		
문화위원회		권오승	문화부	이상경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장	지도권사	
2001	문화위원회	권오승	출판부	김원중		
			영상미디어부	류영수		
	예배위원회	김도묵	예배부	김현덕		
			음악부	이단열		
			안내부	이지화		
			방송부	임익수		
	봉사위원회	전세표	봉사부	엄주청, 한규연		
			주방부	임선자(상) 우일강(하)		
				예식부	신성숙	
	경조위원회	문창복	경조부	김성배, 이동순		
	관리위원회	정규창	차량부	장길석		
			관리부	이종석		
	재정위원회	양동훈	계수부	유종화		
			경리부	김우림		
	장학위원회	홍근용	장학부	김성구		
	기획위원회	윤좌원(정) 최창섭(부)				
	교육위원회	윤좌원	영아부	김성애	변아경	
			유아부	강은혜	박경옥	
			유치부	오세윤	김원경	
유년부			한병호	이지연		
초등부			강대준	고초순		
소년부			한득현	노봉옥		
중등부			백승준	손천숙		
고등부			동현수	김갑수		
청년2부			최상인	이희숙		
청년1부			류달현	권미희		
2002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장	지도권사	
	해외선교위원회	한윤경	해외선교부	김경덕		
	국내선교위원회	계학용	농어촌선교부	임현표		
			기관선교부	박인호		
	사회선교위원회	김소일	환경부	이경아		
			호스피스부	이승숙		
상담부			장현길, 백숙자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장	지도권사
2002	사회선교위원회	김소일	의료봉사부	최상용	
			특수봉사부	남장희	
	문화선교위원회	권오승	문화선교부	이상경	
			영상미디어부	태재승	
	홍보출판위원회	최창섭	인터넷부	정용섭	
			함글함글편집부	김완중	
			문서출판부	김홍용	
			홍보부	박중규	
	예배위원회	김도목	예배부	류달현	
			안내부	한정웅	
			방송부	임익수	
			음악부	이단열	
	봉사위원회	전세표	봉사부	서인석, 강욱희	
			주방부	김은정, 김경희	
			예전부	한규연	
			차량부	김한중	
	경조1위원회	문창복	경조1부	김성배, 이동순	
	경조2위원회	이병식	경보2부	하승락, 서은숙	
	관리위원회	성백술(상) 정규창(하)	관리부	김동일	
	재정위원회	양동훈	계수부	유중화	
			경리부	김성구	
	장학위원회	홍근용	장학부	이성우	
	기획위원회	김경신			
	교육위원회	윤좌원	영아부	김갑수	김형기
			유아1부	이희숙	신관수
			유아2부	김원경	박순실
유치부			강응순	우일강	
유년부			장일형	이지연	
초등부			최상인	이경희	
소년부			한득현	김양자	
중등부			조원호	손천숙	
고등부			오세윤	우 속	
청년위원회	박시만	청년2부	오종세	김미자	
		청년1부	김대현	이경희	

8-3. 제직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03~2004)

2003년 당회 당회장: 문동학 / 서기: 양동훈 | 제직회 의장: 문동학 / 서기: 김완중

2004년 당회 당회장: 문동학 / 서기: 양동훈 | 제직회 의장: 문동학 / 서기: 김완중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서장
2003	예배위원회	계학용	예배부	류달현
			안내부	한정웅
			방송부	임익수
	교육위원회		영아부	김갑수, 김형기
			유아1부	이희숙, 신관수
			유아2부	김원경, 박순실
			유치부	강응순, 우일강
			유년부	장일형, 오점덕
			초등부	최상인, 김지자
			소년부	한득현, 이정원
			중등부	조원호, 손천숙
			고등부	오세윤, 우 숙
			교육지원부	신영숙
	청년위원회	박시만	청년1부	동현수, 김미자
			청년2부	오종세, 이경희
	해외선교위원회	권오승	해외선교부	김경덕
			주한외국인선교부	나영일
	국내선교위원회	정재경	농어촌부	임현표
			도시선교부	서길원
	기관선교위원회	성백술	학원선교부	정양재
			군선교부	이종석
			특수기관선교부	박용천
	사회선교위원회	김소일	구제부	남장희
			장애인부	김창안
			복지부	이충길
	사회봉사위원회	김현덕	의료선교부	최상용
			호스피스부	이승숙
			환경부	최종명
	문화홍보위원회	최창섭	홍보출판부	김홍용
			함줄함울편집부	정해춘
영상미디어부			태재승	
드라마부			이상경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서장
2003	문화홍보위원회	최창섭	도서부	하화주
	음악위원회	윤좌원	호산나찬양대	신정웅
			시온찬양대	김경빈
			살롬찬양대	윤좌원
			브니엘찬양대	김창안
			할렐루아찬양대	임창남, 신재숙
	봉사위원회	황기언	봉사부	서인석, 이응분
			주방부	김영아(상), 장순현(하)
			차량부	김한중
	경조1위원회	이병식	경조1부	하승락, 서은숙
경조2위원회	정규창	경조2부	엄주청, 오영실	
관리위원회	전세표	관리부	김동일	
		예전부	한규연	
재정위원회	문창복	계수부	박종규	
		경리부		
2004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서장
	예배위원회	김소일	예배부	유중화
			안내부	김영봉
			통역사역팀	김영숙
			할렐루아찬양팀	이동희
			4부예배찬양팀	
	교육1위원회	전세표	통합유아부	최재경
			통합아동부	윤명희
			영아부	김갑수
			유아부	유마노
			유치부	윤현숙
			유년부	박선화
			초등부	박지원
			소년부	김승기
			유소년축구클럽	이용수
	교육2위원회	임동진	중등부	박대길
			고등부	김광호
			교육지원부	신영숙
	청년위원회	양동훈	청년1부	동현수
			청년2부	최상인
해외선교위원회		해외선교지원부	김성구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서장
해외선교위원회		몽골선교팀	김경덕
		캄보디아선교팀	장일형
		중국선교팀	이희숙
		주한외국인선교부	이진원
		의료선교부	서준규
국내선교1위원회	정재경	농촌교회사역부	조원호
		도시개척교회사역부	강대준
국내선교2위원회	김현덕	환경부	서치영
		호스피스부	김양자
		법률상담부	장현길
		전화상담부	정영숙
		복지선교부	이충길
		장애인부	김창안
		강남병원 사역팀	
		한양대병원 사역팀	
국내선교3위원회	성백술	구제부	문원홍
		119사역팀	한정웅
		정신학원선교부	정양재
		선교자료부	고유자
		군부대교회사역부	임현표
		육군훈련소선교팀	장순웅
문화홍보위원회	최창섭	홍보출판부	김홍용
		함글함글편집부	이영남
		영상미디어부	태재승
		드라마부	이상경
음악위원회	윤좌원	도서부	김익수
		호산나찬양대	부정희
		시온찬양대	정용섭
봉사위원회	황기언	샬롬찬양대	한형석
		봉사부	최종만, 김선례
		주방부	강은애(상), 박두리(하)
		주차안내부	최종명
		결혼예식팀	김병혜
경조1위원회		경조1부	신정웅, 배홍자
경조2위원회	정규창	경조2부	장승수, 오영실

2004

	위원회	위원장	부서	부서장
2004	재정위원회	문창복	계수부	박종규
			경리부	최성준
	양육위원회	이병식	새가족사역팀	박호길
			양육사역팀	김완중
			목요모임팀	권순영
			중보기도사역팀	전은숙
			자원봉사연결팀	남장희
			예산심의위원회	문동학, 문창복, 양동훈, 김소일, 이병식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재정위원장, 해당 위원장		
	교회사편찬위원회	김경신, 양동훈, 황기언		
	감사위원회	정재경, 윤좌원, 김성구		
	비전팀	권오승, 정영환, 윤은성		
	장학위원회	양동훈, 권오승, 전세표, 이병식, 황기언, 김성구, 한득현, 노봉욱, 이상경		
	인사위원회	문동학, 양동훈, 문창복, 김소일, 윤좌원		
구매위원회	양동훈, 문창복, 해당 위원장			
인터넷위원회	양동훈, 최창섭, 김현덕, 정응섭, 최대형, 최호성, 이창현, 노수연			

8-4. 제직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05)

공동의회 의장: 문동학 / 서기: 한윤경

당회 당회장: 문동학 / 서기: 한윤경

제직회 의장: 문동학 / 서기: 유중화

교육분과협의회 의장 권오승 / 교역자: 홍민기, 나현수

위원회	위원장	사역팀	부장/팀장	교역자
교육1	윤좌원	통합유아부	최정윤	김수연
		통합아동부	유영옥	우병선
		영아부	신관수	서정
		유아부	유마노	최인영
		유치부	윤현숙	김성민
		유년부	박선화	김진경
		초등부	박지원	김용철
		소년부	김승기	김종원
		교육지원부	이종은	홍민기
교육2	권오승	중등부	박대길	이재욱

위원회	위원장	사역팀	부장/팀장	교역자
교육2	권오승	고등부	김광호	유성훈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홍민기
		AWANA 사역팀	공종서	유영안
청년	이영자	청년부	최상인, 동현수	이강혁
		30대사역팀	박현숙	김현령

양육분과협의회 의장: 박호길 / 교역자: 김성관, 우동윤

위원회	위원장	사역팀	부장/팀장	교역자
양육1	박호길	새가족사역팀	신영숙	우동윤
		가정사역팀	박중순	정희성
		하프타임사역팀	이을형	이창현
양육2	김완중	양육사역팀	노봉욱	김성관
		목요사역팀	권순영	김성관
		중보기도사역팀	전은숙	정영환

선교분과협의회 의장: 전세표 / 교역자: 윤은성, 이인호

위원회	위원장	사역팀	부장/팀장	교역자
해외선교	전세표	해외선교지원팀	김성구	윤은성
		의료선교팀	서준규	
		캄보디아선교팀	장일형	
		몽골선교팀	정종국	
		중국선교팀	이희숙	
		주한외국인선교팀	이진원	
국내선교1	류달현	농촌교회사역팀	조원호	이인호
		도시개척교회사역팀	강대준	
		학원선교팀	이경자	
		군부대교회사역팀	강진식	
		육군훈련소선교팀	장순웅	
		환경사역팀	박동수	
국내선교2	이지화	호스피스사역팀	김양자	이인호
		법률상담사역팀	장현길	
		전화상담사역팀	정영숙	
		복지선교팀	박인호	
		장애인사역팀	김창안	
		기관선교팀	김동일	

위원회	위원장	사역팀	부장/팀장	교역자
금홍사역	엄주청	구제사역팀	문완홍	정희성
		119사역팀	서인석	
		탈북자사역팀	설영운	
		소년소녀가장사역팀	고유자	
		결식아동사역팀	김선례	
		단전단수가정사역팀	김기성	
		일용근로자사역팀	조경주	
노숙자사역팀	임기택			

예배분과협의회 의장: 최창섭 / 교역자: 정영환, 우동윤

위원회	위원장	사역팀	부장/팀장	교역자
예배	김경빈	예배부	유중화	정영환
		안내부	김영봉	
		통역사역팀	김영숙	
		새벽기도팀	김영아	이인호
		세례사역팀	정재훈	정희성
음악	최창섭	호산나찬양대	부정희	우동윤
		시온찬양대	정용섭	
		살롬찬양대	한형석	이호
		할렐루야찬양대	이동희	

봉사분과협의회 의장: 김현덕 / 교역자: 정희성, 이창현, 박의일

위원회	위원장	사역팀	부장/팀장	교역자
봉사	김현덕	봉사부	최종만, 이승숙	정희성
		주방부	김미자, 노봉옥	
		주차안내부	김기용	
		자원봉사연결팀	김한중	이창현
		שלמחמולגת	이은우	정희성
		서점사역팀	김영중	박의일
		결혼예식팀	한영미	
문화홍보	최상용	홍보출판부	김홍용	이창현
		함글함글편집팀	이영남	이창현, 박의일
		음향사역팀	김동근	김현령
		영상사역팀	조영률	
		도서실사역팀	김익수	이창현

경조분과협의회 의장: 문창복 / 교역자: 각 교구 담당 교역자

위원회	부장/팀장
경조1	신정웅, 배홍자
경조2	장승수, 최영순

재정위원회 의장: 문창복 / 교역자: 각 교구 담당 교역자

위원장	부서	부장
이병식	계수부	박종규
	경리부	최성준

기타 사역팀 및 위원회

사역팀명	위원장/장로	부장/팀장	교역자
청소년 사역본부	권오승		정용환, 윤은성
캠보디아사역본부	당회장, 당회서기, 재정위원장, 권오승, 전세표, 최상용, 김경빈		
전도예배(4부)사역팀	김경신	최재경	이호, 김현령
영어사역팀	김재현	김경식	홍민기, 나현수
인터넷사역팀	한윤경	노수연	이창현
예산심의위원회	당회장, 한윤경, 문창복, 이병식, 권오승, 김원중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재정위원장, 해당 위원장		
장학위원회	한윤경, 권오승, 전세표, 김경신, 김재현		
교회사편찬위원회	김경신		
인사위원회	당회장, 김소일, 문창복, 한윤경, 윤좌원		
감사위원회	문창복, 김재현		
구매위원회	한윤경, 이병식, 해당 위원장		
교회번식위원회	권오승, 류달현, 이영자, 박호길, 김완중		
주님의동산건립위원회	김소일, 이병식, 문창복, 김성배, 계학용		

8-5. 제작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06~2013)

제작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06)

공동의회 의장: 문동학 / 서기: 권오승

당회 당회장: 문동학 / 서기: 권오승

제작회 의장: 문동학 / 서기: 장일형

선교사역본부 본부장: 한윤경 / 본부위원: 홍민기, 나현수 / 교역자: 정희성, 윤은성

사역팀	팀장	교역자
전문인선교팀 1팀(의료)	김학원	윤은성
2팀(일반)	윤용석	정희성
단기선교팀	장일형	윤은성
선교지원팀	하승락	
주한외국인선교팀		정희성
캄보디아선교본부	서준규	윤은성
탈북자사역팀	윤의탁	
농어촌교회사역팀	조성득	정희성
도시개척교회사역팀	문완홍	
군부대교회사역팀	강진식	윤은성

복지사역본부 본부장: 문창복 / 본부위원: 엄주청, 김양자 / 교역자: 우동윤, 신화식

사역팀	팀장	교역자
하프타임사역팀	신정웅	
환경사역팀	백숙자	
호스피스사역팀	김양자	우동윤
법률상담사역팀	황용환	
전화상담사역팀	김고미	
복지선교팀	김창안	
장애인사역팀	신형섭	
기관선교팀	임창남	
구제사역팀	정양재	
119사역팀	김영중	
소년소녀가장사역팀	고유자	신화식
결식아동사역팀	정영숙	
단전단가스가정사역팀	설영운	
일용근로자사역팀	이일목	
노숙자사역팀	정준호	

교육사역본부 본부장: 이영자 / 본부위원: 김원중 / 교역자: 홍민기, 김현령

사역팀	팀장	담당권사	교역자
통합유아부	최정운		김수연
통합아동부	이지연		우병선
영아부	이희숙	김갑수	주선영
통합유아부	최정운		김수연
통합아동부	이지연		우병선
영아부	이희숙	김갑수	주선영
유아부	박선화	고선옥	최인영
유치부	박지원	우일강	김성민
유년부	박기운	김금숙	이진화
초등부	강응순	김지자	김용철
소년부	윤성진	박영남	김종원
교육지원부	신영식		홍민기
중등1부	지호선	송경혜	이세진
중등2부	권덕원	이상경	이재욱
고등부	박대길	강경원	유성훈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홍민기

봉사사역본부 본부장: 박호길 / 본부위원: 김현덕, 김성배 / 교역자: 이호, 박의일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봉사부	김영봉, 이경자	박의일
주방부	유은숙(상), 김운선(하)	이호
주차안내부	김동일	
자원봉사연결팀	김한중	
실만한물가팀	이은우	박의일
도서사역팀	김영중 도서실: 윤복신 서점: 송성익	
결혼예식팀	한영미	
홍보출판팀		김현령
함즐함울편집팀		
음향사역팀		이호
영상사역팀		
경조1부	신정용/김금숙	
경조2부	김홍용/최영순	

목양사역본부 본부장: 김경신 / 본부위원: 김재현 / 교역자: 이창현, 정영환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예배부	박인호	정영환
안내부	박동수	
통역사역팀	한진희	정영환
새벽기도사역팀	한형석	
세례사역팀	정재훈	정희성
호산나 찬양대		신화식
시온 찬양대	최성준	정희성
살롬 찬양대	김창안	이창현
할렐루야 찬양팀	최재경	김현령
새가족사역팀	박중규	우동윤
가정사역팀	박중순	정희성
양육사역팀	노봉옥	이창현
목요모임팀		윤은성
중보기도사역팀	김형기	정영환
전도예배사역팀	이동희	이호, 이창현
영어예배사역팀	이혜경	나현수
동호회지원팀	방순희	박의일
인터넷팀	노수연	이창현
교회역사자료보존팀	배성은	

기타사역위원회

위원회	담당위원
재정위원회	이병식 계수부: 김용일 경리부: 손철규
장학위원회	권오승, 김재현, 김원중, 엄주청
인사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박호길, 이영자
감사위원회	문창복, 김재현
주님의동산 건립위원회	김소일, 계학용, 이병식, 문창복, 김성배, 김경신, 박호길
사무국	당회서기

제직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07)

공동의회 임시의장: 성홍모 / 서기: 문창복

당회 임시당회장: 성홍모 / 서기: 문창복

제직회 임시의장: 문동학 / 서기: 장일형

선교사역본부 본부장: 한윤경 / 본부위원: 이지화, 김성배, 조원호 / 교역자: 정희성, 윤은성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전문인선교팀	의료팀 김학원 법조팀 황용환 미술팀 동경숙	정희성
단기선교팀	장일형	
선교사지원팀	하승락	
주한외국인선교팀		나현수
캄보디아선교팀		정희성
탈북자사역팀		
농어촌교회사역팀	조성득	윤은성
도시개척교회사역팀	문완홍	
군부대교회사역팀	윤의탁	

복지사역본부 본부장: 김현덕 / 본부위원: 엄주청, 김양자, 신정웅 / 교역자: 우동윤, 신화식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하프타임사역팀	권순영	
환경사역팀	백숙자	
호스피스사역팀	허명숙	우동윤
법률상담사역팀	황용환	
전화상담사역팀	김고미	
복지선교팀	권승환	
장애인사역팀	신형섭	
기관선교팀	임창남	
구제사역팀	정양재	신화식
꿈나무사역팀	고유자	
복지법인준비팀	김병한	
함사랑기금팀	정준호	

교육사역본부 본부장: 이영자 / 본부위원: 김원중, 최상인 / 교역자: 정요섭, 김현령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담당권사	교역자
씩트네(통합유아부)	최정윤	유영옥	김수연
레인보우(통합아동부)	이열	이동숙	김성목
영아부(24개월 이하)	이희숙	김갑수	주선영
유아부(48개월 이하)	권이홍	고선옥	전은숙
유치부	박지원	우일강	김성민
유년부	박기운	이경자	이희영
초등부	강응순	최재경	최락
소년부	윤성진	박영남	신상욱
교육지원부	장혜정	김순희	정요섭
중등1부	지호선	송경혜	임경순
중등2부	권덕원	오점덕	채문식
고등부	박대길	강경원	유성훈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정요섭
AWANA사역팀	최성진		전미이
청년부	동현수		윤은성
30대사역팀	김용진		김현령
학원선교팀	이창성		
청소년 사역본부	김원중		정요섭
방과후학교	이종은		

봉사사역본부 본부장: 박호길 / 본부위원: 김한중, 김창안 / 교역자: 이호, 박의일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봉사부	한형석, 강혜선	박의일
주방부	박경옥(상), 이지연(하)	이호
주차안내부	배익환	
자원봉사연결팀	왕승근	박의일
실만한물가팀	이은우	
도서실사역팀	최정숙	이호
서점사역팀	장득순	
결혼예식팀	은영희, 김설희	박의일
홍보출판부	김기용	김현령
방송사역팀	남성엽	이호
경조부	1팀 김홍용, 김금숙 2팀 최종명, 배홍자 3팀 최중만, 전혜영	

목양사역본부 본부장: 김경신 / 본부위원: 권오승, 김용일 / 교역자: 이창현, 정영환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예배부	조영률	
안내부	강진식	정영환
통역사역팀	한진희	나현수
새벽기도사역팀	한형서	정영환
세례사역팀	정재훈	정희성
호산나 찬양대	설영운	신화식
시온 찬양대	최성준	정희성
살롬 찬양대	권순영	정영환
임마누엘 찬양대	김익환	이창현
할렐루야 찬양팀	최재경	김현령
새가족사역팀	박종규	우동윤
가정사역팀	박종순	정희성
양육사역팀	노봉옥	이창현
목요모임팀		윤은성
중보기도사역팀	김형기	정영환
영어예배사역팀	이혜경	나현수
인터넷팀	노수연	
교회역사자료보존팀	배성은	이창현

기타사역위원회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재정위원회	김재현 계수부: 정종국 경리부: 손철규
장학위원회	문창복, 이병식, 엄주청, 김완중
인사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김경신, 이병식, 박호길
감사위원회	이병식, 김현덕
주님의동산 건립위원회	김경신, 이병식, 박호길, 김성배, 김완중
요람위원회	이영자, 문창복, 김용일, 김창안, 최상인
사무국	당회서기

제작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08)

공동의회 의장: 박원호 / 서기: 김현덕

당회 당회장: 박원호 / 서기: 김현덕

제작회 의장: 박원호 / 서기: 김성구

선교사역본부 본부장: 박호길 / 본부위원: 김성배, 조원호 / 교역자: 정희성, 배현성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전문인선교팀	의료팀 김학원 법조팀 황용환 미술팀 동경숙	
단기선교팀	이희숙	정희성
선교사지원팀	김은성	
선교사중보팀	이병직	
선교교육 행정팀	손영익	
캄보디아선교팀	박지권	
주한외국인선교팀	김두용	
북한선교팀	김성구	윤은성
농어촌교회사역팀	홍운식	
도시개척교회사역팀	이원철	
군부대교회사역팀	윤의탁	

복지사역본부 본부장: 엄주청 / 본부위원: 신정웅, 김양자 / 교역자: 신화식, 이강찬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호스피스사역팀	허명숙	
전화상담사역팀	김연희	이강찬
하프타임사역팀	조영률	
환경사역팀	조병길	
기관사역팀	이재현	
꿈나무사역팀	이봉순	
복지사역팀	권승환	신화식
장애인사역팀	임창남	
구제사역팀	고유자	
함사랑기금팀	정준호	

교육사역본부 본부장: 이지화 / 본부위원: 최상인, 박종규 / 교역자: 정요섭, 김현령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담당권사	교역자
씩트네(7세 이하)	최정운	유영옥	김수연
레인보우(초 1~6년)	이열	이동숙	윤대운
영아부(3세 이하)	이희숙	김갑수	최민혜
유아부(4~5세)	권이홍	오영숙	전은숙
유치부	박지원	우일강	전재표
유년부	박기운	이경자	이희영
초등부	강응순	최재경	최락
소년부	윤성진	이희순	신상욱
중등1부	지호선	김현주	임경순
중등2부	김성윤	오점덕	채문식
고등부	김낙균	손천숙	유성훈
교육지원부	김영림		정요섭
청년부	정재훈	노봉옥, 우진선	고윤석, 서재욱, 김현령
30대사역팀	김병연		주선영

봉사사역본부 본부장: 김현덕 / 본부위원: 김창안, 김한중 / 교역자: 이호, 박의일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봉사팀	한형서, 문희주	
주방팀	김청자(상), 이지연(하)	
주차안내팀	최재규	박의일
자원봉사연결팀	김유호	
실만한물가팀	이은우	
서점사역팀	장득순	이호
도서실사역팀	최정숙	
결혼안내팀	서광숙	박의일
방송사역팀	유희문	이호

목양사역본부 본부장: 이영자 / 본부위원: 김용일, 조성득 / 교역자: 이창현, 우동윤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예배팀	조선연	이창현
안내팀	강진식	우동윤
통역사역팀	한진희	나현수
새벽기도사역팀	최종명	우동윤
세례사역팀	고한규	정희성

사역부서/팀	부장/팀장	교역자
호산나 찬양대	설영운	이창현
시온 찬양대	박인호	
살롬 찬양대	권순영	
임마누엘 찬양대	김익환	
할렐루야 찬양팀	전진희	배현성
새가족사역팀	동현수	우동윤
가정사역팀	심동욱	정희성
제자화사역팀	최재경	이호
중보기도사역팀	신영숙	
영어예배사역팀	이혜경	나현수
인터넷사역팀	손철규	
교회역사자료보존팀	배성은	
사진사역팀	고석창	이창현
남성합창단(세례예식)	박동수남성합창단(세례예식)	

청소년 사역본부 본부장: 김원중 / 본부위원: 박대길, 장일형 / 교역자: 정요섭

사역부서/팀	부서장	교역자
방과후학교	이종은	
학원사역팀	김영숙	정요섭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AWANA사역팀	최성진	전미이
청소년 사역지원팀	홍기협	정요섭

기타 사역조직

위원회	담당위원, 부서장	교역자
재정위원회	김재현 계수부: 정종국 경리부: 문완홍	
장학위원회	당회서기, 이영자, 조원호, 김용일, 김한중	
인사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김현덕, 이지화, 김양자	
감사위원회	신정웅(실무: 손철규)	
주님의동산 건립위원회	이병식, 박호길, 김성배, 김원중	
사무국	위원: 담임목사, 당회서기 / 부장: 김동근	이강찬
홍보출판팀	위원: 담임목사, 김창안 / 부장: 신형섭	
경조부	각 교구 장로 주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사역팀	팀장: 당회서기	우동윤
20주년 기념위원회	이영자, 이지화, 박호길, 조원호	

제직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09)

공동의회 의장: 박원호 / 서기: 김현덕

당회 당회장: 박원호 / 서기: 김현덕

제직회 의장: 박원호 / 서기: 정재훈

위원회	사역본부	담당자
제1소위원회	선교사역본부	박호길, 조원호
	복지사역본부	엄주청, 장일형
제2 소위원회	예배사역본부	이영자, 조성득
	봉사사역본부	김창안, 김한중
	소그룹제자화사역본부	최상인
제3소위원회	어린이사역본부	이지화, 박중규
	청소년 사역본부	김성배, 박대길
	젊은이사역본부	김양자, 신정웅

선교사역본부 본부장: 박호길, 조원호 / 교역자: 배현성

사역팀	부서장	교역자
전문인선교팀	미술팀 의료팀 법조팀	신명식 박일영 임병일
비전트립팀		이현식
선교사지원팀		황의완
주한외국인선교팀		김두용
동남아선교팀		변춘석
북한선교팀		김광일
농어촌교회사역팀		홍운식
도시개척교회사역팀		이원철
군,경선교팀		최경호
선교사중보팀		이병직
선교행정팀		손영익
엠마우스팀:전도팀		정연희
교정선교팀:PFK		이창성
중앙아시아선교팀		이문영

배현성
유기영

복지사역본부 본부위원: 엄주형, 장일형 / 교역자: 신화식

사역팀	부서장	교역자
하프타임사역팀	박홍현	신화식
환경사역팀	김홍용	
호스피스사역팀	김영희	
전화상담사역팀	김연희	
복지사역팀	김동익	
장애인사역팀	최성준	
구제사역팀	박재준	
꿈나무사역팀	김고미	
함사랑기금팀	송행근	
복지기획행정팀	정원영	
사랑나무	신형섭, 이기원	유성훈

예배사역본부 본부위원: 이영자, 조성득 / 교역자: 이호

사역팀	부서장	교역자
예배부	조선연	이호
안내부	김성구	
통역사역팀	나혜원	
새벽기도사역팀	최종명	
호산나찬양대	공진권	
시온찬양대	박인호	
살롬찬양대	최영배	
임마누엘찬양대	김익환	
성극팀		
주오챔버오케스트라	조병길	
세례사역팀	고한규	박혜성
할렐루야찬양팀	전진희	나현수
영어예배사역팀	이혜경	

봉사사역본부 본부위원: 김창안, 김한중 / 교역자: 유기영

사역팀	부서장	교역자
봉사부	강진식(남) 박혜진(여)	
주방부	은영희(상) 김설희(하)	
주차안내부	최재규	
자원봉사연결팀	김유호	
설만한물가팀	이은우	유기영
서점사역팀	김윤희	
도서실사역팀	최정숙	
결혼안내팀	조현숙, 이승주	
방송사역팀	유희문	
사진사역팀	김은성	

소그룹제자화사역본부 본부위원: 최상인 / 교역자: 이강찬

사역팀	부서장	교역자
새가족사역팀	동현수	유기영
가정사역팀		공광승
양육사역팀	최재경	정요섭
중보기도사역팀	장계영	박혜성
소그룹사역팀	신영숙	이강찬
제자훈련사역팀		
12단계사역팀	이동희	김주형

어린이사역본부 본부위원: 이지화, 박종규 / 교역자: 정요섭

사역팀	부서장	교역자
어린이정원	김진숙, 김순희	전은숙
아기부(신설)	서금란, 고정순	
영아1부	김향순, 김현진	최민혜
영아2부	장혜경, 김미자	
유아1부	유영옥, 오점덕	김수연
유아2부	최정윤, 오영숙	
유치1부	권이홍, 강혜선	전재표
유치2부	강응순, 신명식	
유년1부	이동숙, 권승님	윤대운
유년2부	박기운, 이경자	

사역팀	부서장	교역자
초등1부	김성윤, 문현주	최 락
초등2부	권순영, 김화자	
소년1부	황남호, 이희순	이선림
소년2부	이열, 강정녀	
교육지원부	김영림	정요섭

청소년 사역본부 본부위원: 김성배, 박대길 / 교역자: 박혜성

사역부서	부서장	교역자
청소년 사역원	박대길	박혜성
중등부	지호선	임경순
고등부	김낙균	김주형
학원선교팀	김영숙	박혜성
반가운학교	이종은	박혜성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박혜성
AWANA(어린이/중등부)		유영안, 박요한
청소년 사역지원팀	홍기협	박혜성

젊은이사역본부 본부위원: 김양자, 신정웅 / 교역자: 공광승

사역팀	부서장	교역자
청년1부	이승일	서재욱
청년2부		고윤석
청년3부	윤의탁	공광승
30CUP	김병연	주선영
젊은이지원팀	정재훈	공광승

사역위원회

사역팀	위원
재정위원회	김원중
예산위원회	김재현, 담임목사, 당회서기, 예산위원장, 재정위원장, 신정웅, 박종규
장학위원회	당회장, 당회서기, 박호길, 김재현, 김창안, 장일형
인사위원회	담임목사, 당회서기, 이지화, 김양자, 김용일
행정장정위원회	담임목사, 당회서기, 선임목사, 엄주형, 김완중, (권오승)
감사위원회	신정웅(실무: 손철규)
사무국운영위원회	담임목사, 당회서기, 김한중, 박종규, 조성득, 사무장

사역팀	위원
목회위원회(신설)	김현덕, 신정웅, (노봉옥), (이병식)
선거관리위원회	김성배, 김용일, 부목사 1, 사무장료 2
역사자료보존위원회(신설)	조원호, (김경신)
증장기획위원회(신설)	담임목사, 선임목사, 당회서기, 재정위원장, 이지화, 신정웅, 박대길, 동현수, 홍기협, 김성윤, 김유경, 유재건, 윤용섭, (양동훈)
정신학원협력위원회(신설)	담임목사, 선임목사, 당회서기, 재정위원장, 부목사 1(박혜성), 사무장, 김성배, 조원호, 김용일, 박대길, (김도묵)
홈페이지관리위원회(신설)	엄주청, 조성득, 나현수, (한윤경)
홍보출판위원회	담임목사, 김창안, 우동윤, 김주형, 부장: 임경수 간사: 김세나
상례위원회	당회서기, 최종명, 교구장료, 교구권사, 교구안수집사 항존직 피택자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사역팀	팀장: 김용일, (홍근용) 교역자: 이강찬

제작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10)

1. 사역 및 전문위원회 조직

공동의회 의장: 박원호 / 서기: 박호길

당회 당회장: 박원호 / 서기: 박호길

제작회 의장: 박원호 / 서기: 정재훈

1) 사역위원회

사역명	담당 목사	간사장로	소위원회	담당장로	위원장로
섬김사역	배현성(해외) 조광민(복지) 유기영(봉사) 조정현(국내)	김용일	해외선교 소위원회 복지 소위원회 봉사 소위원회 국내선교 소위원회	조원호 장일형 김한중(상), 박재준(하) 박중순	이영자
목양사역	신화식(예배) 이강찬(소그룹) 나현수(미디어) 유성훈(음악)	김재현	예배 소위원회 소그룹제자화소위원회 미디어 소위원회 음악 위원회	김창안 최상인 김한중 조성득	이지화
교육사역	정요섭(어린이) 박혜성(청소년) 공광승(20Plus) 권대선(30Plus) 최용성(문화)	김양자	어린이 소위원회 청소년 소위원회 젊은이 소위원회 젊은이 소위원회 문화스포츠 소위원회	박종규 박대길 신정웅 신정웅 김현덕	엄주청
재정장로: 김완중(경리부장: 손철규, 계수부장: 김창균)			감사: 김성배, 신정웅	관리장로: 최종명	
선임행정: 신화식			목회기획: 조광민		

2) 전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박원호, 박호길, 신화식, 김현덕, 김재현, 김완중, 김양자, 김용일
교회개혁위원회	박원호, 박호길, 신화식, 이영자, 김완중, 김용일, 박종규, 조성득
학원협력장학위원회	박원호, 박호길, 박혜성, 엄주청, 김재현, 김완중,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박대길
행정관리위원회	박원호, 박호길, 신화식, 김현덕, 이지화, 최종명 (목회자 돌봄팀: 신정웅, 김양자, 김창안, 박종규)
상례위원회	박중순, 김현덕
인사위원회	박원호, 박호길, 김재현, 김양자, 김용일
선거관리위원회	김용일, 박대길, 장일형
요람위원회	김한중, 신정웅, 박중순
상례위 상례팀장: 정양재 / 학원협력위 장학팀 간사: 이재현	

2. 사역별 팀장 조직

1) 섬김사역

① 해외선교 소위원회

사역 부서	부서장	교역자
해외선교행정팀	김중호	배현성
비전트립팀	권순영	
동남아선교팀	변춘석	
중앙아시아선교팀	이문영	
남미유럽선교팀	강승종	
주한외국인선교팀	최윤철	
선교사중보팀	황의완	

② 복지 소위원회

사역 부서	부서장	교역자
복지사역팀	김동익	조광민
구제사역팀	박재준(상), 이성준(하)	
호스피스사역팀	김영희	
꿈나무사역팀	윤숙연	
녹색사역팀	김홍용	
복지기획행정팀	정원영	
늘푸른대학	학장: 장일형, 처장: 박동수	유성훈
어린이집지원팀	송행근	
장애인사역팀	최성준	
사랑나무	신형섭	
전화상담사역팀	배정선	조정현

③ 봉사 소위원회

사역 부서	부서장	교역자
봉사부	강진식, 김영희	유기영
주방부	강경원(상), 박서영(하)	
주차안내부	김윤섭	
실만한물가팀	김인숙	
서점사역팀	김윤희	
도서실사역팀	최정숙	
결혼예식팀	이승주, 김숙자	
행정지원팀	조선연	
환경미화팀	김영중	

④ 국내선교 소위원회

사업 부서	부서장	교역자
의료팀	박일영	
법조팀	임병일	
북한선교팀	김광일	
농어촌선교사업팀	방치웅	
도시개척교회사업팀	윤하중	
군경선교팀	최경호	조정현
교정사업팀	정영숙	
엠마우스팀	정연희	
이미용선교팀	김영숙	
기관선교팀	유정식	
행정팀	박철수	

2) 목양사업

① 예배 소위원회

사업 부서	부서장	교역자
예배부	김명훈	
안내부	김성구	신화식
새벽기도사업팀	김학식	
세례사업팀	고한규	박혜성
통역사업팀	나혜원	나현수
영어예배사업팀	안경상	

② 소그룹제자화 소위원회

사업 부서	팀장	교역자
새가족사업팀	지유철	유기영
양육사업팀	김영림	
가정사업팀	심동욱	공광승
중보기도사업팀	장계영	박원호, 박혜성
소그룹사업팀	신영숙	이강찬
제자훈련사업팀		
12단계사업팀	이동희	김주형
은사사업개발팀		정요섭

③ 미디어 소위원회

사역 부서	팀장	교역자
홈페이지 관리	남성엽	나현수
방송사역	김한중	
홍보출판	하태원	최용석

④ 음악 소위원회

사역 부서	부서장	교역자
1부 / 호산나 찬양대	신광이	유성훈
2부 / 시온 찬양대	권승환	
3부 / 샬롬 찬양대	최영배	
4부 / 임마누엘 찬양대	김익환	
남성 찬양대	한형석	
주오챔버 오케스트라	조병길	
할렐루야 찬양팀	전진희	권대선

3) 교육사역

① 어린이 소위원회

사역 부서	부서장	지도권사	교역자
아기정원	김진숙	김순희	전은숙
아기부(하임)	서금란	고정순	
영아부(하늘씨앗)	1부: 김향순 2부: 황욱자	1부: 김현진 2부: 이동명	문현주
유아부(싹트네)	1부: 유영욱 2부: 최정윤	1부: 오점덕 2부: 오영숙	김수연
유치부(답쟁이)	1부: 권이홍 2부: 강응순	1부: 이영란 2부: 신명식	이호진
유년부(포도나무)	1부: 이동숙 2부: 박기운	1부: 권승님 2부: 이경자	윤대운
초등부(햇살뜨락)	1부: 김성운 2부: 박규택	1부: 문현주 2부: 김화자	최락
소년부(아름드리)	1부: 황남호 2부: 이열	1부: 이희순 2부: 강정녀	방윤주
어와나 커피	임창남		권혁준
어와나 물티			
어와나 T&T	최성진		박요한
교육지원팀	박성은		정요섭

② 청소년 소위원회

사역 부서	팀장	지도권사	교역자
청소년소위원회	홍기협	이희숙	박혜성
중등부(팝콘트리)	지호선	이은순	임경순
고등부(비전트리)	김낙균	윤명희	김주형
학원사역팀	이은영		박혜성
반가운학교	손천숙		
어와나트랙	최성진		박요한

③ 젊은이 소위원회

사역 부서	부서장	지도권사	교역자
20플러스	청년1부	이승일	박지원
	청년2부	손영익	노봉욱
	행정팀	정종국	공광승, 서재욱, 방정훈
30플러스	싱글부	김두용	
	커플부	조영률	고유자
	행정팀	윤의탁	권대선, 주선영, 고윤석

④ 문화스포츠 소위원회

	사역부서	부서장	교역자
문화 사역부		김은성	
	미술팀	신명식	
	성극팀	박인호	
	사진팀	김은성	
스포츠 사역부		나영일	
	축구팀	정권	최용석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테니스팀	이중석	
	등산팀	허병훈	
생활체조팀	황현자		
총괄 지원부	기획팀	김웅진	
	지원팀	이용수	

제직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11)

공동의회 의장: 박원호 / 서기: 김용일

당회 당회장: 박원호 / 서기: 김용일

제직회 의장: 박원호 / 서기: 김유호

구분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교역자	
사역위원회	목양	이지화	예배	김창안	신화식	
			문화예술	박호길(상), 김성구(하)	배현성	
			소그룹	이영자	조정현	
			양육	최상인	조광민	
			미디어	박대길	최용석	
	교육	엄주청	어린이	조성득	박혜성	
			청소년	박중규		
			20플러스	조원호	정재상	
			30플러스	김양자	권대선	
			해외선교	박재준	공광승	
	섬김	김현덕	국내선교	박중순	유기영	
			북한선교	최종명	정요섭	
			복지	장일형	유성훈	
			봉사	김한중	이강찬	
			감사장로: 김원중, 김성배 재정장로: 신정웅 선임행정: 신화식 목회기획: 조광민			
	전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박원호, 김용일, 김현덕,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신정웅, 신화식			
		교회개혁위원회	박원호, 김용일, 이영자, 신정웅, 박중순, 신화식			
		학원협력위원회	김용일, 김관중,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박중규, 박혜성			
행정관리위원회		김용일, 장일형, 박대길, 신화식				
상례위원회		박재준, 김현덕, 최종명, 박중순				
인사위원회		박원호, 김용일, 김현덕, 이지화, 엄주청				
선거관리위원회		김창안, 박대길, 최종명				
예산심의위원회		박원호, 김용일, 김현덕, 박호길, 이지화, 엄주청, 신정웅, 신화식				
목회지원위원회		김용일, 김양자, 조성득				
부설 기관		청소년 사역원	박혜성, 김원중			

목양위원회

예배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예배부	김명훈
안내부	정종국
새벽기도팀	김학식

부서	부서장
세례팀	노환옥
통역팀	나혜원
중보기도팀	이은순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호산나 찬양대	신광이
시온찬양대	권승환
살롬찬양대	최영배
임마누엘찬양대	한승수
할렐루야찬양팀	최재경
주오챔버	최영순

부서	부서장
선교찬양대	김성구
미술팀	강정임
사진팀	서정하
성극팀	손경숙
기획지원팀	홍운식

소그룹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기획팀	강은주
양육팀	장혜정

부서	부서장
행정지원팀	구정숙
은사개발팀	동현수

양육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새가족팀	지유철
12단계성경공부팀	임익수
가정사역팀	
양육클래스팀	김영림

부서	부서장
예수친구사역팀	신영숙
양육기획행정팀	윤성진
피택자교육팀	정준호

미디어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홈페이지/ 스마트폰방송국	남성엽
영상/음향	김은성
기획/정보팀	김낙균

부서	부서장
홍보출판	김홍용
함즐함울	홍기협

섬김위원회

복지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구제팀	이성준
꿈나무팀	윤숙연
녹색팀	이종석
늘푸른대학	정원영
복지팀	김동익
복지기획행정팀	지호선

부서	부서장
사랑나무	유정식, 김금숙
어린이집지원팀	송행근
장애인사역팀	전재윤
전화상담팀	배정선
호스피스팀	왕명숙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교정사역팀	탁동원
국내선교행정팀	박철수
군경선교팀	전선재
농어촌교회팀	방치웅
도시개척교회팀	윤하중
법조팀	정혁진

부서	부서장
의료팀	박일영
이미용팀	김영숙
스포츠선교팀	나영일
영어사역팀(E.M.)	안경상
주한외국인선교팀	최윤철
기관선교팀	강석인

봉사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주방부	이영남
봉사부	탁준한, 김희숙
주차안내부	박석영
서점팀	윤경희
도서실팀	김현희

부서	부서장
행정지원팀	조선연
환경미화팀	김영중
실만한물가팀	김인숙
결혼예식팀	우금순, 김분자

북한선교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하나원팀	김광일
새터민팀	지성호
북한교회준비팀	장득순

부서	부서장
북한마을돌봄팀	박영식
선교지원팀	김성윤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행정총괄팀	변춘석
동남아시아팀	이문영
중앙아시아팀	

부서	부서장
남미유럽팀	강승중
비전트립팀	조철일
증보기도팀	황의완

교육위원회

어린이 분과위원회

부서	1		2	
	부장	지도권사	부장	지도권사
아기정원	박희주	김순희		
하임(아기부)			서금란	김진숙
하늘씨앗(영아부)	김현진	이미화	황옥자	오미혜
싹트네(유아부)	유영옥	오점덕	오영숙	
담쟁이(유치부)	강응순	이영란	이은숙	윤현숙
포도나무(유년부)	박규택	권승님	박기운	정승아
햇살뜨락(초등부)	김복수	문현주	권순영	우일강
아름드리(소년부)	황남효	송경엽	이열	강정녀
어와나 커비	임창남			
어와나 불티	임창남			
어와나 티앤티	최성진	황정매		
교육지원팀	박성은			

청소년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지도권사
팝콘트리(중등부)	이재덕	안경희
비전트리(고등부)	김유석	윤명희
어와나트랙	최성진	황정매
교육지원팀	박성은	

20플러스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지도권사
청년1부	손영익	조명희
청년2부		김혜중
행정팀	박현욱	

30플러스 분과위원회

부서	부서장
행정팀	김두용
싱글커플팀	조영률
지도권사	고유자

청소년 사역원

부서	부서장
교육지원팀	고한규
지도권사	이미영
커리큘럼연구소	이희숙

부서	부서장
학원선교부	이은영
반가운학교	손천숙

사역 및 전문위원회

소속	부서	부서장
재정	경리부	손철규
	계수부	이종복
상례위원회	상례팀	정양재
학원협력위원회	장학팀	이재현

제작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12)

공동의회 의장: 박원호 / 서기: 김완중

당회 당회장: 박원호 / 서기: 김완중

제작회 의장: 박원호 / 서기: 김성운

사역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교역자
목양	김용일	예배	박중순	권대선
		문화예술	김성구	배현성
		소그룹	김성구	조정현
		젊은부부	최상인	임청진
		양육	최상인	조광민
		미디어	박대길	최용석
교육	이영자	어린이	조성득	문현주
		청소년	박종규	박혜성
		청년	조원호	정재상
섬김	김양자	봉사	김한중	이강찬
		복지	김창안	유성훈
		국내선교	장일형	유기영
		북한선교	최종명	정요섭
		해외선교	박재준	공광승
재정위원회: 신정웅 감사위원회: 김재현 선임행정: 정요섭 목회기획: 조광민				

전문위원회

구분	위원장	위원
기획조정위원회	박원호	김완중, 김재현, 김용일, 신정웅, 최상인, 장일형, 박종규, 정요섭
교회개혁위원회	박원호	김완중, 이영자, 김창안, 조원호, 최종명, 김성구, 정요섭
학원협력위원회	이영자	김현덕, 조원호, 박재준, 박혜성
사무국운영위원회	박원호	김완중, 김창안, 김한중, 김성구, 정요섭
상례위원회	조원호	교구상례위원
인사위원회	박원호	김완중, 김양자, 김한중, 최상인, 박중순
선거관리위원회	박대길	조성득, 박중순, 박혜성
예산심의위원회	박원호	김완중, 김용일, 이영자, 김양자, 신정웅, 정요섭
목회지원위원회	김양자	김현덕, 조원호, 박종규
장학위원회	김용일	조성득, 최종명
교육공간위원회	김완중	장일형, 박대길, 박재준, 박종규, 한윤경
요람위원회	박대길	조성득, 박중순, 공광승

위탁사업운영위원회	김완중	김양자, 김창안, 정요섭	
부설기관			
구분	위원장	위원장	위원
국제교육선교센터	박원호	운영팀	최상인, 박종규, 조성득, 박재준, 조광민
		청소년 사역원	박재준, 박혜성
		예수친구사역원	최상인, 조광민
		12단계성경연구원	최상인, 김정형
		교육선교연구소	박재준, 최봉도, 진은현

목양위원회

예배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부서(팀)	부서(팀)장
예배부	장득순	세례팀	노환옥
안내부	정종국	통역팀	니혜원
새벽기도팀	유정식	중보기도팀	이은순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부서(팀)	부서(팀)장
1부 찬양대	임근원	주요챔버	최영순
2부 찬양대	임경수	미술	강정임
3부 찬양대	노대홍	사진	서정화
4부 찬양대	한승수	성극	손경숙
미시오데이	최영배	기획지원	홍운식
할렐루야	최재경		

소그룹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부서(팀)	부서(팀)장
기획	강은주	양육	방순희
행정	구정숙	은사사역	이승일

20,30 젊은부부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2030 젊은부부	김경미

양육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양육기획행정	윤성진
새가족	김동익
가정사역	김인성

부서(팀)	부서(팀)장
양육클래스	윤미숙
피택자교육	김순종

미디어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기획·정보	김낙균
함글함글	홍기협
도서출판	김홍용
홍보출판	장경식

부서(팀)	부서(팀)장
홈페이지·스마트폰방송국	정희봉
영상·음향	김은성
사진자료	서정하

교육위원회

어린이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하임(아기부)	서금란 / 김진숙
하늘씨앗/영아1부	김현진 / 이미화
하늘씨앗/영아2부	황옥자 / 오미혜
싹트네/유아1부	유영옥 / 오점덕
싹트네/유아2부	오영숙 / 이은우
담쟁이/유치1부	강응순 / 이영란
담쟁이/유치2부	이은숙 / 윤현숙
포도나무/유년1부	권이홍
포도나무/유년2부	정승아 / 성순현

부서(팀)	부서(팀)장
햇살뜨락(초등1부)	김복수 / 문현주
햇살뜨락(초등2부)	권순영 / 우일강
아름드리(소년1부)	정준호 / 송경엽
아름드리(소년2부)	임창남 / 윤여금
아기정원	전진희 / 김경미
어와나 커버	
어와나 불티	이동희 / 김향순
어와나 티엔티	
교육지원부	박기운 / 강정녀

청소년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장/지도권사
어와나-트랙	신성철
팝콘트리 중등	이재덕 / 안경희

부서(팀)	부장/지도권사
비전트리 고등	김유석 / 이기원
교육지원	이기원

청년(20,30)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청년1부/행정	박현욱 / 김혜중
청년2부	이현식 / 조희희

부서(팀)	부서(팀)장
청년3부	김두용 / 송용미

섬김위원회

봉사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주방	김선례
커피봉사	탁준한 / 김희숙
주차안내	강석인
서점	윤경희
도서실	김현희

부서(팀)	부서(팀)장
행정지원	조선연
환경미화	강진식
실만한물가	김인숙
결혼예식	우금순 / 김분자

복지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복지기획행정	김병한
복지팀	이상록
구제팀	손철규
호스피스팀	왕명숙
꿈나무	박성은

부서(팀)	부서(팀)장
녹색팀	이종석
장애인사역팀	김익훈
사랑나무팀	유정식
어린이집 지원팀	김대용
전화상담팀	한시은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행정	최병욱
군경선교	전선재
농어촌교회선교	최재규
도시개척교회선교	이상선
기관선교	권성호
교정사역	탁동원
법조	정혁진

부서(팀)	부서(팀)장
의료	변춘석
스포츠사역	나영일
주한외국인선교	여인묵
이미용	김영숙
유소년축구	정 권
영어예배	한근혜

북한선교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선교행정지원	김성윤
하나원사역	이용우
북한주민돕기	박영식

부서(팀)	부서(팀)장
북한이탈주민사역(국내)	지성호
북한이탈주민사역(국외)	조병길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행정총괄	손영익
증보기도	장계영
비전트립	이병직
동남아시아	김진수

부서(팀)	부서(팀)장
중앙아시아	석관징
남미유럽	김기창
케냐	홍완식
해외선교	김민섭

재정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경리부	이종태
계수1부	황의완

부서(팀)	부서(팀)장
계수2부	박인국

국제교육선교센터

부서(팀)	부서(팀)장
센터운영	최성준
예수친구사역원	신영숙
교육선교연구소-케냐	홍완식

부서(팀)	부서(팀)장
교육선교연구소-베트남	홍기협
12단계성경연구원	임익수
청소년 사역원	

청소년 사역원

부서(팀)	부서(팀)장
청소년 사역원	고한규
학원선교	이은영

부서(팀)	부서(팀)장
반가운학교	손전숙

장학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장학팀	김명훈

상례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상례팀	이상욱 / 이혜숙

제직회 부서 담당자 및 교역자 명단(2013)

공동의회 의장: 박원호 / 서기: 최상인
 당회 당회장: 박원호 / 서기: 최상인
 제직회 의장: 박원호 / 서기: 김성윤

구분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사역위원회	목양	박중순	예배	박중순	공광승
			문화예술	김성구	김용웅
			소그룹	지유철	조정현
			2030부부	동현수	임창진
			양육	김유호	최방은
			미디어	김학원	장수현
	교육	이영자	어린이	손천숙	권대선
			청소년	박대길	
			청년(2030)	조원호	정재상
			EM	박재준	사무엘 웨딩턴
			봉사	김한중	이강찬
			복지	김창안	유성훈
	섬김	김양자	국내선교	조성득	홍성욱
			북한선교	조성득	김정형
			해외선교	신정웅	유기영
재정위원회: 박종규 감사위원회: 김완중 선임행정: 공광승 목회기획: 조광민					

구분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교회개혁위) (목회지원위) (25주년준비위)	박원호	최상인, 김완중, 신정웅, 박종규, 공광승
	학원협력위원회	이영자	박대길, 손천숙, 권대선
	사무국운영위원회	박원호	최상인, 김한중, 김성구, 지유철, 공광승
	상례위원회	조원호	교구상례위원, 조정현
	인사위원회	박원호	최상인, 김한중, 박종규, 최종명
	선거관리위원회	박중순	김성구, 지유철, 김유호, 유기영
	예산심의위원회	박원호	최상인, 이영자, 김재현, 김양자, 박종규, 공광승
	장학위원회	최상인	김창안, 조성득, 김학원
	건축위원회(교육공간위원회)	최상인	한윤경, 박종규, 박대길, 박재준, 동현수, 공광승, 권대선
	요람위원회	최종명	조성득, 박중순, 김학원, 박혜성

구분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회	위탁지역운영위원회	최상인	김양자, 김창안, 동현수, 공광승
	지역조정위원회	최상인	인사위원회, 유기영, 공광승, 직전 안수집사회장, 직전 권사회장
	이단대책위원회	김양자	김성구, 손천숙, 김유호, 이강찬

구분	기구	센터(이사)장	조직	담당
부설	국제교육선교센터	박원호	센터운영팀	최상인, 최종명, 박재준, 김유호, 손천숙, 조광민
			교육선교연구소	박재준, 최봉도, 정명원
			예수친구사역원	최종명, 조광민
			12단계성경연구원	김유호, 김정형
			청소년 사역원	손천숙, 박혜성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박원호	상임이사	김창안
			이사	양동훈, 김용일, 유성훈
			감사	박대길

목양위원회

예배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안내1부	김성윤
안내2부	배익환
예배1부	장득순
예배2부	김윤희
통역	최영재

부서(팀)	부서(팀)장
새벽기도	유정식
세례사역	안성봉
성찬준비	이준숙
중보기도	안경희

문화예술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1부 찬양대(호산나)	임근원
2부 찬양대(시온)	임경수
3부 찬양대(살롬)	노대홍
4부 찬양대(임마누엘)	전윤식
미시오데이	최영배

부서(팀)	부서(팀)장
할렐루야	장속희
주요 챔버	최영순
미술	강정임
성극	손경숙
기획지원	박기운

소그룹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기획	강은주
행정	구정숙

부서(팀)	부서(팀)장
양육	방순희
은사사역	이승일

2030 부부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2030 젊은부부	김경미

양육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양육기획행정	윤성진
새 가족	김동익
가정사역	김인성

부서(팀)	부서(팀)장
양육클래스	윤미숙
피택자 교육	박석진

미디어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도서출판 / 홍보출판 함줄함울	장경식
사진사역	서정하

부서(팀)	부서(팀)장
영상·음향, I.T. 행정 (홈페이지, 스마트폰방송국, 전산관리)	남성엽

교육위원회

어린이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장	지도권사	교역자
아기정원	전진희	최귀선	이혜경
하임(아기부)	김진숙	서금란	
하늘씨앗/영아1부	이미화	김현진	이희영
하늘씨앗/영아2부	오미혜	유임순	

부서(팀)	부장	지도권사	교역자
씩트네1/유아1부	오점덕	김종란	김해나
씩트네2/유아2부	이은우	김혜중	
담쟁이1/유치1부	강응순	이영란	전보영
담쟁이2/유치2부	김순희	신명식	
포도나무1/유년1부	권이홍	이송희	이은선
포도나무2/유년2부	정승아	성순현	
햇살뜨락1(초등1부)	최성진	김영희	소은혜
햇살뜨락2(초등2부)	권순영	우일강	홍만우
아름드리1(소년1부)	정준호	송경엽	방윤주
아름드리2(소년2부)	임창남	윤여금	문규호
어와나 커비			
어와나 불티	이동희	김향순, 윤현숙	권혁준
어와나 T & T			
교육지원부	박석영	강정녀	권대선

청소년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장	지도권사	교역자
팝콘트리 중등	홍기협	임미경	김성일
비전트리 고등	김유석	이기원	강현규
어와나-트랙 중등	신성철	조현숙	이준엽
교육지원	이기원		권대선

청년(2030)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장	지도권사	교역자
청년1부/행정	이현식	최재경	
청년2부	김낙균	송용미	정재상
청년3부	김두용	장혜정	

섬김위원회

봉사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주방	박지원
커피봉사	탁준한, 유혜경
주차안내	황남호
서점	유희정

부서(팀)	부서(팀)장
도서실	이승원
환경미화	신영백
실만한물가	문희주
결혼예식	김분자

복지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복지기획행정	김병한
복지	이상록
구제	손철규
호스피스	왕명숙
꿈나무	박성은

부서(팀)	부서(팀)장
녹색	이원철
장애인사역	김익훈
사랑나무	유정식
어린이집 지원	김대용
전화상담	한시은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행정	최병욱
이미용	김영례
법조	정혁진
농어촌교회선교	최재규
도시개척교회선교	이상선
군경선교	이우풍

부서(팀)	부서(팀)장
기관선교	권성호
의료	변춘석
주한외국인선교	여인목
스포츠사역	나영일
유소년축구	정권

북한선교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선교행정지원/북한마을돕기	홍운식
하나원사역	이용우

부서(팀)	부서(팀)장
북한이탈주민사역	조병길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행정총괄	손영익
선교사증보기도	이은순
비전트립	탁동원
동남아시아	김진수

부서(팀)	부서(팀)장
중앙아시아	이재홍
미주유럽	김기창
아프리카	홍완식

재정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경리부	이종태
계수1부	황의완

부서(팀)	부서(팀)장
계수2부	박인국

국제교육선교센터

부서(팀)	부서(팀)장
센터운영	최성준
예수친구사역원	안경상
교육선교연구소-케냐	홍완식

부서(팀)	부서(팀)장
교육선교연구소-베트남	홍기협
12단계성경연구원	최영인
청소년 사역원	

청소년 사역원

부서(팀)	부서(팀)장
청소년 사역부	고한규
학원선교	이은영

부서(팀)	부서(팀)장
반가운학교	이미영

상례위원회

부서(팀)	부서(팀)장
상례팀	이상욱

부서(팀)	부서(팀)장
상례팀	이혜숙

9. 교육목회원 담당 교역자 및 부서장 명단(1991~2013)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1991	영아부	이영신	유마노
	유치부	이낭우	신은선
	유년부	임승희	정승현
	소년부	이진호	이성우
	중등부	최유찬	김소일
	고등부	이건호	성범용
	청년1부		고호성
	청년2부		오용식
1992	영아부	이영신	조문자
	유치부	이낭우	남옥련
	유년부	임승희	하승락
	소년부	이진호	이성우
	중등부	최유찬	박시만
	고등부	이건호	성범용
	대학부		권오승
	청년부		김성식
1993	영아부	이영신	조문자
	유치부	이낭우	남옥련
	유년부	박은주	이진세
	소년부	최원준	정양재
	중등부	이양목	권오승
	고등부	정한조	한윤경
	대학부	장황영	최상순
	청년부	이진호	장승수
1994	영아부	이영신	조문자
	유치부	이낭우	남옥련
	유년부	박은주	이진세
	소년부	최원준	정양재
	중등부	현재규	권오승
	고등부	정한조	한윤경
	대학부	안사무엘	최상순
	청년부	장황영	장승수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1995	영아부	김효숙	조문자
	유치부	이낭우	김경신
	유년부	정한조	최상순
	초등부	김진수	정양재
	소년부	박노양	장승수
	중등부	김성식	김재현
	고등부	최원준	권오승
	청년2부	장경철	서진수
	청년1부	강석영	박양기
1996	영아부		임선자
	유아부		김화진
	유치부	최유진	김갑수
	유년부	김치수	김현덕
	초등부	김진수	정양재
	소년부		장승수
	중등부	김성식	김재현
	고등부	최원준	권오승
	청년2부	강영은	서진수
청년1부	강석영	류달현	
1997	영아부		김원경
	유아부	김인혜	김화진
	유치부	최유진	김갑수
	유년부	임장원	최상인
	초등부	김진수	김진택
	소년부	김원재	나영일
	중등부	최원준	윤좌원
	고등부		김재현
	청년2부	정한조	권오승
청년1부	김원재	류달현	
1998	영아부	이영란	김원경
	유아부	김인혜	김경희
	유치1부		김갑수
	유치2부	최유진	이혜자
	유년부	임장원	최상인
	초등부	김진성	정오석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1998	소년부	손요한	나영일
	중등부	김원재	윤좌원
	고등부	정한조	김재현
	청년2부		남승호
	청년1부	김원재	이병식
1999	영아부	이영란	변아경
	유아부	김인혜	김경희
	유치부	최유진	김영아
	유년부	임장원	최상인
	초등부	유경호	정오석
	소년부	손요한	김현덕
	중등부	전진은	이상경
	고등부	김효숙	류달현
	청년2부	김원재	남승호
	청년1부		이병식
2000	영아부	이영란	김성애
	유아부	최인영	강은애
	유치부	김기주	오세윤
	유년부	박경삼	한병호
	초등부	유경호	강대준
	소년부	김인혜	한득현
	중등부	전진은	백승준
	고등부	김효숙	동현수
	청년1부	김원재	류달현
	청년2부	강치원	최상인
2001	영아부	이영란	김성애
	유아부	최인영	강은애
	유치부	김기주	오세윤
	유년부	박경삼	한병호
	초등부	유경호	강대준
	소년부	김인혜	한득현
	중등부	전진은	백승준
	고등부	김효숙	동현수
	청년1부	김원재	류달현
	청년2부	강치원	최상인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2002	영아부	이영란	김갑수
	유아1부	최인영	이희숙
	유아2부		김원경
	유치부	김기주	강응순
	유년부	박경삼	장일형
	초등부	황병기	최상인
	소년부	김인혜	한득현
	중등부	고승제	조원호
	고등부	김현령	오세운
	청년1부	윤덕영	김대현
	청년2부	강치원	오종세
2003	영아부	이영란	김갑수
	유아1부	최인영	이희숙
	유아2부		김원경
	유치부	추정순	강응순
	유년부	김진경	장일형
	초등부	황병기	최상인
	소년부	김보선	한득현
	중등부	고승제	조원호
	고등부	김현령	오세운
	청년1부	유상렬	
	청년2부	박의일	
2004	통합유아부		최재경
	통합아동부		윤명희
	영아부	정재경	김갑수
	유아부	최인영	유마노
	유치부	추정순	윤현숙
	유년부	김진경	박선화
	초등부	문화근	박지원
	소년부	김보선	김승기
	유소년축구클럽		이용수
	중등부	박의일	박대길
	고등부	김현령	김광호
	교육지원부		신영숙
청년1부	윤은성	동현수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2004	청년2부	유상렬	최상인
2005	통합유아부	김수연	최정운
	통합아동부	우병선	유영옥
	영아부	서정	신관수
	유아부	최인영	유마노
	유치부	김성민	윤현숙
	유년부	김진경	박선화
	초등부	김용철	박지원
	소년부	김종원	김승기
	중등부	이재욱	박대길
	고등부	유성훈	김광호
	청년부	이강혁	최상인, 동현수
	30대사역팀	김현령	박현숙
	AWANA사역팀	유영안	공종서
	유소년축구팀	홍민기	이용수
2006	통합유아부	김수연	최정운
	통합아동부	우병선	이지연
	영아부	주선영	이희숙
	유아부	최인영	박선화
	유치부	김성민	박지원
	유년부	이진화	박기운
	초등부	김용철	강응순
	소년부	김종원	윤성진
	중등1부	이세진	지호선
	중등2부	이재욱	권덕원
	고등부	유성훈	박대길
	청년부	김신영, 이상호	최상인, 동현수
	30대사역팀	김현령	
	교육지원부	홍민기	신영숙
	AWANA사역팀	전미이	최장규
	유소년축구팀	홍민기	이용수
	학원선교팀	김현령	이창성
	청소년 사역본부		김완중
방과후학교	홍민기	이종은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2007	삿트네(통합유아부)	김수연	최정윤
	레인보우(통합아동부)	김성목	이열
	영아부	주선영	이희숙
	유아부	전은숙	권이홍
	유치부	김성민	박지원
	유년부	이희영	박기운
	초등부	최락	강응순
	소년부	신상욱	윤성진
	중등1부	임경순	지호선
	중등2부	채문식	권덕원
	고등부	유성훈	박대길
	청년부	윤은성	동현수
	30대사역팀	김현령	김용진
	교육지원부	정요섭	장혜정
	AWANA사역팀	전미이	최성진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학원선교팀		이창성
	청소년 사역본부	정요섭	김원중
	방과후학교		이종은
2008	삿트네(7세 이하)	김수연	최정윤
	레인보우(초1~6년)	윤대운	이열
	영아부	최민혜	이희숙
	유아부	전은숙	권이홍
	유치부	전재표	박지원
	유년부	이희영	박기운
	초등부	최락	강응순
	소년부	신상욱	윤성진
	중등1부	임경순	지호선
	중등2부	채문식	김성운
	고등부	유성훈	김낙균
	청년부	고운석, 서재욱, 김현령	정재훈
	30대사역팀	주선영, 김현령	김병연
	교육지원부	정요섭	김영림
	AWANA사역팀	전미이	최성진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2008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방과후학교	정요섭	이종은
	학원사역팀		김영숙
	청소년 사역본부		홍기협
2009	어린이 정원	전은숙	김진숙
	아기부		서금란
	영아 1부	최민혜	김향순
	영아 2부		장혜경
	유아 1부	김수연	유영옥
	유아 2부		최정운
	유치 1부	전재표	권이홍
	유치 2부		강응순
	유년 1부	윤대운	이동숙
	유년 2부		박기운
	초등 1부	최락	김성운
	초등 2부		권순영
	소년 1부	이선림	황남효
	소년 2부		이열
	중등부	임경순	지호선
	고등부	김주형	김낙균
	청년 1부	서재욱	이승일
	청년 2부	고윤석	정종국
	청년 3부	공광승	윤의탁
	30 CUP	주선영	김병연
	교육지원부	정요섭	김영림
	AWANA(어린이/중등부)	유영안, 박요한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청소년 사역원		김성배
	학원선교팀	박혜성	김영숙
	반가운학교		이종은
청소년 사역지원팀		홍기협	
젊은이 지원팀	공광승	정재훈	
2010	아기정원	전은숙	김진숙
	아기부(하임)		서금란
	영아1부(하늘씨앗1)	문현주	김향순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2010	영아2부(하늘씨앗2)		황옥자	
	유아1부(씩트네1)	김수연	유영옥	
	유아2부(씩트네2)		최정윤	
	유치1부(담쟁이1)	이호진	권이홍	
	유치2부(담쟁이2)		강응순	
	유년1부(포도나무1)	윤대운	이동숙	
	유년2부(포도나무2)		박기운	
	초등1부(햇살뜨락1)	최락	김성운	
	초등2부(햇살뜨락2)		박규택	
	소년1부(아름드리1)	방윤주	황남효	
	소년2부(아름드리2)		이열	
	AWANA커비	권혁준	임창남	
	AWANA볼티			
	AWANA T&T	박요한	최성진	
	교육지원부	정요섭	박성은	
	중등부(팝콘트리)	임경순	지호선	
	고등부(비전트리)	김주형	김낙균	
	청소년소위원회		홍기협	
	학원사역팀	박혜성	이은영	
	반가운학교		손천숙	
	AWANA트랙	박요한	최성진	
	20PLUS	청년1부	공광승, 서재욱, 방정훈	이승일
		청년2부		
		행정팀		
	30PLUS	싱글부	권대선, 주선영, 고윤석	김두용
		커플부		조영률
		행정팀		윤의탁
	문화사역부	미술팀		김은성, 신명식
		성극팀		박인호
		사진팀		김은성
	스포츠사역부	축구	최용석	나영일, 정권
		유소년축구팀		이용수
		테니스팀		이종석
등산팀		허병훈		
생활체조팀		황현자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2010	총괄지원부	기획팀	김용진
		지원팀	이용수
2011	아기정원	이혜경	박희주
	아기부(하임)		서금란
	영아1부(하늘씨앗1)	이희영	김현진
	영아2부(하늘씨앗2)		황옥자
	유아1부(씩트네1)	김해나	유영욱
	유아2부(씩트네2)		오영숙
	유치1부(담쟁이1)	이호진	강응순
	유치2부(담쟁이2)		이은숙
	유년1부(포도나무1)	정부활	박규택
	유년2부(포도나무2)		박기운
	초등1부(햇살뜨락1)	문규호	김복수
	초등2부(햇살뜨락2)		권순영
	소년1부(아름드리1)	방윤주	황남효
	소년2부(아름드리2)		이 열
	어와나 커비	권혁준	임창남
	어와나 불티		
	어와나 티앤티	박요한	최성진
	교육지원팀	박혜성	박성은
	팝콘트리(중등부)	심진희	이재덕
	찬양	최성기	
	비전트리(고등부)	김주형	김유석
	찬양	차민녕	
	어와나 트랙	박요한	최성진
	교육지원팀	박혜성	박성은
	20PLUS 청년1부	정재상→이정민	손영익
	청년2부		
	행정팀		박현욱
	30PLUS 행정팀	권대선-교윤석	김두용
	싱글커피팀		조영률
	청소년 사역부	박혜성, 류은정	고한규
	학원선교부		이은영
	반가운학교	박혜성, 류은정	손천숙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2012	아기정원	이혜경	전진희
	아기부(하임)		서금란
	영아1부(하늘씨앗1)	이희영	김현진
	영아2부(하늘씨앗2)		황옥자
	유아1부(씩트네1)	김해나	유영옥
	유아2부(씩트네2)		오영숙
	유치1부(담쟁이1)	이호진	강응순
	유치2부(담쟁이2)		이은숙
	유년1부(포도나무1)	정부활	권이홍
	유년2부(포도나무2)		정승아
	초등1부(햇살뜨락1)	소은혜	김복수
	초등2부(햇살뜨락2)	홍만우	권순영
	소년1부(아름드리1)	방윤주	정준호
	소년2부(아름드리2)	문규호	임창남
	AWANA 커비		
	AWANA 불티	권혁준	이동희
	AWANA T&T		
	교육지원부		박기운
	AWANA 트랙	이준엽	신성철
	중등부(팝콘트리)	심진희	이재덕
	고등부(비전트리)	박상현	김유석
	교육지원		이기원
	청년1부	정재상	박현욱
	청년2부	서재욱, 이정민	이현식
	청년3부		김두용
	청소년 사역부	박혜성	고한규
학원선교	박혜성	이은영	
반가운학교	박혜성	손천숙	
2013	아기정원	이혜경	전진희
	하임(아기부)		김진숙
	하늘씨앗/영아1부	이희영	이미화
	하늘씨앗/영아2부		오미혜
	씩트네/유아1부	김해나	오점덕
	씩트네/유아2부		이은우
	담쟁이/유치1부	전보영	강응순
	담쟁이/유치2부		김순희

연도	부서	교역자	부서장
2013	포도나무/유년1부	이은선	권이홍
	포도나무/유년2부		정승아
	햇살뜨락(초등1부)	소은혜	최성진
	햇살뜨락(초등2부)	홍만우	권순영
	아름드리(소년1부)	방윤주	정준호
	아름드리(소년2부)	문규호	임창남
	어와나 커버	권혁준	이동희
	어와나 불티		
	어와나 T & T		
	교육지원부	권대선	박석영
	팝콘트리 중등	김성일	홍기협
	팝콘트리 고등	강현규	김유석
	어와나-트랙 중등부	이준엽	신성철
	교육지원	권대선	이기원
	청년1부/행정	정재상	이현식
	청년2부		김낙균
	청년3부		김두용

10-1. 찬양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명단(1988~1998. 10)

1부 호산나 찬양대(1988~1998. 10)

연도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1988	이용복	함영인		정선인
1989	김응삼	박치용		함영인, 조선미, 정선인
1990	양동훈	박치용		이상록
1991	박용주	박치용		이상록
1992	이창웅	이해중		이상록, 정경희
1993	이창웅	박치용		정경희
1994	정동호	황소연		홍승수
1995		황소연	정경희	홍승수
1996	한득현	김동근	정경희	장현주
1997	한득현	김동근	정경희	장현주
1998	김진규	김동근	정경희, 김은영	장현주

2부 시온 찬양대(1989. 11~1998. 10)

연도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1989	김응삼	박치용		조선미
1990	양동훈	박치용		조선미, 이상록, 홍승수
1991	이창웅	박치용, 이해종		홍승수
1992	임동진	이해종		홍승수
1993	임동진	박치용		정선인
1994	김경빈	박치용		정선인
1995		박치용	임효선	정선인, 정원경
1996	박양기	박치용	임효선	정원경
1997	이종석	박치용	임효선	정원경
1998	이종석	박치용	임효선	정원경

3부 샬롬 찬양대(1994~1998. 10)

연도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1994	양동훈	김영숙		이상록, 홍승수, 조영화
1995		김영숙	임효선	조영화
1996	최창섭	김영숙	임효선	조영화
1997	최두순	김영숙	임효선	조영화, 정상경
1998	최두순	김영숙	임효선	정상경, 조영화

4부 지저스 찬양대(1996~1998. 10)

연도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1996	유중화	권덕원, 박재정	임효선	강정아, 이유진
1997	유중화	박재정	임효선	이유진
1998	윤나리	김우정	임효선	이유진, 최수현

10-2. 찬양대 대장, 지휘자, 반주자 명단(1998. 11~2013)

1부 호산나 찬양대(1998. 10)

연도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1998	김진규	박영주	김은영	장현주
1999	김재현	박영주	김은영, 제갈윤	정지영
2000	김재현	박영주	설진희	
2001	최경호	박영주	설진희, 김시원	
2002	신정웅	박영주	김시원	
2003	신정웅	박영주	김시원	
2004	부정희	박영주	김시원	김연경
2005	부정희	박영주	김시원	김연경
2006	김병철	박영주	김시원	김연경
2007	설영운	박영주	김시원	김연경
2008	설영운	박영주	김시원	김연경
2009	공진권	박영주	김시원	김연경
2010	이일묵	박영주	김시원	김연경
2011	신광이	박영주	김시원, 김은성	김연경
2012	임근원	박영주	김은성, 박예은, 김윤희	남세라
2013	임근원	박영주	김은성, 박예은, 김윤희	남세라

2부 시온 찬양대(1998. 11~2013)

연도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1998	이종석	박치용	임효선	정원경
1999	유중화	박치용	김은영	정원경
2000	유중화	박치용	김은영	
2001		박치용	김은영, 설진희, 김시원, 김선정	
2002	김경빈	박치용	김선정	
2003	김경빈	박치용	송은혜	최수현
2004	정용섭	박치용	송은혜	정선인
2005	정용섭	박치용	송은혜	정선인
2006	최성준	이동훈, 김인수	송은혜, 강인선	정선인, 구자은, 박연희
2007	최성준	김인수	강인선	박연희
2008	박인호	김인수	강인선	박연희

연도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2009	박인호	김인수	강인선	박연희
2010	권승환	김인수	강인선	박연희
2011	권승환	김인수	강인선	박연희
2012	임경수	김인수	강인선	박연희
2013	임경수	김인수	강인선	박연희

3부 살롱 찬양대(1999~2013)

연도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1999		장우형	설진희	
2000	김우림	장우형	설진희, 김진	
2001		장우형	김선정, 은원주	
2002	한상곤	장우형	은원주	
2003	윤좌원	박치용	은원주	
2004	한형석	박치용, 이동훈	은원주	이정미
2005	한형석	이동훈	은원주, 정미경	이정미
2006	김창안	이동훈	정미경, 최세라	이정미
2007	권순영	이동훈	최세라	이정미
2008	권순영	이동훈	최세라	이정미
2009	최영배	이동훈	김나은, 최세라	황순영, 김나은
2010	최영배	이동훈	최세라, 이혜리	김나은, 정이와
2011	최영배	이동훈	이혜리	정이와
2012	노대홍	이동훈	이혜리	정이와
2013	노대홍	이동훈	이혜리	정이와

4부 임마누엘 찬양대(2006. 12~2013)

연도	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2006		이재화	한지윤	유윤정
2007	김익환	이재화, 권덕원	한지윤, 김성희	유윤정, 이지은
2008	김익환	권덕원	김성희	이지은, 채주연
2009	김익환	권덕원	김성희	채주연
2010	김익환	권덕원	김성희	채주연
2011	한승수	권덕원	김성희	채주연

12. 연도별 세례, 입교자 현황(1989~2013)

연월일	세례	입교
1989. 03. 26.	11	-
1990. 04. 08	17	2
1990. 05. 06.	1	-
1990. 07. 01.	1	-
1990. 08. 05.	1	2
1990. 09. 02.	1	-
1990. 10. 07.	1	-
1990. 11. 04.	21	2
1990. 12. 02.	20	3
1991. 03. 17.	3	6
1991. 11. 03.	26	4
1991. 12. 19.	1	-
1991. 12. 25.	1	-
1992. 04. 05.	37	5
1992. 05. 17.	2	-
1992. 06. 24.	1	-
1992. 08. 26.	1	-
1992. 08. 27.	1	-
1992. 09. 28.	1	-
1992. 11. 01.	28	12
1993. 02. 02.	1	-
1993. 02. 19.	1	-
1993. 03. 21	45	7
1993. 05. 16.	1	-
1993. 05. 26.	1	-
1993. 06. 22.	1	-
1993. 11. 14.	65	11
1994. 01. 02.	1	-
1994. 03. 20.	44	12
1994. 10. 23.	19	3
1995. 04. 02.	44	10
1995. 07. 30.	7	-
1995. 08. 16.	1	-

연월일	세례	입교
1995. 10. 22.	30	7
1996. 03. 27.	45	14
1996. 10. 23.	26	3
1997. 03. 26.	43	13
1997. 10. 29.	37	14
1998. 03. 25.	79	16
1998. 09. 30.	32	8
1999. 04. 04.	40	-
1999. 10. 27.	68	4
2000. 04. 16.	41	10
2000. 06. 18.	10	2
2000. 11. 01.	16	4
2001. 04. 04.	1	-
2001. 04. 08.	62	30
2001. 05. 11.	1	-
2001. 11. 14.	43	16
2001. 12. 25.	1	-
2002. 05. 22.	45	9
2002. 11. 20.	16	8
2003. 06. 04.	25	5
2003. 06. 08.	6	5
2003. 09. 07.	1	-
2003. 09. 28.	1	-
2003. 12. 03.	22	2
2003. 12. 07.	4	3
2004. 06. 02.	30	2
2004. 06. 20.	1	6
2004. 10. 31.	6	-
2004. 11. 03.	24	6
2004. 11. 07.	3	-
2005. 02. 02.	1	-
2005. 02. 13.	1	-
2005. 04. 10.	13	24

연월일	세례	입교
2005. 04. 13.	36	7
2005. 06. 15.	16	-
2005. 11. 20.	26	4
2006. 02. 12.	1	-
2006. 03. 05.	1	-
2006. 04. 09.	35	11
2006. 04. 16.	24	22
2006. 09. 07.	1	-
2006. 10. 15.	19	3
2006. 11. 12.	1	-
2006. 12. 24.	7	-

연월일	세례	입교
2007. 04. 08.	39	10
2007. 10. 14.	26	4
2008. 04. 06.	65	15
2008. 10. 12.	63	6
2009. 04. 05.	58	10
2009. 11. 01.	61	6
2010. 04. 04.	41	-
2011. 04. 24.	57	30
2011. 10. 30.	30	13
2012. 04. 15.	33	24
2013. 03. 24.	24	4

13. 교회 조직도(2013)

공동의회					
당회					
사역위원회			전문위원회	부설기관	사단법인
목양위원회	교육위원회	섬김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교회개척위) (목회지원위) (25주년준비위) 학원협력위원회 사무국운영위원회 상례위원회 인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장학위원회 건축위원회 (교육공간위원회) 요람위원회 위탁사역운영위원회 사역조정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국제교육선교센터	섬김과 나눔
예배 문화예술 소그룹 2030부부 양육 미디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 EM	봉사 복지 국내선교 북한선교 해외선교		센터운영팀 교육선교연구소 예수친구사역원 12단계성경연구원 청소년 사역원	노인복지 구제사역 위탁사역

14. 당회원 명단(2013)

교역자	박원호	이강찬	박혜성	공광승	유기영	조정현	유성훈	권대선	조광민	정재상
	임창진	김정형	사무엘	웨딩턴	김용웅	장수현	최방은	홍성욱		
시무장로	이영자	김재현	김완중	김양자	신정웅	김창안	김한중	조원호	최상인	장일형
	박종규	박대길	조성득	최종명	박종순	박재준	김성구	지유철	손천숙	김유호
	동현수	김학원	노봉욱	정종국	강진식	이용수				

15. 서리집사(남) 명단(2013)

강건식	강경식	강경훈	강광석	강광희	강기준	강대수	강동주	강두식	강석구
강신환	강영목	강영주	강용배	강우공	강원준	강응선	강일준	강재구	강정구
강정무	강정석	강정식	강치수	강청운	강홍구	경대현	계봉현	고강국	고경봉
고광현	고기환	고문찬	고문현	고상민	고석빈	고석창	고성호	고승철	고연호
고영수	고영인	고일록	고재만	고재훈	고충정	고충형	고형석	공대열	공영훈
공창주	공태보	공효열	곽광찬	곽노준	곽세호	곽용덕	곽정식	곽종철	구경희
구광우	구남웅	구본석	구본호	구성모	구태호	국주성	권경환	권국주	권기일
권민	권상준	권성대	권성욱	권순찬	권영탁	권영하	권영훈	권오명	권오일
권용선	권용철	권용현	권우용	권춘식	권현국	권혁	권혁주	권혁태	권화일
금원경	김강홍	김건웅	김건호	김경섭	김경수	김경일	김경주	김경준	김경훈
김관민	김광수	김광수	김광수	김광열	김광영	김광훈	김구면	김국일	김국호
김규동	김규상	김근수	김근우	김기달	김기두	김기성	김기승	김기윤	김기태
김기한	김기호	김기환	김길동	김길영	김남영	김남주	김남훈	김대관	김대순
김대용	김대호	김덕수	김덕중	김도연	김도형	김도형	김도훈	김동관	김동구
김동기	김동기	김동렬	김동욱	김동욱	김동원	김동인	김동필	김동학	김동휘
김득수	김명수	김명식	김명욱	김명준	김무영	김문기	김문성	김민구	김민수
김민태	김민호	김범석	김범수	김범신	김범연	김범희	김병수	김병용	김병창
김병준	김복수	김봉룡	김봉준	김봉철	김부현	김삼봉	김삼성	김상균	김상민
김상범	김상열	김상진	김상훈	김석산	김석용	김석훈	김선구	김선구	김선기
김선만	김선용	김선용	김선채	김선희	김성걸	김성규	김성기	김성년	김성민
김성범	김성수	김성원	김성일	김성진	김성태	김성현	김세정	김세준	김세진
김수곤	김수열	김승곤	김승국	김승노	김승민	김승찬	김시성	김식원	김양수
김연수	김연수	김연채	김영	김영관	김영관	김영근	김영만	김영민	김영백
김영빈	김영선	김영소	김영수	김영수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영한	김영홍	김영화	김영호	김영훈	김완기	김완태	김오섭	김요섭	김요한
김용	김용규	김용수	김용오	김용우	김용집	김용철	김용철	김용환	김용환
김우일	김원식	김원일	김원철	김유기	김유남	김유찬	김윤건	김윤석	김은동
김은석	김은수	김응상	김응학	김의수	김의현	김익환	김인규	김인배	김인수
김인철	김일권	김일형	김장근	김장욱	김재동	김재성	김재용	김재웅	김재준
김재중	김재혁	김재호	김재홍	김재환	김정광	김정기	김정만	김정민	김정민
김정섭	김정수	김정식	김정일	김정태	김정한	김정한	김정현	김정호	김정환
김정환	김정훈	김정훈	김정훈	김정훈	김종관	김종구	김종국	김종면	김종석
김종순	김종식	김종연	김종오	김종완	김종우	김종창	김종철	김종태	김종학
김종한	김종현	김종화	김종훈	김주봉	김주욱	김주하	김주한	김준	김준섭
김중식	김중선	김지영	김지원	김지환	김진국	김진권	김진원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	김찬귀	김창근	김창만	김창석	김창수	김창주	김채수	김천식	김천욱
김철중	김철해	김철호	김춘규	김춘택	김치홍	김태건	김태성	김태성	김태식

김태영	김태웅	김태우	김태욱	김태욱	김태원	김태원	김태진	김태형	김태환
김태환	김택균	김평철	김필재	김학덕	김학렬	김한규	김한수	김한영	김해기
김현창	김현기	김현석	김현수	김현욱	김형기	김형석	김형세	김형수	김형욱
김형일	김형철	김형태	김호길	김호탁	김홍원	김 환	김환경	김회용	김호석
김호태	김 훈	김희동	김희석	김희수	김희수	나승순	나승주	나인철	나현순
남규현	남기태	남상보	남영웅	남조령	노기석	노봉주	노상준	노용환	노원명
노재현	노정진	노준호	노중헌	노형준	도재성	류근택	류남석	류승태	류승호
류영길	류진현	마웅해	마원숙	마정대	마정일	맹영정	맹해석	모철민	문경남
문광순	문광은	문달국	문대현	문명국	문상식	문영목	문재우	문정열	문제갑
문종국	문지원	문진수	문창엽	문태주	민경용	민경춘	민달홍	민대환	민병준
민성원	민지환	박경배	박경범	박경유	박경준	박규철	박근재	박기웅	박남현
박노경	박노중	박대진	박동규	박동제	박동준	박동천	박래현	박 룡	박민규
박민호	박방언	박병천	박상규	박상규	박상돈	박상실	박상철	박상태	박상현
박상현	박상호	박상희	박성갑	박성근	박성식	박성일	박성용	박성일	박성준
박성진	박성환	박성환	박수장	박순명	박순오	박순용	박승민	박승현	박승훈
박시완	박양석	박영선	박영성	박영수	박영오	박영준	박영진	박영호	박영호
박오호	박용덕	박용완	박우성	박 응	박용세	박원진	박원철	박원표	박원호
박유환	박윤행	박은주	박인용	박인호	박일재	박장서	박재만	박재창	박재철
박재현	박정국	박정근	박정선	박정준	박정천	박정호	박제근	박종길	박종렬
박종욱	박종학	박종혁	박주현	박준명	박준영	박준영	박준영	박준우	박준형
박준호	박지권	박지현	박찬근	박찬진	박찬호	박창렬	박창석	박창진	박철수
박철호	박춘남	박치영	박치현	박태웅	박태진	박필상	박학모	박해천	박현배
박현준	박현지	박형규	박혜웅	박호정	박홍근	박홍준	박화식	박희상	박훈순
박홍수	반철수	방광호	방보원	방성일	방영갑	방정길	방종영	배규섭	배기호
배명한	배용신	배인근	배종수	배태민	배택수	배현모	배현식	배형근	배홍모
백광균	백근식	백기복	백상홍	백석주	백수현	백승선	백승찬	백승현	백운학
백종윤	백종진	백 진	변경수	변성은	변재호	변종현	변준환	복문수	복항수
부정희	서건이	서경국	서동수	서동필	서범하	서병운	서병탁	서상권	서상현
서용석	서용식	서용원	서우석	서일범	서정국	서정렬	서종욱	서철수	서태열
서호경	서호성	석동하	석동현	석민석	석영득	석영수	석현수	선강준	선우명호
선진영	설동춘	설영운	설화석	성기훈	성낙규	성낙훈	성복남	성석제	성수용
성수일	성운경	성찬경	성천경	성하봉	소원영	손선일	손영근	손영남	손용환
손정호	손종채	손지환	송경호	송기정	송대숙	송대중	송동학	송봉영	송석빈
송성의	송수학	송승택	송영민	송영일	송우혁	송위섭	송윤근	송인보	송인찬
송재길	송재승	송종문	송종홍	송채남	송충한	송태연	송태형	송희경	신건영
신관식	신구식	신권철	신남규	신동근	신동오	신동인	신동일	신동혁	신상걸
신석철	신성식	신성철	신승현	신연철	신영길	신용각	신용원	신용일	신을섭
신인상	신인수	신일준	신장균	신재범	신재은	신재을	신재준	신재흠	신중철
신찬승	신태균	신태수	신태철	신행익	신희철	신희성	신희수	심광주	심동만
심동희	심봉규	심상준	심성보	심 영	심원일	심재훈	심태선	안강현	안건혁

안광희	안동섭	안명순	안상기	안상철	안상호	안성만	안승원	안승호	안영훈
안 용	안웅섭	안임상	안재명	안정수	안정호	안종율	안종태	안 준	안종신
안창무	양 곡	양광섭	양극영	양기철	양동욱	양만희	양병택	양선기	양성호
양승태	양영승	양재승	양재열	양재웅	양재현	양현식	양현주	여진기	엄명용
엄문섭	엄인섭	엄인호	엄재상	엄종섭	엄해영	엄효섭	여승억	여인모	연제원
엄홍섭	오광순	오금석	오기영	오기정	오남성	오만수	오상범	오성택	오세원
오세일	오순문	오승영	오영식	오영진	오영환	오일량	오재경	오정석	오정인
오제연	오종원	오치민	오태진	오택현	오필환	오혜석	오홍석	옥정근	옥평권
온정권	온정호	왕세윤	왕영용	우병욱	우상구	우승교	우영찬	우호정	원덕연
원유홍	원인기	원종철	위승훈	유경호	유기남	유길수	유대성	유만균	유명기
유범석	유병균	유병혁	유선근	유선종	유성구	유성훈	유승렬	유승운	유승하
유신식	유영석	유용석	유원근	유익형	유인석	유재건	유재남	유재민	유재철
유재호	유제명	유종선	유중재	유창열	유철민	유충우	유형식	유호선	윤갑수
윤경구	윤근철	윤길순	윤남태	윤덕순	윤덕희	윤민영	윤병선	윤삼용	윤석훈
윤성욱	윤성태	윤수현	윤수호	윤순영	윤여현	윤영민	윤영범	윤운식	윤재준
윤재환	윤정길	윤종현	윤창배	윤태영	윤한홍	윤해룡	윤혁민	윤홍근	은장기
이강년	이강수	이강우	이강현	이건복	이건수	이경두	이경렬	이경섭	이경수
이경호	이광식	이광철	이규한	이귀영	이규성	이규식	이근상	이근영	이근우
이근춘	이기덕	이기원	이기한	이길형	이남영	이남용	이남홍	이대성	이대수
이대용	이덕로	이도현	이도희	이동민	이동은	이동재	이동현	이두일	이명국
이명복	이문영	이 민	이민기	이병진	이병철	이봉구	이봉성	이봉훈	이부의
이상권	이상길	이상범	이상선	이상연	이상열	이상엽	이상용	이상철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상혁	이상호	이상훈	이 석	이석규	이석범	이석호	이성규
이성남	이성로	이성봉	이성순	이성욱	이성원	이성환	이성훈	이성훈	이세창
이세호	이승도	이승죽	이수암	이수암	이수영	이수재	이순석	이승균	이승락
이승룡	이승룡	이승용	이승재	이승훈	이신형	이영관	이영규	이영기	이영남
이영복	이영석	이영석	이영태	이영호	이영훈	이용기	이용우	이우철	이우풍
이운우	이원경	이원구	이원용	이원준	이유진	이 은	이은규	이은대	이은복
이의훈	이의배	이인구	이인규	이인수	이인영	이인중	이일목	이재근	이재열
이재영	이재원	이재익	이재일	이재점	이재준	이재학	이재형	이재호	이재홍
이재훈	이재희	이정권	이정두	이정명	이정석	이정수	이정용	이정우	이정준
이정철	이정춘	이제원	이제환	이종걸	이종근	이종두	이종민	이종섭	이종섭
이종원	이종원	이종익	이종일	이종훈	이주영	이주용	이주윤	이주철	이주한
이준엽	이준영	이준우	이준창	이준호	이지원	이 진	이진범	이진상	이진영
이찬영	이찬영	이창기	이창복	이창섭	이창수	이창순	이창연	이창우	이창조
이철용	이철욱	이철희	이총화	이통희	이학선	이학수	이학영	이한세	이혁기
이현우	이현준	이형근	이형석	이형진	이혜만	이호경	이호수	이호준	이호풍
이홍재	이환정	이후광	이훈신	이휘규	이홍순	이희대	이희영	임강식	임규석
임동목	임동섭	임두순	임성균	임성수	임성훈	임수홍	임승근	임승우	임영규
임영남	임영상	임유성	임의건	임의철	임정식	임종성	임종우	임채룡	임채홍
임재홍	임철연	임해영	임현교	임현형	임현석	임형필	임환재	임홍권	장경건

장경식	장관주	장근열	장기태	장기훈	장대희	장도수	장도순	장동준	장동현
장문호	장 민	장민기	장병남	장병욱	장병천	장병호	장세한	장수만	장수호
장순길	장순욱	장순웅	장양순	장영진	장은균	장원영	장일재	장 준	장지하
장학수	장혁기	전근오	전기욱	전기표	전대진	전돈수	전상기	전상영	전상훈
전성일	전성훈	전세열	전승권	전영재	전왕식	전우주	전윤식	전은석	전은성
전인평	전인혁	전일하	전종철	전태용	전태주	전형규	전호동	전홍신	전갑산
정경진	정광근	정광우	정광우	정구민	정 권	정금환	정기영	정기훈	정낙영
정난영	정남주	정도일	정동위	정동호	정만희	정문홍	정박문	정병록	정병수
정봉진	정상근	정상기	정상기	정상우	정상욱	정상천	정상현	정석원	정석훈
정성권	정성문	정성진	정성희	정세열	정세준	정수호	정순여	정순완	정승원
정승원	정영구	정연택	정영남	정영우	정우진	정원락	정유상	정윤석	정윤섭
정윤용	정윤환	정의연	정익준	정인규	정일용	정임철	정재선	정정태	정종기
정중석	정지규	정진연	정찬길	정창록	정창현	정창환	정태경	정태원	정한철
정혜영	정혁진	정현석	정현진	정 호	정호열	정호영	정호영	정홍석	정희봉
정희석	정희재	정희전	정희철	조경순	조광호	조기식	조대윤	조동운	조명식
조백현	조병구	조봉순	조삼현	조상태	조성근	조성권	조성기	조성범	조성식
조성호	조성훈	조세종	조세훈	조수연	조승기	조승현	조여승	조영진	조영호
조완섭	조용수	조용호	조용호	조운석	조원석	조인수	조재형	조재호	조종태
조지만	조지현	조창목	조창주	조청일	조충식	조현우	조형돈	조경복	주광남
주현석	지영재	지영철	지완구	지태정	지형민	지형주	지희진	진기섭	진대오
진성준	진성한	진태홍	차상면	차상혁	차성호	차원석	차유철	차현준	채규오
채규인	채수권	채승완	채영철	채인석	채화석	천경우	천인성	천찬영	천형석
최강식	최광섭	최광준	최규욱	최규정	최낙경	최남철	최덕수	최덕호	최덕호
최동춘	최동휘	최명수	최명의	최명철	최병룡	최병주	최병진	최병철	최병하
최봉수	최봉준	최상남	최상림	최석규	최석주	최성길	최성년	최성원	최승현
최양수	최영우	최 영	최영기	최영림	최영재	최용문	최용석	최용재	최우철
최운철	최원녕	최원모	최원준	최윤철	최윤호	최인선	최장운	최재원	최재호
최정규	최종륜	최종원	최종호	최준호	최준호	최준희	최진석	최진원	최진하
최창섭	최창환	최정평	최춘휴	최충남	최치윤	최혁준	최현배	최현섭	최현진
최혜원	최호림	최홍정	최현열	추교룡	추병용	추현필	탁동원	탁은석	팽우선
편석환	하성규	하성찬	하태봉	하태준	한갑수	한경식	한경춘	한경희	한구영
한규진	한만세	한명석	한명수	한병호	한상웅	한상호	한세정	한승수	한신영
한 영	한영대	한영태	한우진	한욱현	한 일	한재완	한재진	한재희	한주호
한 철	한철욱	한태수	한형길	한호정	함상주	함 식	함영강	함훈식	허경만
허병천	허병훈	허수진	허순영	허완수	허우진	허정대	허종렬	허창희	허병택
현상철	현성호	홍기표	홍기호	홍상근	홍성민	홍성민	홍성봉	홍성수	홍성욱
홍성호	홍성호	홍순익	홍순태	홍승길	홍승민	홍영근	홍영식	홍완식	홍원선
홍재우	홍종익	홍종표	홍종표	홍대표	화정민	황규성	황규의	황대성	황두섭
황득수	황문영	황민영	황보종연	황선덕	황성근	황성민	황성식	황연섭	황영균
황영철	황우상	황우성	황우형	황 원	황인형	황정웅	황정웅	황진호	황춘만
황태동	황태연	황태희	황해도	황현식	황현철				

16. 서리집사(여) 명단(2013)

가향란	강경숙	강경애	강경자	강경희	강귀자	강기선	강란아	강명화	강문자
강미선	강미순	강미정	강민영	강민주	강보정	강복희	강석란	강선규	강선옥
강선화	강수림	강숙향	강순규	강순자	강순주	강순희	강승미	강신영	강연옥
강영애	강옥향	강옥희	강윤자	강은희	강인선	강정순	강정순	강정원	강정임
강종순	강주희	강창은	강춘경	강평순	강현선	강현수	강현숙	강혜경	강혜주
강화진	강희정	경재영	고경미	고경임	고경희	고동희	고명숙	고민숙	고선애
고순실	고신열	고영아	고원희	고인희	고재연	고재월	공갑춘	공숙자	공은경
공정애	곽미영	곽미진	곽민진	곽병남	곽성희	곽수연	곽순자	곽정실	곽정임
곽호순	곽희주	구미종	구보경	구수미	구은경	구자은	구준실	구하원	구현숙
권경미	권경희	권계화	권도연	권미정	권미향	권미혜	권민인	권석자	권숙진
권순미	권순학	권양순	권영수	권윤의	권이양	권종선	권주리	권지연	권지원
권지현	권진아	권진영	권혁순	권혁임	권혜성	권혜진	금경인	금선경	금수경
기인양	기정윤	길계선	길근주	길재모	길정애	김강산	김건자	김경래	김경미
김경미	김경선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숙	김경순
김경순	김경순	김경순	김경순	김경식	김경심	김경애	김경자	김경주	김경진
김경향	김경혜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관희
김광숙	김광숙	김광희	김광희	김귀연	김국한	김 근	김근옥	김금자	김금주
김기남	김기영	김기영	김기자	김나연	김나영	김나영	김나일	김나현	김난숙
김난희	김난희	김남선	김남수	김남옥	김남희	김노미	김덕남	김덕임	김덕주
김동순	김두산	김라미	김려원	김려자	김로운	김말선	김매자	김명림	김명숙
김명애	김명옥	김명옥	김명자	김명자	김명자	김명중	김명진	김명화	김명희
김명희	김문정	김문정	김미	김미경	김미경	김미관	김미란	김미령	김미선
김미성	김미성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아	김미연
김미연	김미연	김미열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정	김미현	김민서	김민성
김민아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백희	김보미	김보선	김보연	김복경
김복래	김복희	김봉신	김삼화	김상미	김상희	김서명	김서연	김선경	김선래
김선미	김선미	김선애	김선영	김선예	김선의	김선향	김선호	김선화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경	김성란	김성례	김성숙	김성아	김성옥	김성은	김성은
김성희	김성희	김소담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송월	김송희
김수나	김수미	김수민	김수연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경	김숙연	김숙자	김숙자	김숙자	김순양	김순옥	김순의	김순자	김순자
김순자	김순자	김순자	김순정	김순희	김시경	김신애	김신영	김신영	김신옥
김신혜	김아리	김애경	김애라	김애란	김애란	김애리	김애식	김애옥	김애진
김 연	김 연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 영	김 영	김영경	김영란	김영란
김영례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민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심	김영심	김영애	김영애	김영옥	김영옥	김영은	김영임	김영자	김영조
김영주	김영주	김영진	김영화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예경	김예진
김오정	김 옥	김옥분	김옥자	김옥주	김옥진	김용미	김용미	김용숙	김용신

김용자	김용화	김용희	김우석	김원림	김원미	김원진	김월규	김유경	김유순
김윤미	김윤정	김윤진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의성	김이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애	김인영	김인옥	김인자	김인자	김임순	김장희	김재실	김재은	김재화
김점분	김점심	김정권	김정란	김정미	김정선	김정선	김정숙	김정숙	김정신
김정애	김정애	김정애	김정애	김정원	김정은	김정자	김정자	김정자	김정자
김정화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종민	김종화	김종희	김주갑	김주영
김주영	김주향	김주현	김중희	김지나	김지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숙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현
김지혜	김진숙	김진옥	김진형	김진형	김진희	김진희	김창순	김춘자	김태숙
김평수	김하분	김하연	김학순	김한나	김한아	김해숙	김해정	김행자	김향남
김향숙	김현경	김현경	김현미	김현미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순	김현신
김현아	김현이	김현주	김현주	김형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란	김혜민	김혜성	김혜성	김혜수	김혜숙	김혜순	김혜심	김혜영	김혜영
김혜원	김혜정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홍경	김홍래	김화원	김효숙	김효정
김효진	김홍녀	김희명	김희선	김희선	김희선	김희선	김희수	김희수	김희순
김희영	김희영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주	김희진	김희희	나명일
나미순	나성희	나성심	나수미	나예정	나정지	나지숙	나향숙	나현주	나혜원
남경미	남광자	남궁옥귀	남명순	남미란	남미숙	남상조	남옥희	남윤희	남재순
남정식	남현희	남현숙	남혜경	노 경	노경희	노미정	노수연	노수희	노신정
노언경	노은미	노은옥	노인숙	노정애	노주희	노지현	노현정	노혜숙	노혜영
도레미	도애란	독고의선	독고정숙	동경숙	두정숙	라영미	류경숙	류경학	류승희
류은희	류정림	류향희	류혜경	류희선	맹윤경	맹현정	맹윤경	맹은경	명 진
모금미	목기숙	문경선	문경수	문광원	문명희	문명희	문상미	문선영	문숙이
문순희	문윤실	문윤자	문윤희	문은주	문은희	문인수	문인자	문정연	문하영
문현숙	문현숙	민갑남	민경내	민경란	민경미	민경자	민성홍	민숙기	민연식
민은혜	민은희	민인홍	민현순	박경미	박경희	박계향	박광수	박귀례	박귀희
박규순	박근정	박기연	박달생	박동선	박명기	박명란	박명숙	박명식	박명하
박명희	박명희	박무화	박문숙	박문희	박미선	박미성	박미애	박미영	박미진
박미향	박민영	박병선	박봉옥	박사영	박상에	박서란	박서윤	박선애	박선영
박선자	박선주	박선희	박선희	박선희	박선희	박설리	박성순	박성연	박성연
박성옥	박성혜	박성희	박세영	박소영	박소영	박송자	박수경	박수아	박수정
박수희	박순민	박순애	박순영	박순옥	박순정	박승희	박시영	박신순	박신영
박신정	박신향	박에드나	박연정	박연주	박연희	박영란	박영미	박영미	박영선
박영숙	박영숙	박영순	박영아	박영희	박영희	박옥자	박원향	박유자	박유진
박유진	박윤경	박윤수	박윤영	박윤정	박은경	박은경	박은경	박은이	박은주
박은진	박인숙	박인정	박임수	박재숙	박재연	박정미	박정수	박정숙	박정숙
박정순	박정실	박정심	박정아	박정연	박정유	박정은	박종희	박주연	박주영

박주향	박주현	박지수	박지연	박지형	박지혜	박지혜	박지훈	박진식	박진영
박진영	박진희	박진희	박찬금	박찬연	박찬영	박창진	박채운	박춘서	박춘옥
박태숙	박태임	박태희	박현옥	박현숙	박현숙	박현신	박현연	박현주	박현주
박현희	박형란	박혜란	박혜성	박혜성	박혜원	박혜원	박혜진	박효일	박효정
박희자	반영은	반재은	반정애	방기정	방성금	방연숙	방은혜	방정원	방정임
방현아	방혜령	방화숙	배경숙	배명자	배미연	배미영	배수경	배숙자	배애리
배영애	배윤선	배윤희	배은영	배인호	배일미	배점숙	배정선	배정아	배희숙
백광자	백미경	백미열	백선미	백선아	백수연	백수현	백영도	백예은	백옥동
백은주	백인준	백정예	백지연	백진선	백진선	백혜자	백혜진	백희숙	변미애
변복자	변영미	변옥희	변재숙	변지연	변혜연	서경희	서수정	서숙경	서순자
서순자	서승연	서양원	서영임	서옥숙	서옥자	서은영	서재화	서정란	서정미
서정선	서정순	서정아	서정은	서채원	서현석	서현옥	서혜경	서희송	석영민
선우경진	선우서영	설정희	설진희	설혜신	설혜원	성경남	성기자	성미희	성숙자
성여제	성영자	성옥환	성은이	성인지	성정화	성주은	성지은	소봉순	소순임
소옥민	소은정	소재숙	손경애	손나원	손미경	손미정	손상례	손상수	손세라
손윤아	손은미	손은혜	손정숙	손진선	손치아	손태향	손현신	손현아	손현주
손현희	송경순	송미경	송미숙	송부용	송선주	송성열	송수미	송수영	송숙자
송순아	송영주	송영현	송영희	송용란	송은경	송은혜	송은혜	송은희	송정화
송주호	송지수	송지영	송지혜	송현지	송혜련	송혜연	송혜진	송화용	송 희
신계영	신광희	신금규	신기숙	신덕주	신동이	신말희	신명숙	신미향	신상화
신상희	신선희	신성희	신수미	신수연	신양선	신연화	신우신	신은주	신은진
신일심	신자영	신정수	신정순	신정옥	신종숙	신중임	신지민	신지선	신지연
신지연	신지영	신혜숙	신화숙	신희란	신희숙	신희자	신희재	신경화	심명희
심미경	심미수	심미숙	심선숙	심성임	심수정	심연옥	심은정	심인식	심재경
심정숙	심현경	심희자	안경미	안계석	안계숙	안길자	안길자	안남희	안다복
안명숙	안명신	안명자	안미숙	안민숙	안선숙	안수경	안승민	안승진	안영찬
안옥철	안 정	안종희	안주현	안지희	안혜경	안혜린	안혜정	안혜진	안효숙
안희경	안희준	양경숙	양경아	양미정	양서영	양소영	양순덕	양영진	양우경
양유진	양윤정	양은경	양정순	양정희	양정희	양지혜	양혜라	양혜림	양혜민
양혜정	엄맹순	엄미영	엄미혜	엄순남	엄주영	엄진이	엄현숙	엄혜숙	여명순
여윤정	연양원	염선옥	염하생	오경신	오경은	오계순	오교민	오명순	오명자
오미란	오선옥	오선자	오선희	오성자	오성자	오세심	오세정	오송미	오수명
오수정	오수진	오숙경	오순옥	오순화	오순희	오영순	오영주	오윤희	오윤숙
오은순	오인순	오인혜	오재금	오정숙	오정희	오창환	오현숙	오현영	오현주
오혜경	왕미자	왕유정	왕진영	용옥자	우민정	우선자	우연정	우진애	우해숙
우현정	원명희	원선화	원신혜	원은영	원인숙	원정희	원재원	원종숙	원종순
유 경	유경진	유경희	유귀향	유금실	유남주	유덕미	유명숙	유명숙	유명자
유명희	유무애	유미원	유보라	유소연	유수민	유수안	유수영	유순근	유순의
유영선	유영숙	유영인	유영희	유영희	유영희	유월순	유윤실	유윤정	유은경
유은정	유은하	유은희	유인영	유재민	유 정	유정아	유종숙	유주희	유준호

유지은	유필순	유현미	유현숙	유현자	유현주	유혜림	유혜용	유화영	유화향
유효림	유희라	유희정	육광수	육영주	육정임	육현정	육효순	윤건숙	윤경아
윤경희	윤귀선	윤귀원	윤금자	윤기선	윤기옥	윤남희	윤병주	윤보경	윤보혜
윤복희	윤상아	윤석춘	윤선영	윤성화	윤소진	윤숙영	윤신애	윤여숙	윤영경
윤영옥	윤영옥	윤영자	윤영혜	윤영희	윤옥남	윤유정	윤인로	윤인숙	윤일순
윤정옥	윤정옥	윤정형	윤종복	윤종순	윤지연	윤지연	윤지영	윤진영	윤초자
윤혜영	윤현희	윤혜진	윤호식	윤희진	윤희진	은정아	이가영	이강옥	이경란
이경미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아	이경원	이경이	이경진	이경하
이경해	이경화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계숙	이계숙
이관식	이관자	이광숙	이광실	이광원	이귀자	이규미	이규영	이규향	이규화
이금순	이금옥	이금진	이금희	이금희	이기현	이길수	이길순	이난영	이남수
이남희	이덕희	이동선	이동숙	이두선	이래정	이말봉	이명선	이명숙	이명숙
이명숙	이명순	이명순	이명정	이명희	이명희	이모란	이문자	이문주	이미경
이미경	이미령	이미리	이미숙	이미순	이미연	이미영	이미화	이미희	이민숙
이민숙	이민숙	이민아	이민자	이민자	이민정	이민정	이배옥	이범자	이병숙
이복희	이부자	이상남	이상란	이상숙	이상연	이상옥	이상휘	이선민	이선민
이선배	이선순	이선순	이선옥	이선옥	이선자	이선자	이선주	이선주	이선진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미	이성민	이성자	이성자	이성희	이세경	이세영
이세원	이소연	이소영	이송미	이송자	이수경	이수영	이수진	이수희	이수영
이숙자	이숙재	이숙희	이숙희	이숙희	이 순	이순란	이순옥	이순옥	이순표
이순희	이승란	이승아	이승연	이승연	이승주	이승희	이승희	이시은	이신숙
이신아	이 양	이양진	이여윤	이연숙	이연숙	이연주	이연희	이연희	이영규
이영래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선	이영섭	이영수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순	이영애	이영애	이영애	이영옥	이영자
이영진	이영혜	이영혜	이영화	이영화	이영환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예슬	이예원	이예지	이 옥	이옥동	이옥란	이옥란	이옥련	이옥순	이옥자
이왕희	이용림	이용선	이우영	이유리	이유미	이유진	이윤숙	이윤정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윤주	이윤행	이윤희	이은경	이은미	이은민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실	이은실	이은아	이은영	이은영	이은주	이은주	이은파	이은희
이인숙	이인숙	이인숙	이인숙	이인순	이인희	이인희	이임숙	이재경	이재선
이재숙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 정	이정경	이정례	이정미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선	이정선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원	이정은	이정의
이정자	이정자	이정진	이정혜	이정혜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종민	이종숙	이종애	이주경	이주선	이주영	이주영	이주혜	이주희
이지선	이지숙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지희
이 진	이진경	이진경	이진명	이진성	이진영	이진원	이춘실	이춘인	이춘일
이춘화	이춘희	이춘희	이태희	이향림	이해자	이행자	이향주	이현미	이현숙
이현숙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련	이혜성	이혜수
이혜숙	이혜숙	이혜숙	이혜숙	이혜실	이혜영	이혜영	이혜원	이혜원	이혜자
이혜정	이혜정	이혜정	이혜진	이호진	이효순	이효주	이희영	이희원	임경숙

임경숙	임경의	임경자	임경자	임경희	임광희	임금숙	임금순	임기원	임동영
임명화	임미숙	임미지	임미향	임미화	임미희	임상미	임석란	임선주	임성희
임소연	임애란	임양미	임연옥	임영숙	임영자	임영희	임은미	임은숙	임재숙
임정미	임정애	임정자	임지혜	임진이	임채영	임현숙	임혜정	임혜현	임호영
임희성	장경선	장경숙	장경희	장계희	장광희	장규리	장란희	장명숙	장명자
장명희	장민정	장복현	장부순	장부운	장부임	장성실	장성유	장소자	장수애
장수자	장 수	장숙희	장순옥	장영미	장영숙	장유정	장유진	장윤경	장윤정
장윤주	장은숙	장은언	장은주	장은혜	장이순	장인숙	장인지	장지선	장찬옥
장춘예	장현영	장현주	장현주	장혜경	장혜숙	장혜숙	전경빈	전경숙	전경원
전경자	전기숙	전다영	전민주	전상숙	전선덕	전선자	전선희	전수경	전숙정
전영남	전영오	전용순	전은희	전점홍	전정자	전지원	전진숙	전형신	전혜정
정경미	정경민	정경애	정경임	정경자	정경혜	정경화	정경화	정광연	정구인
정구하	정귀연	정남희	정동안	정란희	정말란	정 명	정명선	정명숙	정명순
정명옥	정명희	정미송	정미영	정미희	정미자	정미후	정민자	정보라	정보름
정보혜	정복용	정선영	정선화	정선희	정성진	정세리	정소영	정순임	정순자
정승미	정승혜	정양자	정연옥	정연희	정영란	정영란	정영미	정영선	정영선
정영섭	정영숙	정영숙	정영인	정영하	정옥영	정옥점	정우연	정윤경	정윤경
정은자	정은주	정은주	정인애	정자영	정재영	정재용	정정희	정제니	정주영
정주화	정주희	정지영	정지영	정지현	정진원	정창임	정최희	정춘화	정태란
정태임	정필례	정하선	정해임	정향선	정현정	정현주	정혜경	정혜란	정혜림
정혜영	정혜인	정혜자	정혜정	정효숙	정효순	정효정	정희경	정희선	정희숙
정희주	조경란	조경옥	조규희	조균실	조동자	조명미	조명화	조명화	조몽라
조병주	조병희	조보연	조보영	조선영	조성숙	조성숙	조성윤	조성자	조소영
조수옥	조시내	조연수	조연주	조연진	조영미	조영숙	조영은	조영임	조영희
조옥주	조옥희	조원미	조유경	조윤경	조윤정	조윤주	조윤진	조은경	조은경
조은미	조은숙	조은영	조은화	조인순	조임순	조재현	조점숙	조정숙	조정숙
조정숙	조정애	조정희	조주현	조지숙	조현갑	조현정	조혜영	조혜현	조효순
조희숙	조희진	주선미	주선옥	주순자	주양순	주영숙	주윤정	주정순	주혜선
지미라	지민정	지수정	지영민	지영혜	지춘화	진선영	진소이	진신정	진영원
차민주	차성아	차세영	차영주	차정숙	차정은	차진경	차화숙	창현정	채미애
채민숙	채새봄	채수주	채아란	채영애	채윤경	채은화	채정병	채주연	천금미
천옥현	천은미	천정희	천호주	천희성	최경미	최경원	최광자	최광자	최규영
최금주	최길자	최남영	최덕현	최돈희	최동희	최명란	최명숙	최명애	최명운
최문숙	최미애	최미옥	최미현	최봉자	최선경	최선미	최선아	최선영	최선진
최선희	최성남	최성미	최성연	최성이	최성희	최소연	최소영	최소영	최소원
최송자	최수옥	최수정	최순이	최아름	최애숙	최양의	최연식	최연호	최영미
최영수	최영숙	최영순	최영원	최영진	최영희	최옥선	최옥현	최원경	최원정
최원주	최유림	최윤숙	최윤영	최윤정	최윤정	최윤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경
최은실	최은실	최은진	최은희	최은희	최의숙	최인영	최임희	최재경	최재춘
최정례	최정숙	최정원	최정원	최정은	최정혜	최정희	최종숙	최종현	최진경

최진선	최학순	최향란	최항목	최현경	최현숙	최현정	최현주	최혜영	최혜욱
최혜정	최화숙	최화자	최희순	최희연	최희정	추미현	탁윤주	탁희주	표희자
하기자	하명화	하미숙	하민주	하선희	하세은	하세희	하영숙	하인선	하치남
하희라	한경숙	한경순	한경자	한규연	한근혜	한기원	한기향	한미선	한민자
한복실	한상숙	한상옥	한선혜	한선화	한성숙	한송이	한 숙	한순덕	한시은
한신혜	한애숙	한여옥	한영애	한영희	한영희	한윤숙	한윤정	한은자	한은희
한은희	한정선	한정혜	한지영	한태현	한혜련	한혜리	한혜숙	한혜숙	한혜숙
한혜정	한효정	함경숙	함선영	함은경	함종희	함혜련	함효심	함희경	함희숙
허가화	허건순	허명주	허명희	허미정	허세민	허숙림	허연자	허정순	허화자
현선희	현옥희	현자선	형남실	홍경아	홍계옥	홍광숙	홍금숙	홍성희	홍수연
홍순재	홍순혜	홍신영	홍연자	홍영숙	홍영주	홍영혜	홍영희	홍유희	홍윤기
홍은경	홍은선	홍은아	홍정미	홍정미	홍정순	홍정희	홍지수	홍화숙	홍희선
홍희진	황 경	황경숙	황경애	황마리아	황미경	황보숙	황보연희	황석미	황성원
황세원	황소영	황영임	황옥지	황유자	황유정	황은영	황은혜	황의순	황재연
황재원	황정선	황지연	황진아	황진희	황찬희	황춘임	황현자	황현주	황혜순
황혜영	황혜정	황혜정							

17. 역대 남선교회 회장 명단

연도	구분	회장
1989	제2	양동훈
1993	제2	이성우
1994	제2	한정웅
	제3	장승수
1995	제5	박시만
1996	제1	이지화
	제2	조원호
	제3	김성구
	제4	이종갑
	제5	황정연
1997	제1	황기언
	제2	허승락
	제3	조성득
	제4	윤성진
	제5	황정연
1998	제1	문창복
	제2	한상근
	제3	김완중
	제4	김용진
	제5	정일웅
1999	제1	한윤경

연도	구분	회장
1999	제2	박시만
	제3	강윤식
	제4	임익수
2000	제3	김경덕
2002	제1	이병식
	제2	신정웅
	제3	이충길
	제4	정철길
2003	제1	엄주청
	제2	한득현
	제3	이충길
	제4	이태윤
2004	제2	한득현
	제3	이열
	제4	이태윤
2005	제1	신정웅
	제2	김창안
	제3	박용운
	제4	이태윤
2007	제1	오종세
	제2	이종태

18. 역대 여전도회 회장 명단

연도	구분	회장
초 대	제1	김지자
1995	제1	이정화
	제2	이동순
	제3	우일강
	제4	윤진숙
	제5	김원미
1996	제1	전영선
	제2	김경희

연도	구분	회장
1996	제3	박순실
	제4	심유석
	제5	김영림
1997	제1	장순현
	제2	김자성
	제3	송경혜
	제4	최재경

연도	구분	회장
	제5	안종실
1998	제1	임선자
	제2	이인숙
	제3	서은숙
	제4	최민애
	제5	송숙자
1999	제1	고초순
	제2	이경희
	제3	남미경
	제4	박성자
	제5	여태숙
2000	제1	배홍자
2001	제1	이남수
	제5	이광실
2002	제1	지정희
	제2	김성애
	제3	오점덕
	제4	박서연
	제5	엄혜숙
	제6	이은경
2003	제1	전은숙
	제3	오영실
	제4	강승희
	제5	신연식
	제6	이상숙
2004	제1	이건호
	제2	김정선
	제3	김금숙
	제4	이동명
	제5	김선업
	제5	이일금
	제6	김연희
2005	제1	정옥춘
	제2	박순희
	제3	이승숙
	제4	김고미

연도	구분	회장
2005	제5	이일금
	제6	한 경
2006	제2	은영희
	제3	백숙자
	제4	채은화
	제6	이주영
2007	제1	김소희
	제2	고정순
	제3	고유자
	제4	심미숙
	제5	천정희
	제6	함혜련
2008	제1	이동순
	제2	이혜숙
	제3	박경란
	제4	이강옥
	제6	김혜경
2009	제1	김운선
	제2	구정숙
	제3	한경림
	제4	김애란
	제5	조유경
	제6	김혜경
2010	제1	김성애
	제2	이승주
	제3	유석희
	제4	문희주
	제5	유희정
	제6	박성연
2011	제1	도복희
	제2	이송희
	제3	이덕례
	제4	한경숙
	제5	강희정
	제6	황혜정
2012	제1	나경희

연도	구분	회장
2012	제2	나경희
	제3	
	제4	
	제6	
2013	제1	황옥자

연도	구분	회장
	제2	김영조
	제3	김영남
	제4	김경희
	제5	권진영
	제6	유명희

19. 역대 장로회 회장 명단

연도	이름
1996	김도묵
1997	김도묵
1998	홍근용
1999	홍근용
2000	홍근용
2001	양동훈
2002	양동훈
2003	양동훈
2004	김소일

연도	이름
2005	김소일
2006	권오승
2007	문창복
2008	김수호
2009	박호길
2010	이지화
2011	엄주청
2012	이영자
2013	김완중

20. 역대 권사회 회장 명단

연도	이름
초대회장	김영숙
1994	김경신
1995	원정희
1996	김영희
1997	이정원
1998	김은정
1999	강정혜
2000	이영자
2001	노봉옥
2002	김양자
2003	이동순

연도	이름
2004	김영아
2005	장순현
2006	박경옥
2007	김지자
2008	이영남
2009	고선옥
2010	박영남
2011	백숙자
2012	장혜정
2013	김고미

21. 역대 안수집사회 회장 명단

연도	이름
1996	성백술
1997	이정순
1998	이지화
1999	오세윤
2000	황기언
2001	이성우
2002	하승락
2003	한정웅
2004	정양재

연도	이름
2005	김한중
2006	김동일
2007	한형석
2008	박동수
2009	윤의탁
2010	윤의탁
2011	이 열
2012	박규택
2013	김동익

정
의

1987

1987. 09. 22. 이재철 전도사와 사교회 출신 7가정이 성경공부 시작

1988

1988. 06. 24. 교회창립 준비 기도회

1988. 06. 26. 교회창립 예배

운영위원회 구성: 이재철, 김도목, 양동훈, 이성우, 이몽복, 이재원, 홍근용, 황기언

1988. 07. 17. 청년회 창립

1988. 07. 29. 월례기도회 시작

1988. 10. 23. '나눔의 주일' 시작

1988. 11. 01. 예배 장소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YMCA 2층 소망실로 이전
새벽기도회 시작

1989

1989. 01. 08. 주일학교 시작(아동부, 중고등부)

1989. 03. 10. 구역성경공부 시작

1989. 03. 26. 첫 성찬식 및 세례식(집례: 임영수 목사)

1989. 05. 07. 주일예배를 오후 4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

1989. 05. 21. 2부 예배 신설

1989. 08. 06. '성경읽기 대행진' 시작

1989. 09. 19. 평양노회 가입

1990

표어 "내 앞에서 행하라"(창 17:1)

1990. 04. 01. 주일예배 장소를 YMCA 4층 대강당으로 변경

1990. 05. 06. 연석회의(참가자: 장로, 안수집사 피택자, 1996. 1월까지)

1990. 09. 02. 교육관 입당(대봉빌딩 지하)

1990. 10. 14. 제1회 임직식(장로: 3명, 안수집사: 4명, 권사: 2명)

1990. 11. 25. 제1차 당회

- 1991 표어 “나를 보내소서”(사 6:8)**
1991. 01. 06. 현금함 비치 및 주보에 현금자 명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
1991. 01. 27. 중고등부 분리
1991. 04. 14. 청년부 1, 2부로 분리
1991. 06. 23. 창립 3주년. 제1대 이재철 담임목사 위임. 임직식(안수집사: 4명, 권사: 12명)
1991. 08. 시무장로 임기제 결정
-
- 1992 표어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1992. 01. 05. 주보에서 교역자와 장로 명단 삭제
1992. 03. 01. YMCA 2층을 교육관으로, 대봉빌딩 지하를 선교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1992. 05. 17. 현금 무기명 시행 결정
1992. 06. 21. 창립 4주년. 임직식(장로 3명, 안수집사 5명, 권사 2명/ 장로임기제 서약)
1992. 11. 주님의교회 단독 선교사로 이인호 목사 중국 파송(1993. 10. 3.)
-
- 1993 표어 “너희는 먼저”(마 6:33)**
1993. 02. 14. 전임 부교역자와 교육전도사 임기 결정(당회록)
1993. 02. 28. 성찬식을 매월 마지막 주일 시행하기 시작
1993. 06. 27. 창립 5주년. 임직식(안수집사 5명)
-
- 1994 표어 “바라보라”(창 13:14)**
1994. 02. 06. 3부 예배 신설
1994. 06. 26. 창립 6주년. 임직식(장로 3명, 안수집사 2명, 권사 2명)
-
- 1995 표어 “자유를 공포하라”(레 25:10)**
1995. 06. 25. 창립 7주년. 임직식(안수집사 2명, 권사 3명)
1995. 07. 30. 황성수련원 개원 예배

- 1996 표어 "기억하라"(전 12:1)**
1996. 01. 07. 청년부 예배 시작
1996. 03. 03. 주일 낮예배 정신여고 4층 소강당으로 장소 변경
1996. 05. 09. 담임목사 임기 10년으로 당회 의결, 안수집사와 권사 임기제 결정(당회록)
1996. 06. 23. 창립 8주년. 임직식(안수집사 3명, 권사 4명)
1996. 08. 함줄함을 창간
1996. 10. 13. 예배설교를 극동방송(2003. 3월까지)과 인터넷을 통해 방송
-
- 1997 표어 "예비하라"(눅 3:4)**
1997. 01. 13. 제1회 성경통독 수련회
1997. 05. 15. 교회학교 교사-학부모 기도회 시작
1997. 06. 22. 창립 9주년. 임직식(장로 4명, 안수집사 9명, 권사 10명)
1997. 07. 13. 교회 홈페이지 운영 시작(www.lord-church.or.kr)
1997. 08. 05. 정신학원 강당 건축 기공예배
-
- 1998 표어 "새 일을 행하라"(사 43:18~21)**
1998. 06. 21. 제1대 이재철 담임목사 사임(10년 시무)
- 창립 10주년. 임직식(장로 1명, 안수집사 2명, 권사 1명)
1998. 11. 01. 정신학원 대강당 '김마리아회관' 입당예배 및 대강당 기증식
- 주일 낮예배를 정신여고 대강당에서 2부로 드리기 시작
1998. 12. 06. 제2대 담임 임영수 목사 부임
-
- 1999**
1999. 01. 01. 교회 행정장정 시행
1999. 04. 11. 3부 예배 신설
1999. 05. 16. 제2대 임영수 담임목사 위임
1999. 06. 27. 창립 11주년
1999. 10. 10. 임직식(장로 1명, 안수집사 1명, 권사 1명)

2000

2000. 01. 02. 매월 1일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전교인 금식운동 시작
 2000. 06. 25. 창립 12주년. 임직식(장로 1명, 안수집사 8명, 권사 10명)
 2000. 07. 08. 안수집사, 권사 임기제 폐지
 2000. 11. 19. 대강당 헌당예배

2001**표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

2001. 01. 07. 청년부 예배와 저녁 찬양예배를 4부 청년 찬양예배로 통합(오후 1시 30분)
 2001. 06. 24. 창립 13주년. 임직식(장로 3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2001. 08. 05. 통합 유아예배 시작

2002**표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

2002. 01. 27. 성찬식을 홀수 달 마지막 주일과 교회 주요 절기에 시행하기 시작
 2002. 06. 26. 홍경환 목사 태국 선교사로 파송
 2002. 06. 30. 창립 14주년. 임직식(장로 2명, 안수집사 13명, 권사 16명)
 2002. 08. 31. 제2대 임영수 담임목사 사임
 2002. 12. 22. 중예배실 및 교육 공간 준공 감사예배

2003**표어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창 9:13)**

2003. 01. 01. 제3대 담임 문동학 목사 부임
 2003. 02. 07. 교회 영어 이름 변경: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약자: PCL
 2003. 02. 09. 중축 중강당 및 교육 공간 기증
 2003. 05. 25. 제1회 무지개축제
 2003. 06. 08. 제3대 문동학 담임목사 위임
 2003. 06. 29. 창립 15주년. 교회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 변경(www.pcltv.org) 및 개편
 2003. 09. 07. 제1기 유소년 축구클럽
 2003. 09. 14. 2, 3부 예배 영어 동시통역 시작
 2003. 09. 28. 5층 도서관 개관

- 2004 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행 1:8)**
- 2004. 02. 09. 논산 육군훈련소 선교사역 시작
 - 2004. 03. 07. 통합아동부 예배 시작
 - 2004. 03. 27. 장로 임기를 13년에서 안식년 없이 10년으로 변경
 - 2004. 05. 01. '실만한 물가' 개관
 - 2004. 06. 27. 창립 16주년. 임직식(장로: 10명, 안수집사 14명, 권사 11명)
 - 2004. 12. 04. 어와나클럽 시작
- 2005 표어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창 37:5)**
- 2005. 03. 12. 방과후학교 시작
 - 2005. 03. 27. 영어예배 시작(English Ministry)
 - 2005. 04. 17. 30CUP 사역 시작(Caring for Unreached People)
 - 2005. 05. 29. 4부 전도예배 "오늘"(2006. 8월 20일까지)
 - 2005. 06. 14. 중량노인종합복지관 위탁경영하기로 결의
 - 2005. 06. 26. 창립 17주년. 임직식(안수집사 7명, 권사 8명)
 - 2005. 12. 11. 제1호 번식 교회 '길가에교회' 파송식 및 창립예배
- 2006 표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시 32:11)**
- 2006. 02. 19. '푸른초장' 개장
 - 2006. 06. 25. 창립 18주년. 임직식(장로 2명, 안수집사 8명, 권사 8명)
 - 2006. 09. 12. 제3대 문동학 담임목사 사임
- 2007 표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시 32:11)**
- 2007. 06. 17. 제4대 담임 박원호 목사 부임
 - 2007. 06. 24. 창립 19주년. 임직식(장로: 6명, 안수집사 35명, 권사 37명)
 - 2007. 10. 28. 제4대 박원호 담임목사 위임

- 2008** 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2008. 03. 05. 12단계 성경공부(2012. 5월 4일까지)
2008. 03. 28. '어린이정원' 개설
2008. 06. 29. 창립 20주년. 임직식(장로 4명, 안수집사 29명, 권사 28명)
선교사 파송(서정운 목사, 윤영수 선교사, 김미숙 선교사)
2008. 08. 31. 응급진료실 개원
- 2009** 표어 "주 안에서 하나라 우리 함께 기뻐하세!"(시편 133:1)
2009. 04. 05.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학교 개설
2009. 04. 19. 발달장애 및 자폐 장애인을 위한 '사랑나무' 개교 예배
2009. 05. 08. 겨자씨 모임 시작
2009. 06. 15. 송파구 독거 어르신 죽 배달 사역 시작
2009. 06. 28. 창립 21주년. 임직식(장로 2명, 안수집사 19명, 권사 21명)
교회 로고 변경
홈페이지 www.pctv.org으로 변경
2009. 09. 22. 제1기 늘푸른대학
- 2010** 표어: "예수의 친구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라"(요 15:15)
2010. 01. 19. 가락분동 어린이집 위탁운영 시작
2010. 03. 2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시작
2010. 06. 27. 창립 22주년. 임직식(장로 1명, 안수집사 24명, 권사 24명)
2010. 09. 12. "예수친구사역" 시작
- 2011** 표어: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눅 23:38)
2011. 01. 28. '주님의교회 출판부' 출판사 등록
2011. 06. 12.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설립
2011. 06. 19. CBS TV 방송설교 시작
2011. 06. 26. 창립 23주년. 임직식(장로 1명, 안수집사 21명, 권사 21명)
최병관 선교사 베트남 파송
2011. 06. 30.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시작
2011. 08. 14. 제2호 번식 교회 "J주님의교회" 파송식 및 창립예배

- 2012** **표어: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2012. 01. 01. 주님의교회 정관 시행
2012. 04. 20.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에바다' 예배 신설
2012. 06. 24. 창립 24주년. 임직식(장로: 5명, 안수집사 18명, 권사 20명)
2012. 07. 26. 케냐 장로교대학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선교센터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12. 08. 12. 베트남 총회와 기독교 교육을 위한 선교센터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 2013** **표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
2013. 03. 18.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 공간 건축 착공예배
2013. 06. 23. 창립25주년. 임직식(장로 4명, 안수집사 18명, 권사 16명)